

文鮮明先生말씀選集

333

머 리 말

世界平和統一家庭聯合 會長 黃 善 祚

문선명 선생, 16세에 하늘로부터 인류 구원의 소명(召命)을 받으신 후 일생을 오직 일념으로 천도(天道)를 중심삼고 살아 오신 분! 선생은 스스로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버런 문에게 재산이 있다면 나를 위한 고생보다 공적으로 고생한 것, 그것밖에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누구보다도 더 고생하려고 했습니다. 섭리사적인 입장에서도 누구보다도 더 고생하려고 하였습니다. …… 선생님은 지금까지 나라로부터, 세계로부터 술한 반대와 핍박을 받아 왔습니다. 미국에서 반대를 받았고, 기독교와 유대교, 공산당까지 반대를 하였습니다. 역사 이래 세계가 이렇게 달라 붙어서 한 사람을 없애 버리겠다고 공격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런 면에서도 세계적인 챔피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욕을 먹으면서도 옥살박살나지 않고 또 망해 버리지 않았습니다. 추호의 미동도 없이 더욱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 레버런 문은 인류를 해방하고, 영계를 해방하고, 지옥을 해방하고, 또 하나님을 해방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선집 제105집 101~103페이지 참조)

선생의 삶은 한마디로 규정하면 ‘고난 그 자체’입니다. 이 고난의 성격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선생은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소망했던 그 재림주이며 구세주이고 인류의 참부모로 오셨습니다. 이미 세계 185개국에서 선생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참자녀의 길을 가기 위해 참가정의 이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선생의 자기정체성(自己正體性)은 말씀과 삶을 통해 검증이 되어집니다. 그분에게는 세상에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신과 인간, 역사와 세계의 제 문제가 그분의 말씀 속에서 해명이 됩니다. 성서에 예언된 새 말씀의 약속은 그분 속에서 성취되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 말씀은 ‘생명성’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선생의 말씀은 ‘스스로의 삶에 대한 해석’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 자체가 곧 진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심, 곧 성육(成肉)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삶이 곧 진리이며 ‘말씀’이라는 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독자께서는 선생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위대성을 이해하리라 확신합니다. 선생의 말씀의 경지는 너무 높고 깊어서 다 헤아릴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세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째, 선생은 말씀과 삶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啓示)해 주셨습니다. 즉, 침묵과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인간이 악의 혈통을 갖고 있기에 자녀이되 자녀라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통,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처절하게 소외되신 슬픈 하나님께서 선생은 ‘말씀하시게’ 하셨습니다. 교권과 교리, 그리고 현란하게 치장된 건물 속에 갇혀서 침묵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게’ 하였고, 인류의 부모이되 부모로서 찾아오지 못하신 하나님을 ‘부모되게’ 하셨기에 선생은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체(啓示體)’이십니다.

둘째로, 선생은 인간을 무지와 혼돈으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고력이 있고,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으며, 스스로의 존재 자체도 다 해명하지 못한 비극적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 인간

은 독자적 존재가 아니고, 타자(他者)와 떼어 수 없는 상호의존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성을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선생은 궁극적 해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천도(天道)를 지키시는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본보기 노정을 보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 넘치는 살아 있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선생은 만물세계를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지음 받은 모든 사물 하나하나는 고유한 가치를 가진 개성진리체(個性真理體)입니다. 창조본연(創造本然)의 인간의 주관을 받음으로 그 가치가 완전히 발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만물은 탄식하였던 것입니다. 선생께서는 말씀을 통해 만물세계에 대한 창조본연의 가치를 밝혀 주셨고, 인간을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케 하여 만물 해방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류의 영원한 참부모로 오신 문 선생님 내외분은 오늘도 세계 만방에서 말씀을 끊임없이 하시며, ‘부모의 심정으로 종의 몸을 쓰라’ ‘위하여 살라’는 가르침을 실체적 삶으로 본을 보여주시고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을 상속시키시기 위해 수고하십니다.

또한 선생께서는 생명의 말씀과 숭고한 삶 그리고 실적을 통해 마침내 새천년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찾아 봉헌하시고, 이 땅에 축복가정왕으로 안착하셨습니다. 그리고 평화세계인 천일국, 제4이스라엘국 곧 평화의 왕국을 향해 평화유엔을 창설하시고 세계를 하나의 심장권으로 묶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접하는 독자제위께서도 천일국의 주인이 되어 평화왕국 건설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

차 례

| | |
|-------------------------|-----|
| 머리말 | 3 |
| 정오정착(正午定着) | 9 |
| 정오정착의 길 | 86 |
|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 | 118 |
| 국경선 철폐와 8단계 사랑 | 147 |
| 조국광복의 기수가 되라 | 175 |
| 4차 아담권시대와 우리의 갈 길 | 280 |

정오정착(正午定着)

<기 도> 사랑하는 아버님, 오늘은 2000년 9월 24일, 제3차 천국에 입적할 수 있는 부인들의 특별수련회를 마감하는 날이 되오며,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1999년 6월 13일을 중심삼고 성인과 살인마들을 공히 형제지인연을 갖추어 참부모님을 모시고 천지 만물과 더불어 하늘 부모를 모실 수 있는 축복의 혜택을 내려 준 지 일년여가 지났사옵니다.

그 동안 지상세계와 영계의 복잡한 모든 문제를 정비하기 위해 하늘과 땅이 하나되어, 천지부모가 일심일체가 되어 이 배후를 정리하고, 하늘과 땅이 본연의 창조이상의 기준을 세우기 위하여 피조세계의 타락한 이후 전체의 환원을 선포하고, 제4차 아담권 심정문화세계를 출발할 수 있는 선포를 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은사를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역사시대,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를 거쳐오는, 타락한 이후의 섭리관적인 한을 품은 천지부모가 이 땅 위에 있었음을 인류는 알지 못한 채, 인류를 지도하고 있고 인류를 이와 같은 하늘과

2000년 9월 24일(日), 천주청평수련원.

* 이 말씀은 제3차 입적을 위한 축복가정 부인 특별수련회 주일 경배식 때 하신 것으로, 332권에 수록해야 하나 편집상 본 권에 수록하였으며,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습니다.

이별하게 만들어 놓은 그 존재인 악마까지 알지 못한 채 무지에 떨어져, 지금까지 도탄 중에서, 기나긴 역사를 고통 가운데에서, 신음 가운데에서, 구속 가운데에서 해방을 바라보던 이 모든 전부를 참부모가 이 땅 위에 보내심을 받아 가지고 타락한 동기로부터 타락한 실제와 타락한 이후의 모든 세계의 혈통이 잘못된 이후 역사적인 인류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리에 떨어졌다는 것을 알았사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마음과 몸의 세계에 경계선이 생겼고, 아담 해와 부부의 인연 가운데에도 경계선이 생겼고, 부모를 중심삼은 자녀,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경계선이 생겨 가지고 탄식의 한을 품고 투쟁의 역사를 겪어 나온 사실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기나긴 투쟁의 역사를 거쳐 가지고 수많은 국경선을 조성하였고, 수많은 인류의 모든 생활과 문화 배경에 국경선이 생겨난 것을 정비해야 할 하늘이 얼마나 불쌍하고 고독스러웠고 적막한 한을 품고 나왔는가를 몰랐던 것을, 참부모가 하늘의 비밀과 땅의 비밀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침해가 중천에 떠서 낮이 되고 하늘의 날을 맞이하여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여 전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늘 부모를 모시고 땅의 승리적 부모가 하나가 되어서, 천지부모 일심일체가 되어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삼고 정착할 수 있는 축복받은 가정의 무리를 이 땅 위의 온 인류를 넘어 행할 수 있는 출발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을 성사시켜 가지고 사탄 권한의 혈통적 모든 것을 정비하여 해방적인 축복의 천지부모의 혈통적 인연을 연결시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은사를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사랑을 중심삼은, 참부모를 중심삼은, 참혈통을 중심삼은 역사적인 주류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을 모신 가정으로부터 중

죽민죽국가세계·천주까지, 지옥과 천상세계에 막혔던 모든 것을 다 열고, 지금까지 있었던 낙원 세계, 중간영계, 그 다음엔 지옥까지 철폐해 가지고, 하나님이 자유자재로 영계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기쁨의 창조이상을 홀로 느끼지 못하였던 것을 전체를 대표하여 자녀들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하늘나라의 해방과 지옥 해방을 갖춘 그런 기준이 지상에서 상대 조건으로 일체화될 수 있는 통일적 국가 이념과 세계 이념을 이어받아 가지고 넘어설 수 있는 때를 맞이하게 해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때를 맞이하여 유엔을 중심삼은 새로운 하늘땅을 대신한 대표 국가 형성을 위해서 모든 국경지대를 해체해 버리고 철폐하고 평화의 기지로서 확대하여, 대륙을 넘어 이 지구성 전체가 당신이 직접 주관, 주도할 수 있는 사랑의 왕권을 세워, 만우주 전체가 당신의 사랑을 위해 존재함을 각자 스스로 자랑하면서, 하늘나라의 가정과 하늘나라의 주권을 중심삼고 존재하는 영광의 사실을 들어서 하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늘 앞에 영광 돌리는 만우주 존재를 바칠 수 있는, 총생축헌납물을 바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였사옵니다.

통일가의 축복받은 모든 가정들은 그 가정이 새로이 해방받는 것과 더불어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 이 고개를 넘어 하늘의 사랑에 새로이 접붙이는 가정과 국가와 세계를 연결시킴으로 말미암아, 제3해방을 이루어 아담이 타락이 없었던 본연의 천국과 직결할 수 있는 시대를 맞게 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과정에 있었던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의 모든 담들을 털어 제1차 교회 축복, 국가 축복, 세계 축복의 인연을 재현하여, 최후에 국가의 고개를 넘어 세계로 갈 수 있는 가정적 일족을, 해방의 지상·천상·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혈족을 중심삼은 사랑의 하나님의 심정문화세계를 창건할 수 있는 시대를 맞게 하여 주신 은사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이 이 자리에 모아 가지고 3시대에 부족했던 모든 것과

이 40년간의 축복받은 이후에 부족했던 모든 것을 참부모님의 사랑과 홍진군의 자녀의 사랑을 합해 가지고 이들을 새로이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신 이 날을 맞게 하여 주신, 부인 입적 특별수련회를 허락하여 주신 은사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어머니들이 아들딸과 갈라졌고 아들딸을 중심삼고 형제가 갈라졌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국가에 국경이 생긴 동시에 천상세계에 수많은 국경이 생긴 것을 3시대의 해방권 축복을 갖춤으로 말미암아 개인으로부터 종족민족국가천주 전체 하늘의 보좌까지 막혔던 담을 헐어 버리고, 누시엘, 천사장, 사탄 마귀를 굴복시켜 가지고 그 일족들을 이 3시대 승리의 축복받은 혈통적 자녀들, 가정들이 되게 해주셨사옵니다.

이 가정들로 말미암아 영계 육계에 있는 모든 이들이 정착해 가지고 하늘에 슬픔을 남겼던 것을 청산할 수 있는 초종교적인 성인들이 하나 되어서 예수를 중심삼고 영계의 홍진군이 대표하고, 지상에서는 참부모를 중심삼고 축복가정들이 대신 일체 일체가 되어서 천지부모 앞에 효자 효녀의 가정을 대표한 축복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 수련식과 더불어 발표하고자 하는 모든 전체를 승리의 날로, 역사적인 전환의 날로 새로운 표준을 중심삼고 수직적인 천상세계를 향하여 직행할 수 있고, 수평적인 통일의 이 세계를 향하여 직행할 수 있어 가지고 하늘 참부모와 땅의 참부모가 천지부모의 참된 부모가 되시어서, 사랑의 혈연적 관계를 묶어 가지고 천상세계, 지상세계, 만우주 해방권을 선포하여, 하늘 천지부모를 모셔 가지고 영원 무궁토록 당신이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지상천국 이념을 중심삼아 가지고 당신의 창조이상을 총주도하여 승리적 주권 왕으로서 천세 만세 주관할 수 있게, 만우주 존재가 시봉하고 전체가 순응, 절대복종할 수 있는 자유 해방의 지상천국 세계로 전진할 것을 참부모의 이름으로 간절

히 바라오면서 선포를 하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말 씬> 오늘은 ‘국경선 철폐와 참사랑의 실천’을 혼독회 하자구요.

「오늘 아침에는 지난 2000년 8월 18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세계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목은 ‘국경선 철폐와 참사랑의 실천’입니다. (정원주 이사)」

국경을 철폐해야 하나님의 창조이상이 실현돼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몸과 마음의 국경선, 부부의 국경선, 부자지관계의 국경선, 형제관계의 국경선, 종족의 국경, 민족의 국경, 세계의 국경, 천상세계 하늘나라와 지옥의 국경, 인간세계의 모든 상대적 실권선인 국경을 철폐해 버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국경을 철폐해야 하나님이 창조이상으로 했던 모든 것이 자유로운 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개인에서부터 방향을 잡고 세계 끝까지 갔다 돌아와 가지고, 그 다음에는 중앙이 있으면 하늘나라의 몸 마음이 하나된 일체적 남자 여자가 하나돼 가지고 가정적인 일체권을 이뤄 이것을 중심삼고 종족민족... 8단계 천상의 보좌까지, 하나님 왕좌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국경이 전부 다 정비돼 가지고 천지의 전체가 하나돼서 영적 육적 심신 일체권을 중심삼고 해방된 자유의 인류가 되어 가지고 하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천지의 사탄까지도 굴복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할 때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으로 창조했는데 통일적 사랑의 이상권을 잃어버렸던 것을 비로소 천지부모를 중심삼아 가지고 완전히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할 수 있는 입장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천지부모님이

뉘아 준 종적 기준과 횡적 기준을 자유로이 상속받아 가지고 생활이념으로 하여 여러분이 국경선이 없는 해방의 자리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됐기 때문에, 이 모든 축복가정들을 새로이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를 중심삼고 타락할 때 여자가 먼저 타락해 가지고... 여자가 타락한 이후에 개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투쟁의 역사가 시작된 제2 타락한 이 모든 것을, 참부모가 와 가지고 지상의 모든 담들을 털어야 되는 거예요. 담으로 막혀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개인이 어떻게 가고, 가정이 어떻게 가고, 나라와 세계가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을 모르던 것을 참부모가 와 가지고 천상의 비밀과 지상의 비밀을 완전히 해명해 가지고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을 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어떻게 가고 지상세계는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 가르쳐 줘 가지고, 하나님과 참부모를 중심삼고 혈연적 인연을 중심삼고 하지 못한 그 사랑의 전통을 연결시켜 가지고 새로운 부모님의 핏줄을 중심삼고 해방적 이 지상세계와 천상세계의 축복가정을 연결시켰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소원 완성, 신약시대의 소원 완성, 성약시대의 소원이 완성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을 해와가, 신부가, 여자가 책임 못 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 실패, 신약시대 실패, 성약시대 실패했던 모든 전부를, 참부모가 이 땅 위에 와 가지고 역사적인 모든 전부를, 종적 횡적으로 영클어져 가지고 방향을 갖추지 못하던 것을 비로소 90각도의 방향을 갖춰 가지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통하더라도 그 방향을 사탄이 반대하지 못하는 해방권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축복가정들을 다시 입적시키는 놀음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어머니가... 어머니가 복귀돼야 돼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복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오시는 참아버지가 혼자 와 가지고 지

상에서 참어머니를 세우는 거예요. 어머니를 찾아 가지고, 어머니를 해방해 가지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한의 짐을 지웠던 모든 것, 몸 마음에 국경선이 생기고, 가정·종족·민족·국가... 8단계에 국경선이 생기고,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에 국경선이 생긴 것을 대신해서 탕감, 정비해야 됩니다. 종적인 세계, 횡적인 세계 전부 다 탕감, 정비해 가지고 구약시대 실패, 신약시대 실패, 성약시대 실패한 모든 것을 새로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부자지인연을 확대해 가정이상을 이 천주에 퍼놓음으로 말미암아 복귀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천지 운세의 해방적 지상천상천국이 이뤄질 수 있는 때

부자지관계라는 것은 혈통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아들딸은 아버지의 핏줄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부자지관계의 핏줄을 이어받지 못하고 사탄의 핏줄을 이어받아가고 사망의 세계, 사탄 주관권 내의 세계가 됐던 것을 탕감복귀해야 됩니다. 탕감복귀예요.

하나님이 수고하고 종교가 수고해 가지고 2차대전 이후에 재림주가 와서 탕감적인 그 시대에 거꾸로 이것을 갖다 맞춰야 됩니다. 가인 아벨을 중심삼고 여기에서 생사권이 생겼던 것을 평화의 기준을 중심삼고 2차대전 이후에 탕감하는 거예요. 당시 영국·미국·불란서 연합국과 그 다음에는 일본·독일·이태리 추축국을 중심삼고 세계적 가인 아벨, 형제지인연을 중심삼고 싸워 가지고 통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통일됨으로 말미암아 아담 해와가 국경선을 만들었던 것을 비로소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가 통일권을 만든 그 기반 위에 재림주가 와서... 영·마·불 연합국과 추축국이 하나된 것입니다. 가인 아벨이 하나된 그 기반 위에 참부모가 나타나는 거예요.

참부모가 나타날 때가 됐음으로 말미암아 어머니 되는 성신과 아버

지 되는 예수님이 비로소 영계에서 이 땅 위에 찾아와 가지고 참아버지 참어머니 실체와 더불어 축복을 이루어 가지고, 1960년에 가정 출발을 다시 해서 핏줄을 접붙여 가지고 축복가정을 4억3천만쌍까지 이룸으로 말미암아 영계의 해방권, 지상의 해방권을 전부 다 연결시켜 가지고 사탄까지 굴복시킨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사탄의 줄개새끼들이에요. 지금까지 이것이 타락한 세계권에 그림자와 같이 가려져 있었어요. 이걸 밝혀야 됩니다. 밝히는 것은 누가 하느냐? 선두에 선 어머니가 밝히는 것입니다. 해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온 세계의 어머니가 선두에 서 가지고 가정에서 아들딸을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묶어 가지고 그 가정적 기준이 국가를 넘고, 세계를 넘고, 하늘땅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 국경선이 방해되지 않게끔 해방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지상에서 새로운 천지 운세를 맞을 수 있는 해방적 지상·천상·천국의 출발을 볼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지상세계와 영계가 하나돼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이 상층이 돼 있었어요, 상층. 상층이 됐는데, 지금까지의 영계와 육계가 어떻게 만나느냐? 참부모가 와 가지고 혈통적 인연을 개인·가정으로부터 종족·민족·국가·세계까지 넘어서 연결함으로 말미암아 갈라졌던 것이 전부 다 하나되고, 개인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연결된 것이 수평적으로 어디든지 가정을 중심삼고 일체권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거기에 있을 수 없어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권을 이룬 여기에, 가정 가정 위에 하나님 90각도, 수직으로 임재해 가지고 종족 편성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가정 편성으로부터 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까지, 이제는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종횡의 90각도를 갖춘 아담가정, 단일 가정을 이루지 못한 것을 세계 확대형 가정 형태로서 부모님을 중심삼고 어머니가 참아버지 앞에 어머니 자리에 설 수 있는 입장에 섬으로

말미암아, 사탄세계의 모든 것은 복귀된 어머니 분신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어머니 분신의 자리에 서 가지고 참부모님을 중심삼고 축복 받은 가정이 입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녹음이 잠시 중단됨)

참부모를 중심삼고 하늘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여자(어머니)

어머니가 아들딸을 중심삼고 품고, 자기 남편이 하늘나라의 혈통을 중심삼고 타락하기 전의 아담 자리에서 하나님의 핏줄을 이어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귀된 것은 어머니를 중심삼고 아들딸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는 어머니와 아들딸이 하나돼서 남편을 절대적으로 하늘나라의 남편이 될 수 있게끔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중심삼고 참부모의 명령에 의해서 지상에서 하늘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들딸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참부모 앞에 하나돼 가지고 하늘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되는 데는 반드시 아들딸, 가인 아벨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는 가인 아벨과 어머니가 하나돼 가지고 자기 남편을 교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해 가지고 어머니와 아들딸과 아버지 셋이 하나된 입장에서 가지고 하나된 이후에 비로소 이 세계 전체가, 사탄 편에 있던 이 모든 것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180도 반대 방향에 서 가지고 지도할 수 있어야 돼요.

참부모의 뒤를 따라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타락 세계의 중심의 자리에서 투쟁해 나오던 하나님을 모셔 가지고 맨 앞의 보좌에 앉게 해서, 비로소 모든 전체를, 통일적 개인, 가정으로부터 종족민족국가, 천지를 하늘나라에 전부 다 일체가 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나다! 「아멘!」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중심삼고 비로소 천주의 모든 만물을 대표해서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에 가서 이 모든 것을 받아요. 모든 것을 받

고 하나님이 새로이 모든 만우주의 소유권을 탕감복귀 완성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려놓아 가지고 축복받은 여러분 앞에 다시 이것을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가 돌려 받아야

오늘날 세계에 나라가 있고 무슨 개인 개인의 소유가 있다고 해도 이것은 전부 다 비법적인 거예요. 타락한 물건, 전부 다 도둑질해 가지고 파는 장물과 마찬가지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부 다 하나님의 물건으로 돌이켜 가지고 아담 해와 가정이 못 했던 것을, 사탄의 소유로 뒤집어놨던 것을 온 세계의 축복받은 가정이 통일교회 참부모의 혈족으로서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기쁨으로 바쳐야 돼요.

만세의 영광과 만세의 자랑으로 소유권을 갖지 못했던 하늘의 한을 풀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완성이요, 신약시대의 완성이에요. 물건과 아들딸과 자기 부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절대 소유권으로 봉헌해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축복받고 난 후에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혈족, 천지부모의 사랑의 혈족 가정을 중심삼고 종족민족국가가 반대 없이 해방의 자리에 한꺼번에 올라가서 하늘의 모든 전체를 상속받을 수 있는 천지의 주인,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격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쳤던 모든 헌납물을 우리가 축복받은 이후에 인계 받음으로 말미암아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이 여러분의 가정 앞에 재현되는 것입니다. 이런 총탕감 정비를 해야 할 책임이 참부모에게 있어요. 이것을 완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그 일이 이제 다 끝날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나라만 찾으시면, 나라만 찾으시면 이 모든 전부가 완성될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나라를 찾아 정착할 수 있는 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을 중심삼고 남북이 갈라져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중심삼고 생활을 출발해 가지고 가정을 만들고 고향을 만들고 나라를 만들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과 천지부모를 모시고 자기 고향 땅을 설정하고 나라를 찾을 수 있는 이 기회에 전부 다 결판 지어야 할 책임을 중심삼고 지금 우리가 새로이 임명을 받아 가는 것입니다. 나라가, 남북이 하나돼 가지고 우리를 환영하지 못하더라도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부모님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천지부모로서 유엔을 중심삼고 조국가적이요 초종교적인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역사에 있어서 가인 아벨의 비참한 투쟁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후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한국이 부모의 나라요, 하나님의 조국으로 출발할 수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반대하고 지금까지도 반대해요. 이 나라에서 축복받은 세계 대표들이 조국광복을 위해 힘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순응하지 않게 되면 이걸 버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준비한 것이 뭐냐 하면, 새로운 유엔의 나라가 설 수 있는 땅을 마련해 둔 것입니다.

모든 축복가정들이 그 땅을 위해서... 선생님이 120만 헥타르를 준비했으면 아버지 나라도 120만 헥타르, 어머니 나라도 120만 헥타르, 그 다음엔 장자 나라도 120만 헥타르, 차자 나라도 120만 헥타르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유엔에 나라의 기지로 설정할 수 있는 출발을 보게 되면 사탄세계의 남한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협조 안 하면 잘라 버리는 것입니다. 잘라 버리고 새로운 차원 높은 유엔의 통일천하, 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단계로 옮겨 갈 수 있

는 시대가 왔어요.

옮겨갈 때 누구부터 옮기느냐? 어머니부터, 아들딸부터, 그 다음에 남편까지도 해방이 벌어져야 됩니다. 남편과 어머니를 중심삼고 타락했지요? 이들의 해방권을 갖춘 자리에 서 가지고 아들딸을 하나 만들어 천지부모를 따라서 새로운 나라, 건국의 나라로서 이동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국광복, 남북을 통일 못 하는 날에는 유엔의 나라 기지를 중심삼고, 부모님이 마련한 새 천지에서 부모님을 중심삼고 아버지 나라, 어머니 나라와 자녀의 나라들이 새로운 천국을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천국의 땅을 잃어버리고, 백성을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지금은 백성도 축복가정이 있고, 주권도 하늘 주권이 있는데 땅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땅만 준비하면 정착할 수 있는 시대로 가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유엔을 하나 만드는 놀음을 해야 됩니다.

미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독일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일본을 하나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걸 넘어서 가지고 유엔의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한 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유엔의 나라를 만들어야 할 여러분은 자기의 전통적 사상, 자기의 전통적 나라를 완전히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완전히 잊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해방적 기준을 갖춰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느냐? 하루를 중심삼고 보면 열두 시, 정오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동할 수 있는 날은 열두 시, 정오가 되어 가지고 그림자가 없어야 됩니다. 동쪽에도 그림자가 없고, 서쪽에도 그림자가 없고, 남쪽도, 북쪽도 그림자가 없어야 돼요. 정오가 될 때는 그림자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림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탄이 완전히 굴복한, 정비된 그 자리에 서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새로운 고향과 새로

운 조국을 창건하지 않으면 안 될 때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림자 없는 통일된 가정을 확대한 하늘땅의 기반을 정착해야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니 뭐니 하는 선진국가들은 지금 자기 나라를 자랑하고 자기 문화를 자랑하지만, 완전히 새로이 에덴에서 축복받아가지고 천지부모를 사랑하고 하늘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전통적 모델 가정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구요. 알겠어요? 「예.」 자기의 이름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문화도 잊어버리고, 자기의 근본까지 부정해 가지고, 아침에 출발한 해가 정오가 되면 그림자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어 줍니다. 정오가 되면 그림자가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몸 마음을 중심삼고 그림자가 없으니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남자 여자가 비로소 그림자가 없게 되면 통일되는 거예요. 부자지관계에도 그림자가 없고, 형제관계에도 그림자가 없고, 부부관계에도 그림자가 없는 통일적 가정을 확대한 하늘땅의 기반이 정착돼 가지고 비로소 자리잡는 그때 해방의 지상천국권과 해방의 분향 땅의 출발, 조국광복이 완성하느니라! 아멘! 알겠어요? 「예.」

이제 어머니 되는 여러분은 아들딸과 축복받고 하나돼 가지고 전부 다 남편과 하나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를 이번 이 식전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가 돌아올 거예요. 아버지들은 전부 미완성품이에요. 그림자가 다 있어요. 그래 가지고 완전히 하나되면 그림자 없는 오정의 자리에 선 부모가 되고, 거기에 자녀가 하나돼야 합니다. 자녀가 하나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요.

참부모의 뒤를 따라 참부모를 모시고, 천지부모를 절대 모시고 절대 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의 기준을 중심삼고 하나가 돼야 됩니다. 천

지 창조를 한 하나님도 절대신앙을 가지고 '내가 말하면 이 세상에 사랑의 상대물이 생겨난다. 사랑의 물건이 생겨난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창조한 것입니다.

그 생겨나는 것은 작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영원히 투입하겠다는 이런 입장에서 우주를 창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를 출발했던 때의 결의와 맹세를 우리 자체에서 틀림없이 해야 돼요. 영원히 천지부모를 절대신앙, 그 다음엔 뭐예요? 「절대사랑!」 절대사랑! 사랑의 상대로 선 우리 가정은 절대사랑해야 됩니다. 내 몸 마음도 절대사랑, 부부도 절대사랑, 아들딸도 절대사랑, 부자지관계·종족관계·민족관계·국가관계, 천주의 모든 백성들은 절대 관계를 갖출 수 있는 사랑의 실체가 돼야 됩니다. 사랑화될 수 있는 체휼된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돼야 영원히 하나님과 동고동락할 수 있는 영생의 세계에 길이길이 존속할 수 있는 것이다! 아멘이에요. 알겠어요? 「예.」

성약시대 완성 이후의 축복가정이 실수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아들딸을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의 아들딸을 책임지는데, 이것은 구원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걸려 들어가지 않아요. 참부모가 걸려 들어가지 않아요. 만약에 이제 타락하게 될 때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방된 성약시대 완성을 한 모든 해방적 가정의 일족을 중심삼고 축복받았던 그들이 실수하게 될 때는 천지부모도 책임지지 않아요. 거기에는 장자권도 없고, 부모권도 없고, 왕권도 없습니다. 장자권 완성, 부모권 완성, 왕권 완성했던 것을 파탄시키면 영원히...

하늘나라가 그래요.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지옥과 천국이 있어 가지고 천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대할 수 있지만 지옥 사람들은 대할 수 없습니다. 원래는 잘라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옥의 원성,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 원성을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부자지관계를 못 맺었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해 줄 때까지 아무리 원성이 크더라도 그걸 들으면서 그 가운데 가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부모의 책임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왔지만, 이제 3시대의 완성을 봐 가지고 해방적 자리에 선 여러분의 혈족은 떨어지면 가정이 떨어져 가지고 썩어지는 것입니다. 일족이 썩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을 두고 볼 때, 누가 구해 주느냐? 김 씨면 김 씨의 자기 조상들과 자기와 관계돼 있고 인연돼 있는 그러한 족속들이 협조해 가지고 끌어올려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구해 주는 시대는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구해 주고, 구원섭리의 책임을 중심삼고 메시아 참부모가 와 가지고 구원섭리하던 때는 끝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일족을 중심삼고 정비해야 할 이런 입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간영계가 생겨나는 거예요, 중간영계. 축복받은 가정들이 실패하게 될 때는 낙원시대의 중간영계와 마찬가지로의 곳이 생겨나고, 낙원시대의 지옥과 마찬가지로의 곳이 생겨나게 돼요. 거기에는 하나님과 참부모가 관여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일족이 가인 아벨과 같은 입장에 서 가지고, 그 가정이 잘 못되면 가정 전체, 아버지 어머니, 일족 전체가 염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김 씨면 김 씨 문중이 협조해 가지고 이것을 정비해서 다시 자리 잡게끔 협조는 해주지만 천지부모가 전권을 가지고 구원섭리하던 시대는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이제 만약 여러분이 가정적으로 타락하는 날에는 가정적 지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해방하느냐 이거예요. 해방의 주인이 없다

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잘못하면 조상들이 처리하는 때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의 수료식과 더불어 3시대... 구약시대에 걸려 있어요. 구약시대의 아담가정이 걸려 있고, 신약시대의 예수님 가정이 걸려 있고, 성약시대의 부모님 가정이 걸려 있어요. 본래 부모님 가정이 걸리지 않았으면 해방 이후 7년이면 통일천하가 될 것이었는데, 기독교의 가인 아벨이 싸워 가지고, 하나 못 돼 가지고 부모님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완성 성약시대까지 걸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경계선이 생겼던 것을 전부 다 총합해 가지고 경계선을 무너뜨려 가지고, 결혼을 잘못해서 갈라졌기 때문에 참부모가 와 가지고 천지부모의 일체권을 이뤄 가지고 경계선을 타파함으로 말미암아 해방적 세계를 이뤄 가지고 지상천국 통일천하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선 사람들이 타락하게 될 때는 하나님과 참부모가 책임 안 진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그것은 장자권도 아니에요. 자기 일족권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면 장자권, 그 대표적 조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이 우주의, 천지의 중심 되는 천지부모가 책임 안 진다는 것입니다. 이파리가 벌레 먹었으면 이파리를 따 버리면 돼요. 가지가 벌레 먹었으면 가지를 따 버리면 된다고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때는 기도도 못 해요. 누구한테 기도하겠어요? 종교권 시대는 지나간다고요. '비나이다. 용서하십시오서, 아버지여!' 하더라도 그런 아버지가 없어요. 무서운 시대가 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조상들이 여러분의 잘못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놈의 자식! 지상에서 잘못하면 영계에 빨리 데리고 가서 거꾸로

꽃아 가지고 들입다 치는 거예요. 역사시대에 없던 모든 원한을 복수 탕감시키는 것입니다. 있는 고통을 다 받게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전부 다 하나된 자리에서 떨어졌으니 아버지는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딸은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는 아들딸에 대해서 하나 못 됐어요, 서로 서로가 전부 다.

그 모든 잘못된 것을 서로 비난하면서 원한의 원성을 지상에 새로이 지르는 것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 천지부모요, 만우주의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알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착시대를 맞이하였으니 정착한 후에는 천리의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일대 이상, 영원 이상적인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영원불변의 이상적인 부부가 되고, 이상적인 부모가 되어 아들딸에게 틀림없이 천국 가는 전통을 가르쳐 줘 가지고 곁길로 벗어나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낳는 것도 자기들이 낳았으니 기르는 것도 자기들이 길러 가지고 천국에 데려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해방적 가정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지금까지 잡동사니들을 부모님이 1차, 2차 용서해 주고 다 이랬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리원칙에 위배될 때는 오랜 기간의 시련 과정을 거쳐야 벗어나

그래서 오늘 이 수료식이 끝난 다음에는 영계와 육계가 갈라진 것을 전부 다 하나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심이 돼 가지고 거기에 영계 장자권 대표의 권한을 참부모가 이 땅 위에서 했던 것을, 영계의 대표 예수님이 하지 못한 것을 이어받은 영적 세계의 대표자인 홍진군 앞에 지상의 부모가 승리한 것을 옮겨 주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선생님이 이룬 모든 권한을, 사탄과 싸워 가지고 모든 것이 정비되었으니 이제 영계에 있는 하나님과 부모님이 일체 돼 있기 때문에, 한

몸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천상세계 하나님의 8단계가 있더라도 지상세계 8단계 여기에 하나돼 인류가 전부 다 이 8단계권의 손자가 돼 가지고 지상세계 천상세계가 전부 다 통일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이런 기준 앞에, 이 원리원칙에 위배될 때는 그 가정 자체가 침해를 받아요. 가정 자체가 침해를 받음과 동시에 가정을 중심삼고 종족민족국가까지 여러분이 상속받지 못하는 자리에 서기 때문에, 앞으로 김 씨면 김 씨 문중이 가정에서부터 종족권 국가권, 전부 다 이것을 상속받아 가지고, 하늘나라 사방으로 균형이 되어 가지고 상하로 마음대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길이 막히기 때문에 김씨면 김씨 전체가 이것을 청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탕감이 즉각적으로 자기 조상으로부터 벌어지는 것입니다. 조상이 데려가는 거예요. 악마가 지금까지 탕감하게 해 가지고 지옥 가게 했지만 이것은 가정적인 면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해방적 기반이 있으니 누가 반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법을 못 지켰으면 가정 자체가 걸리는 것입니다. 법을 못 지킨 가정이 감옥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의 역사의 결실체, 가정적 결실체, 종족적 결실체 탄식권을 어떻게 벗어나느냐?

이것은 수많은 자기 일족 조상들의 원한을 사 가지고 거기에 시련의 대상이 돼서 그것을 참고, 참고, 참는 오랜 기간을 통해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벗어날 도리가 없어요. 이것까지도 정비해야만 타락이 없었던 본연의 지상천상천국이 되어 가지고 억만년 사랑의 주권세계로서 천국화되는 체제로 이양되어 넘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예.」

지금까지 제멋대로 살아 왔던 타락한 가정들은 앞으로 선생님이 꿈에도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에도 별의별 가정들이 많아요. 지상의 참아버지하고 천상세계에 간 아들이, 홍진군과 아버지가 책임지고 이런 잘

못된 전통을 전부 다 무너뜨릴 것을 혼시하는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혼시한 대로 하겠다는 약속 밑에서 그대로 해야 됩니다.

아래 가정을 하나님 대신 모실 줄 알아야

이 식이 끝난 다음에는 뭘 하느냐 하면 말이에요, 영계 육계의 통일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거꾸로 돼 있어요. 천상세계가 사탄의 것으로 됐던 것이 우리 지상의 축복받은 가정의 조상들이 위가 돼 가지고, 축복가정과 상하가 돼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에 있고 땅이 아래가 돼 가지고 하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녹음이 잠시 중단됨)

…타락의 원성이라든가 감옥을 영원히 보지 않아요. 어느 때에 가서는 전부 다 불살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와요. 죄를 짓게 되면 남극이나 북극과 같은 얼음 지대에 갖다가 격리해 버리는 것입니다. 격리해 버려야 돼요. 낚싯대 하나하고 엽총과 총탄을 어느 정도 쥐 가지고 북극에 사는 곰 잡아먹고 고기 잡아먹고 살게 하는 거예요. 몇 년 형을 살고 난 다음에는 자기 일족의 제일 꼬트머리 자리에 와 가지고 일족의 그림자권 내에서 보호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뭐 36가정이 어디에 있어? 이 똥개새끼들! 36가정 간나들, 교육받으러 와서도 특별한 여편네라고 해 가지고 ‘내가 건강이 나쁘니까 식사 조절을 위해서 뭘 먹어야 되겠다.’ 해서 보따리 싸 가지고 온 그런 놀음을 하고 있어! 여기가 김효남 장로가 책임진 곳이 아니에요. 흥진군이 책임진 곳이라구요!

하늘나라의 총수로서 부모님 대신 상속받을 수 있는 제사장의 책임을 연결해서 흥진군이 이 지상과 관계를 맺어 가지고 청소 운동을 하

고 있는 거예요. 이 쌍것들아! 여기 와서 무슨 행패야? 내가 36가정이니 뭐가 어떻고 어때? 36가정이 어디에 있어? 책임도 못 한 간나 자식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여기에 와서 특별대우를 해 달라고? 생각하지도 않던 간나들이 와 가지고 그래. 36가정이 지금 거꾸로 꼴히게 돼 있는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우리 가정은 72가정이니...’ 이러고 있어.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여러분도 그래요. 지금 1차, 2차, 3차 축복받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들이다? 아니예요! 노틀들입니다. 이것이 한 케이스라면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실패자들이라구요. 신약시대를 승리한 부모님의 승리의 터전이 남아 있어요.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아래 가정을 하나님 대신 모실 줄 알아야 살아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가정의 어머니가 훈독회를 통해 아들딸을 열심히 가르쳐야

그래서 이제 나라를 찾는 데는 청소년을 앞에 세우고 나라를 세워야 돼요. 통반격과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들이 아들딸을 회개시켜 그들을 중심삼고, 가인세계의 열두 살 이상 스무 네 살 미만, 거기에 부부가 합해 가지고 청년, 48세권 내의 사람들이 통반격과해 가지고 사탄이 들어오는 것을 방어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24세에 부부가 만났으니 이것을 연장시켜 가지고 남자 여자 48세 이하의 사람들은 사탄세계가 침입해 들어오는 모든 경계선을 방어해야 할 책임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들딸을 축복해 줘야 된다고요. 자기들이 더럽혀 가지고 부모님의 한 가운데서 용서를 받고 몇 번이나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을 원통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들딸을

축복하는 자리에 내세우게 될 때, 영원히 참부모 이상, 천지부모 이상 뜻 가운데 일체가 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새로이 심어진 씨로서 천 년 만년 그 씨가 틀림없이 열매 맺혀 가지고 번식될 수 있는 후계자, 자기 혈족, 후손을 남겨야 할 것이 천추의 가정들의 소원인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타락한 역사를 통해서 비참한 하늘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던 이 모든 역사를 참부모가 깨끗이 정비한 이 천지를 다시 더럽히는 간나 자식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로서 철두철미하게 아들딸, 가인 아벨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어머니 타락, 해와 타락, 그 다음엔 뭐예요? 가인 타락이지요?

어머니 타락, 가인 타락권 내에 끌고 들어간 것이 아담가정이예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수천만년 하나님과 종교권 양심세계의 사람은 희생의 피를 흘려 나왔고 제물이 돼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이제는 용서가 없어요. 누구 용서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지부모는 하늘을 모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늘나라의 궁전에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을 통해서 치리해요. 백성은 땅 끝까지 법을 지켜야 돼요. 헌법을 지켜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법에 맞출 수 있는 훈련을 하기 위한 것이 훈독회예요. 알겠어요? 「예.」 훈독이예요. 가르쳐 준 것을 외워 버려야 됩니다. 천리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자기가 말씀의 방패가 돼야 돼요. 말씀 자체의 하나의 모델이 돼야 된다고요.

선생님이 열심히 훈독회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는 어머니가 열심히, 여러분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물론 전체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지요. 어머니 되는 여러분이 선생님 이상 열심히 아들딸을 교육해야 돼요, 밤이나 낮이나.

이래 가지고 틀림없는 가정의 어머니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참부모

가 가르치는 혼독 앞에 상대적 권이 돼 가지고, 그 축복권 내에서 여러분 입적한 아들딸을 중심삼고 여러분의 남편을 절대 지지해서 받들어 가지고, 아담 해와의 가정에서 타락했던 해와와 자녀의 기준을 자기보다 높여야 천사장 된 남편이 비로소 아담 본연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잘못하면 즉결처분하는 시대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은 공적인 길을 나서면 아비하고 아들딸하고 갈라져 가지고 이들을 하나 만들어서 어머니와 하나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비로소 완전히 국가를 복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있어서 갈라져서 뒤에서 후원받아 가지고 일체가 돼서 국가 기준이 가로막혔던 그걸 빼 버려야 돼요. 알겠어요? 「예.」

그러니 마음대로 아들딸 찾아, 남편 찾아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시는 부모님과 하나될 수 있는 것에 금이 가 버립니다. 절대 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하는 가운데에서 참아버지와 일체 될 수 있는 어미가 돼야 되고 아들딸이 돼야 됩니다. 알겠어요? 「예.」

이래 가지고 조국광복! 4년 동안에 이 일을 완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남편하고 만날 수 있는 길이 영원히 없을지 몰라요. 영원히 갈라질지 몰라요. 딴 나라에 갈지 모른다구요.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은 남극 아니면 북극이다!’ 이렇게 격리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때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계에 간 여러분의 조상들은 천사장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천사장이 아담가정을 보호, 육성해 가지고 하늘나라에 못 갔으니 이제 해방된 조상들을 중심삼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영계가 아들이예요, 아들.

그래서 흥진군을 보내 가지고 예수로부터 전부 다 수습해 가지고 지

상에 있는 부모님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장자요, 참부모요, 왕을 대표했기 때문에 영계 자체가 거꿀잡이가 돼 가지고 장자로 모시고, 부모로 모시고, 왕으로 모실 수 있게끔 뒤따라 들어가는 것이 영계를 정비하는 놀음이에요. 영계에서 그 일을 틀림없이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천사장의 말을 안 들으면 타락한 아담가정과 마찬가지로 보고 이 조상들이 와 가지고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 특권을 허락하는 거예요. 오늘 홍진군에게 그걸 허락하는 거예요. 축복받은 가정들이 잘못하면 용서하는 법이 없으니까 즉결처분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와 가지고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조상들이 맡아서 하는 거예요. 부모님, 천지부모님이 구원섭리를 책임질 때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알겠어요? 「예.」 누가 책임져요? 종족이에요, 종족. 자기 일족이라구요.

그래, 가정복귀·종족복귀·민족복귀예요, 민족복귀. 민족을 대표한 김(金) 씨들이 지금 대통령 해먹고 장관 해먹겠다고 경쟁하고 있지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시대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즉결처분입니다.

매일 훈독회 하는 말씀대로 지켜라

지금까지는 영계가 혜택 받기 위해서는 후손들이 공을 드려야 했어요. 후손들이 공을 드려야 해방돼 나왔어요. 이제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리를 잡아 줬기 때문에 조상들이 천상세계에 가서는 잘못된 것은 씨알머리도 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간나를 그냥 두면 그것이 그림자가 돼 가지고 악이 번식돼 나가서 하늘나라가 엉망진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계의 조상들이 가만히 안 있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그래서 지상 전권을 중심삼고 흥진군도 부모님 앞에 절대 순응해 나왔지만 이제는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해방시대가 됐으니 너의 권한, 영계의 법을 중심삼고 지상의 축복가정들이 잘 하면 영계에 간 선조들이 보호하고 협조할 수 있게 하고, 못 하게 되면 즉결처분하게 해라 이거예요.

탕감이 없어요, 탕감이. 통일교회라는 것이 탕감 안 해줘요. 선생님의 일족이 이렇게 여러분 전체를 해방해 주는 탕감이 없어요. 자기 가족을 중심삼고, 일족을 중심삼고 김 씨면 김 씨 문중에서 해결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그 수가 많게 되면 점점점 거기에서 스톱해 가지고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로 오는 사람을 밟고 넘어가고 굴리고, 반대하면 발길로 차 버린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길을 다 알아요. 가야 할 길을 다 안다고요. 다 알아요, 몰라요?

매일같이 훈독회 한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지켜야 돼요. 선생님이 일세 동안 싸워 가지고 이긴 전승기예요. 이대로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화가 되어 가지고 천지부모와 하늘부모, 종적인 부모와 횡적인 부모와 일체권 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림자가 생겨서는 안 돼요. 알겠어요? 「예.」

그림자가 없는 정오의 자리에 정착하라

정오(正午), 정오! 해봐요, 정오! 「정오!」 정오가 뭐예요? 열두 시예요. 그림자가 없어집니다. 사탄을 정비하기 때문에, 저쪽이 오후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 한 시간이라도 그림자가 생기면 안 돼요. 그림자가 생기는 것도 정오가 될 때까지는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나 그림자가 없어진 이후에는 오후가 되더라도 아침에 그림자가 진 그 세계에 그림자가 나타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사탄세계인 지

옥이 남아 있다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정오의 자리에, 숨막힌 그 자리에 정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에 사탄이 잡아당기던 줄이 다 끊어져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결심대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생기면 안 돼요. 자기 부모를 생각하고 자기 형제를 생각해 가지고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해? 뜻이고 무엇이고...’ 그 따위 것들은 여기에 나타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 말이에요, 3주일을 하느냐, 석달을 하느냐? 3수에 해당하는 것을 지키지 못할 때는 대번에 후계자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축복가정들이 조국광복을 한국에 이루기 위해... 부모님이 수고해 가지고 사십 평생 탕감기준을 해소하고 피살을 피부어 가지고 해방한 그 나라를 여러분에게 상속시켜 가지고 천하와 연결시키려고 노력했던 모든 것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담이 생기면 벗어날 길이 없어요. 천국 문을 딱딱 막아 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됩니다.

그런 가정은 앞으로 그 나라의 백성도 보기 싫어합니다. 똘! 침 뱉어 버리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식들이 ‘엄마 아빠, 이게 뭐야? 남들은 다 잘 하는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 하고, 아내는 ‘남편 된 이 녀석아, 남의 남편은 잘 해 가지고 여편네 말 듣지 않고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남편으로서 남편 행세 못 해 가지고 이게 뭐야?’ 하고, 남편은 ‘아내로서 행세 못 해 가지고 이게 뭐야? 이놈의 간나! 축복받은 다른 간나들은 남편을 감화시켜 가지고 본연의 자리를 다 넘어서 천상에서 천지부모를 모시고 사는데 이게 뭐야?’ 하고 참소하는 거예요.

그림자, 캄캄한 그림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옥에서는 싸울 수 있고 자기를 바라볼 수 있지만, 바라볼 수도 없는 청맹과니와 같은 세상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가정이고 뭐고 없어요. 부정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무슨 시대? 정오시대! 완전정착시대! 「완전정착시대!」 그 시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에 사탄이 싸우던 모든 조건이 우리의 혈족 앞에는 제시할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해방이다, 이놈의 자식아! 너희들이 역사시대에 한의 조건을 남긴 것은 너희 일족을 통해 뿌리까지 뽑아서 불살라 가지고 제물 삼는다.’ 할 때, 천사장이, 누시엘 일족이 ‘웁소이다! 원하는 대로 되시옵소서. 예. 예.’ 답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딸과 하나되어 아들딸의 사랑을 합해 남편을 사랑해야

이제 여러분이 죄를 범했으면 악마보다도 더한 곳에 가야 돼요. 그림자도, 그 원성의 소리도, 그 모양도 보기 싫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극에 가서 사는 거예요. 다 얼어붙은 남극과 북극으로 격리시키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세상의 프리 섹스, 호모, 레즈비언 같은 것들... 이놈의 간나 자식들이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끼리 결혼해? 쌍쌍제도로 된 만물을 보기에 부끄러운 거예요. 광물 보기에도 부끄러운 것이고, 식물 보기에 도 부끄럽고, 동물 보기에 도 부끄러운 놀음이에요.

정착했으면 만우주의 쌍쌍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광물세계도 해방이요, 식물세계도 해방이요, 동물세계도 해방이요, 인간, 남녀세계도 해방이요, 사랑의 세계, 천지 조화와 천지를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시대도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해방된 가정으로서 입적해야 할 것이 이 시대의 중요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어겨 버렸느냐 하면 어머니하고 아들딸이에요. 알겠어요? 「예.」

어머니하고 아들딸을 하늘나라의 나라 찾을 수 있는 제물로 등장시키는 데 있어서 자기 남편이 와라 가라 할 수 없어요. 어머니하고 아

들딸이 하나돼 가지고 아버지의 모가지를 틀어 가지고라도, 어머니가 아버님을 절대사랑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통일교회 여자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이상 나를 사랑해라 이거예요. 아들딸이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상 부모는 아들딸을 사랑해라 이거예요. 그런 과제가 남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림자가 저요, 그림자. 알겠어요? 그런 심각한 순간이에요.

이제부터는 선생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지도 않을 거예요. 선생님을 그리워하듯이 자기 남편을 그리워하고, 선생님을 사랑하듯이 아들딸을 사랑하고, 그 아들딸을 사랑하듯이 나라를 사랑하고, 하늘땅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전통적 모델을 상속해 주기 위해서 부모님이 지금까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자라는 존재는 부모님을 흠모하고 부모님을 좋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 좋아해요, 안 해요?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 봐라, 이 쌍것 들어! (웃음)

그 좋아하는 것처럼, 자기 남편을 부모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아들딸을 중심삼고 하나돼 가지고 어머니의 사랑에 아들딸의 사랑을 더해 가지고, 어머니의 사랑과 아들딸의 사랑을 합한 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앞에 모셔야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천사장의 꺼풀을 벗겨 버리고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16세 이하에 참부모의 승리의 모든 핏줄을 다시 이어받아 가지고 타락하지 아니한 어머니 이상, 아들 이상의 자리에 들어가 재림주 참부모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경배하면서 ‘전부 다 찾아서 왔나이다.’ 하고 총생축헌납물을 바쳐야 돼요. 바치는 데는 여러분의 물건 전부, 이 땅 전부, 재산 전부, 나라 전부, 그 다음에는 백성 전부, 그 다음에는 부모 전부를 바쳐야 됩니다.

지금 정오의 자리에 왔기 때문에 정착을 명령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물건은 구약시대요, 아들딸은 신약시대요, 여러분은 실체 성약시대예요. 3시대가 갈라진 것을 평면적인 기준에서 한 가정의 틀에 박아서 산 부활체로 만들기 위한 것이 구원섭리의 축복받은 가정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아버지 어머니, 아들딸이에요. 아들딸을 낳은 것이 하늘나라의 직계에 못 들어가요. 다시 축복받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예.」 세계가 통일되어 축복받지 않고는 본연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자리에 못 간다구요.

여러분의 남편이라는 것은 천사장 몸뚱이를 뿌리박은 것인데, 이 뿌리가 아직까지 썩지 않았어요. 자기 멋대로 해 가지고 교회를 반대하는 그런 간나들, 따라지로 살던 여자, 그 아들딸은 불살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관계없어요. 용서를 해줘요? 그건 선생님과 흥진군이 책임지는 것을 기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영계에 가서라도 2차 40년노정 이내에 이걸 전부 정비해 버려야 됩니다. 불살라 버려야 된다고요. 이 똥개새끼, 개똥도 보기 싫고, 그 냄새도 맡기 싫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그림자 없는 자리에 정착하는 시대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배치했으면 조국광복을 해야 돼요. 구약시대의 소원이 메시아가 와서 나라를 찾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는 하늘땅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해방이에요. 재림주가 와서는 하나님 해방이에요. 메시아가 와 가지고 세계를 수습해 가지고 하나님을 해방하는 것 아니에요? 축복가정, 혈통을 뒤집어 박아 가지고 접붙일 수 있는, 부모님의 승리의 패권을 쥐어야 할 역사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의무의 각서를 가졌으면 각서의 실체가 돼야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독회를 밤낮으로 해야 돼요. 밥보다도, 자기 남편을 그리워하고 아들딸을 사랑하는 이상 혼독회를 그리워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거기에 일체 돼 가지고 어머니로부터 아들딸, 아들딸을 중심삼고 열심히 해야 돼요. 아버지가 그 아들딸보다 열심히, 어머니보다도 열심히, 그 다음엔 선생님보다 열심히 해야 돼요. 남자가 그래야 그림자가 없는 본연의 세계의 자세를 갖춰 가지고 일가를 거느리고 하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런 엄청난 문제가 가로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알겠어요? 「예.」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정오의 자리에 왔기 때문에 정착을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부 다 참부모의 승리권을 무엇으로 이어받은? 무엇으로? 축복으로 이어받은, 뭐예요? 「축복가정!」 축복가정? 기도하는 시대는 지나가요. 보고하는 시대예요.

참부모를 자기 어머니 아버지 이상 사랑해야

참부모를 진짜 내 어머니 아버지 이상 사랑해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상. 그 가정은 진짜 하나되는 거예요. 그 판도에 부정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림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있으면 사탄세계에 입적했던 바람잡이가 돼요. 과부예요. 과부가 처녀 행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알고 보니 시집을 갔다는 것입니다. 더럽힌 역사가 드러나면 그걸 물고 들어가서 자기가 간판 붙이고 처녀로 행세하고 살던 것이 거꾸로 뒤집어 박힌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알겠어요? 「예.」 나 똑똑히 다 가르쳐 줬어요.

죄를 짓졌으면, 짓고 말졌으면 말고 마음대로 해요. 참부모의 해방권 책임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오지 말아요. 내가 원치 않아요. 여러분 아들딸을 정비해 가지고 하늘에 바칠 수 있는 놀음을 해야 돼

요. 부모님이 40년 동안 수고해 가지고 천하를 전부 수습하던 것 이상 해야 돼요. 40년 동안에 4백년, 4천년 역사의 수난 길을 거쳐 나왔는데 다시 헤어 나오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몇백 배 힘든 거예요. 제2 일족 타락권 내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섭리의 혜택, 은사의 시대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그래, 부모님을 찾아오지 말라구요. 일족이든 사돈의 팔촌이든 관계 없어요. 잘못하면 법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아들딸까지도 이번에 쫓아내는 거예요. ‘아이고, 나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해도 ‘이놈의 자식, 수작 그만 뒤!’ 하는 거예요. 그런 자식, 여편네가 있으면 ‘어머니하고 너하고 나가! 아버지 없이 혼자 살아 봐라.’ 이거예요. 부모님의 가정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간나들은 뭐 누가 우리의 중심이야? 이 미친 간나 자식들! 자기 자리도 지키지 못하는 그 패들이 자기 말을 들으라고? 이 똥개새끼들! 정신차리라구. 알겠어요?

곽정환! 「예.」 그런 패들이 선생님 눈앞에 앉게 되면 문제가 벌어져. 잡아다가 면도칼로 가죽을 벗겨 가지고 독수리 밥을 할 때가 올지 몰라요. 내가 피 흘리는 것을... 1대에 있어서 구원섭리를 하는데 참부모로서 피를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가정의 죄를 범할 때는 여러분이 피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영계에 선생님의 아들딸이 가 있지만 지상에서 여러분의 피를 봐 가지고 숙청해야 할 것은 숙청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그 동네에 있거들랑 그림자도 모양도 나타내서는 안 되게끔 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똑똑히 알라구요.

하나님 앞에서 세계니 뭐니 하는데, 무슨 독일미국이 전부 다 손바닥 안에 다 있습니다. 일일 감정하는 시대에 들어왔다구요. 먼 곳에 있는 부모님과... 이제는 부모님 시대가 지나갔어요. 여러분 시대예요.

알겠어요? 「예.」 자기 시대라는 것입니다.

축복해 준 180가정을 붙들고 열매 맺게 하라

정오니까 마음대로예요. 부모님이 그 자리를 거쳐 가지고 천하통일을 했어요. 탕감조건을 넘어섰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오의 자리에서 그림자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이거예요. 동네에서 의심받는 무리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있어서, 어떤네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데에 있어서, 조상을 섬기는 데에 있어서 의심받아서 안 됩니다. 동네가 서로가 위해 사는 데 있어서 서로가 밤을 지새워 노력을 가해 가면서 경쟁할 수 있는 마을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을이 일약 번창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알겠나, 이 대가리 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가리, 나라 대가리들도 잘라 버렸어요. 황선조, 그거 알아? 「예.」 한국 책임자, 한국 나라의 책임자가 세계적 대표였으면 그 자격이 오늘 이후부터는 2세로 넘어가는 거야. 알겠어? 「예.」 스물 네 살에 여자들이 하나돼 가지고 48세까지 청년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48세까지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외에는 호외예요. 죽겠으면 죽고, 말겠으면 말고. 축복받겠으면 받고... 자기들이 부모의 자리에서 축복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똥개새끼들을 축복해 줘 가지고 이 더러운 것들을 치다꺼리하는 것이 메스꺼워요. 선생님이 축복해 주는 것은 처녀 총각이에요. 몇 백년 역사를 거쳐오면서 참고 참고 절개를 지켜 나오던 구교의 신부 수녀들, 불교의 비구승 비구니들이에요.

죽었던, 지옥에 가 있던 가정들을 끌어내 가지고 대신 방패를 세워 다리를 놓아 가지고 천상까지 나가는 놀음을 선생님이 한 것 아니에요? 기성가정이 축복을 받아? 기성가정들, 그 울타리, 문을 열고 바라보라구요. 프리 섹스 하던 똥개새끼, 음란으로 수백 번 더럽힌 몸들이

에요. 침을 뱉어 버리고 발길로 지옥에 차 버려야 할 것인데, 그걸 가누어 가지고 옷을 해 입히고 희망을 뒤야 할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지 알아요?

이래 가지고 자녀들을 세워서 미혼남녀 축복 4억쌍을 표준으로 세웠으니, 축복가정 여러분이 은사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아들 딸이 하늘나라에 예속될 수 있게끔 한 쌍씩 바치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족에 축복받지 않은 가정이 있거들랑 밤이나 낮이나 불을 켜고 그 문전에서 전부 다... 강제가 아니에요. 이래야 살 것이니, 애급을 출발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같이 출발하던 것처럼 같이 그 나라로 출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아야, 아는 사람들이 공범자가 안 돼요, 공범자. 그거 못 하면 공범자가 된다구요.

160가정, 180가정 축복해 준 사람 손 들어 봐요. 다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일족이에요, 일족 편성. 그걸 중심삼고 김 씨면 김 씨, 자기 친족, 조상까지, 아담까지도 해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수십 대의 조상까지 축복해 주라고 그랬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손으로 직접 축복해 준 사람, 죽으나 사나 이제 그들을 붙들고 통곡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핏줄을 접붙인 이것이 열매 맺히지 않으면 180가정이 참조해요. 굵어 치우는 거예요. '이놈의 간나들, 축복이 뭐야? 장난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에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표를 줬으면 들어가 구경할 수 있게끔 안내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뭐야 이 쌍간나 자식들아?' 한다구요. 대한민국에서 그 놀음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족을 부활시키라는 것이지요.

전체를 위하는 데는 그림자가 없어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아무렇게나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구요. 알겠어요? 「예.」 이별이에요, 오늘부터. 선생님이 사랑하듯이 하

늘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자기 일족을 사랑하고, 자기 자체를 사랑하고 나서 선생님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전체를 위할 수 있는 데는 그림자가 없지만, 자기를 하나라도 위하게 될 때는 그림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눈이 자기를 중심삼고 위하게 될 때는 눈의 그림자가 생기고, 코 그림자, 입 그림자, 귀 그림자, 몸뚱이 그림자, 마음의 그림자, 전부 다 그림자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국경이 수두룩해지는 것입니다. 국경철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겠다구요. 알겠어요? 「예.」

무슨 자리에 서야 된다고요? 그림자가 없는 자리에서 ‘하늘땅을 바라보아도 내가 꺼릴 것이 없는 자유적인 자리가 됐구나.’ 하는 것이 몸 마음의 통일과 부부 통일, 자녀 통일을 중심삼고 사위기대,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 3시대의 사위기대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창조이상 완성인데, 창조이상 완성은 사위기대 완성이에요. 사위기대 완성은 하나님같이 할아버지를 모시고 이 땅 위에 하늘 참부모가 왕이 되면 왕같이 모셔야 되고, 하늘나라의 왕과 땅의 왕, 미래에 왕이 될 수 있는 지상·천상·천국의 통일적 왕궁을 만들려면 영계와 육계를 천지부모 대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후대, 미래의 세계에 지상·천상·천국을 탕감 없이 자유로이 상속받는 시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거 이론적이에요. 주먹구구식, 제멋대로가 아니야, 이 쌍것들! 제멋대로 살았지요? 「예.」 이 혼독회 함으로 말미암아 많이 깨달았지요? 「예.」

혼독이에요. 가르침을 받아 가지고 기억해야 돼요, 기억. 뺏골에, 골수에 기억해야 돼요, 골수에! 영계에 가더라도 그것이 그냥 그대로 전개되게 돼 있어요. 상헌 씨도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렇게 간청을 하겠어요? 상헌 씨가 불쌍해요. 이 뚱개 새끼들, 지상에서 잘못해 가지고, 먼저 간 형님들, 선배들이 가는 길을 해방시켜 주지는 못할망정 전

부 다 막아 가지고 한의 역사를 남긴 거예요.

가다가 되돌아보고 눈물을 흘리게 된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 가다가 되돌아보던 롯의 처와 마찬가지로 돼요. 되돌아보던 롯의 처는 멸망했어요.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방권, 영계도 해방해 가지고 전부 다 여기에서 통일권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예수가 부모의 기준이 되니만큼 그 아들딸, 수많은 종교들이 종의 종교로부터, 서자의 종교로부터 아들딸의 종교의 재림을 중심삼고 지상과 마찬가지로 영계에도 방송시대가 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상은 인터넷, 이메일(e-mail)시대가 왔어요. 1분 내에 통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영계도 하나님이 거동하는 전부를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요. 참부모님이 거동하는 것, 흥진군이 대표해 가지고 거동하는 것이 하나님 대신 거동하는 것으로, 시간 시간 신문에 아침저녁으로 보도하는 것처럼 알려줘 가지고 거기에 일원화될 수 있는, 일체화될 수 있는 환경을 개발해 갈 때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알라

영계가 다 막혀 있어요.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고 다 몰라요. 자기 일족이 저나라에 가더라도 다 만나지 못합니다.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거예요. 지옥을 찾아갈 수 있어요? 지옥문을 열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참부모가 열어 놓았으니, 지금 여러분을 축복해 줬으니 찾아가서 흥진군이 빌고 수고해 가지고 끌어다 축복해 준 그 혜택권으로 들어가자, 어렵도 없다는 거예요. 이 쌍것들! 축복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예.」

값싸게 받았던 통일교회 자격자들, 이놈의 가짜들을 복수 탕감할 것

을 선생님이 생각하면 피눈물이 흘러내려요. 여러분의 그런 꼴을 보기 위해서 내가 이 고생을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고생한 것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면목을 어떻게 세워요? 안 그래요? 참부모님의 면목을 어떻게 세우냐구, 이 쌍놈의 간나들아! 이놈의 간나들!

‘아이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이 병이에요. 육법전서를 외우고 법적인 모든 것을 안 것이 그걸 부정하기 위한 지옥의 그물이 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도리어 무식한 사람들이 복이지요.

자기가 해먹던 권위의 배경을 남긴 그걸 돌아보게 될 때 그것을 바라보지, 저 땅 끝에 들어가서 굴 구멍을 내 가지고 저세계에 갈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넘어가려고 하지. 그거 안 통합니다. 알겠어요? 「예,」 어머니 되는 간나들은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수천 길 되는 바닷길을 한 길의 깊이라도 조건을 세우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어머니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부끄러운 것, 자기 오만가지의 실체가 작은 고기 새끼들부터 큰 고기들이 다 ‘저것이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편네의 몸뚱이로구만.’ 하고 젓통이고 궁둥이고 그것을 전부 다 고기들이 뜯어먹는다구요. 노아시대에 심판할 때 죽은 걸 뜯어먹었지 산 건 못 뜯어먹었기 때문에, 상어 같은 것은 산 채로 젓통을 뜯어먹고 싶고, 궁둥이를 뜯어먹고 싶고, 음부를 전부 파 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살려 가지고 냉동했다가 부활시켜 가지고 씹먹겠다고 하는 억울한 시대가 왔어요. 똑똑히 알아야 돼요, 여자들! 알겠어요?

주저함이 없이 주인의 도리를 따라 즐거이 나아가라

선생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 봐요. 자, 좋아해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벗고 이 모든 것을 바치겠다

는 말이에요. 그게 소원이예요? 「예.」 그건 화냥년들이예요, 화냥년. 주인이 없으니까 어미 아버지가 달라붙어 가지고 작달을 해 버리는 것입니다. 망국지종이 돼 버렸어요.

이것을 어머니의 자세를 갖춰 가지고 내가 대신 실체로서 역사적인 오점을 다 청산할 수 있는 제물의 부활체로 등장해 가지고, 아들딸을 가누어서 천년 한의 골짜기를 메우고 그 흐름을 막아 가지고 새로이 자유 천지에 방해될 수 없는 수평세계와 입체적 세계를 내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책임 해야 할 숙명적인 과제가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그 그림자가 둘러싸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힘들다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수천만년 여자가 밟혀 가지고 본연의 남편, 참다운 사랑의 주인을 찾기 위해서 허덕이면서 해야 돼요. 사랑의 주인이 어디에 있어요? 가면 갈수록 이용해 먹고, 탈바가지 쓴 것을 실체로 사랑해야 할 울음 골짜기를 거쳐온 것이 여자예요. 이놈의 여자라구요.

그걸 해방시켜 가지고 왕후의 자리에서부터, 할머니의 자리에서부터, 어머니의 자리에서부터, 딸의 자리까지 거꾸로 자격을 세워 가지고, 비로소 천상세계의 한 여인이지만 가정·종족·국가·천주의 여왕을 대표하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림자가 없는 여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받들어 드려야 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돼야 됩니다.」 그런 관계가 돼 있어요, 관계가.

부모님 앞에서는 부자지관계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는 사기 관계예요. 주인을 찾았으니 거기에서는 주저할 것이 없고, 주인의 도리에 따라 방향이 180도 다르더라도 정당하게 자기가 습관화된 이상 즐거이 갈 수 있어야만 해방등이가 되고 그림자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그래,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냥 그대로 살다가는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그림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자 없이, 뭐라고요? 정착! 완전정착시대, 해봐요. 「완전정착시대!」 앉아서 보내게 되면 내 다리를 동서남북 어디에 퍼터라도 전부 다 참조해야 된다고요. 부모님도 참조해야 돼요. 내 자유다 이거예요.

핏줄이 소나무면 영원히 소나무지, 오리나무가 될 수 있어요? 사막에 심고, 바윗돌에 심더라도 거기에 뿌리를 박아 가지고 소나무로 태어나야지, 미루나무가 될 수 있어요? 아카시아 나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림자가 없습니다. 절대적이예요.

그러한 결의를 ‘나 합니다.’가 아니예요. 그건 미래예요. ‘했다.’ 해야 됩니다. 자, ‘했다!’ 하는 사람 손 들어 봐요. 했다고 했어요. 못 했다고 해서 걸리면 나 몰라요. (웃음) 왜 ‘흐흐’야, 이 쌍것들! 놀음이야? ‘할 것이다.’가 아니예요. ‘했다.’예요. 손 들었지요? 「예!」 손 안 든 사람 손 들어요. (웃음) 한 마리도 없구만.

내가 어제 만세 부를 때, 이 쌍간나들도 만세 했어요. 지금까지 간나들이 얼마나 선생님의 속을 태웠어요? 이것들을 구하기 위해 똥 구덩이든 뭐든 안 거친 데가 없어요. 분하고 원통해요! 나 원통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예요. 하나님은 분해요. 우리 아버지가 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을 품고 살아야 돼요.

참부모를 부모로 안다면 자식 노릇 못 한 한을 어떻게 풀 거예요? 무덤에서 썩어 거름이 돼 가지고, 진달래 꽃동산의 거름 받이 돼 가지고 화려한 꽃을 피웠으면, 내가 살던 그 동산의 꽃으로 피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죽기를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고는 천국 상속권이 없어요. 진짜로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통곡을 해요. 하나님도 통곡하고 부모님도 통곡해요. 통곡과 더불어 춤을 춰야 할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국경이 없고 그림자가 없이 상대세계를 품고 살아야 할 축복가정

홍진 군도 지상에 마음대로 못 왔지만,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올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마음대로 못 왔어요. 이걸 터놓아야 돼요. 전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의 물결이 흘러 가지고 홍진 군을 통해 종파를 넘어 가지고 다음 후계자 앞에 흐르고, 어디든지 흐르고 흘러가서 대양으로 들어가 물줄기가 끊임없이 흘러 통일된 흑조(黑潮)를 중심삼고 오대양 육대주 바닷물을 전부 다 흐르게 해 놓고 수증기가 되어서 구름을 덮어 가지고 사막지대에까지 물을 뿌려 줄 수 있는 놀음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순환운동을 해야 돼요. 물은 순환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공기는? 소련 공기가 한국에 와요, 못 와요? 「웁니다.」 소련 사람이 한국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옵니다.」 공기는 오는데, 공기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참새새끼는 마음대로 오는데, 참새새끼만도 못한 인간이라구요. 개구리새끼만도 못하고, 날벌레새끼만도 못하고, 하루살이만도 못해요. 그들이 무슨 비자가 필요하고 국경이 필요해요?

이 원수, 원한스러운 국경을 내 주변에 남기고 살지 않겠다는, 그림자가 없고 해방적인, 천하일색이 내 거동에 박자를 맞춰서 상대의 세계를 품고 살겠다고 하는 것이 축복받은 가정들의 이상이 아니었느냐 이거예요. 알짜, 모를짜?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라구요. 일세 동안 얼마나 사악된 생각이 많았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축복받아 가지고 남자가 있으면 남자를 보고 ‘우리 남편보다 낫구나.’ 해 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하고 말이에요. 어휴, 생각하게 되면 나 자신이 눈감고 싶어요. 지난 모든 역사적인 추태 상을 바라보면 말이에요. 그걸 대해 가지고 말하기도 싫어요. 도망

가야지요. 하나님도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을 모셔 가지고 부모님의 뒤를 따라 가지고 사랑의 조건을 다시 해야 돼요. 사랑 못 한 한을 사랑했다는 조건을 세워 가지고 한을 취소하고 그림자가 없어지게끔 하지 않으면, 가정 해방, 자기 나라의 해방이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원한의 울무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되겠어요. 알겠어요? 「예.」

시간이 많이 갔는데, 더 얘기할 필요 없지요. 정오, 그림자가 없는 완성, 천지조화를 이룬 완성의 하나의 등대가 돼 가지고 정착해서, 만세에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직결적으로 상속해 준 조상의 자격으로서 숭배 받을 수 있는 조상들이 될 것이 축복가정이다! 아멘! 「아멘!」

자,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되겠습니다.」 언제 돼요? 언제 될 거예요? 지금까지 된다 된다 하면서 별의별 짓을 다 하지 않았어요? 도둑질 안 한다고 해놓고도 다 하지 않았어요? 별의별 짓을 다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을 속여먹고, 통일교회를 이용해 먹고 말이에요.

회사에 취직해서 월급을 조금 더 주는 게 좋았어요, 적게 받는 것이 좋았어요? 선생님은 월급을 여러분한테 받아 먹었어요? 선생님은 고생 하더라도 월급도 안 받고 내가 땅을 파서라도... 땅은 그걸 알고 있어요. 천년 만년 자리를 지켜 가지고 어떤 누구가... (녹음이 잠시 중단됨)

틀림없는 하늘나라의 왕권을 대신한 황족의 가정이 되라

세상을 몰라도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지금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언제나 그 생각이 되살아나요.

선생님은 한푼이라도 절약해 가지고 세계에 조국광복의 기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천추의 한을 품고 허덕이고 있는데, 자기 일개 단체의 비용이 결여되면, 자기 땅을 남겨 놓고, 자기의 집을 남겨 놓고, 그거 팔

아서 쓸 생각은 꿈에도 안 하고 선생님의 보따리를 털어 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푼도 안 남았는데 보따리까지 팔아먹겠다는 거예요.

책임자들, 기억해 두라구. 황선조! 「예.」 보따리 털어서라도 갖다가 쓰고 싶지? 그게 효자들의 마음이에요, 불효예요? 불효한 탕자들이에요, 탕자! 어머니 아버지, 형제가 상속받은 것을 전부 다 말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부모의 원천적인 재산을 품어 가지고 후대에 세계를 넓혀 가려고 하는데, 중간에서 탕진한 별의별 간나 자식들... 선생님 성격으로 하면 전부 다 숙청하든가 불살라 버려야 됩니다. 침 뱉고 불살라 버려야 돼요. 그걸 품어 가지고 천리의 대표, 효자 효녀의 가정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고 있어요. 꿈같은 얘기예요.

그런 억울하고 분한 역사를 부모님 앞에 남겼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느 누구도, 한 마리도 그런 사실 앞에 자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걸 회개 청산해 가지고, 모두 깨끗이 해 가지고 그림자가 없는 정오에 정착하는 가정이 될 것을 약속했어요, 하는 거예요? 「했습니다.」 했어요, 이미. 알겠어요? 「예.」 알겠어요? 「예.」

일어섯! 빨리! 앉아! 일어섯! 엎드려! 왜 웃어, 이 쌍것들! 바로 앉아! 지금 ‘일어섯! 뻘어!’ 할 때 하지 못했으면 앉아서라도 시늉을 해야 조건이 성립되는 거예요. 알겠지요? 「예.」

틀림없이 부모님 가정, 하늘나라의 왕권을 대신해서 선 황족의 가정이 돼야 됩니다. 국민이 뭐예요? 왕의 형제들이 많으면 그 형제들이 전부 다 울타리가 돼 가지고 그것이 퍼져 나가서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황족이에요, 황족.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로입니다.

오늘 내가 훈독회 끝난 다음에 얘기할 것을 미리 얘기해 줬습니다. 알겠어요? 「예.」 무슨 시대라구요? 「정오정착시대!」 어떤? 완전정착이에요. 그림자가 있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탕감구원섭리에 있어서

부모님이 사랑하던 그림자를 만들었는데, 부모님은 그림자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대신,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대신 부모님의 아들딸을 사랑하고, 부모님의 일족을 사랑하고, 부모님의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남아 있어요.

선생님의 뒤를 따라와서 울타리 되고 싶거들랑 여러분 일족을 거느려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몸뚱이를 가져라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선생님에게 와야 도움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도둑질하려고 오는 꾀들이라는 것입니다. (녹음이 잠시 중단됨)

……아들딸을 사랑하고 일족을 수습해서 자리잡아 가지고 새로운 천국의 황족을 편성하려는 그 자리에 들어와 가지고 뭐 이려고 저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각해요. 알겠어요? 「예.」 이제는 완전히….

이제는 선생님을 마음대로 못 찾아와요. 책임을 못 했으면 길가에서 만나더라도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하고 인사해야 돼요. 밥을 먹더라도 책임을 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더라도 책임을 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책임 못 하면 여편네가 남편의 사랑을 받았다고 남편 방에 찾아가 가지고 남편을 불러올 수도 없는 거예요.

부모가 돼 가지고 아들딸을 사랑해 주지 못하고, 그저 눈물을 흘리고 섭섭해하는 아들딸을 찾아갈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책임하고 나서 만나서 기뻐해야 될 것이 가정의 부모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지금까지 선생님을 만나면 좋았지요? 「예.」 이제는 선생님이 나라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할 때까지 선생님을 만날 수 없어요. 선생님 이상 사랑해야 선생님이 소망하던 나라가 찾아질 것 아니에요? 선생님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도 나라를 소망하던 이상 소망해야 하나님을 해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우는데 아버지가 해방이 되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해방하려면 부모님 이상 나라를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해야 부모님이 앉는 자리에 그림자 없이 앉아 가지고 자주적인 실체 범위를 넓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알싸, 모를싸? 「알싸!」 걱정 환! 「예.» 대가리들, 알았어, 몰랐어? 「알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방편적이지요 수단적인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이에요. 절대·유일·불변·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완성한 모든 것을 여러분이 약속한 대로 다 이루었다면, 가정을 대표한 완전한 지상 가정, 그림자 없는 가정이 약속돼 있으니 천상세계도 그림자가 없게끔 정리하라고 흥진군 앞에 전수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 그 식을 해야 돼요.

한국의 열조들, 나라를 찾기 위해 왔던 열조들을 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 들어와 가지고 노력하던 사람은 축복해 주라고 한 거예요. 교수아카데미를 세워 가지고 하늘 앞에 책임 못 했으면 다시 불러 가지고 지옥까지도 해방하라고 그랬어요. 통일교회에 한 조각의 비스킷이라도 준 사람은 반드시 갚아 주라고 한 거예요. 그걸 다 갚아 줄 수 있게끔 축복을 다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 선생님이 빚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정성들인 정성의 도수에 도둑질 안 해먹었어요. 알겠어요? 「예.» 그걸 돌려줘 가지고 여러분의 저장품으로서 여러분의 재산 기반으로 기반 다 닦아 주었어요. 정오의 자리에 완전정착, 해방적인 자리를 잡아 가지고 천하 어디라도 막힐 데 없게끔 전부 다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이 눈썹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조건적이지요. 그렇잖아요?

이 딱지, 돈 같은 것이 뒤집어지게 되면 내 것이다, 그런 놀음을 하지요? 집을 걸고, 여러분 남편 빼앗기 놀음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남편을 나에게 줘야 돼.’ 해서 지면 과부가 되더라도 남편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싸움이에요.

조건적인 싸움 다음에는 실체를 필요로 할 때가 와요. 실체를 갖다 놓아야 조건이 해방되지, 실체가 없으면 해방이 안 돼요. 언제든지 빛

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림자가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예.」 전부 청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시대 해방의 결실을 하나님 앞에 몽땅 바치고 다시 상속받아야

내가 부모님한테 빛 안 지고, 우리나라한테도 빛 안 지고, 종교, 기독교, 어디에도 빛 안 져야 돼요.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 소생시대인 만물시대·아들시대·부모시대의 3시대에 전부 다 걸리지 않고 해방되는 혜택을 중심삼고 그 결실적인 열매가 틀림없이 내 자신에서, 우리 가정에서 열려 그 결실을 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몽땅 천하를 다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음과 동시에 여러분 앞에 다시 상속해 줘야 됩니다.

결혼 전의 소유물은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살던 문화의 세계, 뭐 선진국가라고 해도 도둑놈의 새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선진국가의 후손 된 것을 부끄러움으로 알아야 돼요. 한국은 어느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어요, 침략 받았지. 이런 면에서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경계선이 있는 한, 국경이 있는 한 그림자는 안 생겨난다! 「생겨납니다.」 안 생겨난다! 「생겨납니다.」 이놈의 간나들아, 안 생겨나! 그러면 ‘이놈의 선생아, 생겨난다!’ 그래야 돼요. 선생님을 욕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욕도 해야지요. 알겠어요? 「예.」 선생님이 죽으면 좋겠다, 한번 해봐요. (웃음) 해보라구요.

여러분이 무슨 원수가 돼서 그저 끝까지 고생을 해서 똥싸개까지 전부 굶어내 가지고 깨끗이 표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원수지요? 원수지요? 「아닙니다.」 원수를 거꾸로 하면 수원이에요. 수원은 물둥지예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바른손 들어! 왼손 들어! 고개를 하늘로 바라보고 ‘천상해방!’ 해봐요. 「천상해방!」 그래, 흥진 군

이 지상에 와서 지상을 해방한 두 세계의 해방권을 상속해 주나이다!
아멘! 「아멘!」 됐다고요. (박수)

훈독회 하자구. 「일곱 시에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어머님)」 아, 일곱 시는 뭐? 훈독회 좀 하고, 시간을 내가 정했으니 전체 앞에서 다시 결정하면 되지. 하나님도 결정하면 따라오게 돼 있다구. ‘나 싫다!’ 하게 안 되어 있어. 이거 중요한 말씀까지 끝났으니 탕감을 하려면 식을 하면 된다구.

자! 이것은 35분, 40분 걸려요. 똑똑히 들어요. 그림자를 없애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국경? 「철폐!」 무슨 폐? 「철폐!」 무슨 폐야? 「철폐!」 국경철폐! 「국경철폐!」 국경 가운데는 많은 경계선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국경을 철폐하게 되면 경계석은 법적으로 전부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이 국경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후 훈독)

중심 자리에 섰으면 피조세계 전체를 품고 사랑해야

정오정착(正午定着)을 말했다고요. 그건 뭐냐 하면, 우주의 아담가정이 재현한 하나의 모든 개인의 중심,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중심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역사 이래 그러한 목적을 중심삼고 정착했다 하는 그러한 폐들이 통일교회의 축복가정, 축복받은 가정들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축복받은 가정들은 그러한 중심 자리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거기까지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대신 이 피조세계 전체를 품고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려니 뭘 해야 되느냐? 이것이 왜 생겨났느냐 하면, 한낱 미물까지도 사랑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쌍쌍제도로 돼 있는 거예요.

광물도 주체 분자, 상대 분자로 돼 있고, 식물도 수술 암술, 동물도 수놈 암놈, 사람도 여자 남자, 하나님도 주체 대상, 아버지와 아들딸로 돼 있어요. 전부 다 상대적 관계에 있는데, 이것은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질서가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지극히 큰 데까지 다 연결돼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종적 기준을 중심삼고 이것을 다시 찾아 세우기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적인 중심, 하나님이 희생해 가지고 재창조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횡적인 기준을 중심삼고 세계에서 개인적인 희생 판도를 세우기 위한 역사시대가 지나갔고, 가정적인, 개개인의 가정적 판도를 세우기 위한 역사, 세계적 우주적인 반대권에 침해를 받았는데, 그것을 이기게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2차대전 직후 재림주가 와서 영·육계 통일과 8단계 완성을 해야

개인시대의 해방, 가정시대의 해방, 종족시대의 해방, 민족시대의 해방, 국가시대의 해방인데, 이런 국가시대를 중심삼고 해방권을 갖춘 그 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역사상에 있어서 어떤 나라, 어떠한 문화권을 중심삼고 통일됐느냐? 기독교문화권입니다. 기독교문화권이 비로소 영계와 육계가 연합한 자리에 선 것입니다. 기독교문화권을 중심삼고 지상 국가들이 통일될 수 있었던 그때가 언제냐 하면, 2차대전 직후예요.

영·미·불이 연합국인데, 영국은 어머니고 미국은 장자, 불란서는 천사장이예요. 불란서는 변해요. 공산세계도 좋아하고 민주세계도 좋아해요. 왔다갔다하는 것입니다. 추축국은 일·독이인데, 일본은 해외 국가고 독일은 사탄세계의 제일 악다리인데, 사탄의 어머니에게 태어난 아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세계 제패를 꾀를 보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태리는 왔다갔다해요. 알겠어요?

이태리제, 불란서제라는 것은 옷과 마찬가지로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인 면에서 껍데기 문화를 중심삼고 세계의 중심같이 타령하는 나라가 불란서와 이태리의 행적이요. 영국을 반대하고 독일과 접촉해 가지고 ‘미국을 반대하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토(NATO;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철폐하자!’ 한 거예요. 그런 내용을 전부 다 몰라서 그렇지, 원리원칙의 곡절을 풀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해방적 시대가 되면 기독교문화권으로 영계 통일, 지상 통일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한 때밖에 없어요. 그 한 때에 뭘 해야 되느냐? 영계가 천국이라고 한다면 지상은 지옥이요. 상충돼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라구요. 알겠어요? 이 상충된 것이 전부 다 통일된 것입니다. (판서하시며) 상충돼 가지고 이렇게 통일된 것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통일됐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교차돼 가지고 싸우던 것이 어떻게 상대가 돼 가지고 주고받을 수 있느냐? 주고받을 수 없어요. 이것은 소모예요. 이것이 비로소 천상세계 지상세계의 주체적인 하나님을 중심삼고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진 아들이 이 땅에 와 가지고 뭘 하느냐? 이 상충된 것을 때 가지고 하나님의 가정적 설정과 하나님의 가정을 중심삼고 하나님과 같이 삶으로 말미암아, 천지의 모든 전체의 소유권을 그 가정 앞에 일임시키기 위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가정이에요.

(행동으로 해보이시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늘땅이 갈라진 것도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갈라진 것도 이렇게 돼 가지고…: 종(縱)이 지금까지 이렇게 탕감을 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횡적으로 연장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해보이시며) 재림주는 종적 탕감, 종적인 영계 통일, 횡적인 지상 통일시대에 와 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바로 해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것이 하나된 가운데 여기에서 개인의 완성, 종족민족... 이렇게 돼 가지고 비로소 수직적인 이상경이 생겨나는 거예요.

한국이 조상숭배를 해 나오는 것을 파탄시키기 위한 사탄의 행동

서양 같은 데는 종적인 이념이 없어요. 전부 다 쌍쌍제도만이에요. 그러나 동양은 쌍쌍제도보다도 조상을 숭배하고 종적인 천리를 중요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성인들은 동양에서만 나왔습니다. 알겠어요? 4대 성인이 다 동양에서 나온 것입니다. 문 총재도 그렇지요. 문 총재가 서양에서 나왔어요, 동양에서 나왔어요? 「동양에서요.」 동양에서 나왔지요.

동양이 그렇게 돼 있어요. 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조상을 숭배하는 데 제일 엄청난 기록을 가진 민족은 한국 민족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게 되면 3년상이라는 것을 중심삼고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목욕도 하지 못하는 죄인 중의 죄인, 태양 빛을 바라 볼 수 없고, 공기를 마실 수 없고, 먹고 사는 것도 정상적인 사람의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거지 중의 거지요, 사람 중의 탈락된 사람으로 희망이 없는 자리에서 3년상을 벗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상을 숭배한 민족은 한국 민족밖에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조상숭배 철폐!’를 주장한 것입니다. 조상숭배 철폐를 안 했으면 한국이 갈라지지 않아요.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민주세계의 깃발을 꽂음과 동시에 공산세계가, 반대의 세계가 들어와 가지고 격돌한 거예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중심삼은 종교권과 인본주의사상이 대치해 가지고 싸운 경계선이 삼팔선이에요. 북쪽은 소련을 위주로 하고 남쪽은 미국을 위주로 해서 대치하게 된 것입니다. 유신 유물의 대치 관계가 된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사탄이 땅을 빼앗기 위한 것이요,

나라 빼앗기 위한 노릇이요, 역사를 빼앗기 위한 것입니다.

이 싸움이 한국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조상을 보다 위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땅에 조상을 위하는 왕초의 깃발을 꽂으니까 사탄은 이것을 파탄시키는 것입니다. 조상 전체, 제일 귀한 것을 파탄시키는 것입니다. 가정제도를 파탄시키고, 부자지관계를 파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일신이에요. 한 몸이 된 것을 파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부자일신 파탄, 부부일신 파탄, 그 다음에는 형제일신 파탄, 전부 다 파탄시켜 가지고 망조로 내갈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국에서 사상적 혼란이 벌어져 가지고, 지금 한국 사람이 제일 악다리가 돼 있어요. 제일 악한 사람도 한국 사람이요, 종교세계의 왕초도 한국에 있습니다. 종교세계의 사탄 왕초도 한국에 있어요. 남자 여자의 인신매매도 많아요. 여자만 인신매매하는 줄 알았더니 남자까지 인신매매하는 세계적인 기록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알겠어요?

이 두 세계가 혼란해서 어떻게 가려 갈 수 없게끔 지진이 나 가지고 야단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심이 없으면 집이 무너지고 땅이 요동쳐 가지고 나중에는 전부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혼란의 와중에서 신음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늘과 사탄의 싸움 와중에서 핍박받아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 제일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이 문 총재입니다. 알겠어요? 대한민국에 국토가 생겨나 가지고 주권을 찾은 그 날부터 8대 정권이 문 총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없애려고 했어요. 알겠어요? 부모님의 전통, 천지의 전통의 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적 기반이 돼 있으니, 사탄이 요술 판을 만들어 가지고 최후에 세

계를 총합해 가지고 ‘총공격! 대표자 레버런 문 하나를 때려잡으면 모든 것이 다 깨져 나간다.’ 해 가지고 레버런 문 몰아잡기 운동을 했어요. 여우 몰이, 늑대 몰이, 사자 몰이, 호랑이 몰이를 하는데, 몰이 중에 제일 무서운 몰이를 당한 사람이 레버런 문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개인적으로 세계 역사에 없는 기록적인 반대를 받았고, 가정 전체가 합해 가지고 반대를 받았어요. 축복가정들이 말하기를 ‘참부모는 레버런 문이다. 우리 부모는 가짜 부모다.’ 하니까, 가짜 부모가 낳은 아들 딸을 참부모라는 사람이 도둑놈같이 나타나 가지고 다 빼앗아 가니까 ‘아들딸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다.’ 하는 등 별의별 소문이 다 났어요. 그러니까 부모라는 작자들이 깃발 들고 나와 가지고 ‘우리 아들 딸 팔아먹는 원수를 때려잡자!’ 해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 일본 같은 나라는 대표적 해외국가가 되겠으니, 사탄이 그걸 알고 일본 나라에서 끝까지 통일교회 축복가정을 납치하는 놀음을 한 것입니다. 4천 명 이상을 납치해 버렸어요. 기록이에요. 그래도 일본에 있는 통일교회 교인들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갔어요, 끝까지 반대하고 선생님을 따라갔어요? 「선생님을 따라갔습니다.」 끝까지? (박수)

세계의 통일교회 여자들 가운데 선생님을 제일 못 살게 그리워하는 여자들이 어디 여자예요? 일본 여자들! 무슨 원수예요? 사탄이 달라붙어 가지고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통째로. 알겠어요? 일본 나라는 세계적으로 ‘여자 중에 제일 좋은 여자가 일본 여자다.’ 그래요. 거지들도 돈만 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피난민도 돈만 주면 가정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 여자들이 잘나서 일본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밤에 가서 밤중에 한푼만 쥐도 문 열고 남편같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천사장들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여자는 일본 여자밖

에 없다.’ 하는 거예요.

참부모니까 일본 여자를 여왕으로 만들어 주려는 것

일본 여자는 뭐라구요? 세계 제일이에요, 꼴찌예요? 꼴찌예요, 제일
이에요? 누구든지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기반을 가질 수 있는 일본이
예요. 일본 여자들은 그렇다구요.

아시아에서 국제결혼의 문을 연 것이 일본 여자들입니다. 알겠어요?
미군들 심부름하면서 첩 노릇을 하고, 새끼들을 낳아 가지고 팔아먹은
것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아기를 낳아 주고 돈 받고 딸이에요, 전부 다
이런 놀음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일본 여자라구요. 그거 잘했어요, 못
했어요?

요즘에는 백인들이 ‘일본 여자를 싫어한다.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
에 내버리니까 흑인들이 좋다.’ 이려고 있어요. 흑인들하고 사는 사람
은 일본 사람 안 해준다구요. 그러니까 그러한 폐단이 심각하기 때문
에, 선생님이 일본 사람들은 세계가 제일 싫어하는 원수이기 때문에
제일 싫어하는 나라 사람하고 결혼해 주는 것입니다.

일본 여자들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한국 남자들이예요. 한국이에요.
어디에 가서, 사창가에 가서도 일본 여자는 돈 주고 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예요. 왕초 될 수 있는 통일교회 문 선생이
일본 여자를 할 수 없이, 영국이 어머니 노릇을 못 함으로 말미암아
대가리를 사탄이 쥐었으니 꿈지 된, 맨 밑에서 냄새 피우는 그것을...
꿈지는 언제든지 방귀 냄새, 똥이 붙어 가지고 구린내가 나는 것입니
다. 알겠어요? 그런 꿈지 같은 구린내가 나는 일본 여자들을 어머니
대신 택해 세워 주지 않을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 참부모였다는 것입
니다. 알겠어요? 「예.」

항문에 제일 가까운 귀중한 물건이 뭐예요? 생식기 아니예요, 생식

기? 그거 맞아요? 똥구멍을 사랑하겠다는 패들이 호모예요. 그거 알아요? 여자들은 똥구멍으로 못 하니까 남자 생식기, 남자의 가짜 기관을 가지고 여자가 그런 대응하는 놀음을 하는 것이 레즈비언이에요. 그거 알아요?

볼록은 오목과 맞추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볼록 볼록끼리 결혼해? 세상에! 똥개새끼들도 그 놀음을 안 하고 하루밖에 살지 않는 곤충도 그 놀음을 안 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란 이 물건들이 그런 놀음을 했으니, 사람 자격이 곤충, 개미새끼, 똥벌레보다 못한 자리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일본 간나들! 일본 여자가 아니에요. 일본 간나예요. 간나가 무엇인지 알아요? 갔나, 왔나? 오는 줄 알았더니 언제 갔어요, 벌써. 기생을 좋아하는 것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기생은 변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나라에서는 명문가의 외딸이 총리의 첩, 장관의 첩으로 가더라도 사랑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도의적인 면에서 그런 것은 국물도 없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전부 다 여왕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여왕을 만들고, 여왕의 어머니를 만들고, 여왕의 할머니를 만들고, 여왕의 왕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 문 안에서 나라를 대표한 어머니로 만들고, 여왕을 만들고, 자기 아내를 천하의 여성을 대표한 아내로 만들고, 자기 딸을 천하를 대표한 백성 이상의 귀한 여자로 만들겠다는 거지요.

통일교회 문 선생이 그렇게 생각하니 비참해요, 홀륭해요? 「홀륭합니다。」 뭐라고요? 「릿파데아이마스(りっぱであります:홀륭합니다).」 릿파(りっぱ:홀륭함)는 한국 말로 하면 ‘일 바라’예요. 인사귀를 보라고 하는 것은 인사귀밖에 안 돼요. (웃음) 왜 웃어요? 인사귀를 가져 봤자 거기에 꽃이 피어요, 열매가 맺혀요, 가지가 생겨요? 릿파가 뭐예요, 릿파? 그건 아무리 홀륭하더라도 가지도 안 생기고 꽃도 안 피어요. 거기에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아기가 없는 가정이 한국보다 일본이 많더라

어제 내가 조사해 보니까 말이에요, 일본 여자들도 축복을 같이 해줬는데, 아기가 없는 가정이 한국 사람은 스물 아홉 명인데 일본 사람은 240명이에요. 아기 씨가 없어요. 그걸 문 총재가 해외로 책정했으니 아기 씨 없는 여자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아기 씨 있는 남자하고 짝을 만들어 줘야 되겠어요? 일본 사람끼리 만들어 주면 점점 정자가 적어져요.

한번 사랑할 때 정자가 3억5천만 마리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거 알아요? 3억 마리가 들어가면 2억9천999만999마리를 전부 다 사랑하는 판에서 죽여 버리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의 아들딸을 남겨주기 위해서. 2억9천999만999마리가 살 수 있는 것을 희생시켜 가지고, 3억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의 대표 왕자를 만들기 위한 뜻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정자를 희생시키고 거기에서 힘있는 정자를 씨로서 난자에 갖다 심어 놓는 것입니다. 그거 알아요?

현재 일본 사람이 바다를 중심삼고 사니 육지의 물건들을 마음대로 먹지 못해요. 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 몸뚱이 원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자가 약해졌고 난자도 약해졌어요. 정상적인 입장으로 보는 것이 1억5천만 개에서부터 7천만 개로 떨어졌어요. 그것 가지고는 임신이 안 된다고요. 어제 내가 조사해 보고 놀랐어요. ‘야, 그거 사실 이구나!’ 그러니까 일본 여자들을 그냥 뒤서는 안 돼요.

남자들은 천사장이니까 씨 받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원수의 나라 남자하고 일본 여자들을 결혼시키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철새들이 수놈 철새, 암놈 철새가 북극 가까운 곳을 봄날에 찾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자의 전체 구조는 아기를 위해 생겨난 것

여러분, 전부 다 새먼(salmon; 연어)을 알지요, 사케(さけ: 연어)! 그것이 자기가 태어난 자리를 찾아가서 사랑하고 어머니 아버지는 죽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교회 커플은 새먼 커플이라고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새먼과 같이... 그거 남자가 여자를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 예쁘던 수컷이 뿔이 나오고 등이 구부러지고 무서운 장군같이 돼 가지고 오는 적수들을 물어 치우고 돌격하는 것입니다, 어뢰같이. 받히면 폭발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여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거 무엇 때문에 보호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보호해야 돼요? 여자는 약하지요? 여러분도 보호해 줄 수 있는 책임자가 필요하지요? 그게 뭐냐 하면 나라가 생기기 전의 자기 남편입니다. 나라가 없게 될 때는 나라 이상 귀한 남편이요, 그 나라 백성 이상 귀한 남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바라는 소원의 씨를, 그 정자를 나에게 서슴지 않고 천 년 만년 소원을 품고 난자, 본궁에 심어 줄 수 있는 수고를 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자기 일신, 일체의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그 남자의 씨, 정자 하나 받는 것이 여자의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전체 구조는 아기를 위해 생겨났습니다. 젖이 뭐예요? 누구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여자 때문이에요? 그놈의 정자! 정자, 아기 씨를 기르기 위한 준비예요. 궁둥이도 그래요. 궁둥이가 조그마하면 어때요? 질의 좁은 문을 통해 아기가 나오는데, 그 문이 열려야 아기가 나오지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궁둥이가 커요? 궁둥이가 작으면 자궁이 쪼그라져요. 아기가 들어가서 ‘아이고!’ 질식한다구요. 그래, 누구 때문에 자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이에요? 궁둥이가 누구 때문에 커요? 아기 때문이에요. 아기가 죽으면 사고라구요.

그리고 여자들의 살이 왜 만지면 보들보들해요? 아기도 보들보들한데, 엄마 살이 가지 같으면 큰일나요. 엄마 젖과 같은 몸뚱이를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라구요. 선생님이 상식적인 말을 하는데 지금에야 알아 가지고 좋다고 ‘아이고, 그렇구나!’ 해요? (웃음) 어디를 만져도 젖 만지는 맛이 나는 거예요.

살이 뻗뻗하고, 수염이 있으면 되겠어요? 수염이 있으면 아기들이 젖 먹다가 얼마나 가렵겠어요? 가렵다고 긁을 수 있어요? (웃음) 남자 처럼 수염이 있어서 그거 귀찮아서 면도했다고 생각해 보라구요. 키스 할 때 ‘아이고, 나 죽어! 엄마하고 키스하는 데 원수다!’ 하고 발길로 차 버리는 거예요. (웃음) 그러니까 여자 앞에는 수염이 절대 필요해서 없어요, 필요 없어서 없어요? 「나이(ない:없어요)!」 필요 없어요. 참 하나님은 과학자예요.

젓먹일 때 ‘야야, 내가 오늘 먹은 영양소 중에 제일 좋은 것을 너한테 안 준다. 멸끔한 물만 준다.’ 그런 생각을 해요? 피 중의 피요, 살 중의 살이요, 뼈 중의 뼈요, 골수의 모든 진액을 안 나오면 짜서 먹이는 것입니다. (아기가 젖 빠는 시늉을 하심) (웃음. 박수) 아기가 젖을 부르게 된다면, 자기는 점심때가 되고 저녁때가 되어 배고프더라도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아기한테 뛰어가지요? 그게 어머니예요. 고마운지고! 알겠어요? 일본 여자들은 안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전통적 사랑의 질서가 없는 나라

일본(日本) 여자, 해를 본 여자니까 뭐 젖을 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해 젖을 먹이겠나? 이걸 바람잡이 되기가 쉬워요. 젖 먹이는 대신 대낮에 전부 다 사랑 길을 찾아가서 편리하게... 어제 얘기했지만 여자들이 전부 다 오비(おび:띠)를 두르는 거예요, 오비. 이게 뭐인 줄

알아요? 어디든지 가서, 아기가 그림거든 남자가 있는 동네에 찾아 들어가서 어디든지 사랑해 가지고 아기 씨를 받기 위한 준비예요, 이게. 일본 역사는 그렇게 안 돼 있어도 나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역사가 그래요.

예를 들어 보면, 섬나라 사람들은 남편들이 뱃사람이에요. 살림살이가 어려워 가지고 전부 깨질 수 있는 배 짜박지를 믿고 열 사람이면 열 사람, 다섯 사람이면 다섯 사람의 가족 전체가 생명을 걸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아침에 바다 나갈 때는 ‘만선해 가지고 저녁에 돌아오시옵소서.’ 하고 인사했지만, 태풍이 불게 되면 전부 다... 요즘처럼 군함이 있나, 항공모함이 있나? 조그만 배 하나 가지고 말이에요, 일엽편주(一葉片舟)와 마찬가지로 전부 다 깨져 나간다고요.

그러니 아침에 인사한 남편이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태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네 친구들이 연합해 가지고 그 아들과 여편네를 친구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나 죽게 되면 너희들이 맡아 줘.’ 해 가지고 서로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첩의 길을 찾아가야 되고, 서자의 길을 찾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 사랑의 질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사촌끼리도 결혼해요. 한 집안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며느리가 혼자 살게 될 때는 시아버지도 며느리가 아기를 그리워하면 사랑해 가지고 아기를 갖게 할 수 있는 전통이 계속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누이가 남자가 없게 된다면 남자의 씨를 오빠를 통해서 받았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조에 대한 질서가 없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 할 때는, 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대낮에 돌아다니니까 언제 남자를 만날 수 있어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이상적 남편을 영원히 죽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어요, 뱃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정조관념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몇천년 동안 정조관념이 뿌리박혀 있는 민족이에요. 한국 사람은 절대 첩을 얻게 안 돼 있어요. 그런 것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쌍놈과는 결혼을 안 해요, 양반은.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40년 동안 한국을 지배했지만 일본 사람하고 자원해서 결혼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사무실에서 일하고 직장에서 월급 받는데 협박공갈, 유린당해 가지고 할 수 없이 동네방네에서 쫓겨나서 가서 기대고 사는 것이 한국 사람하고 결혼한 경우예요.

그런 전통을 가진 한국의 레버런 문이 일본 나라를, 첩 중의 첩으로 취급해도 가당치 않는 나라를 해외국가로 택한 거예요. 영국이나 기독교 전부가 첩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동네방네에. 알겠어요? 원수 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첩으로 삼을 수 없어요. 아내 삼고, 아내가 도망갔다 와야 첩이 되고 다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본 나라를 어머니 나라로 택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 얼마나 불쌍하고, 참부모 되는 레버런 문이 얼마나 불쌍해요? 행복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똥구더기 놀음판, 사창가 동산 한복판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찾고 올바른 여자를 길러 보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처량해요? 알겠어요?

방과제 역할을 해야 할 일본 여성들

자기 출신이 그렇다는 것을 모르고 일본 여자들 자랑하지 말라구요! 바람이 불든 태풍이 불든 방과제의 역할을 해야 돼요. 태풍을 막는 놀음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여자들을 전부 다 방과제로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고맙게 생각해서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일곱 번, 열 두 번을 하더라도 더 하겠다고 해야 비로소 양자의 자리, 양자의 자리에서 서자의 자리,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직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아들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직계의 부모를

모실 수 있는 몇십 배의 노력을 해야만 부모 대신 대응적인 부모의 자리에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이 참된 부모의 자리에 섰다고 생각하면 큰일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참된 부모의 분신이 돼야 할 텐데, 어머니가 참된 분신이 되어야 할 텐데 이 엄청난 배후의 패를 모아다가 어머니 분신이 되게 해 가지고 세계의 황족권을 만들겠다고 하는 선생님의 생애가 처량, 비참? 어떤 거예요? 일본 여자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부 다 여기에서 자리잡아 가지고, 이미 싫고 기가 막힌 역사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키더라도 옛날 주종관계에 있어서... 후시도(ふしど;침실)가 그렇잖아요? 주인이 명령하면 여자는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시늉이라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데는 남편이 돌아오게 되면 꿇어 엎드려 미닫이문을 열고 ‘오카에리나사이(おかえりなさい:잘 다녀오셨어요)?’ 하지요? 무릎 꿇고 인사 잘 하지요? 그 말은 뭐냐? ‘마음대로 하소.’ 이거예요. 마음대로, 언제든지 마음대로 시키라는 거예요. 옷 벗으려면 옷 벗어야 되고, 죽으려면 죽을 수 있는 여자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이런 무가치한 존재, 사탄이 마음대로 취급해 가지고 지옥 밑창에 던져진 것을 레버린 문이 할 수 없이...

영국이 유일신을 중심삼은... 1차, 2차, 3차대전을 주도해 나온 영국의 패권적 왕녀의 자리를 당당히 갖출 수 있는 이들이 책임 못 해 가지고 제일 멸망의 구렁이에 떨어져 가지고, 일본의 동경이든지 일본 여성 문화, 독일이 전부 사하라 사막같이 집 한 채 없이 도시가 다 무너진 환경으로 밀려 나가더라도, 상처 입은 여자를 대해 가지고 오시는 주님이 할 수 없이 뒤져 가지고 살림살이 해보겠다는 처량한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상, 참부모 이상 처량한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일본의 현대 과학문명은 하나님이 축복해 준 것

일본은 잡도, 잡도예요. 야오요로즈노가미(팔백만의 신), 잡교 여자들을 수습해 가지고 유일신, 2천년 동안 전통을 지켜 나온 유일신 대표의 어머니 자리에 세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캄캄한 지옥 중에서도 맨 밑창에 들어간 사람들을 하늘의 빛난 세계의 왕자 왕권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참부모가 그런 놀음을 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비참한 사실이에요?

그런 것 생각해 봤어요? 역사적으로 유린당한 것을 볼 때, 여자의 모습이 어느 등골이나 궁둥이나 발등까지 더럽혀지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만신창이가 된 여자들이라고요. 그런 여자들을 흠이 없는 최고의 여성의 미를 갖춘 것으로 대해 줘야 되는 하늘의 심정이 얼마나 기가 막혔었겠어요? 알겠어요?

일본 여자들이 자세를 갖추어 가지고, 새로운 희망, 몇억천만년 바라던 캄캄한 천지에 여명의 아침 햇살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두운 곳이 밝은 세계로 됐기 때문에 일본은 전부 다 팔려 가는 것입니다. 팔려 가야 돼요. 2차대전 이후에 팔려 가야 될 여자들이예요, 여러분은. 4대국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면 전부 다 팔려 가서 흐르는 물을 보고 고향산천을 생각하고, 달을 보고 울고, 해를 보고 울고, 산천을 보고 울고, 사방으로 눈물지어야 할 일본 여자들에게 어머니 자격을 부여해 준 선생님이예요. 알겠어요?

40년 동안 서구세계 영·마·불의 문화를 거꾸로 갖다 수직으로 쏟아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현대 과학문명도 하나님이 축복해 준 것이지, 일본 사람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예요. 일본이 갖추고 있는 재산이 자기 것이 아니라구요. 참부모로 말미암은 것임을 모르는 이 민족은 망해야 돼요.

2차대전이 문제가 아니에요. 종자도, 씨알머리 뿌리까지도, 전부 다 광도(廣島;히로시마)에 원자탄을 떨어뜨려 가지고 전부 없어지고 쪽박에 남은 것이 없게 됐어요. 원자탄이 떨어져도 쪽은 뿌리가 살아 남아요. 그래서 쪽뚝이 효과가 있다는 말도 그런 의미에 있는 것입니다.

원자탄에 쓰러져 없어져 버릴 것을 중심삼고 쓰레기통, 구더기가 득실득실한, 뭐 밥 찌꺼기도 없는 판에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거기에서 여자를 찾겠다고 하는 선생님이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생각해 보라구요. 요즘에 와서야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드러났지요?

하나님 나라로 시집을 간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준비를 해야

그래, 여러분도 선생님을 10년, 20년 따라 나오면서 의심 안 해본 여자가 있어요?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본 여자가 있어요? 손 들어요. 배반자의 결실이요, 배반자의 후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붙들었기 때문에... 일본도 그래요. <워싱턴 타임스>를 가지고 찢어 발개 버렸으면 일본은 뺨 하는 것입니다. <워싱턴 타임스>가 일본을 나쁘게 기사 쓰는 것을 봤어요?

일본의 신문, 저널은 통일교회 문 선생을 잡기 위해 별의별 악랄한 있는 말, 없는 말, 거짓말로 감태기를 갖다 씌우면 숨 못 쉬고 질식해 죽는다고 생각했지요? 그렇지만 안 죽어요. 일본 신문을 보라구요. 얼마나...

분센메이(文鮮明), 광고판에도 분센메이 야쓰(文鮮明やつ:문선명 녀석, 놈)라고 했는데, *그 야쓰가 발전해서 문선명이 되었습니다. '문선명 야쓰가 이렇다.' 하던 것이 '문선명이 이렇게 말한다.'로 바뀐 것입니다. 통일교회 교주인 문선명이라고 합니다. 사마(様:존경이나 공손을 나타내는 존칭)라고도 안 해요. 교주 문선명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얼마나 미워했는가를 생각해 보라구요. 요즘에는 문선명 시(師:스승)라

고 하는데, 그 시(シ)는 ‘죽을 시(死; 죽음)’지 ‘스승 시(師)’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 동안에 죽기만을 바라던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선생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끈게 펼 수 있겠느냐구요. 그것을 끈게 펴면 3배, 5배가 되어 가지고 처리하기가 어려운 거라고요. 그것은 물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본의 역사, 만요슈(万葉集; 일본의 나라시대에 편집한 歌集), 무사도 등 전통적인 민족정신을 매장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시집을 간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통일교회의 전통을 상속했어요, 상속하려고 해요? 「상속하려고 합니다.» 언제 전통을 상속할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고요.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여자들을 끝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일본 여자들이 국제결혼을 해 가지고 아들딸 한둘을 낳으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나이가 들면 보따리를 싸 가지고 도망을 간다고요. 그러한 역사를 모르지요?

세계가 반대했지만 낮과 같은 영광의 세계가 목전에 이르렀다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살길이 없어서 한반도를 침범했는데, 한반도는 남자의 생식기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일본은 여자의 자궁이에요. 그 한반도를 40년 동안 침범해서 말까지 없애 버리려고 시도했지만, 그렇게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본의 여자들을 세계 각지로 파송해서 유명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일본 정부도 아니고 대사관도 아니지요? 그 일본이 반대하던 문 선생이 일본 여자들을 교육해 가지고 미국 국회의원들을 전도해서 양자권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한 여자들을 세계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기쁜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대사들은 도둑질하려고 파송되어 갔지만, 우리는 각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대사들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일본 여자와 결혼한 남성들을 내세우자구요. 그들을 대포의 방아쇠처럼 내세워서 천하가 놀라게끔 당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국제결혼한 여자들을 최고로 명예로운 부인들로서 세워 나가려고 생각하는 것이 선생님의 계략이에요, 계획이에요? 「계획입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문선명, 죽어라!’ 하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발전, 발전!’ 하면서 기도하지요? 그러면 누가 이겨요? 저쪽에는 밤이 찾아오지만, 이쪽에는 낮과 같은 영광의 세계가 목전에 이르렀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결론으로 내리게 되었습니다. 180도 정반대로 전개되는 거라구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여자들이 이쪽에 모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소테스(そうです; 그렇습니다).」 소테스? 「하이.」

‘소’라고 하면 한국에서 우시(牛;소)를 말하는데, 무슨 소를 말하는 것이냐? 암소가 아니라 황소를 말한다구요. (웃음) 모두 다 황소같이 되라구요. 암소는 호랑이 같은 것이 나타나면 도망가지만 말이에요, 황소는 호랑이가 나타나더라도 으흥 하면서 차 버립니다. 그러한 황소 같은 여자들로 만들고 싶은 것이 선생님의 바람입니다.

무엇 때문에 암소를 황소로 만들려고 하느냐? 지금까지 도둑놈들한테 팔려 다녔는데, 이제부터라도 뿔로 들이받을 수 있는 황소 같은 여자로 만들고 싶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사건들을 많이 알고 있다구요. 다시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훈련시켜 가지고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만들고 싶은 것이 선생님의 희망인데, 그 사실이 일본 여자들한테 바람직스러운 거예요, 안 바람직스러운 거예요? 「바람직스러운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하이.」

지금 무엇으로 대답했어요? 입술과 혀로써 대답했지요? 그 입술은

몸, 혀는 양심을 대표합니다. 그 몸과 마음이 하나되어서 대답한 것이 틀림없을 것이기 때문에 심신일체의 여왕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선생님의 희망인데 그 희망이 나빠요, 좋아요? 「좋습니다.」 (박수)

천주의 모든 것을 자기 사랑의 상대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그래서 무엇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고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에 대한 사랑을 상속했으니까 모든 것을 자기 사랑의 상대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밤을 새우며 아침까지 주인을 기다리는 만물들을 백퍼센트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하이.」

지금 판타날의 탁류 속에 3천5백 종류에 이르는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의 수많은 동물, 조류, 곤충들을 어떻게 하나님 대신으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복귀완성의 시대에 있어서 정오의 그림자가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만물을 영원한 생명의 주인에게 돌려 드린다는 약속으로 지금까지 해양환원식, 육지환원식, 만물환원식, 지상과 천상 그리고 만민의 모든 환원식을 했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그러한 전체적인 탕감의 정비를 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의 3차 수련회를 중심삼고 구약시대·신약시대, 그리고 성약시대의 완성된 여자들로서 구약시대의 조상들을 중생시키고, 신약시대의 조상들을 살려 주고, 성약시대의 조상들을 세워서 천주적인 해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해외국가의 책임이에요.

그 세 아들딸을 낳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년에 하나씩 낳는다고 하더라도 60년이 걸려요. 그렇다고 쌍둥이를 낳는 것이 아니에요. 세 아들딸을 뭐라고 그래요? 「미쓰고(三つ子; 세 쌍둥이)입니다.」 미쓰고가 좋아요, 요쓰고(四つ子; 네 쌍둥이)가 좋아요, 야쓰고(八

つ子;여덟 쌍둥이)가 좋아요? 「야쓰고!」 (웃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야쓰(奴;놈), 저 야쓰!’라고 하지요? 야쓰고를 낳아야 됩니다. 야쓰고는 어려우니까 적어도 남자아이를 넷 정도는 단번에 낳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요쓰고를 낳아서 상대적으로 묶어 가지고 생각하면 야쓰고를 낳았다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권을 초월하여 제4차 아담권시대에 있어서 여왕이 되겠다는 결심을 굳히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뭐라고요? 「안된다!」 알겠어요? 「하이.」

천주의 모든 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어머니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사랑한 것들을 아들딸에게 먹여서 키워야 된다고요. 모든 만물들은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천국으로 올라가고 싶어합니다. 광물은 식물, 식물은 동물, 동물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한테로 돌아가고 싶다고 한다는 거라고요. 그렇게 사랑의 질서에 있어서 작은 사랑은 큰 사랑권에 흡수되는 것이 사랑의 궤도입니다.

훌륭한 어머니가 되려면 사랑의 깔개가 되어야

여러분은 일본 사람들이지요? 「그렇습니다.」 한국 말로 ‘일본’ 하면 뿌리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니혼진(にほんじん)은 근본이 둘이잖아요? 니혼(二本)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첩의 입장, 과부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남자를 만나 가지고 부부를 이루어서 잇뿌진(一本)이 되어야 합니다.

일장기의 둥근 것은 태양을 뜻하지요? 태양은 열을 상징하는데, 최고의 높은 열은 몇 도겠어요? 천 몇백 도가 된다는 용광로가 더 뜨거워요, 사랑의 용광로가 더 뜨거워요? 「아이(愛;사랑)!」 아이, 아이, 아이! 아이가 뭐예요? 한국 말로는 고도모(子供;아들딸)를 뜻한다고요.

고도모를 사랑하지 않는 여자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멘트를 가

지고 입까지 전부 다 봉해서 죽여 버려야 됩니다. 바카(馬鹿;바보)니까 말이에요. 바카는 뭐라구요? 「시나나카나오라나이(死ななきゃ治らない;죽지 않으면 안 고쳐진다).」 그러니 전부 다 시멘트질을 해 버려야 된다고요. 음부까지 시멘트질을 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멘트질을 해 가지고 뭘 할 것이냐? 비행장을 닦는 데 있어서 자갯돌같이 밑에 까는 것입니다.

선한 세계의 훌륭한 어머니가 되려면 좋은 깔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왕 깔개가 되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에요. 무엇을 중심 삼고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사랑을 중심삼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도 아들딸을 사랑해? 「하이.」 아들딸이 있어? 「하이.」 그 아들딸을 얼마나 사랑해? 「안아 주고 싶은 정도로...」 (웃음) 선생님 이상으로 사랑의 깔개가 되어야 합니다.

선생님 이상의 깔개가 없잖아요? 만약에 선생님이 깔개라면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돈을 전부 다 꺼내서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안 사겠다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시타지키(下敷き;깔개)의 반대가 뭐예요? 「우에지키(上敷き;윗깔개)입니다.」 (웃음) 그게 되어 버려요. 그러한 자기 자신이 되지 않겠다는 결심을 오늘 해주기를 바라겠다고요. 알겠어요? 「하이.」 저 구석에 선생님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립니다.」 틀림없이 들린다고 했다고요? 「하이.」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접붙여진 존재이니 한국 말을 해야

한국 여자들은 어때요? 귀머거리 여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고? (웃음) 사랑을 한 자리에서 두 남자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첫번 남자는 한국 남자고 두 번째는 일본 남자인데, 쌍둥이를 낳다 보니 씨가 둘 되었으니 이렇게 말도 달라질 수 있게 됐다! 노멘

이에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영국 놈은 또 사랑하는 데 세 번째니까 세 번째 사랑이 같이해 가지고 씨를 한꺼번에 퍼부었어요. (웃음) 그러니까 다 그렇게….

그것이 사랑의 도리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딸이 될 수 없으니 이것을 본보기로 만들든지 어찌하든지 하기 위해 처음 남편 씨로 갖다 접붙여 가지고 ‘하나의 아버지시다.’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걸 개조하든가 뜯어 붙이든가 해서 그렇게 접붙일 수밖에 없는 결과이기 때문에, 접붙여 놓은 물건은 영어를 해야 되겠어요, 한국어를 해야 되겠어요? 접붙여진 일본 간나들도 일본 말 해야 되겠어요, 한국 말 해야 되겠어요? 「한국 말 해야 됩니다.」

서양 멤버들, 어디 갔어? 한국 말 해야 되겠어요, 영어 해야 되겠어요? 영어 하겠다면, 전부 다 도둑놈 아버지 자리에서 흑 놀음 해 가지고 태어났다는 원한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실감이 날 거라구요.

죽기 전에 한국 말 해야 되겠어요, 못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됩니다.」 죽기 전에 한국 사람 옷을 입고, 새파란 눈, 까만 눈, 다들 안경을 쓰고, 전부 다 가발을 쓰더라도 검정 머리를 해 가지고 3년 이상 살아 보겠다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습니다.」 장자의 핏줄을 받은 사랑이에요. (박수)

만물을 사랑하자

자, 그래서 오정(午正), 그림자 없는 자리에 정착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어머니 주인이 틀림없이 된다!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때려요. 때려, 때려, 때려요! (웃음. 박수)

간사한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둘 다 믿을 수 없지만 더 믿을 수 있는 것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둘 다 못 믿는데 그래도 더 믿을 수 있는 것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온나(あん

나:여자!) 온나를 더 믿을 수 있어요, 남자보다도? 거짓말도 잘 하고 있다!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구만. 남자보다도 여자를 더 믿을 수 있어요? 「소테스(そうです:그렇습니다)!」 뭐가 소테스야, 쌍거야? (웃음)

자, 이젠 알았지요? 「예.」 만물을 사랑하자! 지금까지는 동산에 가게 된다면 말이에요, 고약한 냄새가 나서 도망가게 만든 꽃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새벽기도도 하고, 아침 점심을 거기에서 먹고, 그걸 붙들고 자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낳은 첫째 열매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딸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없구만. 내가 지금까지 아들딸을 누구보다도 생명을 바쳐 사랑하겠다는 말이 거짓말이니 너희들부터 사랑하고 나서 사랑해야 할 것이 아들딸인데, 이걸 빼놓고 사랑하겠다는 사기꾼이요, 도둑놈이었다.’ 하고 회개하고 키스해 주고 젓을 빨아 먹이라구요. 알겠어요? 「예.」

젓을 빨아 먹이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너, 얼마나 젓 먹고 싶었어?’ 하면서 그런 놀음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생겨요. 한번 할 때는 모르지만 두 번, 백 번을 그렇게 해보라구요. 바위보고 ‘젓 먹고 싶었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래요. 바위 왕이 와 가지고 짹짹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소리가 와스스 와스스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소변 볼 때 췌-아 하지요? (웃음) 남자보다 소리가 요란해요. ‘여기 여왕마마가 있다! 큰소리 할 것은 여기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남자들은 짹짹 하지만 말이에요, 여자들은 한꺼번에 췌-! (웃음) 글자로 쓰면 대가리로 시작해서 대가리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 그런가 안 그런가 가만 보라구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세상에 큰 소리하는 것은 나같이 큰소리하는 것이 없다! 여기가 왕초 주인이다! 아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췌는 힘은 남자의 췌는 힘보다 10배 이상 강하다는 것입니다. (웃음) 그거 분석해 봐요. 알겠어요? 「예.」 (웃음)

어머니의 전통권에 속하는 자리에 들어가려면

저 영계에 있는 흥진 군, 그 다음엔 희진 군, 영진 군, 혜진 양이 와 가지고 아버지가 여섯 시 반, 일곱 시만 되면 식을 한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다 초청해 놓고 말이에요, 영계의 4대 성인들도 전부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여자한테 홀려 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선생님이 되었구만. 그 선생님은 나쁜 선생님, 좋은 선생님? 「좋은 선생님입니다.」

*그것은 첩이 하는 말이라구요. 첩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첩이 본처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퍼센트예요? 여러분은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30퍼센트예요, 50퍼센트예요, 70퍼센트예요, 백퍼센트예요? 얼마예요? 「무엇이 말씀입니까?」 무엇이러니? (웃음) 네 귀가 나쁜 것이지, 선생님이 말씀을 잘못된 것이 아니라구! (웃음)

몇 퍼센트예요? 자기 자신의 양심한테 물어 보라구요. 아무래도 백퍼센트까지는 미치지 못하겠지요? 정직은 정의와 통합입니다. 그래, 양심적으로 몇 퍼센트예요? 「백퍼센트입니다.」 백퍼센트라고 대답하는 입술이 떨린다구요. (웃음) 모두 다 웃잖아요? 실제로는 백퍼센트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로서 기록을 깰 수 있어야 됩니다. 잠을 안 자고 뜻을 위한다든가, 반쇼켄메이(万生懸命)로 노력한다든가, 일심불란(一心不亂)으로 정진해서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어머니의 전통권에 속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집니다. 알겠어요? 「하이.」

여러분의 수족을 중심삼고 오관한테 물어 보라구요. ‘이 수족이 뭘 하느냐? 이 귀, 코, 입, 눈도 뭘 하고 있느냐? 심신일체를 원하는데 뭘

하고 있어, 고노야로(この野郎;이 녀석)? 하면서 자기 자신을 무자비하게 비판하고 남을 수 있기 위해서는 제로(zero;영)의 입장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오케이입니다. 왜 제로의 입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오케이라고 하느냐? 그러한 입장에서 모든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천하 모든 존재가 어머니 품에서 사랑 받았다고 증거할 수 있어야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 큰일이라구요. (웃음) ‘남편이 새벽이라도 초저녁같이 옷을 벗으라고 하면 좋다고 춤추면서 별 거벗을 수 있는 여자임에 틀림이 없느냐?’ 할 때, ‘영원히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여자가 되었어요? 아니면 불평만 하는 엉터리 같은 여자예요? 통일교회의 남편은 쉼 시간도 없대구요.

뭐 순회를 하느라고 지쳐 저녁 늦게 돌아와서 똥아떨어졌다가 새벽에 원기가 좀 회복되어 아내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어서 가슴 같은 데를 만지면 ‘고노야로, 뭐야? 초저녁에는 관심도 없더니 지금에서야 열쇠를 잠갔다 열었다가 하는 무례한 남자가 어디에 있느냐?’ 한 경우가 많았지요? 너도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습니다.» 그랬지? 너는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습니다.» 모두 다 정직하니까 미래에 희망이 있다구요. (웃음) 지금부터 올바르게 고치면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어 주는 것은 기뻐합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로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건강하지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는 ‘아이구, 10년은 더 살아야 될 것인데!’ 하면서 선생님을 위해서 약을 준비해 놓고 싫더라도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드셔야 됩니다.» (웃음) 선반에는 약이 자꾸 쌓인다구요. (웃음) 세계에서 좋다고 하는 것은 선생님한테 전부 다 보내 줍니다. 거기에서 도망갈 수 없다구요, 지금 선생

남이.

일본 사람은 눈만 뜨면 ‘약입니다.’ 그래요. (웃음) 공손한 말을 하지만, 자기가 하라는 대로 복종하는 시간은 그 시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선생님은 병원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전에 신체검사를 하러 갔을 때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다리를 이렇게 탁 치면 뭘 아는지 모르는지 말이에요... 「갓케(脚氣;각기)!」 응, 갓케! 가케잔(掛け算;곱셈), 계산이면 제일 잘 하는데 그 갓케는 어렵더라고요. (웃음) 의사가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치는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웃더라고요. ‘병원에 처음으로 오셨지요? 의사 앞에서 건강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말이에요. (웃음)

천하의 모든 것이 어머니의 품에서 사랑을 받았다고 손을 들어 증거할 수 있는 아가씨들이 되어야 할 것이 어머니 나라의 여자들이 세워야 할 전통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인데, 지금부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바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거라고요. 바카는 뭐라고요? 「시나나카나오라나이(死ななきゃ治らない).」 안 죽으면 죽어야 된다고요, 죽어야 돼! (웃음)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목사가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좋습니다. 남편이 나쁜 사람이라도 사랑만 백 점이면 오케이라고요. 오케이의 ‘오’는 동그랗고 케이는 치킨(chicken)이에요, 키친(kitchen;부엌)이에요? 키친에서 오사마(王様;왕)가 오케이입니다. (박수)

여자는 키친에서 요리하는 것이 뭐예요? 전기선과 마찬가지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지 않으면 남편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얼굴은 아무래도 좋다고요. 남편이 아침과 점심 그리고 저녁을 먹을 때 기분이 좋으면, 그 남편의 하루 가운데 4분의 3을 점령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훌륭한 아내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리도 할 줄 모르는 여자는 바

카라구요. (웃음)

남편에게 훌륭한 아내가 되라

바카(馬鹿)는 동물들 가운데 최고입니다. 바카는 뭐예요? 「말입니다.」 카는 뭐예요? 「사슴입니다.」 김타마(金玉;불알)가 제일 큰 것이 말이라구요. 그리고 사슴은 결혼할 때 썩 시작하기도 전에 끝나 버립니다. 바카는 그러한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 바카라고 하는가를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해 주면 ‘아, 그래서 바카라고 하는구나!’ 할 것입니다.

말의 그것이 크지요? 동물들 가운데 몇 번째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호랑이보다 커요? 코끼리보다 커요, 작아요? 「큽니다.」 비교해 봤어요? (웃음) 선생님은 비교해 보지도 않고 크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비교해 보았는지 물어 보고 싶да구요. 그래서 선생님도 배우자구요.

격렬한 사랑의 소리를 내지르는 것이 말입니다. 오호호호화화...! 대단하다구요. 그렇지만 싫으면 차 버립니다. 뒷발로 잘 차지요? 만약에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입을 벌리고 뒷발로 서서 걷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다구요. 말의 생식기가 얼마나 커요? 여자들이 그것을 보면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사슴은 썩썩 도망을 잘 갑니다. 그렇게 도망을 다니는 것이 사슴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둔감하기 때문에 사슴은 사랑하는 시간이 제일 짧습니다. 알겠어요? 「하이.」

남자는 51분마다 한 번씩 여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생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구요. 선생님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남자는 50분이 지나면 고개를 넘는 것입니다. 그 시간마다 한 번씩 집에 있는 아내나 아들딸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고마운 거예요, 나쁜 거예요? 「고마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오카에리나사이(お歸りなさい;출타 후 돌아오는 사람에게 대한 인사말)!」 그 인사말은 들은 체도 안 하고 키스하고 싶은 것이 남자의 마음입니다. 그러한 남편을 눈을 바로 뜨고 정조대를 찬 채로 ‘오카에리나사이!’ 하면서 환영한 적이 있어요? (웃음)

왜 일본 말로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느냐? 여러분이 일본에 돌아가서 어머니로서의 자세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장시간 동안 말씀하는 내용을 골수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남편을 대해서 훌륭한 아내가 되라고 하는 훈시의 시간이기 때문에 혼독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웃음과 박수) ‘훈(訓)’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言) 옆에 강(川)입니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을 흘려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독(讀)’은 뭐예요? 말씀을 팔라는 거라구요.

선생님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진리를 가지고 일본 여자들로 하여금 남편과 부모를 버리고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선생님이 가라는 대로 가지 않으면 갈 데가 없는 불쌍한 여자들이 되었던라도 자기 자신을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여자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우후쿠(幸福;행복)라고 생각합니다. 고후쿠(吳服;포복)는 비단옷감을 말하기도 하지요? 고우후쿠의 여자들이예요, 고후쿠의 여자들이예요? 「고우후쿠의 여자들입니다.」

전체 일본 남자를 대표한 남편으로 생각하고 대하라

일본 여자들은 비싼 고후쿠의 기모노(きもの)를 한번 입어 보고 싶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렇게 욕심이 많은 오쿠상(奥さん;남의 아내의 높임말)들입니다. 오쿠상이라고 하면 안방의 여왕을 말합니다. 그게 하하(母;어머니)라구요. 하하(母)는 여자(女)를 둘로 합친 것입니다. 천지의 여자를 합쳐서 황적으로 균형을 잡은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여

자는 마찬가지로라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하이.」

여러분의 남편이 하루에 한 번씩 가슴을 만져 주지 않으면 선생님한테 항의를 하라고요. (웃음) 여기를 만지면 배꼽도 만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남편이 사랑하기 이전에 원기발랄한 손으로 배꼽을 만지거나 훑아 주면 여자의 자궁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꽃처럼 피어납니다. 배꼽을 만지면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어서 입을 열고, 눈을 뜨고... (웃음) 그러면 만사가 오케이라고요.

그러한 여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딸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의 해방은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1억2천5백만 인구의 절반인 6천 몇백만 명을 대표한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도둑 같은 여자가 되면 문제가 된다고요. 남자가 남편 이외에 또 있어요?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장황하게 말씀하는 내용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겠어요, 반대해야 되겠어요? 「지켜야 됩니다.」

남편의 겨드랑이 밑을 간질이면 싫다고 해요? 쓱 하면서 더 하라고 한다구요. (웃음) 뭐 그늘진 데를 전부 다 개방하고 맞이해 주는 것들 차 버려요, 환영해요? 「환영합니다.」 먼저 눈을 감고 키스하는 것이 아내예요, 남편이에요? 「남편입니다.」 남편이 눈을 감고 입술 키스를 해요, 혀 키스를 해요, 목구멍 키스를 해요, 빙빙빙 돌아서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 같은 키스를 해요? 여자가 아기의 씨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암소가 발정이 나면 황소의 냄새를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면 일직선입니다. 담이 있든가 철봉대가 있더라도 상관없이 내달리다가 여기가 찢어져서 피가 나더라도 모르는 거라고요. 그렇게 가서는 무엇을 훑느냐 하면, 반대라고요. 황소의 코와 입을 훑어요. 그러면 황소가 어떻게 해요? 암소의 그것을 훑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세계에 있어서 격동의 출발입니다. 여러분은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웃음)

왜 웃어요? 그렇게 백발적중으로 골인하지 않으면 훌륭한 아들딸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까울 것이 없어요. 동대(東大)를 졸업했다는 것도 하룻밤의 술 한잔에 날아가 버린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이상의 가치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에게서 동대의 총장이 태어난다구요. 총리가 되거나 황족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훌륭한 아들딸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훌륭한 아들딸을 낳고 싶어요, 안 낳고 싶어요? 「낳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사랑할 때 옷을 벗어요, 입어요? 「벗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었어요? 「아버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웃음) 그런 것에는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동물들한테 그런 것을 가르쳐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암컷과 수컷이 만나면 수컷은 암컷, 암컷은 수컷의 좋은 데를 자극해서 더더욱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내에게 지는 것이 남편이 지켜야 할 철칙

남자들은 ‘선생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장시간 여자들한테 흘려서 말씀하고 있다.’ 할지도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흘릴 수 있는 여자가 일본에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어머니와 비교하면 제로 콤마 이하입니다. (웃음과 박수) 정말이라구요. 아무리 미인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더라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 가운데 선생님과 키스를 한 번이라도 한 여자 있어요? (웃음) 지금까지 그런 여자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선생님한테서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 본 여자도 없습니다. 학생시절부터 선생님한테 그런 말을 하던 여자들은 많았지만 말이에요. 만약에 선생님이 나쁜 마음을 먹고 여러분을 유혹하면 백퍼센트 넘어올 것입니다. (웃음)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모두 다 준비를 하고 있다가요. 선생님이 걸어갈 때 양복을 잡아당기잖아요? (웃음)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한테는 곤란한 일들이 많지만, 전통적인 수직선에 맞춰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술에 취하더라도 말이에요.

선생님이 싸움을 잘 하겠어요, 어머니가 싸움을 잘 하겠어요? 선생님과 어머니가 말싸움이라도 하면 선생님이 이겨야 되겠어요, 져야 되겠어요? 「저야 됩니다。」 지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습니다。」 왜 기분이 좋아요? 아들딸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못 당하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남편이 지켜야 할 철칙이라고 생각하면 만사가 무사통과입니다.

어느 부부든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할 때는 당신은 화장실로 가라!’ 하면서 남편과 약속을 해 놓으라구요. ‘이혼하자! 보따리를 싸 가지고 나간다.’ 하는 소리가 나오기 이전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약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세바나루, 나사네바나라누, 나니고토모(なせばなる `なさねばならぬ`何事も;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무엇이든지) 뭐라구요? 「나라누와히토노나 사누나리케리(成らぬは人の爲さぬなりけり);안 되는 것은 사람이 하지 않기 때문이로다.)」

만약에 선생님이 일본 말을 몰랐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여러분이 불쌍하게 되었겠지요?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한국 말을 배우라고 하면 기분이 나쁠 것인데, 이렇게 선생님이 일본 말로 말씀을 해주니까 더 이상 고마울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라구요. (박수) 지금 굿바이 하면 언제 만날지 모릅니다.

선생님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잖아요? 히말라야산맥의 에베레스트산 꼭대기에 굴을 파고 들어가 명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위로해 드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싫으니까 말이에요. 팔십이 넘었기 때문에 언제 영계로 갈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는 데 몇십년이 걸린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대신 남편을 사랑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선생님이 없더라도 선생님을 사랑하는 이상으로 사

랑할 수 있는 세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 선생님의 책임이 아닐 것이냐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하이.」

불평하지 말라

선생님이 더 이상 장황하게 말씀하지 않더라도 전부 다 알겠으니까 ‘와카레마쇼(分れましょう; 헤어집시다)’ 하면서 손을 들라구요! 「와카레마쇼!」 아리가토(ありがとう; 고맙다)! (박수) 아리(蟻; 개미) 열 마리처럼 허리가 가늘어지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될 수 없습니다. 허리가 개미처럼 가늘어지도록 위하고 위하고 죽는 것이 어머니 나라 여자들의 책임입니다. 알겠어요? 「하이.」

누구든지 불평하지 말라구요, 불평. 혀를 3분의 1은 잘라 버려야 됩니다. 선생님과 지하운동을 한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감방에서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해 버리면 동지들을 수백 명 죽이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혀를 깨물어서 잘라 버렸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천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 심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구요. 알겠어요? 「하이.」

오늘 틀림없이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여자들은 오른쪽 발만 들어 빠라! (웃음) 머리 위까지 올라가도록 들라구요! (웃음) 이게 뭐야, 이게? 똥굴면서라도 들라구, 똥굴면서라도! (웃음) 알겠지요? 「하이.」 내리라구요! 조금 더 들면 문이 열려 버리겠다구요. (웃음) 선생님이 안 좋은 말씀도 하지요? 무엇이든지 안 좋은 내용을 분명하게 설명함으로써 올바른 근본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선생님 이외에 생식기의 본연적인 내용을 밝혀 준 사람이 없습니다.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도 남편의 생식기를 점령하기 위해서

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는 사랑·생명·혈통과 양심의 왕궁이라고요. 그것을 속이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속이는 사람은 천하에 아무리 이상적인 실적을 쌓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결론입니다. 알겠어요? 「하이.」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순결을 지키는 부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주고받는 가장 귀한 예물은 순결입니다. 그 이상으로 귀한 예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천지에 자랑할 수 있는 예물입니다. 모두 다 그러한 예물을 원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영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린 일본 사회는 지옥입니다. 그것은 그냥 그대로 지속될 수 없습니다. 어차피 망하게 되어 있다가요.

그러나 일본은 망하더라도 통일교회의 멤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순결을 지키는 부부가 되라고 가르쳐 주는 곳이 통일교회입니다. 그렇게 통일교회가 가르쳐 주는 대로 완성한 사람은 하나님도 찬양할 것입니다. 알겠어요? 「하이.」 지금부터 어떻게 수천대 그대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한 혈통을 연결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귀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 다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알겠어요? 「하이.」

그래서 선생님이 오랜 시간 동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한 것을 모두 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그러한 가정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산천초목의 모든 것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데 있어서 뒤로 물러서면 안 되고 앞서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존재가 그 주인 앞에서 죽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주인 앞에서 죽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랑하는 주인과 연결될 수 있는 전통적인 내용을 남기고 죽고 싶어하는 거라구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희생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될 수 있는 길이 그러한 부부를 통하는 노정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하나님한테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순결을 지키는 훌륭한 부부입니다. 훌륭한 부부이기 때문에 훌륭한 아버지와 어머니, 훌륭한 아들딸, 훌륭한 손자와 손녀들….

그러한 배경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 천국에 최초로 등록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찾아오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이상 영광스러운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겠어요? 「하이.」 그러한 사실을 알겠다는 사람들은 양손을 들고 박수를 쳐 보라!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박수)

식이 끝나고 밥 먹게 되어 있나, 밥 먹고 식이 끝나게 되어 있나? 밥 먹고 해요? 나도 기운을 빼 가지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더운데 이렇게 땀을 흘리니까 머리가 멍하다구요. 인사를 올리고, 밥 먹고, 오늘 하루는 이렇게 기쁜 날로 알고 지내면 된다구요. 알겠어요? 「예.」 영계에서 왔다 갔던 손님들도 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맛봐도 괜찮다고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식사 시간으로서 환영합니다.’ 하는 박수를 쳐요! (박수) *

정오정착의 길

여기 출석한 사람들 부인들은 이번에 교육들 안 받았나? 「여기는 어
린 가정이지? (어머님)」 「예.」 「6000가정이나, 6500가정이지? (어
머님)」 「1800가정, 6000가정 그 이하입니다.」 어제 여기 들어왔나?
「예, 저는 1800가정이기 때문에 내일 들어갑니다. (윤정로 원장)」 내
일? 「예.」 1800가정.

상헌 씨 메시지는 영계에 모든 실상을 개괄적인 총평

엄마! 어디 갔어? 「들어가셨습니다.」 윤기병이는 비행기 알아봤어?
「예. 오후 다섯 시에 출발하시면 오후 일곱 시 반쯤 도착하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괜찮다구.

주동문이는 몇 시에 가겠다고 그래? 「부모님과 같이 가기로 했습니
다.」 같이 갈 수 있나? 「예.」 같이 가는 게 좋을 거라구. 「그렇게 얘기
를 했습니다.」 다섯 시? 「예. 오후 다섯 시입니다.」 그러면 내일이네?
「예.」 여기서 뭐 비행장은 무슨 문제없지? 「그것은 좀 알아봐야 합니
다. 내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맞춰서 조정을 다시 해야

2000년 9월 25일(月), 한남국제연수원.

* 이 말씀은 아침 훈독회 때 하신 것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읽으라구. 요전에 읽던 것 있잖아? 「예.」 《영계의 실상과 지상생활》 읽은 그 다음부터 읽으라구.

『제2장 지상인과 영계인과의 다른 점

먼저 지상인에 대해서 살펴보자. 지상인은 육신의 눈으로 보며 손으로 만지며 행동한다. 지상인은 언제까지라는 한정된 공간 속에서 제약을 받으며 살아간다. 예를 들면 인간은 10년, 20년, 60년 등등의 기간에 걸쳐 산다.』

이런 내용을 세계적으로 볼 때, 역사적으로 통일교회 사람들이 처음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상현 씨가 보고한 개괄(概括)이에요. 영계의 모든 실상을 개괄적인 총평을 해서 보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연하게 듣고 보낼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전부 다 기억해야 돼요.

훈독회라는 것이 가르쳐 줘 가지고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훈(訓)’ 자는 ‘말씀(言)이 흘러간다(川)’는 뜻이 있고, 또 ‘독(讀)’ 자는 ‘말씀(言)을 판다(賣)’는 뜻이 있어요. 팔려면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자기 것을 팔아야지, 만들지 못하고 관계를 못 지어 가지고 팔면 그건 장사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못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알아 가지고 영계의 사실들을 자기 후손들 앞에... 자기 가정을 중심삼고 손자들, 여편네와 자기까지 합해 가지고 삼시대 사위기대 전환 축복식을 했다구요. 그러니만큼 이제는 하늘의 법도를 땅에 옮겨서 그대로 살아야 할 것이 가야 할 길이에요. 막연하면 안 된다고요. 그냥 그대로 있다가는 어떻게 할 테예요? 알겠어요? 이려고 저려고 입 벌려 가지고 말하지 말라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심각한 얘기에요.

이걸 모르면 하늘나라 백성이 못 되고, 또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어요. 지상에서 그런 내용들을 완전히 체득하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다

는 것을 알고, 그래서 훈련받아 가지고 가야 된다고요. 똑똑히 알아야 돼요.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요전에 성 어거스틴이 보낸 내용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상현 씨를 통해서 영계를 그렇게 세밀히 가르쳐 주었다고요. 강현실이 질문에 대해서 그 이상 이야기할 내용이 없다고요. 밥 먹기 전에, 어디 직장을 나가더라도 그걸 생각하고, 그 프로그램에 맞게끔 살고, 그 사는 환경 여건, 지상의 삶의 터전이 그냥 그대로 옮겨져 가는 것이 영계의 실상이에요, 실상. 실제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영계에서 후손을 도와주는 데는 가정을 중심삼고 돕게 돼 있어

『예를 들면 인간은 10년, 20년, 60년 등등의 기간에 걸쳐 산다. 또 지상인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는 없다. 지상인은 무엇이든지 인위적인 것은 할 수 있으나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마음의 표시를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나타낼 수는 없다. 지상인은 먹고 싶지만 자기가 움직이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 그리고 지상인은 공간 속에서 행동하지만 자기가 이상의 세계를 그럴 때 생각으로만 끝난다. (중략)

결론적으로 지상인과 영계인의 다른 점을 요약하면, 지상인은 한정된 공간 속에서 한정된 시간의 제약을 받으며 살아 간다. 즉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쁘게 활동하므로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달프지만, 영계인은 영계의 세계에서 제약하는 방해물이 없으므로 무한히 자유스럽다.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으니 무한히 밝고 검허하다. 이 경우는 자기의 육신 생활의 결과가 천국인으로 결실되었을 때 해당하는 것이다.』

높은 천국에 가야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지옥에는 먹으려야 먹을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반대라고요.

『……지상에서의 부부는 안방에서나 침실에서 주로 사랑한다. 여기 영계인 하늘나라에서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 안방에서만 사랑하는 숨겨진 사랑이 아니다. 넓은 들에 꽃이 만발한 꽃밭 속에서도 사랑하고, 아름다운 대지 위에서도, 출렁이는 파도 위에서도 사랑의 행위를 한다. 새들이 노래하는 산 속, 숲 속에서도 사랑하는데 그것을 보는 이도 너무 아름다워 취하게 된다. 지상에서처럼 창피하다든지 수치스러운 듯한 감정을 느끼지 않고 아름답게 느끼며 평온한 마음으로 본다. 지옥의 한 장면을 잠깐 이야기하면 그곳은 이곳과 정반대이다.』

이 땅 위에 있는 후손들을 도와주는 데는 원래 가정을 중심삼고 돕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계의 축복받은 가정들이 지상에 와 가지고 축복받은 가정, 이후의 모든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제일 중요시할 것이 뭐냐 하면, 영계 내용의 교훈과 이 땅 위의 참부모님의 교훈을 철저히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영계에 모든 막혔던 담을 넘어 가지고 본연의 해방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혼독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혼독회.

이제는 여러분이 지상에 있어서 잘못하면 조상들이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사탄이 지상의 아담세계를 거꾸로 뒤집어 박아 가지고 마음대로 복 주고 화 주고 했다구요. 복이 아니라 화를 줬지요. 그것을 벗기 위해서는 후손들이 정성들여야 되는데, 여기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축복받은 가정들이 후손을 위하는 것은 천사와 달라요. 축복받았다는 것은 부모님의 피를 영적인 면이지만 전수해 준 것이기 때문에, 축복받은 가정이라는 것은 사탄과 혈통적 관계가 없구요.

지금까지는 세계적 기준에 있어서 들어오던 물이 만수가 되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안 되었다구요. 이제는 축복한 모든 걸 확대시켜 가지고 선생님이 천상세계-지상세계의 모든 담을 다 청산해 가지고 수평이 돼 가지고 물이 나갈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갔던 물이, 먼저 나가서 하늘 앞에 있던 것이 들어올 때에는 맨 나중에 들어와요. 맨 나중에 물이, 맨 밑창에 있던 물이 먼저 들어온다는 거예요. 밑창은 지옥과 마찬가지로요. 그것이 먼저 들어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맨 먼저 나갔던 것이 맨 나중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서 수평이 될 그때가 선악의 통일적 시대예요. 그때를 중심삼고 성인들과 살인마들을 같이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럼으로 말미암아 천상세계, 지옥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고급 영계가 지옥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라구요.

국경철폐를 할 수 있는 대표적 세계 조직이 종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정을 중심삼고 남북통일시대가 왔다고 북한이 저렇게 하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만 마음대로 안 돼요. 이러한 때를 중심삼고 유엔을 중심삼아 가지고 앞으로 유엔에 자리잡을 수 있는 일을 선생님이 해야 돼요.

세계 나라들이 유엔에 전부 해서 190 몇 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지만, 그 가입된 그 나라들이 유엔에 와 가지고 자기들 나라 이익을 위해서 유엔을 뜯어먹고 도적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회의 때는 어떤 대사가 와서 자기 나라를 선전하고 이야기할 때 감동되더라도 박수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왜? 옆의 나라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다른 대륙이 다른 대륙을 도와줬다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이익을 위해서 유엔을 중심삼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고 하나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분산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있어서 종교권이 가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권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계를 위한 것이라구요. 우리 통일교회는 세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구요. 그런 내

용을 중심삼고 유엔에 상원 조직을 만들려고 그래요. 상원제도에 들 수 있는 종교권인데, 종교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국경선 없는 연합운동을 해야 된다고요. 국경철폐를 할 수 있는 대표적 그런 세계 조직이 종교이기 때문에, 그 종교를 통일, 하나 만드는 것이 이 지상천상천국의 통일의 이념을 중심삼아 가지고 사탄세계를 해방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교회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의 주의를 뭐냐 하면 개인주의도 아니요, 민족주의도, 국가주의도 아니에요. 천주주의라고요. 천주주의라는 것은 성인도 해방시키고, 성자도 해방시키고, 하나님까지 해방시키자는 거예요.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세계, 하늘땅을 위하는 것입니다. 개인, 나라를 위하는 때는 지나갔다고요.

이러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그런 나라의 창건을 위해서 그런 나라의 주권, 지상천상 통일의 주권을 이룰 수 있는 통일의 은사, 혜택을 받아 가지고 통일된 가정들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를 중심한 주권과 백성과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땅이 없어요. 그 땅은 남북한 통일을 중심삼고 땅을 이루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8차 대통령, 8차 주권시대에 반대를 받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빠드러지게 될 때에는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사탄이 절반을 가져가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 할 수 없이 선생님이 땅을 사 가지고 유엔의 기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120만 헥타르인데, 120만 헥타르면 제주도의 8배고 서울의 26배가 돼요.

그 땅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자는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 통일교회 땅이 아니에요. 이것을 위해서 지금 총생축헌납, 이 땅에 있는 모든 물건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엔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조국광복의 터전입니다. 거기에 본향의 땅이 연결되어 있고, 본 나라가 연결되어 있어요. 어느 누구,

지상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고향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사탄의 고향이에요. 사탄 나라에서 살아 왔어요. 이러니까 그 반대로 하나님의 혈족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하늘나라를 대표한 백성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고향에 가야 되는데, 그 하늘나라의 고향을 중심삼고 전체가 하나되는 나라를 만들어 세계 지구성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소원이요, 우리 조국광복이 되는 거라구요.

그러니까 영계에 그런 이상 기준이 지상과 엇갈려 있기 때문에 선생님님이 이것을 전부 탕감해 연결시켜 가지고 영계에서부터 전부 딱 해 가지고... 비가 오게 되면 맨 위에서 흐르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정적 이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삼아 가지고 영계를 수습하고 지상과 하나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만드는 것은 누가 하느냐? 거짓 부모가 만들었던 것을 탕감해야 되기 때문에 참부모가 와 가지고 하늘땅을 하나 만들고, 중간에 있던 개인적인 지옥, 가정·종족·민족·세계적 지옥을 확 터 버리는 거예요.

본연의 기준

그렇기 때문에 낙원에서부터 중간영계와 지옥까지 철폐예요. 그 권한은 선생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철폐해 가지고 하나 만드는 거예요. 하나 만드는데, 지금까지 타락한 세계의 천사장권이 영계를 중심삼아 가지고 형님 자리에서 동생을 이용해 먹었어요. 그러나 이 형님 자리가 뭐냐 하면, 천사장 축복가정이에요, 영계의 조상들이. 지상의 현재 선생님을 통해서 직접 축복받은 가정이 아담적 가정이고, 영계의 조상들은 타락한 세계, 영계에 있어서는 안 될 천사장 축복가정과 마찬가지로요.

그러면 어떤 것이 본연의 기준이나? 아담이 본연의 기준을 중심삼아

가지고 아담 완성의 길을 따라 천사장도 따라가야 할 것인데, 그것이 안 되어 있다구요. 그래서 선생님을 중심삼고 지상의 탕감한 모든 전부를 중심삼고 영계에서 같은 페이스를 중심삼아 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상대적으로 하나 만드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된 이것은 천지도 상하로 이렇게 해도 맞고, 이렇게 해도 맞고, 오른쪽은 왼쪽에도 맞고, 전부 다 어디든지 맞게 돼 있다구요.

그런 통일적 세계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지상에 있어서... 이제는 축복시대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혼남녀, 요즘에는 기성가정도 합해 가지고 4억3천만쌍을 축복해 줬지만, 미혼남녀 축복만 해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날 때가 되었다구요. 그리고 나라를 중심삼고 통일적인 운세, 세계적인 운세가 수평선을 넘는 이때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삼시대 대전환 사위기대 통일 축복식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선생님이 80세가 넘어 가지고 세상으로 보면 쉰 때고 그런 때이기 때문에 영계에 있는 흥진군을 중심삼고 영적인 처리 방법, 영적인 수속을 밟고 하는 거예요. 지상에서 이미 다 축복해 가지고 인정하면 저 나라에 가서 수속을 밟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고해야 돼요. 이 수속을 밟을 때, 입적할 때 자기들의 소유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소유물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물건을 갖고 있고, 아들딸을 갖고 있고, 다 그렇지요? 또 자기 부부를 갖고 있다구요. 그거 자기 것이 아니에요. 이걸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생축헌납물을 바쳐야 돼요.

인간들이 축복 결혼하기 전에는 소유물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것이었다구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 것이 되어 버렸다구요. 거짓 부모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어요. 참부모 앞에 축복받기 전에 여러분이 모든 물건을 하늘의 물건으로 승인시켜 놓고 축복받는 것이 원칙이라

구요. 원리가 그래요.

그런데 타락했기 때문에 뒤집어졌는데, 오늘 기독교문화권이 2차대전 이후에 선생님을 직접 모셨으면 그냥 그대로 8억이라는 기독교인들을 중심삼고 한꺼번에 순식간에 축복을 해줬을 거라구요. 그랬으면 3년 반도 안 걸려요. 1945년에서 1952년까지 끝냈다면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축복함과 동시에 천국이 연결되는 거예요. 선생님 40세에는 천하를 메주덩이 났듯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천주교하고 신교가 합해 가지고 통일교회를 반대했어요. 영적 기준의 가인 아벨이 반대를 했으니까 이 지상에 나타난 공산세계와 민주세계, 이 가인 아벨이 반대하고, 또 종교권 전체가 합해 가지고 선생님 타도 운동을 한 거예요. 사탄 전권시대예요. 영육(靈肉) 전부를 사탄이 마음대로 한 거예요. 영적 기반, 육적 기반을 통일시켜 가지고 공산세계와 민주세계, 그 다음엔 종교권 전부가 통일교회 하나를 타도하기 위한 운동을 한 것입니다. 나라와 종교가 초종교·초국가로 하나되어서 선생님을 모셔야 할 텐데, 초종교·초국가가 하나되어 가지고 통일교회를 파탄하려 한 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한 그 명사가 초종교초국가연합입니다.

윤정로, 알겠어? 「예.」 초종교초국가연합이 뭐라구? 그것이 왜 나왔다가? 「기독교가 책임 못 한 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나라와 세계가 책임 못 한 것을…」

세계 공산주의와 민주세계가 원수인데 하나되었어요. 기독교 종교권, 구교 신교, 하나님의 주류 종교, 방계적 종교가 하나되어 가지고 반대했다구요. 초국가, 초세계적인 국가예요. 그 다음에는 초세계적인 종교가 반대했으니 이것을 밟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삼고 초종교초국가연합을 만들어 놓고 유엔을 탈환하는 거예요. 이번 싸움이 그거라구요.

초종교초국가연합을 만든 이유

그런데 지금까지 나라를 중심삼고 자기 국가 이익을 위해 나왔어요. 우리는 세계적 하늘땅의 이익을 중심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경지대를 철폐해 버리라는 거예요. 국경이 생겼기 때문에 가인 아벨의 싸움이 벌어져요. 이걸 철폐해 버려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이 건 사탄 이름으로도 하나님 이름으로도 안 돼요. 참부모의 이름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거짓 부모가 만들어 놓은 것을 참부모가 수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철폐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국경이 없어지게 된다면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나 되느냐? 무엇을 중심삼고 하나되느냐?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잘못해 가지고 두 원수가 생겼기 때문에 원수와 원수의 국경에 있던 사람들이 거꾸로 이것을 교체해야 돼요. 이렇게 되었던 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지옥이에요. 이 건 파괴예요. 파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국경철폐라는 말은 결혼식을 잘못해 가지고 거짓 부모가 생겨난 것을 참부모의 승리권을 찾아 나온 구원섭리의 승리에 대등한, 주종관계의 전환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은 뭐냐? 결혼식을 원수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론에 맞는 얘기에요. 알겠어요? 「예.」 왜 초종교초국가연합을 만들었느냐고 하면 뭐라고 그러겠냐? 「기독교하고 나라, 세계가 책임 못 하고, 공산 민주의 전세계가 책임 못 한 것을…」

그래, 종교권과 정치권이에요. 국가 최고의 세계주의적인 정치권, 그 나라들과 세계주의적인 종교권이 반대한 이걸 넘어서야 돼요. 초종교 초국가권을 중심삼고 유엔을 붙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유엔이 나에게 붙들렸어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나한테 걸렸어요. 소련이 걸려들고, 중국이 걸려들고, 미국이 걸려들고, 구라파 전체, 열두 개 나라 청년 남녀, 유명한 대학교 청년들하고 유명한 대학교 선생들을 묶어서 세계적인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청소년을 중심삼고 24세에서부터 48세 이하라구요. 24세부터의 남자 여자나 상대적으로 돌이기 때문에 48세로 정한 거예요. 이 청년들을 연합해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에서 12년이면 24세인데, 상대적으로 48세 이하의 모든 축복가정들을 중심삼고 그들이 앞장서고 그 이외 사람들은 뒤에서 모든 것을 상속해 줘야 돼요.

형님으로 모셔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여기는 부모가 있지만 여기는 부모가 없어요. 여기는 다 없어졌으니 형님을 모셔야 되고, 부모를 모셔야 되고, 왕권을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의 하늘땅을 대표한 주권을 현현시켜야 할 것이 선생님의 유엔에서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선포하는 것이 그냥 선포하는 것이 아니예요. 유엔이 정착할 땅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입니다. 있는 정성을 다해 가지고 지금 그 놀음을 한 거라구요. 여러분은 배 땅땅 치고 잘 살겠다고 자기 똥개 같은 아들딸을 먹여 살리기 위해 요란하지만, 선생님은 하늘땅을 해방하기 위해 홀로 이 놀음을 했어요.

청소년 윤락과 가정파탄은 평화를 파괴하는 근본적인 원수

이제는 북한과 남한의 이 땅 삼천리반도를 잘라 버려도 돼요. 잘라 버려서 망하게 할 수 없으니까 유엔의 이름을 가지고 국가 앞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윤락과 가정파탄은 평화세계로 가는 데 있어서 평화를 파괴하는 근본적인 원수의 사망 틀이예요. 이걸 철폐하기 위한 교육을 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이번에 우리가 하는 교육이예요. 청소년 윤락과 가정파탄을 방어해야만 인류는 멸망하지 않아요.

에이즈로 말미암아 아프리카 같은 데는 60퍼센트 이상, 일년에 수백만이 죽어 없어진다구요. 세계에 위험수위에 있어서 최후의 경고를 받는 이때에 있어서 자기 멋대로 프리 섹스, 호모·레즈비언이 되어 가지고 난장판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에이즈의 온상과 마찬가지로요. 바빠요. 이제 10년, 20년 이내에 인류가 망하느냐 하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걸 하지 말라고 해도 선생님의 말과 우리 통일교회의 교육방법을 온 국가, 유엔이 지지하지 않을 수 없는 초점에 와 있어요. 이 초점만 딱 찍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왔으니 영계도 전부 다 정리해 줘야 돼요. 입적했으니, 입적이 끝나게 되면 정리가 되는 것 아니에요? 하늘나라 입적이예요. 그리고 유엔에 그런 전부를 선포했기 때문에 남북한이야 통일되면 되고... 이렇게 시계를 이렇게 돌려서 반대로 돌아왔으니, 이제 반대의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안 되면 이것을 잘라 버리고, 이걸 잘라 버리고 바른쪽으로 돌아가요. 더 큰 하나의 나라 유엔을 중심삼고 이걸 잘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유엔 나라의 땅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남북 평화선을 중심삼고 원수의 나라였던 남한과 북한이 결혼해서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번에 교육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국경선을 철폐하면 어떻게 하나되느냐? 원수 원수끼리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되는 거예요. 참부모 대신 거짓 부모가 나와서 원수를 만든 것을 참부모가 옴으로 말미암아 원수와 대등한 자리에서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아담가정으로 보면, 가인 아벨의 형제가 피 흘렸던 사실로부터 국경선에서 피 흘리는 놀음을 사탄이 만들어 놓았으니, 그것이 하늘땅에 막힌 담이 되어 있으니 국경선 철폐와 더불어 원수끼리 결혼함으로써 지상과 천상세계는 평면적으로 하나되는 거예요. 이론적이라구요. 알겠어요? 「예.」 똑똑히 알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축복이라는 것은 뭐냐? 새로이 입적하는 데

있어서는 하늘나라에 입적해야 된다고요. 영계, 마음적 세계에 입적해야 돼요. 흥진군이 지금까지 종교권 전체 대표의 챔피언이 되어 있어요. 나라는 없어요.

종교권을 중심삼고 예수가 영계에 가 가지고 마음적 세계를 통일시킨 거와 마찬가지로, 흥진 군이 영적 세계 종교권 전체의 책임자가 되어 있는데, 지상에 있어서 탕감역사를 중심삼아 가지고 거짓 부모가 이루었던 것을 전부 청산해 났으니, 지상의 축복가정과 영계의 축복가정을 연결시켜 가지고 지상세계의 축복가정이 앞에 서야 돼요.

흥진 군이 영계에 가 가지고 영적 세계를 중심삼고 내려와서 직접 이 땅 위에 상속받는 것은 흥진 군이 아니고 현진 군이 된다고요. 실체를 중심삼고 지상을 협조함으로 말미암아 형 된 입장에서 앞으로 동생 되는 현진이 중심삼고 지상의 가정들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참부모가 여기 서 가지고 뒤집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위에서 물을 부으면 자동적으로 발등상까지 통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사탄이 우거할 수 있는 기지가 없어져요. 그거 다 이론적이라고요. 주먹구구로 앓아 가지고 세상을 모르고 뭐 어쨌고 어쨌고... 공상 갖고는 안 통한다고요.

초종교초국가연합을 중심삼고 3년 만에 유엔에서 출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꼭 회장이 유명해졌어요. 대회 하기 전에는 서로가 만나지 않으려고 뒷문으로 도망 다니던 것이 대회가 끝나니까 서로 찾아와 가지고 자기들 친구들까지 부탁한다고 이려고 있더라구요. 순식간에 그렇게 돼요. 세상이 그럴 때가 왔어요.

몸과 마음이 하나되어 중앙에 오면 그림자가 없어진다

이번 8일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엔 지 오(NGO), 즉 논 가변먼트 오거니제이션(Non - 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이에요.

정부기관이 아니에요. 전세계에 유명한 단체들은 유엔의 지원단체로 들어왔는데, 이 3천 개 이상 되는 단체의 엔 지 오 총회가 없었어요. 선생님이 대회를 끝내고 10월 14일이든가 17일인가에 엔 지 오 총회를 하기로 했어요. 엔 지 오가 3천여 단체인데, 여기에는 뭐 나라의 단체도 있고 전부 다 들어가 있다구요.

그래 가지고 그걸 중심삼아 가지고 교육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교육하는데, 유엔의 이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국가 이름을 가지고, 대한민국이니 뭐 김정일 이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엔의 이름을 가지고 교육면에서 그것이 출발하게 되어 있다구요.

그래서 금년까지 185개국 교육이 모두 끝나게 된다면, 세계적 지도자들, 국가적 최고 지도자들이 유엔의 길을 따라 가지고 총궐기하는 거예요. 종교와 이상적인 하늘땅의 세계사적인 가치관을 중심삼고 지금까지 국가 이념을 넘어선 이런 사람들이 결속해 가지고, 지구성 제패의 상원이 되어 하원을 교육하고, 통일의 세계, 지상천상천국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주권 일체가 되어 자리잡는 거예요. 그래, 어제 말한 대로 정착하는 거예요.

무슨 날이라고 그랬나, 어제? 무슨 정착? 정오정착(正午定着)이에요. 정오에는 그림자가 없대구요. 거리낌 없이 그림자 없는 사람이 되어 가지고 정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과 마음이 하나되어 가지고 딱 중앙에 오면 그림자가 없어져요. 몸과 마음이 하나 안 되면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부부가 정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오에 그림자 없이 정착하라고 했지요? 정착해 가지고 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이상 모든 전부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었던 그 전통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유린당하고 파괴되어 슬픔과 한을 품었던 이 모든 피조세계를 하나님 대신 부모의 자리에서, 참부모의 자리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아담이 천지에 대 완성을 해서 출발해야 했던 그 표본적 가정에서

가지고 만물의 작은 물건에서부터 큰 물건까지 사랑하는데, 우선 태양 빛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고, 그 다음엔 물과 공기를 사랑해야 돼요. 이게 생명의 요소예요. 공기가 없으면 죽지요? 몇 분 이내에 공기가 없으면 죽어요? 물이 없으면 죽지요? 「예.」 햇빛이 없으면 죽지요? 「예.」 이게 3대 생명의 요소입니다.

그것이 보이는 세계라면 이 보이는 세계의 3수의 본 뿌리와 같은 것이 참사랑입니다. 참사랑을 중심삼고... 흐르는 것은 모두 몇 개예요? 햇빛이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틈바구니가 있는 데는 햇빛이 뚫고 나가요. 틈이 있는 데는 어디든지 뻗어 나간다고요. 그 래요, 안 그래요? 물도 틈이 있는 데는 다 들어가요. 공기도 그렇지요? 「예.」 틈이 있는 데는 다 들어가요.

그것은 누구를 닮았느냐? 참사랑이에요. 이건 상대적이예요. 근본적인 참사랑은 틈이 없는 세포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지구성 물질세계에 무사통과예요. 참사랑은 틈이 있는 데는 못 가는 데가 없어요. 가 가지고 윤회유의 작용을 합니다.

참사랑만이 하나님까지도 감동시켜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자기를 위하라고 잡아서 다그치는 것이 아니예요. 전부 투입하는 것입니다. 백퍼센트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러 니 닿기만 하면 쉼 올라가 버려요. 모세관 작용이 있기 때문에 수분이 전부 틈 사이를 타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사랑만 이, 위하겠다는 사랑만이 틈이 있는 것은 근본까지도 뚫고 들어가고, 하나님까지도 감동시켜 가지고 데리고 나간다고요. 참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상적인 이론이 아니예요. 만유의 존재, 물질적 세계에 있어서 이러한 원칙적인 소성을 중심삼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최고니

만큼, 하나님이 최고의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우주를 관할하고, 우주를 통찰하고, 우주를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갈 데가 없잖아요? 그것은 위하는 사랑만이 할 수 있어요.

공기도 전체에 투입해 들어간다고요. 물도 빛도 마찬가지예요. 위해 주는 이런 힘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보다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위하고 위하고, 영원히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양소가 보급된 데는 죽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라게 되어 있어요. 개인에서 환경 전체가….

인간은 하나님 이상 사랑의 상대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사랑의 상대가 자기보다 몇백만 배, 수억 배 잘나기를 바라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려니까 하나님 자신이 절대선양절대사랑절대복종의 칸셉을 가지고 실제로 투입하고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우주의 형성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 아담 해와가 사랑을 품고, 두 쪼가리가 하나되어서 품고 ‘이제 됐다.’ 하고 돌게 되면 영원히 주고받아요. 하나님은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저건 받고 잊어버리니까 영원 회전운동이 벌어져 가지고 우주는 영속할 수 있다는 논리적 결론이 나온다고요. 알짜? 「예.」 선생님 무슨 공상가가 아니예요. 이론가예요. 이론가인 동시에 실재가예요.

영계의 실상이라는 말을 중심삼고 여러분이 잊어버리게 된다면 어디에 가서 떨어질지 몰라요. 무한한 공간세계, 어느 별나라에, 어느 구덩이에 쓰러질지 알아요? 생각해 보라고요. 그걸 몰라 가지고 똥구더기 세계에 있어서 사체를 파먹는 그것이 천국인 줄 알고 거기에 박혀 가지고… 그놈의 구더기도 파리가 되어 날아야 돼요. 마찬가지 아니예요? 사람도 날아가야 되지, 똥 구덩이에서 있으면 안 된다고요.

노라리로 해먹다가 통일교회 선생님 뭐, 부모님… 말을 못 해요. 말이 다 더러움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림자 없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몸 마음이 완전히 하나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림자가 없어져야 돼요. 부부가 사랑 하는 데도 그림자가 저서는 안 돼요. 오관을 중심삼고 사랑의 주체에 전부 다 맞추어 가지고 딱 정착해야 돼요.

우리 맹세문 2절에 있잖아요? 참부모를 모시고 천주의 대표적 가정 이 되고 중심적 가정이 되어 효자... 뭐 그렇게 다 있잖아요? 충신. 열녀. 효자가 두 부모님 앞에 그림자가 없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볼 때 그 아들이 그림자가 있어 '저거 안됐다.' 하는 게 없어야만 효자가 돼요. 나랏님이 볼 때도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성인이 볼 때 그래야 되고, 성자가 볼 때도 그림자가 없어야 성자의 도리를 이어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언제든지 앓게 되면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 그림자가 어디에 있느냐? 왼쪽으로 갔느냐, 오른쪽으로 갔느냐? 양심이 여기 서 가지고 바른쪽에서 그림자는 왼쪽으로 가니만큼 사탄은 얼마 남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오정착이라는 말을 했다구요. 그렇지요? 나중에 그 것까지 얘기했다구요. 정착하면 뭘 할 것이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창조하던 모든 물건을 하나님 이상 좋아하면서 사랑해 가지고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정성들여 만든 것을 함부로 차 버릴 수 있어요? 알겠어요? 「예.」

책임자는 어디 가든지 그림자가 없는 수직과 연결될 수 있어야

그래서 선생님이 산에 올라가면 산을 보고 산에 보이는 모든 높은 것을 추구하는 물건을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깊은 강가에 앉아 가지고는 깊은 거기에서 자라는 모든 고기와 초목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수고 가운데서 높고 낮은 모든 것을 사랑을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사랑의 주체 되는 그런 책임자는 어디 가든지 그림자가 없게끔 수직과 연결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래야 그림자가 없어져요. 개인적으로 양심적, 가정적으로 양심적, 종족적으로 양심적, 국가세계천주적으로 양심적이 되어 그림자가 없어야 하나님의 직계 직할이 될 수 있는 보좌 아래에 연결되는 거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라고요. 남편 아내가 수직으로 올라가 가지고 머리로부터 척추로부터 하나님이 앉은 보좌 아래 통할 수 있는, 그림자 없는 자리에 서 있느냐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서 있느냐, 가정적으로 서 있느냐, 종족적으로 서 있느냐, 국가적으로 서 있느냐, 천주적으로 서 있느냐가 문제예요. 하나 꿰어 놓으면 여기에 큰 돌레, 큰 돌레, 그것이 가운데 끼어 있어야 전부가 들린다구요. 하나되어 있어야 하는데 따로따로 전부 떨어져 있다구요. 그림자가 오만가지로 되어 있어요. 국경이 오만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림자가 있는 데는 뭐가 있어요? 국경이 있지요? 선생님하고 여러분에 국경이 있어요.

그래, 정오정착이란 말은 놀라운 말이에요. 도망갈 길이 없어요. 이놈의 눈이 그런 자리에 있고, 코가 그런 자리에 있고, 입이 그런 자리에 있고, 영적 오관과 육적 오관이 그런 자리에 있느냐 할 때, 회개해야 돼요.

이놈의 자식들, 뭐 이번에 입적했다는 녀석들이 임지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선생님 밑에 한 줄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자기 아들딸을 중심삼고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서 뭐 어떻고 어떻게 하고 말이에요.

선생님은 선생님의 아이들도 다 버렸어요. 그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가인의 아들딸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고, 가인 일족을 자기 일족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 나라보다도 가인 나라를 사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버리고 미국에 30년 동안 가서 별의별 욕을 먹으면서 이 놀음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34세에 천하통일 해야 할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선생님이 34년이면 미국을 넘어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놀음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총생축헌납물을 봉헌하지 못한 것을 내가 해드려야만 해방된다고 보는 거예요. 탕감이예요, 탕감.

2004년까지 4년이에요. 선생님이 34년을 미국에 가 가지고, 이스라엘의 예수님이 서른네 살에 축복결혼식을 해 가지고 로마를 넘어가려고 하다가 못 한 것을 탕감복귀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엔을 타고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때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습니다.」 왔어요. 눈앞에 왔어요. 정신차리구, 똥개새끼들!

그렇기 때문에 전환식이에요. 정착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아들 딸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올라와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축복할 때가 왔어요. 선생님이 안 해줘요. 자기들이 해야 돼요. (녹음이 잠시 중단됨) 알겠어요?

사위기대 통일 전환해야

전체를 수습하는 데는 내가 관여할 필요 없어요. 지상 일만 관여하고는 이제 영계 처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 부모님이 계시니... 하나님 앞에는 말이에요, 부자지관계가 형제가 돼요.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지요? 형제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일신·부부일신·형제일신이에요. 핏줄이 연결되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나무를 중심삼고 보게 되면 부자일신, 종대뿌리하고 종대순은 상하관계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하늘과 나무가 딱 거꾸로 되어 있다구요. 순이 맞아야 돼요. 뿌리가 맞아야 돼요.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지금 문제라구요.

하나님이 뿌리지요? 인류가 줄기지요? 만국은 수많은 가지예요. 잎들이 우리 개인과 마찬가지로. 하늘과 이게 이렇게 돼 가지고 순 될 수 있는, 지상의 나무 순과 하늘나라의 순이 이렇게 돼 가지고 이래야 운동이 벌어져요. 딱 하늘에서는 내려오고 여기는 올라가서 합해 가지고 운동이 벌어진다구요. 구심력과 원심력 바람이 받아치면 회오리바람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무와 하늘이 반대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 만드는 것이 이번 식이에요. 거꾸로 서서 나오던 것이 비로소 하늘을 중심삼아 가지고 뿌리가 하나님으로 되어 가지고 참부모를 중심삼고 가지, 만국 형태로, 통일세계로, 영계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식을 해준 거라구요.

아까 뭐라구요? 삼시대? 「사위기대!」 사위기대 통일 전환식이에요. 사위기대 이거 못 해서 타락했지요? 그러니 전환이에요. 조상이, 할아버지가 손자가 되고 손자가 할아버지 되고, 아버지가 아들 되고, 형님이 동생이 되는 거예요. 전환이에요. 전환하면 뒤집어지지요? 전환 뭐라고? 삼시대 사위기대 통일... 3시대는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 아니에요? 통일 전환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제4차 아담 해방시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섭리사관, 원리원칙을 중심삼고 이론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과학자, 무슨 공식으로 푸는 수학하는 사람도 이걸 부정할 도리가 없어요. 따라가야 된다고요.

정오정착을 생활철학으로 모시고 나가야

그래, 마지막이에요, 중간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나도 모르겠는데? 말 들어 보니까 마지막 말이에요, 중간 말이에요

요? 「마지막 말입니다。」 정말이에요? 「예。」 나도 모른다고 했어요. 여러분한테서 어디 그런 녀석들이 나오나 보자 이거예요.

자기를 잘 몰라요. 자기가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고 혈통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하고도 몰라요. 상대들이 그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자기가 몰랐던 것이 상대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요. 남자 앞에 여자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 있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자를 사랑하는 주인을 누가 만들어 주느냐 하면, 남자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자로 말미암아 사랑의 주인이 돼요. 그 사랑이 있는 한 위해 줘야 됩니다.

여자가 참 좋을 때가 왔어요. 문 총재가 해방해 주는 거지요. 여자가 쓸모가 어디 있었어요? 깨진 뭐라 할까, 자갈돌만도 못해 가지고 밭길에 차이고 그랬다구요.

무슨 정착? 윤정로! 「예, 삼시대 전환…」 아니, 무슨 정착? 「정오정착!」 그거 실감나지? 몸 마음으로부터 여편네, 아들딸 사위기대가 그림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대기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전부가 좋아하는 거예요. 아무리 넓더라도 전부가 좋아하는 거라구요. 알겠어요? 「예。」 언제든지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정오정착을 할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 있고, 남편 아내, 아들딸이 되어 있느냐? 여기에 그림자가 생기게 되면 ‘나 때문에 천지의 모든 화복이 우리 가정에 뿌리가 내리는구만.’ 이렇게 돼요.

무서운 말이에요. 또 이게 하나의 공식이에요. 모델이에요. 거기에 맞추어야 돼요. 그래서 다 쌍쌍이 되어 있지요, 쌍쌍이? 사위기대라구요. 보는 것도 전부 초점에 맞추어야 돼요. 시신경을 중심삼고 초점에 맞춰 가지고 의식구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사상이 종적 기준에 전부 꿰차는 거예요.

이게 전부 사위기대예요. 입도 사위기대 아니예요? 듣는 것도 삼반 규관(三半規管)을 통해서 공명되어 가지고 하나되어야 알아듣지 차이

가 있으면 몰라요. 전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손도 일할 때 이렇게 돼 가지고 일이 되겠어요? 두 손이 이렇게 돼서 (손뺌을 치시며) 딱 가져야 돼요. 상대가 안 되면 모든 것이 미완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림자가 없어져요.

정오정착! 해봐요. 「정오정착!」 이것을 생활철학으로 모시고 나가야 됩니다. 어디 가서 회의하고 나서는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 이거예요. 옳고 그른 입장에 있을 때는 내가 그림자를 대해 바른쪽으로, 왼쪽으로 걸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동감해 가지고 왼쪽 사탄 편이 내게 그림자가 졌으면 침범 받았기 때문에 탕감받아야 돼요. 언제든지 바른 쪽으로... 그래, 지그재그로 이래야 된다고요. 자, 읽으라구.

여러분은 나면서부터 부모의 은덕을 갖고 태어났어

『영인들은 지상에 있을 때 자기 삶의 기준을 가지고 영계에서 영원히 산다. 따라서 영인들은 지상에 있을 때 지은 죄를 벗지 못하면 여기에서 그 형벌을 영원히 받고 살아 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혼독회에 참석하는 것이 복인 줄 알아요? 이놈의 자식들, 혼독회에도 안 오는 그놈의 자식들, 지옥 가게 되었구만. 다투어 가지고 참석하면 선생님이 혼독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그러는데...

어제 시간이 없어서 정오정착에 대해 설명을 다 못 했다고요. 정착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천주의 모든 주관적 상속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전부 사랑해야 됩니다. 아들딸을 위해서 공을 들여 만든 선물 중에 귀한 선물이에요. 이게 사랑의 이상세계에...: 걸레 짜박지도 생활에 필요하지요? 천주를 거느리고 살려니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사도 약에 쓰는 거예요. 나쁜 것이 없어요. 전부 다 약재라고요, 약재. 그걸 하나님같이 사랑해야 돼요.

선생님이 산에 올라가 가지고 1960년대, 70년대에는 사냥을 다니면

서 그런 기도를 하고, 25년 동안 바다에 나가 그 놀음을 한 거예요. 눈만 뜨면 바다에 나가 가지고 해가 지기 전에 안 들어왔어요. 윤기병, 그거 알아?

이번에 처음으로 어디 가다가 돌아왔어요. 튜너 잡으러 갔다가 말이에요. 며느리하고 데리고 간 사람들이 전부 뺏겼더라고요. (웃으심) 한 시간 왔는데, 전부 다 토하고 얼굴이 헬쭙해졌으니 네 시간 더 가다가는 뺏어요. 고기 잡아 가지고 잡지도 말고 놓아주어야 되겠기 때문에, 물어 보니까 다 돌아가면 좋겠다고 해서 말이에요... 윤기병이도 돌아가는 것이 좋았지? 「예.」

옛날에는 죽었으면 죽었지 못 돌아와요. 태풍이 부는 바다에서도 두 시간, 세 시간 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배 안에 놓아둔 모든 것이 때굴때굴 굴러다녀요. 그런 것 봤어요? 그러면서도 아들딸, 며느리, 여편네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어부의 세계가 그래요. 죽기 전에는 아버지의 책임을 하겠다고 그러한 모진 파도를 헤치고 자기 일족을 살리기 위해서 수고의 길을 나서는 것이 어부들의 생활입니다. 어부들한테 배울 게 많아요. 농부들의 생활보다도 더 심각하다구요.

인생살이가 그렇기 때문에, 영계에 가 가지고 불쌍하기 때문에 내가 해방운동도 해주고 농촌에도... 내 농사일 못 하는 것이 없어요. 안 해본 게 없다구요. 모 같은 것은 선생님이 챔피언이라고요. 열두 개인데 말이에요, 여덟 개는 언제나 내가 심는다구요. 전부 다 손가락으로 갈라 나가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연구해야 빠른 거라고요. 모내기라는 것이 평안도 같은 데는 빨라요. 내려오면 늦다구요. 평안도 같은 데는 5월 단오 전에, 5월 들어서면서 모내기가 다 끝나요. 여기는 뭐 6월까지, 7월까지 모내기하는데.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몇 개월 동안 모내기하더라도 먹고 살 거라고요.

그런 모든 걸 다 해봤기 때문에 환해요. ‘저 일이 안 되겠구만.’ 하면

안 되고, ‘저 일이 잘 되겠구만.’ 하면 된다구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세계 다방면에 손을 대 가지고 역사에 없는 실적을 쌓고 있는 거라구요. 그렇다고 그게 내 것이라고 생각 안 해요. 다 잊어버렸어요. 좋다고 뭐 표창한 것 다 잊어버렸어요. 그것은 인류에게 넘겨줄 것이지 자기가 갖고 갈 것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 있더라도 원수 이름을 잊어버려요. 그거 기억해서 이익 될 것이 없어요. 그 사람 한 사람에 대해 말하지 않은 만큼 세계를 구하겠다는 마음이 거룩한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영계에 가야 할 때는 뭐냐 하면, 선생님을 위해 공을 세우고 눈물 흘리고 정성들인 데 대해 내가 빚을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빚을 다 갚아 주려니까 영계 해방, 조상 해방을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러분은 나면서부터 부모의 은덕을 갖고 태어나고, 살면서도 그 은덕을 갖고 살고, 죽어서도 부모의 닦아진 터전을 따라가야 돼요. 과거·현재·미래에 지옥 가는 것을 해방해 줌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이 바라던, 하늘 부모가 바라던 본래의 소원성취의 길을 남기고 살아 가는 것이 부모님의 역사예요. 그 역사를 따라서 고속철도의 궤도를 달리는 그 기관차와 같이 달려야 돼요.

짐을 많이 싣고 달릴 거예요, 자기 혼자 빈털터리로 달릴 거예요? 어디 가 가지고 빈털터리로 가게 되면 관심도 안 갖고 지나가 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짐을 싣고 가 가지고 그걸 내려놓으면 기차는 없어져도 짐은 남아요. 사람은 갔지만 그의 공은 남아 가지고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혜택 받아 가지고 생활하는 일기에, 마음세계에 기억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 땅에 사는 역사가 전체를 다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놀음을 하는 것이 창조이상이라구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윤정로! 「그렇습니다.」

윤정로도 자꾸 출세하는 게 좋지? 「예. 아버님이 출세시켜 주셔서 좋습니다.」 출세했으면 올라갈 데가 없어요. 둥근 세상이에요. 판을 치더라도 끝까지 올라갔다가 폭포수처럼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죽는 자리가 그렇다구요. 사람도 그래요. 올라갔다가 내려올 줄 모르는 사람은 거기서 망해요. 알겠어요?

일족을 위해서 사랑하라

문 총재는 그걸 알기 때문에 미국에 있어서 4년 전에 워싱턴 타임스... 국방부, 국무부, 백악관이 워싱턴 타임스를 무서워해요. 거기 앉아 있어 가지고 전화 한 통이면 누구든, 상원의원 의장이든 다 부르고, 무슨 장관이든 다 만날 수 있어요. 그걸 내버리고 남미의 제일 촌으로 들어갔어요. 다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미국이 버린 땅이고 천주교도 버린 땅인데 왜 거기에 가느냐고, 성공한 거기에서 회전의자에서 나발도 불고 북 치고 잔치하고 환영받을 텐데 왜 그러냐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윤정로를 고생시켰지 뭐 잘해?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천주교가 나를 반대했지만 이제는 추기경 이상의 사람들이 문 총재를 연구하고 있어요. 남미 여러 나라의 주교들이 모여 가지고 ‘가정 이상이 절대 필요한 것을 몰랐구만!’ 그러고 있어요. 신부 수녀들이 무슨 가정이에요? 공화당도 지금 가정이상, 민주당도 가정이상, 미국의 첨단에서 들고 나오는 그것이 내가 영향을 준 거라구요. 정책 방향에 가정 이 등장할 줄 누구 생각했어요? 군사력이니 경제력이니 힘을 과시해 나왔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찾아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림자 세계에 햇빛을 비추어 주는 사람이 지옥까지도 해방하고 천하를 통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삶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세

상을 죽기 전에 보고, 그것이 나와 직접적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다 눈으로 봤으니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똑똑히 대답하라고요.

중요한 시대에 들어왔다구요. 어머니 아버지, 아들딸 전부...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던 이상 일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선생님은 자기 아들 딸, 자기 가정, 자기 일족을 버리고, 자기 나라를 버리고 그 놀음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일족을 위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천국에 못가는 이 가정을 어디에 갖다 맡기겠어요? 내가 가만 안 두는 거예요. 별동세계에 갖다 처박아 놓고 격리시켜 가지고 혼란시켜야겠다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자, 읽으라구.

『.....지상인을 통하지 않고는 고통을 면할 수 없다. 또 지은 죄를 벗을 수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살던 처소로 꼭 찾아간다. 자기의 혈육이나 관계되는 이에게 찾아가서 계속 신호를 보낸다. 그러나 지상인이 모르기 때문에 가정에 환자가 생기거나...』

얼마나 불쌍해요? 이제는 그런 때가 지나갔어요. 조상들이 도와줘요. 그래, 복 주고 화를 준다구요. 도리어 피해가 될 때는 데려가요. 데려갈 권한까지 내가 흥진 군한테 허락한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급살을 맞아 죽는 놀음이 벌어집니다. 통일교회의 중요한 인물들이 병나요. 중요한 사람이 병에 걸려 죽어요. 사람이 썩을 때 한꺼번에 썩지 않아요. 밑으로부터 서서히 모르게끔 꺼져 가는 거예요. 두고 보라구요. 통일교회뿐만 아니라 나라도 그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나 지상인이 모르기 때문에 가정에 환자가 생기거나 재난이 닥쳐오고 교통사고가 생기는 이변이 일어난다. 모처럼 그 원인을 알게 되어 후손들이 기도하거나 그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면...』

이런 놀음이 여러분의 행태에 직접적 판결이 되어 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탕감복귀가 없어요. 자!

『.....지상인과 영인의 관계는 마음과 몸의 관계와 같다. 또 지상인

과 영인의 관계는 부부 사이처럼 떼어놓으려야 떼어놓을 수 없는 일체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지상인은 육체를 가지고 살 때, 즉 지상생활을 하는 동안 잘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한 삶이었음을 깨닫는 것은 대부분 육체를 이미 잃어버린 영인의 모습일 때이다. 육체를 가지고 지상에서 살 때 영원의 세계를 준비하고 정리하며 그날 그날의 삶을 잘 살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싶다.』

지금 우리 통일교인들이 살아서 알고 가는 것이 복이에요. 죽어 가지고 알면 뭘 하나 말이에요. 그러니 해방이 안 돼요. 지상에서 알고 감으로 말미암아 어디든지 해방되는 거라구요. 그게 본연의 완성, 본연의 상태라는 거예요. 자, 읽으라구.

핏줄이 연결되지 않고는 부자지관계가 맺어지지 않아

『이미 육체를 잃어버린 영인을 위하여 지상에 있는 후손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상에서 영인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 영계에 있는 조상의 위치가 평안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백성이 놀랍다는 거예요. 조상 숭배하는 데는 세계적으로 제일이에요. 후손들이 그렇잖아요? 3년상이라는 건 옛날로 말하면 얼마예요? 어머니 아버지 무덤 앞에서 3년상을 지내야 돼요.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목욕도 못 해요. 3년상이 그래요. 거지 중에 상 거지예요. 세상에 그런 비참한 것이 어디에 있어요? 자!

『오늘날 참부모님이 우리에게 종족적 메시아가 되라고 명령하신 것은 대단한 특사이다. 나의 이름으로 내 조상들에게 기도하여 구해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은사요 특사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평안한 위치로 안착시켜 줌으로써 내가 살고 있는 지상생활이 평안해진다.』

선생님으로 말하면, 이 재림주라는 것은, 참부모라는 것은 사탄세계의 맨 마지막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참부모가 있으니까 이렇게 퍼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사람이니까 천국 들어갈 때는... 천국은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마지막 여기서 넘어서는 것이 승리의 자리예요. 이 넘어서는 것이 아담세계 전체에 타락이 없던 권대로 전부 청산하고 나서는 거예요. 여기서 뒤집어져 가지고 참부모 아들딸을 중심 삼고 뒤집어 놓으면 천하가 전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때라구요. 맨 꼭대기에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올라왔지요? 「예,」 하나님이 바라던 보이지 않는 영계가 선생님에 의해서 보이는 지상천국과 보이지 않는 영계의 천국이 열매로 등장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꽃이 피게 되면 두 갈래의 꽃이 세계로 그냥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입적을 안 하면 안 돼요. 혈통적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근거를 잡아 쥐야 돼요. 너의 출발은 참부모의 혈족이다, 승리한 참부모의 혈족이니 이 뒤를 따라 가지고 앞으로 해방적 지상·천상천국의 상속의 자리를 이어 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혈족이에요. 핏줄이 연결되지 않고는 부자지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자!

『그러므로 내 조상들의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참부모님이 영계에 가서서 해야 할 수고를...』

이번에 추석 때 말이에요,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 사람이 선생님인데, 그거 보게 되면 조상들이 맨 끝이에요. 역사적인 모든 선조들을 지금까지 그렇게 후손들이 모시지 못했어요. 그걸 내가 책임지고... 총 뭐인가? 이번에 제목이 뭐인가? ‘총해원 추석’이라고 했다고요. 새천년 총해원 추석이라고 해 가지고 내가 제사를 해주었어요. 그래, 영계에 지금까지 막혔던 답을 거꾸로 더 주는 거예요.

온유겸손하고 위하면 천운이 올려 줘

그런 면에서 이거 다 준비예요. 이것을 준비해 가지고 이번에 식을, 삼시대 사위기대 통일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뒤집어지더라도 누가 항의할 자가 없고, 제일 좋아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가까이 있던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영계도 이제 낙원하고 중간영계, 지옥이 없어져요. 가정적 낙원이 생기고, 가정적 중간영계, 가정적 지옥이 생겨요. 사탄이 없기 때문에 멸망 안 해요. 조상들, 선조들이 와 가지고 후원해 주는 거예요. 자꾸 올려 끌고는 여기를 메워 주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 주는 거예요. 구해 줄 수 있다구요. 사탄세계는 구할 수가 없어요. 올려 끌어야, 점점점 세계적 판도로 거꾸로 올라가려고 해도 올라가지 못해요. 그러니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 밑창에 들어가는 거라구요. 자, 읽으라구.

『그러므로 내 조상들의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참 부모님이 영계에 가서서 해야 할 수고를 내가 덜어 드리는 길임을 명심하고 우리는 육체를 가진 자로서 지상생활을 잘 마무리해야 한다.』

이번에 이런 식을 함으로써 참부모가 영계에 가서 할 일을 전부 다 흥진 군 앞에 전수한 거예요.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요. 동으로 가다가 안 되면 서로 가고, 서로 가다가 안 되면 다른 데 갈 수 있는 거예요. 지상의 부모님이 명령했으면 동으로 가라면 그 길을 가야지, 마음대로 동서로 갈 수 없어요. 전수해 주니까 동으로 가다가 막히면 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 얼마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영계의 지상 협조 기반이 무한히 확대될 거라구요.

두고 보라구요, 그런가, 안 그런가. 어물어물하다가 행차 후에 나발 같이 되어 가지고 뒥굴어 떨어져 가지고 탄식하지 말라구요. 이젠 구

원섭리가 끝나는 거예요. 영계가 관할권 내에 들어가요. 지상 인간들에게 내가 할 짓 다 했어요. 이제 라디오로 방송할 때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 타임스를 만들고 유 피 아이(UPI) 통신을 사 가지고 일주일 이내에 세계에 선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다 닦아 놔어요. 그때에 가 가지고 ‘아이쿠, 통일교회 뭐 어땡고….’ 비판한 사람들 입을 놀리던 헛바닥을 빼고 싶고, 아가리를 그물로 꿰매고 싶은 분하고 원통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럴 줄 누가 알았느냐 이거예요.

끝까지 온유겸손해야 돼요. 위해야 돼요. 위하는 사람은 천운이 올려 줍니다. 인간이 올려 주면 안 돼요. 강제로 사기 치고 속여 가지고 정권을 잡은 그런 녀석들은 다 지옥에 거꾸로 떨어져요.

그렇게 반대하던 8대 정권이 다 흘러갔지만, 반대 받던 문 총재는 여전히 남아져 가지고 그들 후손들을 잡아다가 이놈의 자식들, 너희 어미 아비 무덤을 파 버릴 수 있는 이런 입장에 섰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해 주고 자식들을 버리지 않고 자식까지 구해 주려고 그래요. 어느 한 때에 그렇게 해놓아야, 원수들이 생겨난 것을 해결해 놓아야 평화의 세계가 되지, 그림자같이 담벽같이 놓아둬 가지고 안 돼요.

만유원력은 수수작용을 일으키는 근본 힘인 하나님을 상징해

그래서 국경철폐와 그 다음엔 없어진 다음에는? 「교차결혼입니다.」 교차결혼! 그런 때가 와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끼리 결혼 못 합니다. 일본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소련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원수하고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일본 놈이라고 하나요, 일본 사람이라고 하나요? 「일본 놈이라고 합니다.」 일본 놈, 그 다음엔 중국 놈, 그 다음엔 소련 놈, 그 다음엔 미국 놈, 전부 놈이지 사람이라는 말 안 한다구요. 고개 넘어가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하고

살인마하고 다 같이 축복한 거라고요.

히틀러니 무솔리니니 이 패들은 2차대전 초국가연합의 영적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마르크스, 레닌 같은 공산당 패거리들은 전부 다 나라가 없는 패들이예요. 떠돌이지요? 세계는 국가 기준만 있지, 2차대전 때같이 연합국가가 없었어요. 연합군이라고요. 그렇지요? 연합국을 중심삼고 통일적 친하를 중심삼고 오시는 부모 앞에 헌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꼴이 되었다구요. 그러니 개인가정으로부터 전부 다….

가정도 전부 다 깨지고, 종족도 깨지고, 민족도, 나라도 깨져서 전부 알알이 되어 있어요. 알알이 돼 있지만 씨가 없어요. 알겠어요? 밤나무 밭에 밤송이는 널려 있지만 씨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통일교인들은 밤송이로 말하면 크지 않지만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막에 갔다 봐도 심을 수 있는 땅이 있다면 심을 수도 있어요. 옥토는 못 되더라도 말이예요. 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다. 그리고 피부로 비벼질 수 있는 한정적인 물체도, 어떤 고체 덩어리도 분명히 아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며 무엇으로 깨닫는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분석하려고 하자, ‘상헌아!’ 하고 부르신다. 분명히 내 귀에 목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휘황찬란한 불빛 광채가 내 앞과 뒤에, 내 머리 위에서 빛을 발하고 반사하신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알 수 없는 빛의 줄기가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그것을 표현할 수 없다. 내 능력으로는 표현할 수 있는 술어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비슷하게 표현한다면 마치 엄마의 품에 품긴 아기가 엄마의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으면서 엄마의 눈과 시선이 마주칠 때 갖는 그러한 평온함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만유원력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만유원력. 알겠어요? 만유원력은 수수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근본 힘인 하나님을 상징한 거예요. 그건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만유원력, 거기에 다 포괄된다구요. 자!

원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체험해

『또한 부르시는 음성의 변화에 따라 그 아름다운 빛의 광채도 달라 지는데 그저 온몸이 녹아 내리는 듯한 황홀감에 사로잡힌다. 그러다간 돌연히 순식간에 나 홀로 서 있다. 갑자기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황홀한 빛이 어떻게 순간 순간 인간을 찾아오시는지 신기 하기만 하다. (중략)』

그리하여 원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야만, 본래 하나님이 원 하셨던 사랑의 본체인 본성의 모습을 닮을 수 있으며 이 나라 영계에 와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중생 의 과정을 거치려면 바로 참부모님으로부터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축복이다.』

우주가 전부 거기에다 목을 매고 있어요. 그렇게 선생님을 아는 사 람이 있어요? 상현 씨가 가 보고 그러니 놀라 자빠지지요. 그러니 얼 마나 회개할 일이 많겠어요? 자! (제2장 끝까지 혼독)

그래, 윤정로 기도하라구. (윤정로 원장 기도) 임자들 전부 몇 살이 야? 다 얼굴이 젊었네. 몇 살인가? 「마흔 넷입니다.」 마흔 넷이라. 일 곱 시 30분이 지났구나. (경배) *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

여기 나를 처음 보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봐요. 아이들은 다 처음 볼 것 아니에요? 뭘 해요? 지나가던 손님이 들러 가지고 할 일이 없는데, 얼굴만 한 번 보고, 여기 공기가 어떻게 탁한 공기인지, 신선한 공기인지….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이번에 정하고 돌아가야

무슨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박수) 무슨 얘기? 「입적에 대한 얘ги요.」 입적! 어떤 게 입적이예요? 그거 좋은 제목인데….

내일 가는 사람들 손 들어 봐요, 내일 가는 사람들. 내일 다 가요? 왜 내일 다 가요, 더 있지 않고?

여러분이 이제 돌아가게 됐는데 한 가지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은,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이번에 정하고 가야 돼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각 직장이 있으면 내가 어떤 직장에서 뭘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정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 9월 25일(月), 천주청평수련원.

* 이 말씀은 제1차 사위기대 입적 축복식 때 하신 것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습니다.

일생 노정을 거쳐 가지고 가야 할 곳은 영계예요. 전부 한 곳으로 가야 돼요. 이 사람들이 가는 데는 자기 멋대로 가더라도 다 영계 가는 거예요. 영계가 있는 줄 알아요? 「예.」 영계가 있는 줄 모르는 사람 손 들어 봐요. 그건 사람이 아니예요. 저나라에 가서도 사람이 아니고 암만 사람 같았다고 하더라도 사람 노릇 못 한다구요. 사람 노릇 하려면 주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태어나게 될 때는 반드시 자기 멋대로 태어난 것이 아니예요. 주인이 있어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부모예요. 그런 부모가 계시는 곳이 있어야 된다고요. 부모가 사는 집이 있어야 되고, 부모가 사는 나라가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고향이요, 조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가 넓고 다 하지만 고향이 전부 달라요. 또 나라가 수많은 나라가 있어서 다 다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상세계에 사는 것은 잠깐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영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자기 갈 곳이 어디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라고요. 알겠어요? 「예.」

세상이 반대하고 천지가 뒤끓더라도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알고 가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해요? 「예.」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아요? 「예!」 누가 큰소리했으니 하나 물어 봐야지. 영계를 알아요? 「예.」 들어서 알아, 가 봐서 알아? 「말씀 들어서 압니다.」 말씀 들어 가지고 알 게 뭐야? 말씀 들어 가지고 말씀대로 행해 봐야 사실이 그렇다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내가 보고 행하겠으면 그렇게 만들 수 있다 해야지요. 그걸 확실히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선생님이 일생 동안 핍박도 많이 받았고 고생도 많이 했다는 말을 들었겠지만, 그 고생하고 핍박했던 모든 것을 합해도 자기보다 크지 않아야 된다고요. 나보다도 크지 않아야 돼요. 나보다도 크게 될 때는 자기가 아는 세계와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맺었다 하더라도

그건 갈 수 없어요. 그러나 현재 사는 무슨 환경, 자기의 가치, 전부 다 보태어서 합하더라도 자기가 가서 살 수 있는 곳, 갈 곳과 비교해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할 때는 세상에 뭐라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중심삼고 갈 수 있다구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 틀림없게 된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어디로 가겠어요? 내일 아침에 가는데, 어디로 갈 거예요? 가기 전에 내가 가야 할 곳을 정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계에 대한 실상이라든가 말씀을 통해서 많은 혼독을 거쳐왔는데, 그 거치던 과정에 영계의 어떠한 자리에 내가 틀림없이 간다 하는 것을 정해야 돼요. 일생 동안 뭐 폭풍우가 불어닥치고 수난길이 닥치고 인생을 탄식으로써 절망 가운데 마친다 하더라도, 내가 가야 할 곳은 이곳이다 하고 결정하고 가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뒤에서 자기 현재의 어려운 환경을 다 지켜보면서 그 어려운 이상의 환경이 있더라도 우리 부모님이 지켜 주는 그곳은 이러한 곳이다 하고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지켜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그곳을 지켜 주는 부모님까지도 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나 이거예요. 부모님만이 아니에요. 자기 형제가 알고, 처자가 알고, 일가가 알고, 일족이 알고, 한 나라가 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나 이거예요. 알겠어요? 「예.」

성공의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를 위해 이상의 내용을 투입해야

그러면 그 가는 데 있어서 전부가 다 그렇게 모르는 환경에서 누가 그런 것을 확실히 알고 가르쳐 주느냐? 그런 분이 있다면 그는 그 나라의 정신적 중심 존재가 돼요. 정신적 중심 존재가 되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 하루에 뭘 하겠다고 생각을 한다 하면, 정해

놓은 그 이상의 것을 알고 간다 할 때는 그 간다고 하는 그것을 생각 할 적마다, 밥을 먹으나 자나 일하나 그곳을 가르쳐 분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또는 그분은 십년 전, 백년 전에 이렇게 다 왔다 갔는데, 그분의 가르침을 내가 기억해 가지고 그분이 지적한 곳에 오기를 바랐다는 사실을 정했다 할 때는 그분을 가서 만날 수 있는 희망이 얼마나 크겠나 이거예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보다 훌륭한 성인의 말씀을 가르쳐 준 그런 주인 양반이 있다면 틀림없이 그곳에는 내가 가서 만날 것이고, 또 나와 같은 이런 희망을 가졌던 모든 종교인들이 바랐던 모든 전부를 가서 만나게 될 때,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과 비교해서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이거예요. 지상에서 그렇게 알아 가지고 내가 갈 곳은 이런 곳인데, 그 정하고 가는 곳이 저나라, 천국의 중심 곳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게 얼마나 가치 있겠나 생각해 봐요. 알겠어요? 「예.」

희망을 갖고 가는 사람은 미래에 내가 이렇게 되겠다 하는 성공의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를 위해서는 이상의 내용을 투입해야 되고, 이상의 가치를 내 자신이 투입하지 않으면 그곳에 도달할 수 없어요. 미지의 세계인 그런 곳을 정하고 간다는 사실, 확실히 알고 정하고 간다는 그 사람은 세상의 모르고 사는 사람보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통일교회 교인들은 그래요. 선생님의 생애를 모르지만 두고 보면 볼수록 점점 더 확실해 가요. 선생님도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어디 선생님 나이 몇 살인지 아는 사람 손 들어 보자. 할아버지의 나이예요, 젊은 사람의 나이예요? 「할아버지 나이이십니다.」 할아버지 라구요. 할아버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좋아해요? 할아버지 좋아한다는 사람은 그 말로써 발라 맞추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아, 우리 손자들을 봐도 말이예요, 할아버지가 집안에서 이런 줄 알아요. 손자들도 알아요. 어머니는 둘째라 하게 된다면 인사하는데 보게 된다면 언제든지 번번이 척 보고 예쁘장한 어머니한테 가서 경배를 하더라구요. 아기들까지도 할아버지 할머니 가운데 더 얼굴이 예쁘장하고 젊어 보이는 사람한테 가서 먼저 인사하는 것을 보면 말이예요, 할아버지 좋아한다는 말은 새빨간? 「참말입니다.」 (웃음) 새빨간 뭐야? 「정말 그렇다.」 새빨간 정말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 난 그런 말 처음 들어 본다구.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김효남 장로에 대해

자,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구구하게 몇 시간씩 하면 아무리 좋고 정하라고 해도 할아버지 말은 씨앗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고요. 알겠어요?

시간에 내가 나타나게 된다면 여기에 무슨 훌륭한 꼭 선생님, 협회장님, 무슨 총장들도 와 있구만. 저 양반들은 자세를 갖춰 가지고 바라보지만 말이예요, 매일같이 할아버지가 와 가지고 이거 뭐 한 시간이 아니라 두 시간, 세 시간, 어떤 때는 열 시간 얘기한다구요. 선생님이 오래 말씀하신 것이 열여섯 시간 45분이에요. 그래서 ‘앉아 있던 사람 변소 가지 못한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끝날 때까지 변소 안 가기로 약속해라.’ 이려고 다 약속했는데, 열여섯 시간 반 이상 앉아 가지고 변소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한 사람은 앉아서 찼겠어요, 안 찼겠어요? 왜 웃어요, 물어 보는데? 앉아 가지고 뭐 찼나 하고 찼나, 안 찼나? 아기 많이 낳은 아주머니들은 틀림없이 찼나 찼나 했지요. 보자기를 차고 앉았으면 그 아래가 질퍽하게 되어 있다구요. 그 사람이 일어서 보니까 말이예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통역하던 박 총재는 말이예요, 여기 바가지 같은 데다가 그물에 걸

릴 수 있는 오줌을 썼다구요. 그물에 걸릴 수 있는 오줌은 뭐예요? 오줌이 그물에 걸리다니. 그물에 걸리는 게 뭘까? 큰 거지요. (웃음) 아, 통역하는 사람이 뭐 큰 게 나온다고 ‘아, 통역 좀 그만둬시다, 선생님.’ 이러겠어요? 할 수 없지 썼지요. 그러니 옆에서 냄새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냄새가 나더라도 말씀이 안 끝났으면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 뒤야 되겠어요, 계속해야 되겠어요? 「계속해야 됩니다.」

나 지금 피곤하다구요. 피곤하다고 어디 갈 곳을 정하자 하는 말을 했는데 말을 다 끝내야 되겠어요, 하다 말고 그만뒤야 되겠어요? 「끝내야 됩니다.」 내일 아침에 축복도 못 하고 식도 못 하게 될 터인데 하루 더 있어야 되겠는데? 자, 그러면 나 욕할 사람이, 남자란 사람은 욕바가지가 터져 나올 거라구요. ‘무슨 늙은이가 원기가 저렇게 왕성해 가지고 어머니를 잘 다루어 주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기력이 저러냐?’고 쑥덕쑥덕 할 사람이 많아요, 이 남자들은.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기 있다고 그랬어. 고맙다구.

이런 말 하며 오래 할 시간이 없다구요. 내가 이제부터 서울을 갔다 와야 돼요. 여기 있으면 좋겠어요, 서울 가면 좋겠어요? 「여기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4시... 뭐예요? 식을 진행하고 다 그러려면 말이에요, 여기서 무슨 김효남, 무슨 장로? 호남이야, 후남이야, 무슨 남이야? 「호남입니다.」 호남.

호남이란 말이 좋은 말이라구요. 남쪽 나라에서 찾아오신 효녀라는 말입니다. 알겠어요? 남쪽 나라 하게 되면 따뜻하고 희망의 곳을 말한 다구요. 북쪽에서는 언제나 집을 지으면 남쪽을 바라보고 짓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남쪽 나라 노래도 많잖아요? 강남 갔던 제비가 남쪽 나라에서 돌아오기를 바라고 버드나무 가지 잎이 푸르러 오면 제비가 찾아올 수 있는 희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남쪽 하면 새로이 소식을 전해 주는 그런 손님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김효남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김효남이야, 호남이야? 「호남

입니다.» 호남 하게 되면 잘난 남자인데... 아, 어디 갔어? 선생님 말씀하는 날은 모시고 앉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무슨 명령이 있겠는지 기다려야 돼요. 「오고 있습니다.»

어디 있다가 와? 보다가 고달프니까, ‘아이고, 선생님이 오래 말씀하시니까 한잠 잘 자겠다.’ 하고 갔지. (웃음) 그거 좋아. 「저쪽에 나옵니다.» (박수)

얼른 와요. 여기 와 서라구. (김효남 장로가 경배드림) 경배는? 얼마나 경배를 많이 받았는지 목이 아파요. (웃음) 아, 제발 옆에서 경배하지 말라고. 이의 이름이 뭐라구요? 「김효남.» 뭘 하는 아줌마예요? 아줌마들이 말이 왜 이렇게 많아? 강현실, 뭘 하는 아주머니야? 뭘 하는 아주머니인가 물어 보잖아, 강현실? 「...」 무슨 책임? 물어 보는 거지. 더 크게. 영계에 무슨, 그 말이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누가 아나? 대모님인지, 소모님인지 누가 알아?

홍진이 봤어, 홍진 군? 홍진이가 누구예요? 누구 아들이예요? 「참부모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선생님 아들일 게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하늘나라의 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이 하나님이 임명했겠어요, 선생님 임명했겠어요? 「하나님이요.» 선생님은? 하나님이 임명했는지, 그 말이 사실인지 누가 알아요? 봤어요? 느끼는 것이 전부 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왜 맞아?

믿는 것 이상으로 알아야 돼

보라구요. 벌써 홍진 군이 영계에 간 지 15년이 넘었지요? 15년이 넘었나, 얼마 되었나? 홍진이 영계에 간 지. 15년이 넘었지요? 「1984년에...」 아, 글썄,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1984년에 승화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되었어요? 「16년 됐습니다.» 84년인데 10년만 됐어요? 「16년 됐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15년 이상 되지 않았나

그 말이에요.

그 15년 전 그때에 선생님이 흥진 군을 영계의 총사령관으로 보낸다고 틀림없이 선포했어요. 그때 믿은 사람 있어요? 한 마리도 없었어요, 한 마리도. 벌레 같은, 곤충 하나 같이 한 마리도 없었어요.

그래,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떨면서 할 수 없이 얘기했어요? 선포! 선포! 해봐요, 선포! 「선포!」 선포했는데도 믿는 녀석이 한 마리도 없었어요. 그게 사람이예요, 뭐예요? 믿을 말을 했는데도 믿지 못하니까 그게 사람이오, 짐승이오?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학교에 가 공부하는 사람이 수학이니 무슨 공식이니, 그걸 자기가 알아요? 학교에 왔으면 선생님이 하는 말은 진리로 알아야 되고, 백퍼센트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선생님을 초등학교 선생님만큼도 믿지 못할 패들 아니예요? 그저 자기 아들 뭐 어쩔고, 어쩔고... 흥진 군을 영계 보내기에 수속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알아요? 아느냐 말이에요. 모르지요? 모르나, 아냐? 「모릅니다.» 알 것 같으면 박수하고 환영했지요. (박수) 아, 지금 말고 그때 말이에요. 지금 할 수 없이 발라 맞춘 말 하고 박수하는 것 싫어요. 그 때 박수 쳤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한 마리도 없었어요, 한 마리도.

여기 이 아주머니도 그때는... 그때 알았나, 몰랐나? 이 아주머니도 못 믿었을 거라. 믿는 사람도 나밖에 없고 아는 사람도 나밖에 없고 그런 일 하는 사람도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습니다.» 알았는지 어떤지 너희들이 알아봤나? 나도 잘 모르는데... (웃음)

왜 웃노, 왜? 나중에 와와와와... 이거 이어폰 가지고 듣는 모양이지요? 지금은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아버님이 말씀해주셔서 압니다.» 무엇이? 「아버님이 말씀해 주셔서 압니다.» 흥진 군이 와서 아버님 말씀하나? 「아버님이 말씀...」 글썽 말씀했는데, 그

때 못 믿었던 것을 어떻게 지금 와 믿느냐 이거예요. 홍진이 얼굴보고 선생님이 이리 앉아 가지고 소리 지르며 들으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나요, 그런 소리가 들리나요?

청평 와서 사람이 많이 모였지요. 그래, 홍진이 보러 왔어요, 홍진이 말 들으러 왔어요? 선생님 말 들으러 왔어요? 누구 말 들으러 왔어요? 「아버님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아버님 말씀을 지금도 안 믿잖아요? 믿는 사람은 여기 3분의 1도 안 돼요. 욱 한마디 하면 ‘아이쿠, 공식 석상에서 목사님이라는 양반이 욱도 잘 한다.’ 그런대구요. 내가 목사님인가? 할아버지지요. 여러분 집을 지키고 앉은 할아버지보다 훌륭한 할아버지라구요. 하여튼 뭐 욱은 많이 먹었지만 유명은 하지요? 세계 어디 가더라도, 저 바다 속 어디 가서, 북극의 어디 가서 사람 잡아놓고 ‘당신, 레버런 문 말 들어 봤소?’ 물으면 다 그렇다고 할 거라구요. 못 들어 봤다는 사람 못 만나 봤어요. 그만큼 유명하지요? 유명한 사람 얼굴 한번 보기 위해서 10달러 내더라도 가 봐야 된대구요.

여기 만 명 왔으니까 10달러씩이면 얼마인가? 나 저녁을 안 먹어서 배가 고프다면 빵집에 갈 텐데 10달러씩 내라면 내겠어요? 「예.」 정말 이에요? 「예.」 오늘 하루만? 일주일이면 어때요? 하루만이면 돈 내겠다고 하지만, 일주일, 매일 10달러씩 내라면 말이에요, 3분의 1은 도 망갈 거라구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모여 앉아 있는 데서 믿을 수 있는 말을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알겠어요? 믿을 수 없는 패들을 모아 놓고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 알아요? 안 하면 좋겠는데 안 할 수 없어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열 번 하고, 백 번 해야 된대구요.

영계의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하기는 힘들다

서당 훈장의 무엇이든 개도 못 먹는대요. 닳아서, 굳어져서. 그런 말

들어 봤어요? 「예.」 얼마나 지독하면...: 똥이 탄다는 말이 있지요, 똥이? 궁둥이가 탄다고 그래요, 똥이 탄다고 그래요? 그런 말 있지요? 그거 안 된말이지만, 똥줄이 타요. 훈장이 앉아 가지고 못 하더라도 아버지로부터 자기 아들딸, 동네 아이들, 젊은 놈들은 전부 다 듣고 알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건 아는 것을 가르쳐 주니까 다 믿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가르쳐 준, 흥진 군이 뭐 영계의 총사령관이니 하는 하나도 알지 못하는 말을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말하기가 얼마나 거북하냐 이거예요.

그때 얘기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흥진 군의 역사를 가려 가지고 세워 주지 않았으면 하늘나라의 총수로서 지상에 전달할 수 있는 책임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요즘에 이상현 씨의 영계의 실상을 보면 내가 임명한 그대로의 내용이에요, 거짓말이었어요? 「그대로입니다.」 그것도 보지는 못했지요? 이상현 씨가 가서 전부 다 얘기하니, 또 이상현 씨는 그만두고 말이에요, 성 어거스틴...: 1630년 전에 살다 간 기독교 구교세계의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강현실 여사님의 남편이에요. 그거 믿어요? 「예.」 1600년 전, 영계에 가 있는 성 어거스틴이 현재 여기 살고 있는 강현실 여사의 남편이라는 걸 믿어요? 「예.」 정신이 나갔지. (웃음)

그거 믿을 만한 말이오, 믿지 못할 말이오? 강현실 알아요? 「예.」 강현실, 한번 일어서라구. 임자는 그래. (박수) 가만 있으라구. 거기 있어. 거기 있으라구, 거기 있으라구. 거기 있으라구. 나오면 말 잘하는데 말하게 된다면 내가 뒤로 가야 된다구. 얼굴을 좀 보이라구. 이 여자가 1630년 전에 이 땅 위에 살고 예수를 잘 믿고 천주교에서는 성자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그 양반의 어엿한 부인입니다. 믿어요? 「예.」 미친 것들이야, 미친 것들. (박수) 가만 있어요.

그래, 현실이는 그걸 믿어? 「믿습니다.」 믿어, 알아? 믿어, 알아? 「압니다.」 어떻게 알아? 「마음으로 압니다.」 남편이 와서 키스도 해보

고 사랑도 해봐? 「예.」 보라구, 이거. 그렇대. (박수) 아니, 아니야. 지금 여러분 부처끼리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깨가 보소속속 쏟아진다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깨가! 「깨가!」 보소속 쏟아진다고요. 남편이 늙었다고 생각 안 하지? 기도하게 되면 와서 가르쳐 주고, 얼마나 멋져요!

자, 그런 사람들이 사는 천국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 천국에 한번 가 보고 싶어요? 현실이, 가고 싶지? 「예.」 가고 싶대. 그러니 올바른 여자예요, 어떻게 잘못된 여자예요? 「올바른 여자입니다.」 그거 다 미쳤으니 그렇지. 나도 미치고 다 미쳤어. (웃음)

그러니까 통일교회가 반대 받잖아요? 통일교회 문 선생님을 따라가라는 말을 한 할아버지가 동네에 어디 있느냐, 잘난 미남자가 있느냐, 미녀가 있느냐? 없어요. 하도 욕을 했지만 지나고 보니 하도 열심히 가르쳐 줘 가지고 세뇌를 했기 때문에 거짓말도 떡으로 알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 그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겁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떡을 해 놓고 그렇게 됐으면 됐는데, 떡이 아니고 돌멩이를 해놓고 말했다면 잘한 게 뭐예요? 알겠어요? 「예.」

선생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영계에 보내 놓을 때에 전부 수속을 밟아 가지고 통일식을 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사람이 필요하니만큼, 내가 아는 당신은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아들의 입장에서 부모님 앞에 통보하오니 부디 이 아들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틀림없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내나이다!’ 할 때, 하나님이 싫다면 차 버렸겠지요?

왜 자꾸 흠칫흠칫하나, 가만히 서 있지? (웃음) 여자를 동생으로 세워 가지고 견본으로서, 교재로서 쓰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지, 왜 자꾸... 뭐가 부끄러워? 그래요. 좋다고요. (웃음)

그러니까 흥진 군이 저나라에 가서 예수님의 형님이 되어 가지고 온

영계의 대장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말고, 아는 사람 손 들어 보라구요. 아는 사람 손 들어 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해요? 손 들어 보라구. 왜 손을 들었다 내렸다 해요? 자신들이 없구만. 손 들어 봐요.

나도 손 들어야지. 흔들어 봐요. 흔들어 봐요. 선생님같이 사진 한번 찍어 봐요. 영계에서 사진 잘 찍어요. 알겠어요? 영계에서 ‘이야, 선생 하고 사진 찍겠다.’ 경쟁하면 흥진 군이 좋아하겠어요, 나빠하겠어요? 「좋아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좋아하는지? 「아버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좋지요.» 아버님이 무슨... 무서운 아버님이지요.

창조이상 완성은 사위기대 완성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공명하는 데는 성인이 필요한 거예요, 성인이. 예언자가 필요한 거예요. 선각자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선각자들은 그때 와 가지고 일반 사람이 알지 못하는 말을 하는데, 알지 못한다고 모른다는 입장에서 대우했다가는, 그 대응하는 부락이면 부락이 망하고, 국민이면 국민이 망하고 나라면 나라가, 세계면 세계가 망하는 거라구요. 세상에 지금 한국 사람이 알기를, 문 총재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없었던 애국자다, 그런 말 다 하지요? 「예.»

애국자가 뭐예요? 미역국을 좋아하는 것이 애국자지요. 그거예요? 애국자가 뭐예요, 애국자? 내가 애국했는지, 도둑질했는지 누가 봤나요? 세상이 그렇게 아니까, 그 양반이 지나온 역사를 들추어보면 세상에 누구도 못 하는 모든 사실들이 많으니까, 또 그 많게 된 사실들이 자기가 일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 하던 것을 다 해냈으니까, 거짓말 아닌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예.» 알겠어요? 「예.» 이제부터 백년 천년 이후에 이럴 것이다 하면 믿겠어요?

아, 15년 전에 한 것도 못 믿었는데, 천년 후, 백년 후에 이렇게 되게 되면 그때 오는 복의 환경이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그러면 백년 후의 참된 말을 했다면 백년이 아니라 몇백년 후의 것이라도 기다릴 수 있는 민족은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말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거 믿고 간 사람은 어디 갈 것이예요? 확정된 그 세계가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놀음이 벌어져요. 그럴 때마다 박수하고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박수)

자, 이제 박수했지요? 「예.」 보라구요. 삼시대 뭐예요? 삼시대 사위기대 환원? 「환원 일체권 축복입니다.」 일체권보다 환원? 일체, 일체지. 일체권 축복, 그게 뭐 줄 알아요? 3시대가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예요. 조상 셋이 다 실패했어요. 그들이 바라는 소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창조이상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학자에 물어봐도 말이에요, 뭐 쉽고도 어렵다고 한다구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통일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뜻!’ 하면 창조이상 완성, 창조이상 완성은 사위기대 완성이라고 확실히 알아요. 영계에 가봐서 이상헌 씨가 보고 기록한 것이 틀림없고 수많은 성인, 성자들이 보고하는 것이 틀림없거든요. 하나님도 알기 때문에 문총재를 지켜 봤지, 틀렸다면 지켜 봤겠어요? 알겠어요? 「예.」

귀가 좋겟하고 눈이 좋겟해서 바라보지 말라구요. 나도 옛날에 젊었을 때는 미남자 통칭을 받던 사람이에요. 아, 정말이라구요. 「믿습니다.」 뭐라구? 믿다니, 눈으로 보고 있는데. 안다고 말하면 몰라도 그런 실례가 어디 있어요? 내가 죽었나? 살아 있지요. 정말 그랬어요. 지금도 여자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손 들어 보라구요. 여자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 손 들어 봐요. 이거 쌍년들이야! 남편도 있는데 사랑하면 어떻게 해? (웃음) 그렇게 좋아했어요. 무슨 약을 먹인 것도 아니예요. 강한 지남석이 철을 끄는 것과 같이 선생님이 괜히 좋아요.

세상에 괜히 미운 사람 있지요? 뭐 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이건 달라면 더 주고 싶고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가
요. 그게 달라요. 통일교회에 암만 법이 있어 가지고 모가지를 잘라 버
리고 손등을 잘라 버려도 가고 싶고 만나고 싶다고요.

여기 이 아줌마도 스물 몇이었던가? 「스물 여섯이었습시다.」 스물
여섯 새파란 여자예요. 남편도 없이 신학교 다니다가 나 혼자 움막 치
고 있는데 혼자 전도사 하다가 전도하러 왔다가 나한테 걸려들었다구
요. 뭐라고? 「전도하다가요.」 글썄, 전도사 하다가 와서 전도하려다 걸
린 것 아니에요? 기성교회 열성분자였는데, 재건교회인가? 「고려신학
입니다.」 고려신학.

그 총장도 내가 다 임자 때문에 만나 보지 않았어? 신학교의 제일
똑똑한 여자를 무슨 짓을 해서 흘렸느냐고 말이야, 욕도 많이 먹었다
구. 선생님을 찾아서 미쳐 가지고 바람 피운다고. 매일같이 오르내리니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했겠나? 저 동네 범일동 위의 미남자에
게 미쳐 가지고, 세상 믿지 못하는 말만 하는데 저 여자가 미쳤다고
말이에요. 스물 한 살에서부터 이름난 부흥사였다구요. 그러니 얘기를
잘한다구요. 지금 내세우면 내가 망신 당할까 봐 내세우지 않아서 그
렇지요. 정말이라구요.

몸뚱이 가지고 영계를 점령해야

자, 그러면 흥진 군이 저나라의 사령관임에 틀림없나, 있나? 「틀림
없습니다.」 예수님이 흥진 군을 모시느냐, 흥진 군이 예수님을 모시느
냐? 「예수님이 모십니다.」 봤어요?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아, 아버님이야 거짓말 잘 하는 아버님이라 치고, 보지 못하지 않았어
요? 알겠어요? 그래, 영계에 통하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여기 있는 아
줌마는 말이지, 영계에서 전화하는 것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에 물어
보면 답변도 들을 줄 안다고요. 듣기만 하지 않아요. 볼 줄 알아야 돼

요. 알겠어요?

보통 사람은 음성을 듣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지만 말이에요, 음성만 들어도 사탄이 사기적인 전파를 보낼 수 있다구요. 그건 내가 전문가예요. 이걸 봐야 돼요. 보기만 해도 안 돼요. 감정을 해야 돼요. 척 대하면 각도가 얼마인지 감정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내려다보느냐, 올려다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부끄러우면 눈을 이리다 보면 눈이 아래로 내려간다고요. 자신만만하면 올라가요. 눈치가 빨라야 돼요. 이래 가지고 사방을 재 가지고 감정해서 처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무것도 몰라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동네 망하게 만들어 놓는다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앉아 있지만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훤히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말을 안 해요. 몸뚱이 가지고 영계를 점령해야 돼요. 예수님의 몸뚱이를 전부 사탄이 잡아갔기 때문에, 몸뚱이만 가지고 하지, 기도도 안 해요. 그런 뭐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망하라고 별의별 짓을 다 했지만 나를 잡지 못했어요. 죽을 줄 알았더니 안 죽어요. 망할 줄 알았는데 안 망해요.

왜, 어떻게? 어떻게? 천운이 보호해요, 천운이. 망치려고 하는 사람은 차 사고로 죽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때문에 수백 번 죽을 뻔했지만 안 죽었어요. 망할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요. 이게 오만 가지 오색 인종이 세계 끝에서 다 찾아왔어요. 누가? 문 총재의 ‘야, 와라.’ 하는 한마디에 세계에서 다 오는 거예요. ‘야, 가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라 하면 남겠어요, 다 가겠어요? 가는데는 어디로 가라 하면 다 그곳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갈 곳이 정해져 있느냐 물어 보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알아요? 한달, 두 달, 10년 동안도 어디로 갈지 알지만, 백년 후에 어디로 갈지 아느냐 말이에요. 10년 갈 곳을 찾아가는 사람, 천년 만년 갈 길을 알기 위해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내일 가는데... 여기 남자들 왔구만. 여편네 찾으러 왔어요, 여편네 도우러 왔어요? 여편네 마음대로 못 데려가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데려갔다가는 영계 갈 수 있는 길이, 가겠다는 길이 딱 막혀요. 데려가야 되겠어요, 안 데려가야 되겠어요? 아무리 부처끼리 정했더라도 내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겠다고 하면 길이 딱 막혀요. 그러니까 확실히 통고해 줘야 할 선생님으로서 책임이 없지 않지 않지 않다!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입니다.」 있다는 말이라구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곳은 천하가 다 희망하는 곳

그러면 미래에 찾아올 그 세계,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러한 곳은 천하가 다 막을 수 없고 천하가 다 희망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 여러분의 수많은 조상들이 그곳에 못 가 가지고 지옥 가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어두운 혼탁한 세상에서 갈팡질팡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나 감옥을 사춘네 집 드나들듯이 다녔지만, 감옥 들어가서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갈 길을 다 정하고 사는 건데. 알겠어요? 어떠한 곳에 갈 것을 틀림없이 다 알고 있으니 누가 이 길을 막아요? 어느 누가 막아요? 예수님도 못 막아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내 제자라구요. 제자가 내 아들이예요. 그거 모르지요? 석가모니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여기 공자 여편네 일어서라구, 공자 여편네. 공자 여편네! 박수해요. (박수) 공자 여편네로 살아. 그 다음엔 앓아! 소크라테스 여편네! (박수) 그 다음 어디? 마호메트 여편네! 안 왔나? 4대 성인의 여편네들을 내가 다 길러서 시집을 보내 줬어요. 그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못 믿는 사람은 죽어라, 죽어라!

문 선생님이 결혼해 준 사람을 색시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마호메트 자신이 택해 사는 색시인지 물어 보라구요. 거짓말인가 물어 봐요. 그러니 문 총재가 이상하기는 이상하지요? 이상한 선생님이예요. 알겠어요? 이상한 선생이라구요.

또 알고 보면 좋기도 좋지만 모를 것이 많아요. 40년 모시고 나왔어도 전부 몰라요. 언제나 모를 것이 태산같이 쌓여 있어요. 선생님은 그걸 알고 지금 모른 척할까, 모르고 모른 채할까? 「알고 모른 채하십니까.」 알고 왜 모른 채해요? 사람들, 못된 것들에게 천기누설(天機漏泄)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비밀을 얘기하게 되면 도둑놈들이 길을 요사스럽게 한다구요. 그런 도둑놈들을 치워 버리기 위해서는 비사(比辭)로 말하고, 상징적으로,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비사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언서들은. 그렇지만 때가 어떻게 하는 것은 선생님이 잘 알아요. 그것만은 틀림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못 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남이 못 하는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만했으면 말이에요, 통일교회 패들은 안 믿으려야 안 믿을 수 없어요. 선생님을 영적으로 보곤 하는 사람 손 들어 보라구요. 손 들어 봐요. 다 보게 되어 있지. 내려요.

어디 가 있더라도 선생님이 땅에 있으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예수를 40년 믿고 무슨 기도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가르쳐 줄 수 없어요. 그러나 문 총재는 땅에 여기 서 있어서 영계의 영인들과 같이 그 이상의 사실들을 지도하고 있다구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땅에 있어 가지고 미지의 세계,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을 지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요? 여기에 서양 여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그런 뭐가 있기 때문에 ‘와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그래요.

그거 맞아요, 거짓말이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거짓말이에요? 「맞습니다!」 저 구석에서 똑똑히 얘기해 봐요. 「맞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박수를 해야지. (박수)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자, 그러니까 뭐 흥진님... 흥진님이라고 해요, 흥진 군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흥진님이라고 해야 되겠고, 선생님은? 선생님도 흥진님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아니요.」 뭐라고 그래야 돼? 「흥진 군이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님이라고 하는데, 전부가 그러는데 혼자 군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럴까 봐서 선생님도 할 수 없이 환경에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는 아들이라도 ‘흥진님’ 하는 것이 공통적인 일반 사회적인 예법이 되어 있어요.

흥진이도 땅에 있는 색시와 결혼해 줬지요? 「예.」 요전에 흥진이도 영계의 실상에 보고한 얘기를 보게 된다면 영계에 와 있기 때문에 육신 갖고 있는 아내에게 찾아가고 싶지만 바빠 가지고 못 간다는 말 들어 봤지요? 「예.」 그거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입니다.」 지상에 있을 때 영계에 갔는데, 오순절(부활절 후 50일 되는 날), 50일 만에 영적 결혼을 해주니까 세상이 얼마나 흥을 봤어요? 그래, 흥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는 다 사실로 받아들이고 다 알고 있잖아요. 알겠어요? 「예.」

이제는 영계의 실상을 믿는 시대가 아니고 아는 시대

대모님이란 말을 누가 지어 줬어요? 「아버님께서...」 대모가 뭐예요? 대모가 있으면 소모가 있어야지요. 대모가 있으면 중모, 소모가 있어야지요. 소모가 없지요? 그래, 선생님의 어머니 이름이 뭐인가? 「충모님입니다.」 충모, 선생님 형님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대형. 그거 다 봤어요? 어머니의 어머니, 자기의 어머니, 자기 형님을 무슨 대모님, 충모님... 그거 무슨 수작이에요? 선생님 집을 위한 교회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복잡해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내용이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구요. 그 내용을 자기들은 몰라요. 천년 정성들여도 몰라요.

그렇게 한 것을 하나님은 ‘조용히 잘 했다. 내가 후원해 주마.’ 이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돌았어요, 정신이 똑똑해요? 「똑똑합니다.」 왜? 여러분은 청맹과니 같아서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천리를 쭉 내다보고 훤히 알기 때문에 잘 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예.」 청맹과니 아니고 귀머거리 아니면 문 총재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사람 축에 들어가지 못한다구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미국의 각 주가 교육 다 받고, 미국의 주 상원의원, 지금의 대사들, 미국을 지도하는 모든 꼭대기 사람들이 문 총재 말씀을 듣고 연구하기에 골을 싸매고 경쟁할 때가 왔습니다. 한국 께들 잘났다는, 대가리를 젓고 어깨에 힘 주고 배통 내밀고 왔다갔다하는 녀석들은 세상에 우물 안에 뭐라구요? 「개구리.」 개구리도 안 되지. 우물 안의 파리새끼가 되어 가지고 잘난 듯이 꼬리를 젓고 그러면 이제 망신살이 뻗치게 되어 있어요.

유엔도 그래요. 유엔이 문 총재 말 안 들으면 망해요, 망해. 유엔의 책임자들, 두 부처에 있는 책임자들이 와 가지고 유엔의 이름으로 집합해라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여기 대통령도 유엔의 이름으로 교육 받으라고 하면 안 오겠어요? 교육하는 그 내용이 문 총재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망가겠어요? 세상을 알지 못해 가지고... 제멋대로 세상이 안 되어 있다구요. 나 제멋대로 살지 않아요. 도리에 맞게끔, 천리에 맞게끔, 하나님이 가야 할 길을 정정당당히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천운의 보호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던 통일교회는 망하지 않고 흥할 수밖에 없는 통일교회가 되었느니라. 「아멘!」 (박수)

그러면 믿을 수도 없는 흥진님을 이제는 믿는 시대가 아니고 아는 시대가 왔지요? 그거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 말해 보라구요. 내가 물어 볼게요. 또 대모님이라는 말도 거짓말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안

다 이거예요. 알고 있지요? 「예.」 여기에 모른다고 할 것 같으면 사람 축에 못 들어가요. 여편네들이 따라갈 수 없어요. 그 남편 말 듣지 마. 듣다가는 망해요. 내 말 들어야 천국 간다구요. 기도해 보라구요, 거짓말 하나. 알겠어요? 「예.」 돼먹지 않은 그 남편들, 술을 먹고 별의별 짓 다 하면서... 이번에 칼을 가지고, 면도칼 하나 가지고 약속을 해야 돌아가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겠다구. 당신이 가야 할 곳과 내가 가야 할 곳을 영원히... (물잔을 갖다 드림)

이거 내가 알고 있어요. 아, 중요한 말인데, 사탄 문화가 아니에요. 남편들이 왔다가 구사례 받는 판인데, 남자 녀석이 와 이러면 방해되잖아? 지금 뭘 하느냐 말이야! 눈치가 없어. 잔칫집에 가서 떡을 얻어 먹으려면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뭐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 않고 또 왔네. 푸푸푸!' 이런 거지들 심부름만 해주면 그 다음엔 떡 먹지 말라고 해도 떡 얻어먹어요. 알겠어요? 알겠나? 「예.」

그러면 흥진 군이 몸이 없고, 대모님이 몸이 없고, 하나님도 몸뚱이 없으니 마이크 장치가 필요해요, 마이크 장치. 이 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크 없으면? 소리 들려요? 들려, 들려? (점점 작게 하심) (웃음) 들려? 들려, 안 들려? 「들립니다.」 마이크 장치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예.」

자, 보지 못하더라도 뭘지 모르지만 들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또 선생님이 심각하게 말한 것은, 거짓말 같지 않고 심각하면 80퍼센트는 믿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럴싸, 안 그럴싸? 「그럴싸!」 나는 안 그럴싸! 「그럴싸!」 안 그래, 이 녀석들아? 「그렇습니다.」 이 녀석 혼자야, 이거. 한 사람밖에 없나? 오늘 만 명 가까이 모였는데.

영계를 소개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것

우리 통일교회가 다른 게 그거예요. 육을 먹고도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남편네들이 여편네들 데리고 한마디하면 앵앵거리던 그 챔피언들인데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똑똑한 여자들이 와 있는지 몰라요. 내가 깜짝깜짝 놀랄 만큼 똑똑한 여자들이 많다고요. 그런 색시들을 데리고 살면서 고마운 줄 모르고 있는 미치광이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을 또 문 총재는 '영원한 남편으로 천국 데려가라.' 하고 있어요. 그거 고마운지, 나쁜지? 저기 똑똑한 아저씨 어때요?

김계원! 「예.」 독일에서 왔다는 말 들었는데. 뭘 하러 왔어? 독일 가서 죽은 줄 알았더니. 요즘도 대학교 교수 하나? 바쁜데... 앉으라구. 알겠어요? 「예.」

마이크가 필요해요. 연락하는 마이크 장치가 필요해요. 마이크도 좋은 마이크가 필요하겠어요, 나쁜 마이크가 필요하겠어요? 「좋은 마이크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좋은 것? 제일 좋은 것이 필요하다고요. 여기 이 여자(김효남 장로를 가리키시며)를 보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습니다.」 잘생기기는 뭐, (박수) 둔하게 생겼지, 뭘 잘생겼어요? 암소같이 생겼어요, 황소같이 생겼어요? 황소같이 생긴 여자예요? 「아름답습니다.」 뭐라고? 「아름답다고 그래요.」 아름다워? 뭐가 아름다워요? 「예, 아버님. 아름답습니다.」 나는 모르겠다구. (웃음)

둔하게 생겼다고요. 봐도 눈도 둔하고 귀도 둔하고 행동도 둔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했으면 밥 먹지 않고, 자지 않고, 눈 열고, 귀 열고, 몸 달아 다니고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틀림없어요. 정성 많이 들였지? 「예.」 보라구, 이거. (박수)

이 사람이 훌륭한 마이크가 되기 위해서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작고 모든 것이 둔한데, 둔해서는 못 살겠으니... 통일교회에 영리한, 대학을 나오고 술술이 패들이 많은데, 굶떠 가지고 살아 먹겠어요? 바위를 붙들고 바위가 같이 울어 주고, 나무를 붙들고 나무가 같이 울어 주고 나무하고 말하고 바위하고 말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더니 눈을 들어 보니까 하늘나라가 다 보이고, 들어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들

리고, 그래 보니까 몸뚱이가 한 고개를 넘어 천리를 따라가던 부모가 와서 기다린다 해서 가다 보니 부모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행동할싸, 말싸? 「할싸!」

보라구요. 산 사람을 소개하기도 힘든데 죽은 사람을 소개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이 쌍것들! 쌍것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욕으로 알지 말라구요. 한 쌍, 한 쌍이에요. 한 쌍, 알겠어요? 쌍놈, 쌍년. 그게 참 좋은 말이에요. 쌍쌍이에요. 보라구요. 광물세계도 쌍쌍이고 식물도 쌍쌍이에요. 남자 여자 쌍, 하늘과 땅의 천지부모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수고해 가지고 남이 못 보는 걸 보고 말이에요, 남이 듣지 못하는 걸 듣고 말이에요, 남이 하지 못하는 것을 했어요. 이 집을 누가 지었어요? 선생님이 지었어요, 이 아줌마가 지었어요? 「대모님이…」 대모님 말고 누가 지었어요? 「김효남 장로가…」 이 부인을 통해 가지고 대모님과 흥진 군과 영계의 우리 일족들이, 정성들인 사람들이 통일교회를 흥하게 하기 위해 있는 말, 없는 말, 천지에 제일 귀한 보화스런 말들을 퍼부어 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속았는지 사기 쳤는지 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좋아서, 싫더라도 울면서 좋아해 가지고 돈을 투입해 가지고 집을 만들었어요. 그거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습니다.」 이것들 돼먹지 않아 가지고 말이에요… (박수)

가만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아, 백 분의 일도 못한 작자들이 어떻게 뭐 뭐 무슨 김효남 집사? ‘그이는 집사고 장로지, 내가 장로보다 높은 목사인데 김효남 장로의 말을 듣겠느냐?’ 이러는 모가지를 잘라 버려야 할 녀석들이 많아요. 내가 후려갈겨야겠다구요.

곽정환! 「예!」 책임을 못 해! 여기 아무나 들어와서 난장판을 벌일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와 가지고 ‘어, 36가정 왔소.’ 해 가지고 방 달라고, 선생님 옆방 달라고 해요. 하늘나라의 궁전을 대신한 거라구. 아무나 와 가지고 밥 얻어먹는 곳이 아니라구. 여기 앉아 있는 것도 황송

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밥 달라고 하고, 나 대우해 달라고 있다구요. 또 와 가지고 밥 먹고 밥 값도 안 주고 도망간 녀석들이 많아. 나 그런 거지패들 기르지 않았어. 똑똑히 살라구.

총장님은 회비 다 냈나? (웃음) 아, 물어 보잖아? 회비 다 냈어? 냈어, 물어 보잖아? 냈으면 냈다고 하지, 눈을 쫓긋 하고 그래. (웃음) 내가 물어 보면 다 무서워한다구요. 그렇다고 내가 기합을 주나요, 뭘 하나요? 그만큼 무서운지 모르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뭐 있다구요. 알겠어요? 여기 처음 온 간나 자식들, 내가 할아버지 나이 아니에요? 여기 몇 살 났어요? 머리 흰 사람 몇 살 났어요? 그 뒤에. 「칠십일곱입니다.」 칠십이면 내 동생이지 뭐. 동생 같은 것을 자식이라고 했다고 부끄러울 게 있어요? 내 제자인데. 70세 이상, 80세 이상 손 들어 보라구요. 그건 내가 형님이라고 해요. 팔십 이상이에요? 왜 숨나?

수련소 권위를 세우라

자, 그렇게 수고해 가지고 하늘의 비밀을 들을 줄 알고 볼 줄 알고 측정해 가지고 수십년 경험한 것이 틀림없어 가지고... 똑똑한 흥진군, 훌륭한 대모님, 총모님들이 나를 사랑한다구요. 못생긴 할아버지를 사랑해요. 여러분보다 더 사랑한다구요. 대모님도 어머니보다도, 자기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해요.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또 어머니인 총모님도 그래요.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분은 세상에 부모 가운데서 일등상을 줘야 할 분이에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함부로 대하게 안 되어 있어요.

또 대형님이라고 우리 형님인데, 이 사람은 벌써 8·15 해방될 것 다 알고, 다 통해 가지고 동생이 뭐가 될 줄은 몰랐지만, 천하에 형님 앞에 역사에 없는 동생이라는 그것만은 알아요. 책임은 무엇인지 모르

지만 말이에요.

그래, 훌륭한 아들이에요. 훌륭한 동생이에요. 어머니가 누구보다도 사랑할 수 있게 부끄럽지 않고, 동생으로서 부끄럽지 않고, 무엇을 하더라도 난다긴다할 수 있는, 날 때 날고, 길 때 기고, 땀 때 뛰고, 못 하는 운동이 없어요. 못 하는 놀음이 없어요. 말도 앉아 가지고 한 달 동안 계속했어요.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상감마마 모양으로 앉아 가지고 말해 먹고 살았어요. 그만하면 통일교회 교주 될 만한 자격이 된다고 봐요, 못 된다고 봐요?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대중 앞에 아랫도리를 보이는데도? 여자들한테 이렇게 실례하는데도? 오줌까지 쌀 텐데. 그래도 선생님 자격이 돼요? 「예.」 그러니 미쳤어요. (박수)

미쳤다는 말은 도달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 남편이 궁둥이 내놓고 여편네 옆에서 요강에 오줌을 찐다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진짜 남편이에요, 가짜 남편이에요? 여자들, 대답을 해봐요, 여자들. 왜 가만히 있나? 남편들이 거기에 있다고 그래요? 남편들 괜찮아요. 아, 옆에 오줌 만이야? 별거벗고 밤이면 습격해 들어오는데도 싫다고 하는 여자가 여자예요? 년 중에 쌍년이지요, 쌍년. 일반 사람들은 남자들은 쌍놈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그거 반대하는 여자가 쌍년이라는 것 알아요?

선생님의 교육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천신만고 해서 통일교회가 이만큼 크고, 어머니 아버지, 고생시키던 이들이 하늘나라에서 정성들여 한테 모아 가지고 천국 건설, 영계의 궁전이 없고 영계의 나라가 자리할 질서를 잡기 위해 선생님의 아는 박자와 맞추어 상하가 딱 하나될 수 있게끔 해 나갈 통역으로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마사가 많아요?

여기 36가정 손 들라구, 이놈의 자식들! 사길자! 사길자, 어디 갔어? 「예.」 이놈의 간나 같으니라구. 여기 수련원에 특별히 먹을 것 집에서 날라다 먹으라고 그랬어? 누가 특별대우라고 그랬어? 수련생이야. 군대야. 방을 따로 잡고 뭐 어떨고... 먹을 것 다 먹었어? 나도 그

런 일 안 한다구. 간나 같으니라구. 정신 차려! 그리고 돌아다니나, 이 쌍거야? 부끄럽지 않아? 왜 앉아? 앉으라는 얘기 안 했는데 왜 앉아? 여기 나오라구. 나오라구. 한 대 갈겨 버려야 되겠어.

곽정환, 나오라구. 명령 들어서 한 대 갈기라구. 자기 책임 있잖아? 누가 그러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곽정환 회장)」 잘 모르니까 안 됐지. 알겠어, 이 쌍간나 같으니라구. 무엇이? 오지 말라구. 주살 맞게 돼 있어. 돌아다니기를 잘 하잖아? 죽어, 죽어. 어디 가든지 자기 위신을 세워야 돼. 알겠어? 죽기 싫어? 상헌 씨 말이 그렇잖아? 먼저 좋은 곳에 가서 미안하다고 말이야. 그거 믿어, 안 믿어? 네 남편과 같이 돌아가서 같이 살 생각 안 해봐? 죽을까 봐? 이놈의 고깃덩이는 썩어지는 거야. 내려가라구!

기합 잘 주지요? 그게 통일교회 문 선생 식이에요. 하나님의 식이에요. 옳은 건 일러 주고, 잘 모르는 것은 그만큼 알 수 있게끔 기합을 줘서 바로잡아 줘야 돼요.

불쌍한 여인이 앉아 있어요, 불쌍한 여인. 지금까지 함부로 대한 사람들은 돌아가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겠다구요. 그렇지 않으면 영계에서 가는 길을 협조 못 해줄 거예요. 해방된 자로서 어디로 갈 것을 정하고 가야 되겠다구요. 아시겠어요? 여기 다 걸려 있어요, 다. 제멋대로 대가리 크다고 해 가지고 목사 짜박지 뭐 어땡고, 수련소 소장 해 가지고 김효남 장로가 뭐라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한다구요. 여러분이 흥진님을 대신하고 대모님, 충모님을 대신해서 말씀한다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통역관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예.」

수련소 권위를 세우라구. 눈물 흘릴 때가 많다면? 모르는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는데, 하늘나라의 법을 알고 있는 대모님과 흥진 군, 사령관이 지시를 하고 있는데 제멋대로니 울기만 하겠나? 울지 말라구. 명령하는 거야. 알겠어? 귀싸대기를 후려갈겨! 정신차리라고 말이야. 내

말 알겠어, 무슨 말인지? 왜 가만히, 눈이 이상해 가지고 그래? 나 여기 통일교회 책임자, 교주님이야. 똑똑히 하라구. 그런 말 있으면 말이야, 즉각적으로 곽정환에게 보고해. 그런 사람은 여기 오지 못하게, 아예 얼굴도 나타나지 못하게….

다 알겠어요? 그렇게 이 시간에 정해야 되겠다구요. 그래야 하늘나라의 부끄럽지 않은 전통이 서겠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가 아는 사람으로서 이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원치 않는 사람은 일어서서 뒤로 돌아 떠나가고 원하는 사람은 앉아서 박수하라구요. (박수) 박수뿐만 아니라 양손을 들어 가지고 쌍박수 해봐요, 쌍박수. (박수) 일어서라구요. 경배해요. 경배하라구요. 자, 박수 해줘요, 박수. (박수)

자, 됐다구요. 내가 여기 와서 그런 보고를 듣고 어제 데리고 돌아봤어요. 그런 말을 들은 내가 기가 차요. ‘효자 노릇을 못 했구만. 부모 노릇 못 했구만. 동생 노릇 못 했구만.’ 그랬어요. 그걸 알아야 되겠어요. 여기도 와서 흥진님 하게 되면 자기들이 형님으로 모셔야지요? 「예,」 대모님이 누구예요? 어머니의 어머니라구요. 말만 들어도 저문 앞에서부터 인사를 해야 돼요. 이것들이 영계에 들어가 가지고 똥구더기 패들이 자기 할 책임들 못 해 가지고 무슨 대접받겠다고 이르고 있다구요. 망국지중이에요. 내가 뒤주지를 않아요. 나는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똑똑히 알라구요, 제멋대로 살던 패들. 여기를 잘 보호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예,」

훈모님 이름 하사

자, 이제는 알겠지요? 훈시할 것 다 끝났어요. 다 끝났다구요. 씩씩레한 얼굴 펴라구요. 한번 웃어 봐요. 소리내고 웃어 봐요. 이 남자들 웃어 보라구요. (웃음) 킬킬 웃어 보라구요. 하하하 웃어 봐요. 「하하하…」 다 풀었지요, 이젠? 풀었지요? 풀었지? 임자 일어서라. 노래 한

번 해봐. 노래 잘 해요. 노래, 우타(うた;노래)!

해봐요. 「뭘 합니까?」 이 여자는 통일교회 여장군이야, 여장군. 남편 없이도 생활을 혼자 책임지고 세계에 나가서 죽도록 일하고 와 가지고 ‘하늘나라 갈 때에 내가 당신 데리고 가겠습니다.’ 안내해 달라고 해서 이 남편… 남자가 색시 같겠어요, 여자가 남편이겠어요? 여기가 남편 같고 여기가 색시 같다고요. 이 양반이 남편 같고 저 양반이 색시 같아서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었다라면 여기 이 남자는 살림살이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뭘 합니까? 노래해요?」 (노래함)

오늘은 김효남 장로님에게 특별한 이름을 하나, 존경할 수 있는 이름을 하나 내가 하사하려고 그래요. (박수) 가르칠 ‘훈(訓)’ 자, 훈모님이예요. 훈모님, 한번 해봐요. 「훈모님!」 뭐라고요? 훈독회의 그 ‘훈’ 자, 그리고 ‘어미 모(母)’예요. 가르치는 어머니입니다. 알겠어요? (박수) 불평을 하려면… 선생님이 알고 훈모님을 이름지어 준 그 이상을 알지 못하면 평가하지 말라고요. 절대신앙을 가지고 절대 믿고 절대 행동하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러면 복 받을 거예요, 복.

만약에 그렇지 않거든 앞으로 그런 놀음을 했다간 좋지 않아요. 선생님의 조상들도 가만 안 있고, 다 영계가 가만 안 있어요. 제멋대로 세상, 영계도 다 알지 못하고 평하고 뭐 이렇고 저렇고 칭매과니가 되어 가지고, 귀머거리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구요.

한번 해봐요. 충모님! 「충모님!」 알겠지요? 「훈모님이에요,」 훈모님! 「훈모님!」 뭐 굶모님이라면 큰일나요. 영어로 뭐 굶모닝하고 잘못하고 ‘굶었니!’ 이러면 안 된다구요. 훈모님! 아시겠어요? 훈모님! 「훈모님!」 대모님! 「대모님!」 충모님! 「충모님!」 선모님! 「선모님!」 선모님이 누구인 줄 알아요? 「옥세현 할머니입니다.」

그래, 다 통일교회의 어머니들이예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꺾박받고, 말씀을 품고 말씀을 낳은 어머니들이예요. 그런 의미에서 중간에 올바르게 가르쳐 주니 얼마나… 잘못하면 그 일신이 녹아나고, 일

족이 녹아나오. 멸망해요. 무서운 자리에 선 것을 알아야 돼요.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사기 쳐서는 안 돼요. 통일교회 교주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말만 해 놓고 실천 안 하면 안 된다구요. 나는 다 실천하고 가르쳐 줬다구요.

한번 해봐요. 훈모님! 「훈모님!」 훈모님! 「훈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잘못된 것이 한 점도 없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잘못된 것이 한 점도 없겠습니다!」 곱고 예쁜 목소리 내는 아들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바라야겠구만. 하나님이며, 불쌍한 무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박수)

정한 곳에 틀림없이 가서 영생의 아들이 되라

자, 오늘 얘기가 이렇게 알아볼 사람 다 알아보고 모실 사람 모셔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가야 할 곳을 다 준비해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걸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분들을 잘 모시면 그분들이 있는 곳에 틀림없이 갑니다. 그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현재 이와 같은 일을 충성껏 하는 것을 자기 어머니 아버지, 스승,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 지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면 그분들이 있는 곳에 같이 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래, 여기 떠났더라도 떠난다고 생각하지 말라구요. 여기서 바라는 그곳을 내 고향과 같이 생각하고, 틀림없이 영계의 실상에 소개받은 그걸 중심삼고 이곳은 틀림없이 내가 가서 살겠다 할 수 있는 것을 정해 놓고 여기 있는 사람보다도 더 정성들이면 그곳에 갈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선생님은 여러분 앞에 그렇게 해 가지고 정한 곳에 틀림없이 가서 영생의 아들이 되기를 빌면서 한 말씀이라구요. 알겠어요? 「예.」

그러겠다는 사람은 박수로 환영해요. (박수) 고마워요. 고마워요. 내 일 다 가기 때문에 이 말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기 때문에, 언제든지 청평 드나드는 습관성이 되어 가지고 아래 위도 몰라봐 가지고 더럽힐 수 있는, 먼지를 털어놓고 가서는 안 되겠다고 하늘이 경고하기 때문에 충고해서 훈시한 것을 알고, 그 이름과 더불어 김효남 장로를 이제 뭐라고요? 「훈모님!」 훈모, 가르치는 어머니와 같이 대모님, 충모님, 어머니들 모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이상 가기를 바라거든 그들 이상 충성하고 노력해야 되겠다구요. 그렇게 살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고향과 여러분의 조국광복을 상속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충고했으니, 부디 그럴 수 있는 곳에 다 가기를 바라면서 선생님은 이제 들어가야 되겠어요. (박수) 바쁘다구요. 「전체 기립!」 같이 여기 인사받는 거예요. 「예.」

「선 채로 천지부모님과 또 오늘 훈모님의 귀한 칭호를 하사받은 훈모님에게 우리 함께 경배 드리겠습니다. 선 채로 경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배! 바로! (곽정환 회장)」

이런 ‘어머니’ 자 붙여 준 사람들은 영계에 갈 때 다 붙여 주었는데, 이 양반은 살아서 붙여 줬어요. 아시겠어요? 「예.」 저나라에 가 있는 어머니들이 산 훈모님에게 가르쳐 주고 전달할 수 있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같이 지어 줬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알겠어요? 「예.」

그걸 잘 기억하고, 그 동안 여기에 와서 수련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고향에 가 가지고 이 아주머니한테 여기서 배운 이상 열심히 뜻을 대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구요. 알겠지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안녕! (박수) *

국경선 철폐와 8단계 사랑

어제께 다음을 훈독하자구. (이상헌 선생이 영계에서 보낸 메시지 1
《영계의 실상과 지상생활》 제3장 ‘원리로 본 영계의 삶’ 부분 훈독)

『제3장 원리로 본 영계의 삶

1. 주체 대상과 영계법』

이것은 상헌 씨가 영계에 가서 답사한 내용이에요. 보고예요. 총론
에 대한 보고라구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

『주체가 대상을 향하여 무엇인가 주려고 하는 힘의 작용은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원리에서는 만
유원력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그런데 주체와 대상이 서로 주고받는
수수작용의 힘은 만유원력이며 만유원력의 근본 된 힘의 주인공이 바
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각각 사람에 따라 나타나
는 것이 다르고, 한 곳에서 천 사람을 대하더라도 다 같은 모양으로

2000년 9월 26일(火), 한남국제연수원.

* 이 말씀은 아침 훈독회 때 하신 것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천 사람 모양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격을 이렇다 논할 수 없기 때문에 원리에도 수수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근본 힘이라고 해서 만유원력이라고 했어요, 만유원력! 만유의 모든 힘 전체를 대신했기 때문에 만유원력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수수작용이 일으킬 수 있는 근본적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말이라구요. 읽으라구.

『……주체와 대상이 서로 잘 주고 잘 받아야 본연의 존재적 가치의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어느 한 쪽이 잘못되어 주체가 대상이 되고 대상이 주체가 되면 본연의 자리로 옮겨갈 때까지 어느 한 쪽이 바로 서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근원적인 힘은 떠나버리거나 잃어버린다.

그러므로 주체와 대상은 잘 주고 잘 받기 위하여 근본 된 힘의 주인공인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바라야 한다는 것이다.』

분쟁이라든가 국경이 있는 데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통일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국경을 철폐해야 돼요. 평화의 근본, 극복할 수 있는 최후의 밀창이 뭐냐 하면, 가인과 아벨이 원수가 됐기 때문에 국경이 생겨났다고요. 왜 국경이 생겼느냐? 핏줄이 달라졌어요. 결혼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경이 갈라져 결혼을 잘못했기 때문에 두 나라의 원수 원수시하던 모든 것은 가인 아벨의 입장인데, 이들이 교차결혼만 하면 평화의 근본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교차결혼을 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경지, 국경철폐와 더불어 원수를 사랑했다는 곳에는, 하나된 곳에는, 어떤 곳이든지 주체와 대상이 하나된 곳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 있고 천운이 움직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주체와 대상이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순환법도, 춘하추동과 같이

봄이 오면 번식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발전하는 거예요. 발전이라는 것은 번식하는 거예요. 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물건이 하나님과 같이 창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한 쌍을 창조했지만 창조된 물건은 몇 쌍이라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투입하고 위하는 데서 더 큰 것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상대가 하나님 자신보다도 낫기를 바라는 소원이 거기서 성사되는 거예요. 사랑의 상대는 직접 자기를 중심삼고 있는 자기 사랑하는 남편이고 아내예요. 아내 남편은 아들딸이에요. 그 아들딸이 부모보다 낫기를 바라는 거기서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더 큰 것을 바라는 거예요. 투입하고 위하는 투입에 있어서 더 큰 것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주의 근본이에요.

생존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일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쌍쌍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라는 것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예요. 오목 볼록이 완전히 하나되어야 돼요. 그것이 틀어지면 있으나 마나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래야 된다고요.

이번에 국경선 철폐와 더불어 8단계 사랑의 모델을 선포했는데,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그것을 재현시켜야, 결실시켜야 된다고요. 그것이 무슨 말이나? 그것이 지나가는 말이 아니예요. 저나라의 표본과 같이 하나의 모델이 되어 있는데 그 모델의 심정을 하나님이 체험 못 했어요. 사랑을 중심삼고 8단계 모델 주인의 자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주인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냐? 종이 있어야 주인이 되는 거지요? 종이 없으면 주인이 될 수 없다고요. 주인이 있어야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부모 되는 것은 아들이 있어야 돼요. 자식을 낳아 가지고야 부모가 부모의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체적인 입장에서는 사랑의 근원이라는 것을, 자기 자체로부터 주인 될 수 있는, 자기 자체로서 주체 될 수 있는 사랑을 영원히 찾을 수 없어요. 상대적 존재가 찾아 주는 거예요.

부모 앞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의 주인으로 만들어 주고, 남편을 여자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주인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여자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형님이 동생을 사랑할 수 있는데, 형님이 동생을 사랑할 수 있는 주인을 누가 만들어 주느냐? 형님이 만드는 것이 아니예요. 동생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길을 찾아가는 데 있어 주인을 제쳐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가면 사랑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이것은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도 왜 창조를 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고 혈통이 있고 양심이 있지만, 그 양심 자체가 주체적인 주인의 자리를 영원히 못 잡아요. 그것은 반드시 아들딸을 통해서 잡는 거예요. 그 아들딸이 커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아들딸이 복중시대로부터 그 다음에는 낳아서 유아시대·형제시대를 거치고, 그 다음에는 사춘기시대·결혼시대를 거쳐 부모시대가 되는 거예요. 부모시대에서 할아버지시대로 올라가고 부모시대로부터 또 이것이 재창조되어 퍼져 나가는 거예요. 자녀를 낳으면 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씨가 되어 가지고 세계로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이 되어야 돼요.

8단계 사랑에 대해 하나님이 주인 노릇을 해야 돼요. 아담 해와 가정을 통해서 할아버지까지 나가고 나라의 왕까지 나가게 되면 8단계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랑의 모델 가정이 되고, 국가세계가 될 것인데, 8단계 사랑의 주인으로 설 수 있는 모델을 하나님이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해주느냐? 아담 해와가 자라 가지고 가정

을 축복해서 아들딸을 낳아 순환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돼요. 씨가 된 그것이 씨를 많이 번식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상적 최고의 법

나무 하나를 심어서 열매 맺히는데 한 씨에서 수천 수만의 씨가 번식되는 거예요. 사랑의 문을 통해서 완전히 모델적인 하나님께서 주인된 그 씨는 온 만국에 퍼져도 어디 가든지 천년 만년 같다는 거예요. 그 씨가 거두어들이는 씨는 마찬가지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구원섭리는 천국 가서 구원 받겠다는 것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가정들이 하나님을 해방한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부부사랑 하는 그 사랑 모델의 주인이 못 됐어요. 그 다음에 복중에 있는 아기가 자라는데, 아들딸이 자라는데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아들딸이라고요. 내적인 아버지 외적인 아버지 하면, 하나님은 내적인 아버지이고 아담은 외적인 아버지예요. 두 아버지가 몸 마음 90각도를 중심삼고 하나되어 사랑의 씨를 심었다면 첫번 결혼해서 사랑하는 그 주인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똥이는 횡적인 나요, 양심은 종적인 나예요. 횡적인 아버지, 종적인 아버지한테 받았기 때문에 이중구조가 안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은 높고 높은 것을, 몸똥이는 넓고 넓은 것을 바라는 거예요. 세상 천지를 내 것 만들려고 하고, 더 높은 이상적인 것을 내 것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적 최고의 법이 뭐냐 하면 참사랑이에요. 최고의 법이 여기서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여기도 최고의 법이 사랑인데 뿌리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인간의 절대적인 사랑이 어디서 결착하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거기에서 심어 주어야 돼요. 둘

이 결합되어 심는 자리가 부부들이 사랑하는, 결혼해서 사랑할 수 있는 합덕의 자리예요. 오목 볼록이 합하는 자리예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아 가지고 생명과 혈통이 연결될 수 있는 출발의 기지가 안 돼요. 지금까지 그것을 몰랐어요. 간단한 거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거라구요. 그 기관에서 재창조가 벌어져요. 그렇지요? 「예.」

여러분 부부가 사랑할 때는 천지창조의 공로의 노정을 내가 밟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 완전히 자기를 투입해야 돼요. 완전히 주고받아야 된다고요. 두 마음을 가지면 사탄의 씨가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놀음놀이가 아니에요. 천지가 합덕하고 동서가 합덕하고 모든 우주가 하나의 구형을 찾아가게 되면 핵이 벌어져요. 상하를 중심삼고 전후만 해도 구형이 안 돼요. 전후관계를 중심삼고 세 면이 합해야 구체(球體)가 벌어진다구요.

오목 볼록이 사랑·생명·혈통·양심의 본궁

그렇기 때문에 그 구체의 핵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느냐? 참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길이가 다 마찬가지로예요. 구형을 쪼개도 열두 조각이 나요. 12수가 연결돼요. 삼 사는 십이($3 \times 4 = 12$), 12수가 여기서 나온다구요. 세 면을 중심삼고 쪼개면 네 개가 생겨요. 삼 사는 십이에요. 그래서 석 달에 네 달을 해서 12수가 나와서 천주의 도수가 벌어져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을 가진 것도 놀음놀이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자가 아버지 되는 것도 자식 때문에, 남편 되는 것도 여편네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부부가 되어 가정이 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대상의 자리예요. 하나님 가정이 우리 가정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대상이 사랑의 주인 자리를 결정하게 돼 있지, 자체가 영원히 사랑의 주인 자리를 못 가져요. 그래서 남자 혼자서 살게 되면 1대로 끝나요. 없어지는 거예요. 여자도 그래요. 아들딸을 못 가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유지시키려니 남편이 필요하고 아내가 필요한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왜 필요하나? 둘이 완전히 하나되려니 오목 볼록으로 되어 있어요. 오목 볼록을 중심삼고 하나 만드는데 그것이 무엇을 중심삼고 하나되느냐? 사랑이에요. 사랑과 생명과 혈통과 양심을 뿌릴 수 있는, 씨를 심을 수 있는 곳이에요. 제일 귀한 곳이에요. 뿌리와 같아요, 뿌리!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본궁이에요. 사랑이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구요. 생명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사랑의 본궁이요, 생명의 본궁이요, 혈통의 본궁이요, 양심의 본궁이에요. 존재세계의 모든 근원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제일 귀하게 만든 것이 사랑의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함부로 다룬 거예요. 지금까지 제일 더러운 것으로 취급했지요? 천주를 파괴시켜 놓았어요. 혈통을 뒤집었으니 더러운 거지예요. 쌍년이 뭐예요? 쌍년이라는 것은 절개를 못 지킨 거예요. 화냥년이 뭐예요? 바람피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면 천지가 녹아나요.

생성의 원칙

그렇기 때문에 자라면서 보호해야 돼요.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못 만져요. 어머니 아버지도 함부로 못 만진다는 거예요. 아기를 기르면서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지어 놓은 첫 선물과 같이 존경하면서 만지면 몰라도 말이에요. 매일같이 사랑한다고 해서 그것을 만지게 돼 있지 않아요.

정성들여 창조하던 능력 이상의 정성을 들여야 천국 갈 수 있는 아들딸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함부로 만났다가... 동물들도 한번 동지를 틀고 새끼를 치면 그들이 자립할 때까지는 절대 부모가 갈라지지를 않아요. 아들딸을 길러서 다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전에는 갈라질 수 없는 거예요. 자식들을 잘못 키워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보호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보호해야 되고, 형님은 동생을 보호해야 돼요. 다 그렇게 돼 있다구요. 보호 못 한다는 것은 자기라는 괴물이 뛰쳐나왔기 때문이에요.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하는 거예요. 자기를 투입하고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평화의 기지가 있고, 거기에 발전하는 원칙이 있는 거예요. 생성의 원칙이 계속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라고 하게 되면, 둘이 위하라고 하게 되면 없어지지요. 뜯어먹으면 없어져요. 뼈다귀까지 다 갉아먹어요. 서로 위함으로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 자녀 번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 번식은 위하는 사랑 가운데서 태어나야 그 집안이 발전하지, 자기를 위하라고 하는 데서 태어나면 집안을 망친다는 거예요. 실물이 그랬으면 그런 열매가 나와요. 심각해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성숙되어 때를 맞아 가지고 비로소 사랑으로 합덕하던 거와 마찬가지로 합덕해야 돼요. 이게 놀음놀이가 아니에요. 거룩한 정성을 들인 뭐라고 할까, 우주의 꽃과 같은 제단에 올라가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헌 씨의 말이 있지요? 부부의 사랑은 꽃 가운데서도, 숲 속에서도, 파도 위에서도 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의 상징이니까 제일 높은 자리, 제일 아름다운 자리, 제일 관심 가진 자리가 사랑할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족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 기준을 삼고 정성들여야 된다구요.

그래서 국경선 철폐와 8단계 사랑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잃어버렸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어디서 찾을 거예요? 여러분 몸 마음에서 국경

선이 생겼지요? 이번에 입적하는 가정들 앞에 정오정착(正午定着)이라는 말을 했다구요. 그림자가 없어져야 돼요. 몸 마음이 하나되면 그림자가 없지요? 부부끼리 하나되면 그림자가 없어져요.

동쪽이 낮다고 하면 서쪽에 그림자가 생기고, 서쪽이 낮다면 동쪽에 그림자가 생겨요. 남쪽이 낮다면 북쪽에 그림자가 생기고, 동서남북에 그림자가 돼요. 그러나 정오의 자리에, 딱 중앙에 서게 되면 그림자가 없어져요. 그러한 부모, 그러한 부부, 그러한 부자지관계, 그러한 형제지관계가 되어야 돼요. 이래야 하나님이 여기서 8단계 사랑을 중심삼고 주인 될 수 있는 자리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자기가 알아요. 눈도 1.2, 1.2인데 조금만 틀리게 되면 이상하지요? 눈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코도 그래요. 찡찡이 코가 되면, 감기 들면 어때요? 찌그러지는 거예요. 비틀어진다고요. 그림자가 생겨요, 그림자! 입도 조금만 틀어져도, 1밀리미터만 틀어져도 말하기가 힘들어요. 전부 맞아야 돼요. 전부 맞추어야 된다고요, 배꼽 줄로부터 생식기까지.

영원히 그림자가 없는 수직이 되어야

수양해서 무슨 정성들인다고 하는데, 암만 정성들여도 정오 정착이 안 되면 안 돼요. 열두 시에 그림자가 없는 정착을 하지 않고는 그림자가 없는 하나님 앞에 가지를 못해요. 수직이 안 돼요. 영원히 그림자가 없는 수직이 되어야 돼요. 알겠어요? 「예.」

축구공이 있잖아요? 볼은 서게 되면 언제나 수직이에요. 구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차면 바로 가게 돼 있지, 자기 의식이 없어요. 만들어진 대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달라졌다는 것이 타락이에요.

여러분은 그림자가 있지요? 뜻을 대하는 데도 양심과 몸뚱이에 그림

자가 얼마나 많아요? 국경선이 얼마나 많아요? 다른 것을 물어 볼 것 없어요. 자기 양심이 다 알고 있어요. 몸과 마음에 그림자 있어요, 없어요? 있냐요, 없냐요? 이래 가지고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물건은 전부 파괴예요.

조상이 결혼을 잘못해서 국경선이 생겼기 때문에 축복받아 가지고는 국경선을 철폐해야 돼요. 가인 아벨이 있는 두 나라가 원수예요. 이것을 결혼이 갈라났기 때문에 결혼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차결혼을 하지 않으면 통일의 세계는 안 된다구요. 원수의 국경으로 갈라졌던 것을 교체할 수 있는 데서 바뀌지는 거예요. 형님이 동생이 되고, 동생이 형님이 되지요? 교차결혼을 하지 않는 데는 평화의 근본 출발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같이 형님의 자리를 바꿔치는 거예요. 각도가 90각도면 이 90각도는 어디다 갖다 맞추어도 다 맞는 거예요. 영원히 맞아요. 그래서 교차결혼하면 어디든지 맞아요. 남에도 맞고, 북에도 맞고 서에도 맞고, 동에도 맞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맞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사랑이 되어야 돼요. 천지 조화는 반드시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상하좌우전후, 이런 구형을 통해서 운동하니만큼 그 구형 자체는 90각도가 안 맞는 것이 없어요. 그 각도가 맞는다면 핵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핵, 뿌리와 마찬가지로. 뼈다귀가 되는 거예요. 구형에서 이것이 구르게 되어 있지 핵이 나오지 않아요. 언제든지 우주가 보호하는 거예요. 참사랑의 시대에는 하나님과 그 가정을 중심삼고 돌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중심삼은 가정이에요. 우주의 근본이라구요.

남자들은 자기가 사랑의 주인인 줄 알고 여자들한테 별의별 높음을 다 하고 있어요. 여자들도 그래요. 여자는 남편을 사랑의 주인 만들고, 남자는 여자를 남편 사랑할 수 있는 주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엇바

뛰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끌어당기는 힘, 밀어 주는 힘이에요. 그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 가지고는 운동을 안 해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 획 올라가요. 그렇지요?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에 중황이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참사랑을 중심삼고 투입하고 잊어버리면 뜨게 되어 있어요. 자꾸 올라가요.

강물을 보더라도 흘러가는데, 삼각지대에서 흙을 퍼내지만 반드시 섬으로 가서 쌓는 거예요. 파는 운동과 올라가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전부 주고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운동할 수 있는 대상물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운동했으면, 퍼 왔으면 반드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갔으면 내려가야 돼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깊이 내려갈 줄 알아야 영존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정에서 제일 높지만 ‘내가 제일 높다!’고 그래요? 가정의 제일 낮은 자리에 가서 봉사해 주고 가족들을 위해 가지고 돌려주는 높음을 하는 거예요. 나라의 왕도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예요. 그것이 안 되면 그런 나라는 깨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나라에 가서 그 박자를 못 맞추게 되면 점점 먼 자리에, 이 중앙보다 먼 자리에 가는 거예요. 세포가 죽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은 자연이치예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흘러간다는 거예요. 없어지기 마련이에요.

만유원력은 만유의 근본 되는 힘

이런 내용을 중심삼고 하늘나라가 편성되어 있어요. 막연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리고 상헌 씨도 말했지만, 사랑이나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인격을 몰라요. 무엇으로 표시하겠느냐 이거예요. 인간세계의 무엇 가지고도 그것을 표시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만유원력이라고 쓰는 거예요, 만유원력. 만유의 근본 되는 힘이에요. 미술

적, 예술적, 정치 경제, 모든 관계세계의 힘은 만유원력과 관계되는 거예요.

관계라는 것, 정치관계·형제관계·부부관계·외교관계·천지관계·사제관계, 전부 관계로 되어 있지요? 그 관계에 있어서는 반드시 둘이 하나되기 위한 거예요. 그것을 이혼시키면 두 세계는 갈라져요. 외교무대에서 거짓말했다가는 갈라지지요? 깨져 나가요. 두 나라는 영원히 이별이에요. 여러분 몸 마음이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 갈라지는 거예요. 언제 가서 합할 거예요? 영원히 문제가 심각해요.

근본에 가서 합해야 돼요. 사랑의 출발이 그릇되어 있고, 생명의 출발, 혈통의 출발이 뒤집어졌으니 이것을 바로잡아 가지고 연결시키지 않으면 찾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탄식권이에요. 이것이 엄청난 놀음이라구요. 가정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알겠어요?

마음의 영이 아무리 커 가더라도 핵이 딱 들이맞아야 돼요. 이 하늘 만한 것이 둘이 딱 해서 초점이 맞아야 딱 맞는 거예요. 눈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눈꺼풀이 깜박깜박 해도 이렇게 깜박 하겠다고 하는 거라구요. 눈꺼풀을 내리면 나는 올라가겠다고 해보라구요. 전부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입술도 맞추는 거예요. 코도 공기를 ‘야야, 이 콧구멍에 들어가라. 나는 빨겠다.’ 해보라구요. 전부 쌍쌍으로 박자를 맞추면 우주와 하나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나, 이 짧은 놈들! 「예。」 대가리를 짓고 함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 앞에 여자가 있다는 것, 세계에 그 이상 기적이 없어요. 여자 앞에 남자가 있다는 그 이상 기적이 없어요. 천하에 그 이상의 가치를 못 세운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중심삼고 그 사랑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우수한 종의 구분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60도 어느 각도에 있어 그 분야에서 이길 수 있는 정성을 들였지만, 이 중앙을 중심삼고, 종적인 이 기준을 중심삼고

360도를 맞출 수 있는 것은 부자지관계예요. 부자지관계는 종적이요, 부부관계는 횡적이요, 형제관계는 전후예요. 부자일신, 한 몸이에요. 한 몸이 되어야 돼요. 한 몸이 되는데 무엇을 중심삼고 한 몸이 되느냐? 상하가 그냥 상상 하하가 아니라구요. 상은 상이고 하는 하인데 그 중심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중심이에요. 상중하에서 중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둘째 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든지 둘째 번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도 둘째 번이에요. 언제나 이것은 생사지권을 중심삼고 갖기 내기 싸움을 하는 거예요. 중심을 누가 갖느냐 이거예요. 사탄이 중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뒤집어 봤어요. 이렇게 될 것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낮 될 것이 밤이 됐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것을 누가 뒤집어엮어요? 그것은 메시아, 참부모가 뒤집어엮는 거예요. 아담 완성자가 메시아예요. 아담이 미완성해서 뒤집어엮었기 때문에 완전한 아담이 와서 뒤집어엮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해요. 사탄도 못 해요. 둘이 싸우기는 하지만, 서로 서로 줄다리기를 하지만 그 전쟁을 누가 끊게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가운데 놓고 윗자리에 완전한 아담이 가고, 아래 자리에 천사장이 가서 완전한 아담이 하나님을 모시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다구요. 알겠어요?

몸 마음이 하나되는 것이 수양의 표준

몸 마음이 하나되어야 돼요. 언제든지 수양의 표준이 그거예요.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알아요. 몇 퍼센트 하나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지구덩이만한 다이아몬드가 생겨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몸뚱이가 뭐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내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라 것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게 문제예요. 알겠어요? 제일 좋은 것이 있으면 나라 박물관에 가야 되는데, 내 포켓에 넣어 가서 아들딸한테 갖

다 주는 거예요. 전부 부정하는 거예요.

귀한 것이 왜 좋으냐? 좋은 것, 귀한 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잘못 점령하면 벌받아요. 참소한다는 이거예요. 아벨의 피가 가인을 참소했다고 그랬지요? 가치가 못 된 것이 주인, 형제가 못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알아요. 함부로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귀한 것이 있으면 부모의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영원히 남아요. 가치 있는 것은 자기보다도 상대를 주겠다고 해야 돼요. 가치는 상대로부터 결정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이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우주의 근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남자는 남자 때문에 태어났어요? 여자를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형님은? 「동생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동생은? 「형님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 집안은? 「국가를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녹음이 잠시 중단됨)

그래서 귀가 그 가운데의 눈을 중심삼고 울타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왔다갔다해서 그 생애가 평탄치 않아요.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봐요. 눈을 중심삼고 봐서 맞나 안 맞나, 맞나 안 맞나 한대구요. 배꼽을 중심삼고 그래요. 여기를 보면 남자들은 털이 났대구요. 그렇지요? 「예.」 둘을 붙여 놓았대구요. 그래서 전부 수평이 돼요. 걸을 때도 이렇게 걸으면 안 돼요. 걸게 되면 궁둥이만 써야지 대가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법도에서 교육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된대구요. 훈련하는데 맞추는 훈련이에요. 수양이라는 것은 그 법도에 맞추는 훈련이에요. 한번 해놓은 것이 습관이 되어 가지고 몇천 년이라도 맞는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양이 필요해요.

투입해서 주인 만들어 주면 받은 만큼 돌려줘야

타락한 존재는 못해도 3년 5년 싫더라도 그 일을 해야 돼요. 한 자리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돼요. 한국 사람을 동이민족이라고 했는데, 동이민족은 사격의 명수예요. 올림픽 대회에서 몇 번이나 금메달을 땀어요? 그런 정신자세가 똑바로 되어 있어야 돼요. 영(零)의 자리에 서야 돼요. 이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예언가들이 유명하다는 거예요. 《정감록》이라든지 《격암유록》이라든지 천리를 통한 예언서가 있어요. 몇천년 전에 예언한 것인데 그것이 몇천년 후에 다 들어맞아요. 선생님이 가르친 말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세월이 달라졌다고 왔다갔다하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원칙을 따라서 말하기 때문에 변하지를 않아요.

세월 따라 변하는 것들은... 앞으로 정치세계는 없어요. 경제적인 관리체제가 된다는 거예요. 정치라는 것이 필요해요? 사탄세계에서 빼앗기 위한 놀음이에요. 위하는 데 있어서 무슨 정치예요? 없어서 걱정인데, 있으면 위해 주게 되어 있는데. 세상의 없는 사람들은 세상을 갖다가 자기를 위하라고 그러지요? 반대예요.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하고, 하늘땅을,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저나라에 가서 전부 들어맞는 거예요.

야구할 때 피처와 캐처가 딱 쏘면 딱 들어맞아야 된다고요. 90각도를 중심삼고 전부가 원형이 됐다 하면 오케이예요. 천지의 운세는 그 페이스, 원칙을 중심삼고 옳든가 그르든가, 높고 낮고 다 이렇게 돼요. 전후가 다 벌어져 나가는 거예요. 중심 존재, 중심 자리에 다 서고 싶지요? 그림자가 없게끔 정성들여야 돼요. 그림자가 없으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믿는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종교권이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종교를 믿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 정화적 사랑을 하게 되면 개인 완성, 종족민족국가 완성, 하늘 보좌 꼭대기에 올라가요.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데리고 올라가려고 했다구요.

개인 완성을 안 했으니 하나님이 완성을 못 해요. 상대를 통해서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가정·종족을 완성할 수 있는 주인, 민족을 완성할 수 있는 주인, 이렇게 되어야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올라간다면 창조고 무엇이고 바랄 것이 뭐 있어요? 자기 자체에서 다 이룰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남자가 잘났더라도 오목을 찾아가는데, 종이 돼야 돼요. 그것 맞는 말이에요? 「예,」 불록 된 남자들은 오목을 찾아서 뭐가 돼야 된다고요? 「종이 되어야 됩니다.」 투입하는 주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투입하고 잊어버리면 ‘야, 네 것을 다 내가 갖고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플러스되는 나까지 네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 거예요.

투입해서 주인 만들어 주면 주인이 돌려줘야지요. 받은 만큼 돌려줘야 돼요. 후속 내쉬었으면 흡입 들이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돌려주면 저쪽에서 커져요. 완전히 투입하고 잊어버리니 여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이 되어 내려오는 거예요. 모처럼 숨을 들이쉬면 한꺼번에 획 나가기 때문에, 출발한 곳보다 더 깊은 데에 내려오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더 높이 올라가요, 밀어 주니까.

서로 위하려고 하니 받았으면 플러스시켜서 주는 거예요.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저기압이 되어 가지고 빨아들이고 배가시킬 수 있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더 투입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운동이 가능한 거예요. 숨쉬게 될 때 죽음의 공포를 안 느끼지요? 「예,」 몇 번이나 숨 안 쉬면 죽을 것 같아요? 들이쉬기만 해도 죽어요. 내쉬기만 해

도 죽어요. 수평이 되어야 돼요.

수직을 향해서 90각도를 맞추어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질의 세계는, 바람도, 공기도 선율로 돼 있어요. 공기 자체가 선율로 돼 있다구요. 강약 강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람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람이 강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물결이 왜 그렇게 되느냐? 공기 자체가 선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율로 된 그것이 움직이니까 움직임에 부딪치는 데 있어서는 물결이 거기에 박자를 맞추어서 그렇게 되는 거라구요.

눈이 깜박깜박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불타 버려요. 이게 물 뿌리는 장치 아니에요? 이것이 스크린이 되어 있어요. 벌써 스크린인 눈 자체는 몰랐지만 이미 공기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벌써 복사열이 있어 가지고 증발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눈 자체에 장치를 했어요.

먼지가 있고, 수증기가 있다는 것을 다 알았어요. 눈 자체, 물질 자체는 몰랐지만 그 배후에는 박물학적 왕자가 있었어요. 천지의 이치를 다 보고 하나의 귀하다는 존재를 설정했다는 거예요. 놀음놀이로, 함부로 자료를 남기지 않아요. 더더욱이나 하나밖에 없는 사랑을 함부로 써 버려요. 보물 창고가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보물창고예요. 그 키(key)도 둘이 아니에요. 키가 하나예요. 남편의 키와 아내의 키로 사랑의 키는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예요. 알겠어요? 그것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깨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몰랐어요. 그것만 알게 된다면 이 사회는 대혁명이 벌어져요.

정오정착, 수직을 향해서 90각도를 맞추어야 돼요. 그것을 맞추게 되면 둘이 합하니까 여기는 뼈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의 뼈가 생기는 거예요. 뼈는 반드시 어머니 아버지

를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 뼈에서 갈라진 몸뚱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를 닮고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무슨 기관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남자 여자가 합덕하는 순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동기가 되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의 동기가 묻혀져서 나에게 심어지는 거예요. 컴퓨터로 말하면 입력을 하는 거예요.

칩 하나에 선생님의 말씀집 3백 권이 아니라 몇천 권의 책이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는 이런 것 여자는 이런 것, 둘이 합하면 이렇게 태어난다는 보이지 않는 프로젝트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 되어, 하나의 세포로부터 세포분열을 하는 거예요. 분열은 순환분열을 하는 거예요. 방향분열을 하면 다 날아가요. 핵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의 뼈가 될 수 있는 사랑의 우주 근본이 있기 때문에 순환운동을 하는 거예요. 순환번식을 하게 되어 있지, 평면번식을 하면 날아간 다구요.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던 그 사랑이 뼈가 되어 가지고, 세포의 칩이 되어 하나 내 생명의 씨가 순환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몸뚱이에 있는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가 플러스가 됐으니 그것을 전부 끌어당겨서 커 가는 거예요. 주체 앞에는 반드시 대상이 자연히 발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격을 보강하기 위해서 복중에서 탯줄로 어머니의 피살과 뼈를 다 빨아요. 그 다음에는 젖으로 다 빨아요. 그 다음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살고 있는 생활의 모든 것을 빨아먹고 크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 아버지를 빼 놓으면 자기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를 절대 위하고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중하면 천지가 다 감겨 돌아가는 거요. 감겨 돌아가는데 ‘어서 빨리 빨리 감아라!’ 우주가 그러는 거예요. 자꾸 밀어 주는 거예요. ‘잘 돌아가라! 잘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우주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공식이 간단해요.

이제는 입적 가정이 뭘 해야 한다구요? 정오정착! 그림자가 없게끔

해야 돼요. 정오에는 그림자가 없어요. 조금만 기울어도 동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서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앞으로 가면 뒤로, 뒤로 가면 앞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똑바르면 하나님이 왕래하는 거예요. 공명이 생겨요. 우주가 공명한다구요. 높은 안테나에 세계에 왔다갔다하는 모든 전파가 울리는 거예요. 우웅 하는데 그 소리가 듣기 싫지 않다는 거예요. 땡 안 해요. 도자기 같은 것도 입으로 후욱 보라구요. 우웅, 우주가 달려들어 공명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여자가 벌거벗고 달려들어도 자제해서 동하지 않아야

그래, 몸 마음이 하나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미인이, 그리던 이상적인 미인이 발가벗고 팔다리를 벌리고 ‘당신을 기다렸소!’ 하며 와서 척 품어 줄 때 내 몸뚱이가 발동해서 거기에 말려들어 가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주관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클라이맥스에서 영으로 돌아와야 돼요. 생각이 지배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세계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툇, 툇 뺏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를 원수의 품에 넘겨 주면서 복을 빌 수 있어야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거기에 얼마만큼 미급한가를 생각해 보라구요.

통일교회 선생님은 그런 훈련을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선생님을 모시려고 하고 그리워해요. 자기 나라의 왕보다도, 할아버지보다도, 아버지보다도, 남편보다도, 오빠보다도 좋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까운 것을 전부 저버리고 새로운 저세계의 하나님의 심정과 통할 수 있는 내연적인 생명의 힘과 맥박이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동기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모르게 안 가면 몸이 무거워지고 사방이

어지러워져요. 봄날이 되면 봄기운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못 하면 얼어붙어요. 눈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수양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각 때 여자가 별거벗고 들어와서 나 살려 달라고 울고불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알고 나서는 ‘나는 생식기를 못 쓴다. 이래도 사랑 받겠어?’ 해야 돼요. 거기에 자제해서 동하지 않아야 돼요. 빨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게 도의 절정이에요.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사탄 혈통세계의 교차점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세계의 수많은 문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부정 부정해서 여기에 올라가야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새천지의 새싹의 사랑이, 이상적 사랑이 출발하는 거예요.

남자에게 제일 요물이 여자, 여자에게 제일 괴물이 남자

그래서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가 사랑하는, 그 합덕하는 뒷면에 참사랑의 길과 참사랑의 생명 빛이 태양같이 빛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처음 듣지요? 그런 사람은 누가 마음대로 못 해요. 알겠어요? 「예.」

통일교회를 알려면 그것을 알아야 돼요. 자기가 그런 기준에서 테스트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편네가 그럽고 간절하다가 십년 만에 만나서 사랑하는데 클라이맥스에서 ‘영점!’ 하면 영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영점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수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했다, 너 먹고 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내를 버렸지요? 잃어버렸지요? 얼마나 수고했어요? 구약 시대·신약 시대에 남자 여자를 세 번이나 희생하면서 나온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간 여자에게는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창조한 본연적인 일대 심정 일체권을 중심삼아 가지고 사탄세계를 뚫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진짜 사랑이지요?

여러분이 그런 표준 밑에서 수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비로운 기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여자가 와서 유인해요. 자기가 누워서 자고 있는데 생식기를 대고 안고 웃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악!’ 하면 안 돼요. 같이 웃으면서 자연굴복시켜야 돼요. 그게 해탈할 수 있는 경지라구요. 그 이상의 고개가 없어요. 그 이상의 정상이 없어요. 거기에는 만국이 평지예요. 물결과 같이 해방권이 벌어져요.

남자에게 제일 요물이 여자고, 여자에게 제일 괴물이 남자예요. 괴물하고 요물이 만나면 무슨 조화가 벌어지겠어요? 천지를 망쳐 버려요. 위하는 사랑이 없다구요. 이용하려는 사랑이고, 파먹으려는 사랑이고, 없애 버리려는 사랑이고, 점령하기 위한 사랑이에요. 그게 도의 최고 기준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품에 품기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언제 가더라도 하나님의 최고 사랑에 공명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 가더라도 반대 안 한다 이거예요.

내가 끝날이 되어서 이런 것을 다 얘기해 준다구요. 입적의 때가 왔어요. 다 이룬 거예요. 자, 15분만 더 읽으라구.

부부의 사랑 행위가 하나님에게 최고의 인사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본연의 힘의 가치를 잘 깨달아야 한다. 본연의 레일 위에 있을 때 근본 된 힘이 발휘되는 것이지 레일 위를 벗어나면 본연의 힘의 발광체는 반영되지 않는다. 레일 위를 달려갈 때 그 레일 위를 또다시 살펴 가면서 가야 한다. 이곳 영계 법은 단호하다. 용서가 없다.』

전깃줄과 마찬가지로요. 상공을 통해 배전소를 통해서 와트수가 얼마라는 것을 중심삼고 그 크기에 따라서 전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의 크기에 따라서 발전소의 전기가 그냥 그대로 통째로 날아와요. 상헌 씨의 보고를 보면, 신비로운 빛이 자기를 감싸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 한 줄기의 사랑이 와서 감싸 가지고 자기가 녹아나는 것을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백 볼트가 들어오던 전깃줄에 36만 볼트의 발전소 전기가 들이닥치는 거와 마찬가지로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이 참사랑의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헌 씨도 8년 전에 간 여편네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복을 입고 인사하고는 거기에서 사랑한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읽어 봤어요? 「예.」 사랑이 최고 인사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던 인사 가운데 최고의 희망이 그거예요. 혈통을 존중시하여 새로이 이상적 평면을, 나라를 심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거기에 심지요? 가정을 심고, 민족을 심고, 국가를 심고, 하늘땅을, 지상천국을 심는 자리예요. 창조한 것을 재차 심어 놓으면 그것이 씨가 되어 가지고 몇백 배로 자꾸 불어 나가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십년 백년이 문제 아니에요. 몇 대를 한 순간도 안 되게 보는 거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정착? 「정오정착!」 이번에 훈시한 것이 정오정착이에요. 정착한 하나님 대신 정착했는데, 창조주로 지으신 물건을 사랑해 보지 못했어요. 사랑의 주인을 못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8단계 사랑을 파괴시킨 거와 마찬가지로 사랑을 중심삼고 상징체 형상체가 사랑의 8단계를 다 찾지 못했어요. 캄캄한 어두운 세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 주인 되어 정착했으면 하나님 대신 만물을 사랑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선물 준 것을 내가 잔칫날이라든가 환갑날에 축하하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으니 내 사는 하루의 생활, 내 생애의 잔칫날에는 만물 모든 것을 진설해 놓고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나님을 모셔와서 대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들 못 살았지요?

하나님의 비밀스런 사랑이 깊은 곳

그래서 선생님은 196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12년 동안 산을 헤맸어요. 사냥을 다닌 거예요. 내가 안 간 산이 없어요. 남한에서 높다는 산은 다 갔어요. 백두산과 금강산은 일부러 안 갔던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는 오대양을 헤맸지요? 그것이 다 끝났어요.

판타질이 사람 못 살 데라는 거예요. 혼자 낚시하고 앉아 있으면 스크리 같은 뱀이 와서 훌쩍 삼켜 버려요. 표범이 득실득실 하는 거예요. 악어가 득실득실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기 안방같이 사는 거예요. 자기 집같이 살아요. 하나님의 비밀의 사랑이 깊은 곳이 고요한 곳이에요, 제일 적적한 곳이에요. 깊고 높은 곳이에요. 그것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산으로 헤매고 바다로 헤매 다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뜻을 이루던 만물, 바다에서 죽은 영, 산에서 죽은 영, 먹고 살기 위해서 별의별 곡절들을 겪은 영, 그들의 길을 다 닦아 줘야 돼요. 그것을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이 한이고, 키스해 주지 못한 것이 한이라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 정원에서 자라는 풀은 거름을 안 줘도 천운이 키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병이 나래도 안 나요.

요즘에 어머니가 선생님이 80세니까 ‘10년만이라도 건강하게 해야겠다.’ 해서 의학박사하고 짠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존경하거든. 어떻게 하든지 10년 동안은 둘이 지키자고 약속을 했더니? (웃으심) 그래서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지시하면 어머니는 무슨 어려움이 있더라도, 싫다고 하더라도 앵앵거리고 안 된다고 하면 왜 안 되느냐고 해서라도 약을 먹인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만 뜨면 벌써 약을 갖다 대요. 그것을 먹어야 되겠어요, 추방해야 되겠어요? 더럽던 오줌도 먹으면 깨끗해진다, 이렇게 생각하

는 거예요. 위장에 들어간 소화물이 금은보석 이상 좋은 영양분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건강한 거예요. 정신력이 무서운 거라구요.

약봉지가 점점 많아져 수만 가지가 되겠다구요. 세상에 좋다는 것은 세계에서 날아와요. (웃음) 내가 80세지만 병원에 가 보지 않았다구요. 하나님을 믿고 말이에요. 공기 먹고, 물 먹고, 그 다음에 햇빛 보면 돼요. 그 이상의 영양소가 어디 있어요? 땅에서 국물 짜낸 것이 물인데 그것만 먹고도 살게 돼 있어요.

경계선을 전부 타파해 버려야

자, 이런 얘기를 하다가는 내가 갈 길이 이 바쁘겠다! 입적 수련생들을 축복해 주는데 입적가정 훈시를 해야 돼요. 어제 거기서 자자고 했는데 기분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내일까지 사흘 저녁을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잘 시간이 열한 시인데 열 시 40분에 출발해서 한시간 20분 걸려 열두 시에 와서 자고 오늘도 새벽같이 또 가요. 3일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어머니는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이 왜 저러노? 자고 오면 좋을 텐데 왔다갔다한다.’ 이거예요. 이러니 경계선을 전부 타파해 버려야 돼요. 자, 읽어요.

『지상에서는 인정으로 봐주고 사랑으로 봐주기도 한다. 부모자식간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봐주는 경우도 있지만 영계법에는 부모자식간이라고 봐주는 법이 없다. 법이니까 까다롭다가 아니고 원칙 그대로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왜 봐주는 것이 통하지 않을까 하고 의심도 가겠지만, 근월 된 사랑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봐주게 되면 질서가 파괴된다는 것이다.』

눈이 코를 봐줄 수 있어요? 오른눈과 왼눈은 상대가 되어야 되지만 코는 달라요. 코가 입을 봐줄 수 있어요? 코는 코고 입은 입이지요. 이 동하면서 왔다갔다할 수 있어요? 부모면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니, 자

식이 부모 되고 부모가 자식 될 수 있어요? 천운은 그래요. 선생님도 마찬가지로요. 마찬가지로요. 자식을 대하나 누구를 대하나 기울어지면 안 돼요.

『영원의 세계를 위하여 봐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영원을 위하여 순간을 잘 장식해야 한다. 이렇게 이상현이 말하는 것은 앞으로 참부모님께서 영계를 정리하실 때 부모님을 도와드렸다는 자식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다.』

거짓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영계의 실상 총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을 아는 것은 통일교인들 뿐이에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선생님이 안 나오면 저런 것을 몰라요. 귀하고 놀라운 거예요. 선생님이 아는 이상 귀하게 여겨야 자기들에게 언제든지 찾아와요. 선생님의 포켓에 있던 천운이 여러분의 포켓으로 이사하려고 한다구요.

부모가 재산 있으면 효자로부터 이사시키지요? 딱 마찬가지로요. 그것을 전부 선생님의 것으로 생각 안 해요. 역사의 만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로 돌아가려면 욕심을 가지고 가로막지 말라는 거예요. 경계선이 있으면 막혀 버려요.

물은 움직이는 않으면 썩어

자기 부모한테 잘못 받으면, 이렇게 가다가 막히면, 높으면 이것이 옆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사랑은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선이 안 되면 옆으로 가서 이것 가외의 것은 막혀 버리는 거예요.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움직인다고 했는데 안 움직인다고 자기도 거기에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이 동조하게 될 때는 어떻게 돼요? 물

이 움직이지 않으면 썩어요. 일주일만 되어도 못 먹어요. 움직이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운동하지 않으면 죽어요. 뜻을 알고 움직이지 않으면 죽어요. 편안히 살면 죽는다고요. 천지이치가 그래요. 자꾸 흘러야 돼요. 계곡의 물 방울이 흐르기 시작해서 개천이 되고, 강이 되고, 대강이 되어 가지고 바다에 들어가요. 바다에는 태평양을 중심삼고 4천5백 마일을 흑조(黑潮)가 돌아요. 지구의 중력을 따라서 태평양을 1년에 한번씩 도는 거예요. 그렇게 돌기 때문에 오대양의 물이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물론 달의 중력이 있어서 그렇지만 말이에요. 달과 지구 사이에 주고받는 힘의 의해서 흑조가 돌고 있어요.

주고받는데는 운동이 벌어지지요? 「예.」 몸 마음의 운동이 잘 벌어져요? 심각한 거예요. 자기 손을 보기에 부끄럽고, 얼굴을 보기에 부끄럽고, 눈을 보기에 부끄러운 거예요. 내 몸 마음이 부끄러운 것을 알아야 돼요. 자기 가정이 부끄러운 것을 알아야 돼요. 나라가 부끄러운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이 부끄러운 것을 알고, 일구월심 자기가 구멍을 뚫어서 터널을 파고 레일을 놓고 기차를 만들어 달리게 하겠다는 것이 탕감이에요, 탕감!

돌아가는 데는 그냥 못 돌아가요. 떨어지면 다리를 놓든가 쇠줄을 매서 올라가든가 그 방법밖에 돌아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탕감 뭐예요? 「복귀!」 복귀! 편안한 녀석들은 지옥으로 자꾸 떨어져 나가요.

히말라야산맥이라든가 알프스산맥이라든가 몽블랑산을 그냥 그대로 못 올라가요. 발판을 박았으면 발판을 절대 따라가야 되고, 줄이 있으면 절대 쥐고 가야 돼요. 생명 이상 중요시하지 않으면 살길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틀림없이 떨어졌다는 사실, 타락했다면 올라가야 돼요. 올라갈 수 있는 안내자가 있으면 그 안내자를 따라가야 돼요. 안내자가 없게 될 때는 안내하는 도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올라갈 수 있는 줄이 매여 있고 사다리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편이 수직으로 박혀 있으면, 90각도 120각도로 꽃아 있더라도 거꾸로 해서 붙들고 그것을 밟고 올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살길이 없다구요. 탕감복귀예요. 해봐요. 「탕감복귀!」

원형이정은 천도지상이요, 인의예지는 인성지강이라

선생님이 고생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왜 고생을 해요? 하나님도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탕감복귀예요. 탕감복귀는 그냥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예요. 공적노정, 40년 동안 선생님이 수고한 노정, 하이웨이를 달리고 레일 위를 달리는 데 있어서 기관차까지 다 만들어 놓고 운전 방법까지 가르쳐 주었는데, 기름까지 선생님한테 사 달래요. 우는 아기 밥 벌어 먹이는 것도 선생님이 벌어 먹여 주라는 거예요. 그건 새끼가 되어 자주적인 입장이 못 된 기어다닐 때의 말이지요.

동물도 그렇잖아요? 호랑이 새끼도 2년 8개월만 되면 쫓아 버려요. 2년 반만 되면 떠났던 수놈이 새끼 다 키운 것을 알고 찾아온다구요. 세상 이치가 다 그런 것을 알아요, 몰라요? 제비새끼도 크게 되면 데리고 나가서 쫓아 버려요. 강남 가는 제비들이 자기 새끼들을 데리고 안 가요. 전깃줄에 앉았다가 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미들은 선두로 달릴 수 있는 왕초를 알아요. 그 뒤에 따라가게 하고, 어미들은 옆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앞에서 따라가다가 어미를 잃고 지도할 수 있는 그 제비를 따라가는 거예요. 다 그런다구요.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을 끼고 다녀야 되겠어요? 가정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탕감복귀의 수난 길을 극복해야 돼요. 아내를 위해서 탕감해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 탕감해야 되고, 부모를 위해서 탕감해 드려야 돼요. 타락한 인류의 조상이 벌여 놓았으니 대신 조상 자리에 서기 위한 그 놀음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게 이론적

이라고요. 수단적이 아니요, 방편적이 아니에요. 이론적이예요.

‘원형이정(元亨利貞)은 천도지상(天道之常)이요 인의예지(仁義禮智)는 인성지강(人性之綱)이니라’ 했는데, 그게 공론이 아니예요. 총론이예요. 삼강오륜(三綱五倫)의 오륜은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봉우유신(봉우유신)’인데, 삼강오륜의 법도가 거기서 퍼져 나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런 얘기도 안 해요, 알고 있지만. 그런 얘기를 했다가는 유교의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삼강오륜이라는 것이 전부 그런 거예요. 하늘의 도리를 중심삼고 오륜이 나오는 거예요. 전부 끝났어? (훈독 계속)

여기서 누가 제일 나이 많아요? 대가리 제일 큰 녀석 기도하라구. 여기서 세 번째 기도하라구. (임성송 씨 기도)

임성송이야? 성송이야, 송성이야? 「이를 성(成) 자에 ‘소나무 송(松)’ 자, 소나무 숲을 이룬 사나이입니다. (임성송)」 숲을 이룬 소나무 왕초로구나. 나무야, 풀이야? 「소나무입니다.」 풀이 아니고 나무네. 소나무가 자란다 이거야. 아침 먹고 싶은 사람은 여기 와서 먹고 가도 괜찮을 거라고요. (경배)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서 경배하는 것이 복이예요. 영계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선생님을 모시고 한남동 공관에서 훈독회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 역사를 많이 남겨야 돼요. 그것이 아들딸, 후손에게 남겨 주는 보물이에요. 그것을 알아요?

「아버님, 사진 좀…」 거 사진 찍은 녀석들은 나중에 지옥 갈지 모르면 어떻게 해? 너희들보고 뭐라고 하겠나? 거 앞으로 사진 불살라 버리고, 없애 버려야 될 것 아니야? 책임지겠어? 그래서 내가 사진 찍기 싫어해. *

조국광복의 기수가 되라

축복식 끝났어요? 「예.」 기분이 어때요? 「좋습니다.」 이게 무슨 모임인지 잘 모를 거라. 영계를 모르고 영계의 전통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 가지고, 또 하늘나라가 어떻다는 것을 몰라 가지고는 무슨 일인지 모를 거라구요.

지금까지 가르쳐 준 영계의 내용은 사실이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이 내용을 전부 알기 위해서는 많은 정성을 들여야 될 거예요. 이런 날이 오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정성들였는가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예.」

아담 해와의 부부는 누구의 부부예요? 똑똑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정을 갖고 싶어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은 알지요? 「예.」 하나님은 영계에 가도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영계에 가도, 상현 씨의 《영계의 실상과 지상생활》에 나와 있듯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선생님 말씀의 주제별정선 11권, 12권 《지상세계와

2000년 9월 26일(火), 천주청평수련원.

* 이 말씀은 제1차 사위기대 입적 축복식 후에 하신 것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습니다.

영계》의 내용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구요.

또 거기에서 말한 모든 내용... 상헌 씨는 이 지상에서 살면서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쳐 준 내용도 잘 믿고 가지 못했구요. 상헌 씨도 백퍼센트 믿지 못했어요. 선생님이 '바른손은 영계를 붙들고 왼손은 지상을 붙들어서 180도 돌려놓는다.' 했는데, 그런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믿지 못하던 사실이 가 보니까 틀림 없는 사실이니까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이 사람이 영계론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심한 거예요. 국제과학통일회의(ICUS) 8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철학자, 종교가, 모든 사람들이 질문하면 답변하는 입장이었는데, 제일 어려운 질문이 뭐냐 하면, 영계에 대한 것이었는데, 영계를 모르니까 답답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상에 있을 때 영계론을 조사하고 또 영계에 가서 조사한 내용이 맞느냐 안 맞느냐 검증해 가지고 남기려고 한 거예요. 그것이 생애의 목적이고, 자기가 연구한 출발, 과정, 목적의 전부였는데, 그 일을 밝혀 놓지 못하겠으니 얼마나 답답해한지 몰랐구요. 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밝힐 수 없었는데, 가서 선생님의 가르침과 영계의 모든 내용을 대조하니 틀림없이 그것이 하나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그래서 40일 동안...

영계의 사실을 보고한 《영계의 실상...》은 경서 중의 경서

여러분, 그래요. 죽으면 40일 동안은 어디 가서 자리를 못 잡아요. 지상세계와 천상세계를 왔다갔다하면서 조상들이라든가 자기 스승이라든가, 혹은 종교 믿는 사람은 교주라든가 그분의 안내를 받아 가면서 지상에 맞느냐 천상세계에 맞느냐 해서 몇몇 곳을 다니는 거예요. 상·중·하와 마찬가지로 중간에 있게 된다면 위를 알아야 되고, 아래

를 알아야 돼요.

천·지·인(天地人)에서 사람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알고 땅을 알아야 돼요. 죽게 되면 고향에, 조국 땅에 돌아가는 거예요. 조국에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늘나라와 지금 현재와 미래의 세계를 관계 맺으려면 영계의 어느 자리에 갈 신분인지, 지상에서 어떤 입장에 있었다는 것을 맞춰 가지고 그 맞는 자리에 가게 돼 있단가요. 그렇기 때문에 40일 기간은 절대 필요해요.

그래서 구원섭리역사, 복귀섭리역사에 있어서는 40수가 언제나 문제가 돼 있어요. 예수님도 40일 후에 부활해서 승천했어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영계의 40일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영원한 세계에 정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40일 동안 정착하지 못한 기간에 영계 육계를 마음대로 왔다갔다해요. 40일 후에 결정해서 영계에 딱 가게 되면 지상에 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상헌 씨가 40일간에 이런 영적 현상이라든가 지상에서 자기가 연구하지 못했던 영계의 총개론을 소개해서 끝수 되는 내용을 최소한의 기간 내에 전달하려니 얼마나 바빴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영계라는 것이 조그만 한국 땅이나 지구성 같은 것이 아니에요. 몇 천만 배의 무한한 세계예요. 방대한 세계예요. 사람이 사는 데도 지옥에서부터 천상의 보좌, 꼭대기에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필요한 단계를 전부 체크해야 돼요. 얼마나 바빴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바쁘게 해 가지고 비교 검토한 결과 그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보고한 거예요. 또 선생님은 그 일을 명령했어요. 영계에 가자마자 40일간을 중심삼아 가지고 영적 세계와 지상세계의 총평을 중심삼고 보고하라고 명령했어요.

보고를 받고는 하나님의 승낙을 말아야 돼요. 알겠어요? 보고하라고 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못 해요. 하나님을 중심삼아 가지고 영계에 알

리면서 지상의 참부모도 알아 가지고, 전부 아는 가운데 그 사실을 기록해서 보낸 것이 《영계의 실상과 지상생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알겠어요? 「예.」 알겠어요? 「예.」 알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에 많은 경서가 있지만 경서 중의 경서예요. 역사 이래 타락한 인간이 잘못된 그 날부터 지금까지 영계의 사실을 전수 받는 데가 없었어요. 그것을 가르침 받는 종교가 없었다구요.

또 그것을 가르치려면 지상에서 승리적 기반이 있어 가지고 그 승리적 기반을 중심삼아 가지고 하늘의 미비한 것을 시정해야지, 승리적 기반이 없이는 하늘이 미비하다는 것을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시정할 길이 없어요. 참부모가 와서 지상에서 모든 미비한 것을 탕감해서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그걸 중심삼고 영계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해서 시정할 수 있는 거예요.

지상이 완성해야 영계가 완성해

영계를 보게 된다면, 지금까지 선생님이 가르쳐 준 이상천국의 내용은 없어요. 천국에 축복받은 가정이 없다가구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는 가정이 없어요. 예수님나마도 낙원에 가 있어요. 낙원이 뭐냐 하면 천국 들어가기 위한 대합실이에요. 알겠어요? 천국 들어가는 대합실인데, 가서 사는 사람은 남자면 남자로 갈라져서 살게 돼 있어요. 부부라는 것은 없다가구요.

왜? 하나님의 혈통을 중심삼고 하나님과 일체 되어 부부의 관계를 맺어 가지고 아들딸을 낳았더라면 하나님의 혈족이기 때문에, 아담가 정으로부터 1대조 2대조 3대조... 지금까지 수많은 조상들을 통해서 태어난 인류의 모든 조상들은 하늘나라에 자리를 잡고 점령했을 거예요.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거꾸로 되었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완

전히 비어 있어요.

낙원을 중심삼아 가지고 전부 보류해 놓으면서 참부모가 와서 지상을 정비한 기반을 통해 가지고 영계를... 지상이 완성해야 영계가 완성하는 거예요. 지상 개인 완성, 지상 가정 완성, 지상 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까지 완성한 기반이 돼야만 하나님의 이상천국이 이루어지는 거라구요.

타락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가정부터, 한 가정부터 종족민족, 전부가 사탄 족속이 됐어요. 핏줄이 달라졌어요. 알겠어요? 「예.」 핏줄이 달라졌다고요. 예를 들어 말하면, 오늘 저녁에 결혼하려고 하는데 예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고, 잔치하고 생활할 수 있게 완전히 준비해 놓았는데, 이놈의 색시가 다른 남자하고 붙어서 타락했다 이거예요.

그래, 약혼한 남자가 장가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왜 답변을 안 해요? 장가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됩니다.」 어떤 녀석이 들어야 된다고 그래? 「안 들어야 됩니다!」 그래, 안! 안! 안! 해봐요. 「안!」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절대사랑·절대순결을 바라던 하나님이 ‘어이쿠!’ 한 거예요.

생각해 보라구요. 이건 천사장한테 타락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 위에서 한국 백성끼리 해서 창녀가 되어서 몸 파는 것은 양반이에요. 사람 축에 못 들어가는, 영적인 한 면만 가진 그런 천사장하고 타락했으니 이건 뭐라고 할까, 상대도 할 수 없는 핏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와서 내 사랑이니 무엇이니, 나하고 약속했느니 뭐니 그럴 수 있어요? 똥! 침 뱉어 버린 거예요. 지옥으로 거꾸로 던져 버린 거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세계의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어요. 기가 막히겠어요, 기가 열리겠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면 뭘 한다고 해요? 산다고 그래요, 죽는다고 그래요? 「죽겠다고 합니다.」 한

국 사람은 기가 막혀 살겠다는 말을 많이 해요, 기가 막혀 뭐예요?
「죽겠다고 합니다.」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해요?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죽는 것 같아서 죽겠다고 하는데, 죽어요, 죽어! 죽겠다는 것
이 아니라 죽는다고요. 기가 막히면 말이에요. 무슨 기예요? 참사랑의
길이 막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 인간상이 무슨 이상이니 무슨 천국이니, 꿈같은 얘기 하지 말
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장나고 뒤집어진 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거예
요? 360도 원형적으로 뒤집어 박았는데, 동서남북이 달라졌는데, 동서
남북을 맞춰 가지고 360도를 맞추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하나님 외에
는 몰라요. 사탄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을 깨치기 전에는
사탄을 굴복시킬 도리가 없어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사탄을 때려잡는 대왕마마

그러면 문 총재는 뭘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사탄
을 때려잡는 대왕마마예요. 뭐라고요? 「사탄을 때려잡는 대왕마마입니
다.」 세상에! 자기가 대왕마마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진
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그런 일을 다
이루었으니까 가짜라고 하더라도 할 수 없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상이 아니라 하고 세상이 무엇 무엇이
라 하더라도, 가짜라고 하더라도 전부 가짜를 제일 이상으로 하게
되면 진짜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문 총재가 지금까지 통일교회를 만들어서 칭찬 받았어요, 반대 받았
어요? 「반대 받았습시다.」 통일교회를 만들지 않았다면 문 총재가 감
옥에 갈 수 있는 놀음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습시다.」 몇 번
이나 감옥을 다녀왔어요? 「여섯 번입니다.」 세상에! 그러면 전과 몇
범이에요? 자그마치 여섯 번 이상이 된다고요. 들락날락한 것은 수백

번 되지요.

잘나서 그 놀음 했어요, 못나서 그 놀음 했어요? 「잘나셔서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잘났어요? 「하늘만큼 땅만큼 잘나셨습니다.」 하나님 보다 잘났다는 거예요. (웃음) 왜? 하나님이 자기 자리를 못 잡았어요.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가 효자한테 효도를 받고 싶더라도 어머니 아버지가 효자의 자리를 이룰 도리가 없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효자의 어머니 아버지는 됐지만, 효자가 어머니 아버지를 효자의 주인이 되게 할 수 있는 자격은 영영 불가능한 거예요. 이걸 똑똑히 알라구요, 무슨 말인지.

초등학교 학생들이 아니니까 알겠지요? 하늘나라에 입적한다는 가정은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 아니라 유아특급이에요, 존특급!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가정들이니 초등학교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도 남지요. 선생님이 말하는 것이 어렵다면 천국 입적하는 가정에서 탈락해야 돼요.

내가 어려운 말이 있으면 어려운 말을 쪼르륵 써 가지고 간단하게 딱 결론지어 버리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것들이 잘났다고 하더라도 다 모른다구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구구한 설명을 하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똑똑히 알아야 돼요.

8단계 사랑의 단계를 박자를 맞추며 올라가게 돼 있는 부부

입적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 어머니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 어머니같이 알아요? 하나님이 뭘 하고 사는지 아느냐 말이에요. 귀머거리 청맹과니예요. 귀머거리 청맹과니 같은 이것들에게 내가 얼마나 ‘날 닮아라, 날 닮아라.’ 하며 고생을 해 가지고 가르쳐 준지 몰라요. 그래서 귀가 뚫리고 눈이 열려 가지고 들을 줄 알고 볼 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 통일교회 교인들은 선생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웃어요, 울어요? 길가에서 선생님을 갑자기 만나면 ‘악!’ 하고 울어요, 좋아서 웃어요? 「좋아서 웃습니다.» 좋아서 웃는데 만난 후부터는 만나 가지고 싸우고 울어요, 계속해서 웃어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울 때는 하나님께서 떠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울 때는 하나님이 떠나고 선생님하고 이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영 이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웃을 때는 하나님이 찾아오고, 재봉춘, 다시 만나는 거예요. 부처끼리 싸우고 난 다음에 화목되어 만나면 그 아침 날은 기분이 좋고 그 저녁은 더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축복한 패들이니 그런 얘기를 하면 다 알겠지요. 저녁에는 왜 기분이 좋아요? 신랑 신부로 만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만날 때는 기뻐하고 희디푸르한 그림자가 지지만, 그 다음날 아침이 되게 되면 점점 깊어 가는 거예요.

동서남북, 360도의 방수를 알고, 여자라는 것이 이런 여자인데 이렇게 돼 가지고 아내가 이렇게 되고 360도 평면적으로 딱 맞춰 가지고 마음대로 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수직, 90각도를 딱 맞추면 거기에 맞춰 도는 것이 개인으로부터 가정으로 올라가는데, 8단계로 올라가더라도 이것이 찌그러지지 않고 90도 수평으로 돌 수 있게끔 재까닥 재까닥 박자를 맞춰 주는 것이 남편이요 아내라는 거예요. 나쁘다, 좋다? 「좋다!」 어허, 뭐라고 그래요? 「어허둥둥 내 사랑!」 어허둥둥이 뭐예요? 어허 놀랐다, 둥둥 떠돌아간다 하는 이야기예요. 알겠어요?

어허둥둥 좋다고 하는 그런 놀음이 무엇인 줄 알아요? 돌이 얼마나 좋아요? 빙빙 도는 거예요. 어허둥둥 궁둥이를 두드리면서 좋다고 하는 거예요. 어허둥둥 하면 궁둥이가 돌이예요. 궁둥이를 두드리면서 좋다고 하니깐 자꾸 두드리다 보니 어깨를 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춤추

고 다 그러잖아요, 널뛰듯이? ‘어허둥둥 내 사랑아!’ 하고 말이에요. 알겠어요? 「예.» 내가 춘향이 노래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요? 알겠어요? 「예.»

가르친다는 것은 말씀을 흘러가게 하는 것

그래, 하나님이 아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웃음) 하나님이 저나라에서도 보이지 않는데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제도 말했지만 중개자가 필요해요. 알겠어요? 자기가 모르는 것을 그렇게 잘 뜯어서 맞추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살다 보니까 자기의 비밀을 샅샅이 다 알아요.

김효남 장로에게 어제 이름을 지어 줬는데, 뭐라구요? 무슨 모? 「훈모입니다.» 훈모, 훈모? 「훈모!» 훈모라고 하면 곤란하지요. 훈모(訓母), 가르치는 어머니예요. 무엇을 가르치느냐? 지상에서의 일은 다 아는데 영계의 일을 몰랐으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모님, 충모님의 중간 입장에 서서 하늘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마음적 세계는 통하지만 육적 세계는 통하지 않아요. 마음세계를 보고 듣고 만지고 할 수 있지만, 몸적인 세계는 다른 세계에 떨어져 내려갔기 때문에 두 세계를 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성들이고 도통한다는 말, 도통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듣고 보고 만져 봐서 아는 거예요. 오관이 통하니 냄새를 맡아 보면 구린내가 나는지 향기가 나는지 알고, 만져 보면 가지 투성이인지 보들보들한지 아는 거예요. 좋을 수 있는 오관의 감촉을 느낄 수 있어서 옳고 그른 것을 바로잡아 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것(訓)은 말씀(言)을 중심삼고 흘러가는 거(川)예요. 골만 찾으면 흘러가는 거예요. ‘말씀 언(言)’에 ‘내 천(川)’ 자니 흘러가는 거예요. 말씀도 흘러가는 거예요. 훈독(訓讀)! ‘독(讀)’은 말씀(言)

을 파는 것(賣)이에요. 혼독회, 말씀은 흘러가야 되고, 말씀은 팔아야 돼요.

파는 데는 남의 것을 팔지 말라 이거예요. 남의 것을 갖다가 팔면 도적놈이에요. 아버지 것이라도 아버지의 승낙 없이 갖다 팔면 도적놈이 된다고요. 아버님의 승낙을 받았으면 그것을 어디에 갖다가 팔더라도 도적놈이 아니에요. 이것을 승낙 받지 않고 팔면 장물아비가 되어 형무소에 가요. 그런 것을 알지요? 알겠어요?

그래, 혼독이라는 말은 뭐냐? 말씀은 흐르는 것인데 자기를 중심삼아 가지고 스톱해서 안 돼요. 사방으로 흘러가야 돼요. 물이 흐르듯이 말이에요. ‘독(讀)’ 자는 뭐냐 하면, ‘말씀을 판다’는 거예요. 이것(賣)이 ‘팔 때(賣)’ 자예요. 말씀을 판다는 거예요. 파는 데는 도적질해 가지고 팔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실천하고 내 것으로 해 가지고 팔아야 돼요. 몰라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혼독회는 천리의 비밀을 지닌 참된 진리를 가르쳐 줘

혼독회! 세상에서 혼독회라는 것은 통일교회만이 가진 회라고요.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이거예요. 천리의 모든 비밀을 갖춘 참된 진리를 가르쳐 줘요.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진리는 하늘 꼭대기에서부터 천하의 어디든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이 다 적셔야 돼요. 물은 낮은 곳은 어디든지 흘러가지 않느니라! 「흘러갑니다.」 흘러가지 않느니라! 「흘러갑니다!」 않느니라! 「흘러갑니다!」 입다물어! 「흘러갑니다!」 그건 아버지라도, 하나님이라도 할 수 없지요. 문 총재가 암만 위대하더라도 그렇게 말했다가는 손들고 행복해야 된다고요.

물은 꼭대기에서부터 저— 깊고 깊은 지옥 밑창, 또 밑창, 천길 만길 억만 길도 흘러 내려가서 채우고 올라오느니라! 위대한 점령의 능력을 가졌어요. 어제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기도 아무리 깊더

라도 채우고 채워 가지고 다 채운 다음에도 쉬지 않아요. 세계를 여행하는 거예요. 물도 그래요. 물도 다 채운 다음에는 증기가 되어 구름이 되어 가지고 세상 유람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햇빛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깊은 데가 있으면 다 채우고 나서는 ‘세상 천지에 내가 통치하지 않는 곳이 없구만.’ 하는 거예요. 공기도 그렇게 말하고, 물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천지에 내가 점령하지 않는 곳이 없다! 나한테 전부 점령당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할 때 이랬다가 ‘아멘’ 해요, 이랬다가 ‘아—멘’ 해요? ‘아—, 편편한 면인 하늘이여!’ 이래요. 그래서 아멘 하면 얼굴하고 편편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아멘 할 때는 높았다가 ‘하나님이여, 내 마음 밖에 내려오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땅을 대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땅을 대해서 효자를 찾는 것이 정성들이는 아들딸들이 충신과 효자의 길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참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참된 지아버지어미의 입장에서 땅을 위해서 빌고 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지상 천지에 효자의 가정, 효녀의 가정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는 소원이 아니겠느냐! 그럴 때는 ‘예—이!’ 해야 돼요. 한번 해봐요. 소원이 아니겠느냐! 「예—이!」

‘좋다, 그렇지! 기쁘지고! 너희들 포켓에 먹을 것 없지? 벌려!’ 해서 무한히 부어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고달프고 빈 깡통이 되었어도 ‘벌려!’ 해서 사랑 보따리를 푹푹 가뜩 부어 줘서 넘고 넘어서 세상을 덮고, 백두산 히말라야산맥의 에베레스트 산정까지도 전부 물어 버리고 남는다는 거예요.

중심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구름과 비는 공중에서 오게 마련이에요. 고기압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오기 때문에, 흘러가면서 깊은 골짜기를 빼놓지 않고 골고루 나눠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태양 빛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흐르는 가운데 속도가 제일 빠르고, 뭐라고 할까? 물이 끼슬끼슬하다면... 기름이야 얼마나 매끈매끈하겠어요? 사랑이 물결과 같이 흐르는 데는 매끈매끈한 데 있어서 뭐냐 하면, 제일 절대 넘버원이에요. 넘버원을 이렇게 해봐요. (행동을 하심) 한번 해봐요. 절대! 「절대!」 「넘버원!」

넘버원 할 때 이렇게 해요? 이렇게요. 혼자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가정들은 넘버원 할 때, 여자는 바른쪽을 들면서 넘버원이라 하고, 남자는? 상대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남자가 왼쪽을 들면 여자는 바른쪽을 들고, 여자가 바른쪽을 들면 남자는 왼쪽을 드는 거예요. 남자가 바른발이라면 여자는 왼발인데, '남자가 가는 대로 하겠다.' 해서 바른발을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행동을 하심) (웃음) 십리도 못 가서 발이 부러져서 죽어요. 발병이 나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어울려야 된다고요.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축에 끼이느냐, 축에 끼이지 못하느냐? 축에 끼이지 못하면 얼마나 불쌍한지 알아요? 이진동적으로 평평한데 이렇게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손해예요? 암만 올라가고 싶어도 중심이 없으면 올라갈 도리가 없어요. 딱 가운데에 선 중심이 있어 가지고 잡아야 잡아지지, 중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바로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세상 이치가 중심을 중심삼고 동서남북으로 돌든가 왔다갔다하지, 중심이 없으면 왔다갔다하는 것이 다 허사예요. 천리 만리를 가더라도 갔는지 안 갔는지 해결이 안 나와요, 중심이 없으면.

통일교회에도 중심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됩니다.」 중심이 누구예요? 「아버님입니다.」 아버님인데, 아버님의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중심은 뭐예요? 「참

사랑입니다.]」

통일교회 역사에 기록될 만한 전통적 신기한 사실

너, 한국 여자야? 「예. 여기는 딸이고, 여기는 작은며느리입니다.」
이 쌍거야! 딸 자랑하는 것은 바보라고 하는데, 며느리 자랑하는 것은
더 바보야! (웃음)

네가 엄마 아빠가 재미있게 사니까, 살림살이를 깨가 쏟아지듯이 재
미있게 하니깐 ‘아빠 엄마, 나 빨리 시집 보내 줘요!’ 한 그 딸이구나.
「예. 맞습니다. 이 아이입니다.」 일어서라, 한번 보자. 박수 한번 해줘
요. (박수)

통일교회 역사에 전통적 신기한 기록이 나왔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재미있게 사는지, 밤에 봐도 부럽고 낮에 봐도 부럽고, 학교에
가서도 보고 싶고, 학교에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어머니
아버지의 얼굴이 자꾸 보이기 때문에 나도 빨리 축복받겠습니다.’ 했다
는 거예요. (웃음)

이것들은 나이 많아 가지고 축복받았구만. 몇 살에 축복받았어? 「스
물여덟 살에 받았습니다.」 지금은 몇 살이야? 「십일곱입니다.」 몇 가정
이야? 「777가정입니다.」 내가 결혼해 줘냐? 「예.」 (웃음) 이 여자가
재미있지? 쌍박쌍박 하고 말이야. 사랑하는 것도 먼저 여기가 하자고
했을 거라구. (웃음) 그렇지 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짝패를 맺어 줬어요. 내가 그것을 볼 줄 알거
든. 그래, 재미있어? 「예.」 남자는 재미없지? 개구리가 좋아, 두꺼비가
좋아? 「두꺼비가 좋습니다.」 이 쌍년아! (웃음) 세상은 개굴개굴하는
개구리를 좋아하지, 두꺼비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두꺼비는
밤에 파리나 잡아먹는 거야. 두꺼비가 인사하는 것 봤어? 개구리는 언
제나 인사하고 살아. 자, 그런 얘기는 그만두자구요.

핏줄이 하나되지 않으면 부자지관계를 맺을 수 없어

핏줄이 하나 안 돼 가지고는 부자지관계는 영영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핏줄이 하나 되려면 여자 몸뚱이의 오관, 여자의 마음적인 오관, 남자의 몸적인 오관, 남자의 마음의 오관 해서 스무 관이 맞아야 돼요. 이 아저씨는 몇 관을 맞추고 사랑했어? (웃음) 스물이 완성이예요. 18세에서 스무 살, 스물두 살, 스물네 살만 되면 여자는 내려가요. 생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구요. 그게 거짓말인가 알아보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시집 장가를 몇 살 때 가야 되겠어요? 몇 살에 시집 장가가야 돼요? 축복을 몇 살에 받았어? 「스물여덟 살에 받았습시다.」 그러니까 때가 늦었어요. 그전에 써 봤나, 못 써 봤나? 「그전에 받으려다가 못 받았습시다.」 그걸 써 봤느냐고 물어 보잖아? 「전혀 써 보지 않았습시다.」 (웃음) 남자 천 사람한테 물어 보면 천 사람 전부 써 보지도 못했다고 하는데, 그런 녀석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누더기 관이 돼 있더라구. 그걸 누가 믿어? 하나님도 못 믿는데 내가 어떻게 믿나? 「아버님께서 믿으셨습시다.」 하나님도 못 믿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 (웃음)

통일교회에는 요사스러운 패들이 다 모였어요. 이렇게 대가리들이 크고 늙었어도 내가 욕을 해도 웃고 ‘으흐흐!’ 하는 거예요. (웃음) 세상 같으면 당수니 무엇으로 받아치고 눕혀 놓고 발길로 차며 혼시할 것인데, 욕을 먹어도 가만히 있어요. 임자네들은 욕 안 먹었으면 이만큼 될 뻔도 못 해요. 「맞습니다.」 알긴 이누만. (웃음)

가만 놓아 두어 보라구요. 천년 만년 가도 불가능해요. 선생님이 얼마나 지독한지 모르지요? 지독한 사람이예요. 한번 붙들면 놓지를 않아요. 주먹은 작지만 한 대 맞으면 이게 깨져요. 복싱도 해서 일본 벽

돌도 직방으로 나가요. 내가 지금 이렇더라도, 80세라도 젊은 이 녀석도 장사인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웃음)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 여자들은 선생님 같은 남자라면 만사가 오케이! (박수)

어제 오케이(OK)가 뭐라구요? 오(O)는 뭐라구요? 문을 여는 거예요. 케이(K)가 뭐라구요? 치킨(chicken) 키친(kitchen), 치킨이 케이예요, 키친이 케이예요? 「키친이 케이입니다.」 키친 문을 완전히 열었으니 오픈 키친(Open kitchen)! 이러니까 들어가서는 주인이 먹기 전에 새벽이든 언제든지 먼저 먹더라도 주인이 찬성한다! 그럴 수 있는 아들이라면 효자 중의 효자요, 효녀 중의 효녀임이 틀림없느니라! 알겠어요?

먹을 것이 없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감춰둔 것까지 갖다 줄 텐데, 감춰둔 물건이 없으면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것을 싹짓돈으로, 보자기에 싸두었던 돈으로 사다가 아들딸을 먹이고 싶은 것이, 그걸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앞에 효도 안 하게 안 돼 있어

부모가 좋아요, 나빠요? 「좋습니다.」 부모가 좋아요, 나빠요? 「좋습니다!」 부모 앞에 좋기만 해요, 나쁘기만 해요? 「좋고도 나쁩니다.」 좋고 나빠! 시집 장가갈 때까지는 좋은 것뿐이에요. 시집 장가가고 나서는 나쁜 것뿐이에요.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시집 장가가기 전까지는 부모가 나를 먹여 살려 주고, 키워 주고 하자는 것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시집 장가간 다음에는 제2 부모의 출발을 해야 될 터인데 도와줄 수 있는 습관을 들이면 그 집안이 망하겠어요, 흥하겠어요? 「망합니다.」 알기는 아누만.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집가고 난 그 이튿날부터는 쫓아내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대신 돈벌이시키고, 세상에 나가

출세해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이상의 2차 어미 아버지가 돼 가지고 아들딸을 자기들 이상 훌륭하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미치지 못해서 불평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그 10배 이상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왕 되시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기를 부모는 천년 사연을 품고 축수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부모 앞에 효도할싸, 말싸? 「효도할싸!」 효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됩니다.」 말 들어 보니까 형편이 효도 안 하게 안 돼 있다구요.

그렇게 가르쳐 준 선생님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안 하면 들이 패서라도 ‘이 자식아!’ 하면서 효도하게 해야 돼요. 할아버지가 있더라도 ‘이놈의 영감아, 하라는 대로 해! 손자한테 책망을 주고 뒷맛이 씹쓸하거든 해야 될 것 아니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못 한 것에 대해서 충고했으면 들어야지요.

여러분은 선생님이 아는 하늘나라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늘의 충신성인성자를 바라는 것을 다 모르잖아요? 나는 그 이상 하겠다면 내가 욕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안 들어야 되겠어요, 들어야 되겠어요? 「들어야 됩니다.」 이 꼬마 아들딸들은 어때? *‘꼬마이기 때문에 나는 모릅니다.’ 할 수 있어? 똑같은 사람이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르지요? 먹는 것도 달라요. 한국식이라든가, 일본식이라든가 말이에요.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우리에게 필요한 주인은 절대 한 분

이게 어디 가든지 복잡하지요? 복잡하지요, 살림살이가? 한국에 오면 풍습이 얼마나 복잡해요? 일본에 가면 풍습이 얼마나 복잡해요? 아 이쿠! 저나라에 가서 풍속을 가지고 싸움하면 저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담으로 짹짹 다 막아 놓았어요. 만

나면 싸움만 하고 있어요.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의 담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얼마나 커요?

한국이 931번 침략당했는데 8백 번 이상을 일본 사람이 침략한 거예요. 그게 원수예요, 수원이예요? 「원수입니다.」 수원지! 수원지는 수도꼭지와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근원을 말해요. 원수 중의 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갚아야 되겠어요, 원수를 살려 줘야 되겠어요? 「살려 줘야 됩니다.」 갚는다면 어떻게 갚아야 되겠어요? 뿌리를 뽑아 버려야 돼요.

뿌리를 뽑는다면, 원수의 조상이 아담 해와인데 아담 해와의 아들딸까지 다 뽑아서 지옥에 처넣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 조상이 없어지고 인간 뿌리가 없어지지요? 아무리 능력 많은 하나님이 라도 길렀던 정원에서 수확 못 했다고 어려운 살림살이에 기동을 뽑아서 불쏘시개 한다는 말과 같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바보들이나 그렇지요.

아버지가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너희들은? 아버지가 필요해? 「예, 하이.」 일본 여자야? 이어폰이 없구만. 「알아들어요.」 알아들어? 「예.」 그래, 죽진 않고 살아서 알아듣는구나. 알겠어요?

*아버지가 필요해요? 「하이.」 얼마나 필요해요? 「스코쿠(すごく; 굉장히) 필요합니다.」 켓타이(絶對; 절대), 초켓타이(超絶對; 초절대)? 「초켓타이(超絶對)!」 (웃음) 그렇게 절대로 필요한 아버지가 둘이에요, 하나예요? 「한 분입니다.」 절대 유일입니다. ‘유일’ 해봐요! 「유일!」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아버지가 몇이나 있어요? 「한 분, 절대 한 분입니다.」 둘이잖아요? 여러분을 낳아 준 아버지와 참아버지로 둘이잖아요? 절대-유일-불변-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야 할 것인데 지금 둘이잖아요? 여러분을 낳아 준 아버지도 있지요? 그러면 참아버지는 뭐예요? 어느 쪽이 가짜예요?

여당과 야당에서도 모두 다 ‘내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하면서 선전

을 하기 때문에 분별할 수 없어요. 문 선생도 선전을 잘 한다구요. 여러분을 낳아 준 아버지도 돈을 좀 벌게 되면 대단하지요? ‘아, 오늘 횡재했습니다. 그래서 잔치라도 베풀고 싶으니까 동네의 모든 사람들은 다 모여 주소!’ 하면서 야단하지요?

주인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입니다.» 이 여자의 주인은 누구예요? 「아버님입니다.» (웃음) 이 남자의 주인은 뭐예요? 「아버님입니다.»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여자지요, 여자 아니예요?

남편은 어려운 문제를 책임지고 여자를 지켜 줘야

아내가 뭐예요? 아내라는 것은 안방살이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남편이라는 것은 바깥살이의, 바깥방의 주인이요, 아내라는 것은 안방의 주인이에요. 주인은 주인이에요. 그게 남편이라구요. 사랑방 주인과 안방 주인이에요. 안방을 지키는 사람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입니다.» 왜 안방을 지켜요? 돈이 있으면 도적질해서 화장하고 돌아다니기 좋아하는데 말이에요, 왜 안방을 지키느냐? 예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배가 불러 가지고 안방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자(內子)라고 그래요, 내자. 안방 어머니예요.

바깥에 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나가는 동네의 별의별 녀석들이 와서 밤에 무슨 짓을 할지 알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사랑방을 지키고 ‘네 이놈!’ 하며 안방의 안전지대로 모시는 거예요. 왜? 핏줄을 남기기 위해서예요. 알겠어요? 뭐라구요? 「핏줄을 남기기 위해서!» *혈통을 남기기 위해서, 후손을 남겨서 일가(一家)가 번창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남편이 책임지고 여자를 지켜 줘야지요.

동물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사케(さけ; 鮭)를 알아요, 먹는 사케(さけ; 酒) 말고? 새먼(salmon; 연어)을 알지요? 사케들은 바다에 나가면 6년

아니면 4년 동안 오대양을 돌아다녀요. 4년이 되고 6년만 되면 자기 고향을,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하던 보금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보금 자리를 찾아가서 거기서 새끼를 낳는 거예요. 추운 얼음 땅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 자기가 죽어서 고기를 먹여서 키우는 것이 사케예요. 위 대해요. 틀림없이 4년 만에, 킹 새면은 6년 만에 찾아와요.

찾아올 때는 바다에 가서 헤엄치기 좋게 아주 매끈해요. 암수가 유선형으로 똑같아요. 조금 클 뿐이고 등이 좀더 두꺼울 뿐이에요. 몸뚱이를 가지고는 몰라요. 그렇지만 코디악이라든가 자기 고향을 찾아와서는 서로 서로가 미아이(見合;맞선)를 보는 거예요. 미아이를 알아요? 미아이를 봐서 상대가 되나 키를 대 보고 무게를 대 보고 다 그러는 거예요.

암놈은 수놈이 자기보다 가벼우면 꼬리로 쳐 버려요. 꼬리를 저어서 뺨을 치더라도 눈짓도 안 하고 따라와야만 오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사케 아버지는 아니지만 그런 것은 알아요. 매를 맞고도 끄떡없이 아프다고 이러지 않고 이렇게 좋다고 해서 따라가야만 ‘아, 그 녀석의 새끼가 후대에 건강하겠구만. 어미한테 쫓겨다니고 앞으로 어머니를 지도할 수 있는 후계자가 될싸!’ 해 가지고 오라고 해요.

천지 이치가 다 이치에 맞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러 오지 않았는데... 그만두자구요, 이것만 하고 계속하자구요? *이 남자는 어떻게 생각해? 계속해, 그만둬? 「계속해 주세요.」 계속해? 너희 둘의 사이가 좋아?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그래 가지고 오면 깊은 데, 바다의 흐르는 물 가운데서 짝짓기를 하겠어요? 못 하지요? 그러니까 짝 물줄기에서 살다가 단 물줄기로 찾아와요. 환경이 달라야 될 것 아니예요? 결혼하고 어디를 여행하는데 환경이 같은 데를 가요, 환경이 달라야 돼요? 바람 부는 데를 가요, 골짜기 같은 아늑한 데로 찾아가요? 아늑한 데로 찾아가서 나중에는 으스스한 굴 구멍을 찾아가 키스도 하지요?

시부모를 친정 부모보다 더 잘 섬기면 집안에 복이 찾아와

여기 들은 키스해 봤나? 키스해 봤어, 어떤데하고? 「예.」 나는 못 봤는데 한번 보자. 한번 보자구. 여기서 한번 해보라구. (웃음) 무슨 남자가 이래? 남자가 프로포즈를 먼저 하는 건데. 여자가 하겠나? 어디가 용감한가 보자. 한번 해보라구, 이 쌍거야! 일어서! (박수) 아, 키스 한번 해. 그렇게 해서 교재로 쓰려고 그래, 이 녀석아! 자기 부처에게 영광스러운 날이야. 수천 가정이 교재로 쓰게 사진 짹짹 찍으면 그 집의 기념물로서 영원히 역사의 박물관에 들어갈 텐데, 싫으면 그 만두라구. (부부가 키스함. 웃음)

딸이 어머니 아버지가 재미있게 산다고 하는 부처끼리 한번 해보자. (웃음) 재미있게 산다니 한번 해봐. 하겠으면 하고 말겠으면 말라구요. (부부가 키스함) 이것 봐라! 박수해요. (박수)

그렇게 재미있게 사니까 빨리 시집가고 싶어했다는 거예요. 시집가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시아버지를 잘 섬겨라. 네 어머니 아버지보다 2배 이상 잘 섬겨라! 그러면 고부의 난리가 평정된다.’ 그런 훈시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는 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복이 찾아옵니다.」 화다, 화! 「복입니다!」 나는 화다! 그렇게 ‘복! 복!’ 해야 돼요.

복(福)이 무엇인 줄 알아요? ‘옷 의(衣)’ 변에 ‘입 구(口)’ 하고 ‘밭 전(田)’ 자예요. 하나님을 대표한 말씀의 밭, 씨를 심을 수 있는 밭에다가 옷을 덮어놓은 것이 복(福)이에요. 알겠어요? 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밭과 같은 것에,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같은 것에 거기에 도둑이 들어올 줄 알고 옷을 덮어놓은 것이 ‘복 복(福)’ 자예요.

하나의 입이 뭐예요? 하나님은 제일이지요? 제일가는 대표 입이 뭐예요?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삼고 정착했기 때문에 천지이치를 말해요. 거기에 옷을 덮어놓은 거예요. 아무나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 외에는. 알겠어요? 「예.」

그 아버지가 있는 아들딸이 주인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들딸도 홀아비 과부 가지고는 안 돼요.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자기 부부가 또 사랑해서 아들딸을 낳아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를 기른 것과 같이 더 낮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야 돼요. 밭이 있으면 좋은 씨를 심어야 될 것 아니에요? 좋은 씨가 있더라도 좋은 밭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좋은 밭 됐어? 「예.」 부처끼리아? 「예.」 오누이 같아서 싸움을 하더라도 큰 싸움은 안 하겠구만. 「예, 예.」 예 예? 덮어놓고 예 예야? (웃음) 알겠어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밝은 천지에 하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인다’는 고상한 뜻의 존함

내 이름이 뭐예요? 여기 서 있는 양반의 이름이 뭐예요? *선생님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웃음) 「분센메이(文鮮明)입니다.」 ‘분’ 하면 얼굴이 부었다는 말입니다. ‘선명’이라고 하면 선명한 아침해를 맞이한 광경을 말해요. 선명한 광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와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다를 상징하는 물고기(魚)와 산을 상징하는 양(羊)을 합한 것을 ‘선(鮮)’이라고 하고, 태양과 달을 합한 것을 ‘명(明)’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文)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내는 제단입니다. 그 제단 위에 물고기와 양이 올려져 있는데, 그래서 밝은 천지에 하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인다는, 고상한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있을 성싶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박수를 쳐야 된다고요. (박수) 이럴 때 날아갈 듯한 박수를 쳐야 되는데, 그렇게 센스가 없는 사람들은 통

일교회의 용사들이 될 수 없습니다.

일본 멤버들! 잇쇼켄메이(一生懸命; 열심히 노력함), 잇쇼반메이(一生万命)? 「반쇼켄메이(万生懸命)입니다.」 반쇼켄메이? 「하이.」 잇쇼반메이는 없어요? (웃음) 켄메이(懸命; 결사적으로 노력함)는 한 목숨을 건다는 말인데, 그것보다 만 목숨을 건다는 것이 더 훌륭하잖아요? 그러니까 잇쇼반메이라고 해야 됩니다. 일본 말을 혁명하지 않으면 세계를 수습할 수 있는 하늘의 가르침이 나오지 않습니다. 목숨을 건다는 것을 켄메이라고 하는데, 한 목숨을 건다는 것보다 만 목숨을 건다는 것이 더 좋잖아요?

일본이 통일교회를 싫어하면 미국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

일본 사람들은 손 들어 봐요! 뭘 하러 강코쿠(韓國)에 왔어요? 강코쿠와 강고쿠(監獄)가 어떻게 달라요? 일본 말로 감옥을 뭐라고 그래요? 강고쿠라고 그래요, 강코쿠라고 그래요? 「강고쿠입니다.」 고쿠나 코쿠나 마찬가지로 않아요? (웃음) 강고쿠의 문을 밀어젖히고 저쪽으로 빠져나가면 덴고쿠(天國)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반대로 밀어붙여야 돼요. 여자는 밀어붙이는 것이 행복이라고요. 남편이 사랑할 때 밀어붙이면서 다가오는 것이 행복해요, 어슬렁거리면서 다가오는 것이 행복해요?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한국 말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일본 말로 했습니다. (웃음) 퀘도를 이탈했습니다. 저쪽을 보면, 모두 멍하게 앉아 있어요. (웃음) 한국에서 선생님이 무엇 때문에 일본 말을 하고 있느냐? 선생님이 말씀하는 내용 가운데는 두 방향이 꼭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서 싫어하면 다른 쪽에서 보완하는 거예요.

일본이 통일교회를 싫어하면, 미국이 통일교회를 따라오게 되어 있

습니다. 이미 따라오고 있다구요. 인도네시아도 선생님이 명령하면 바케쓰(バケツ)로 물을 잇빠이(一杯;가득) 퍼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이쪽에서 쪽 흘러가서 평면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스트리킹이라고 해 가지고 여자와 남자들이 벌거벗고 달리는 그런 것을 알아요? 아담과 해와의 겐겐(顯現)시대가 되었습니다.

겐겐(權限;권한)이면 뭐예요? 이것을 고부시(小ぶし)라고 그래요, 오부시(大ぶし)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고부시(拳;주먹)라고 합니다.» 왜 ‘큰 대(大)’ 자를 안 붙여요? 고부시가 센 게 좋아요, 약한 게 좋아요? 「센 게 좋습니다.» 센 게 좋은데, 왜 오부시라고 하지 않고 고부시라고 그러느냐구요. 일본 조상들이 도둑질하면서 먹고 살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모르지요?

시택 식구가 30명이라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있어

선생님은 어디에 가든지 임기응변(臨機應變)에 자신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남미에 가서 말 한마디를 하지 않더라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다구요. 거지의 사촌 이상으로 어디에 가든지 잘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도 안 주더라도 집어먹는 다구요. 그렇게 집어먹고 노래를 한 곡만 불러 주면 되는 거라구요. (박수) 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한 곡을 부르고 박수를 받을 수 있다면 혼자 어디에 가서 밥도 한 그릇 못 얻어먹겠어요? 바카(바보)는 뭐라구요? 「시나나카나오라나이(死ななきゃ治らない;죽지 않으면 안 고쳐진다).」

누구든지 어떤 집에 들어가서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찾아먹을 수 있는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여자는 여자가, 뭐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모두 다 훈련을 잘 시켰어요, 못 시켰어요? 세계에서 최고로 훈련을 잘 시켰어요, 못 시켰어요? 「잘 시키셨습니다.」 ‘남편한테 하나님을 위해서 활동해 가지고 통일교회에 헌금할 수 있는 돈 벌러 간다고 당당하게 말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너, 그렇게 하고 있어? 「하이.」 왜 헤헤헤 하고 웃어? 전체의 3분의 1도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거라구. 남편이 협조적이지 못하다는 뜻이지? 그래? 또 헤헤헤 하고 웃어? (웃음) 누구든지 얼굴 표정에는 마음 속의 비밀이 다 드러난다구요.

일본 여자들로서 선생님의 명령대로 따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말이지요? 선생님한테 어머니가 몇 명이예요? 혼자지요? 그 어머니의 동생은 얼마나 돼요? 백 명, 천 명이 있더라도 좋다고 하는 거라구요.

그래서 모두 다 어머니의 동생들이라고 생각하고 훈련을 시키는데, 그렇게 훈련을 받고 시집을 가서 시댁의 식구가 10명이 아니라 30명이 있더라도 먹여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거지와 같은 여자가 되는 것은 보고 싶지 않다구요. 그래서 아들딸이 열 명이 아니라 열두 명이 되더라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너, 그런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어? 「하이.」 정말이야? 너도, 너도 들어 봤어? 「하이.」

이 여자는 들어 봤다는데, 남편은 멍하게 앉아 있는 것을 보니까 처음으로 들어 보는 모양이구만! (웃음) 지금까지 아내가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지? 「안 했습니다.」 안 했어? 경리에 소질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 「경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웃음) 그래서 아내가 돈을 벌어서 통일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반대할 소질이 80퍼센트 이상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 본 거라구.

네 아내가 예쁜 얼굴이구만! 저런 얼굴은 한번 물고늘어지면 안 놓

는 성격이라구. 그렇지? 「하이.」 그러니까 주의하라구.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통일교회에서 안 떨어지고 따라오고 있는 거라구.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따라올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들 딸이 잘못된다구. 충고하는 거라구. 왜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 그러면 아내가 도망간다구.

이 여자는 네 아내야? 「하이.」 너는 이빨이 나왔기 때문에 말을 흘리기 쉬운 여자라구.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도록 입을 다물고 남편의 말에 잘 따르지 않으면 사고가 생긴다구. 「하이.」 네 아내한테 그러한 소질이 있다고 생각해? 「하이.」 정말이야? 「정말입니다.」

선생님이 그러한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여러분을 축복해 준 것입니다. 축복가정에 천재적인 아들딸을 하늘이 내려 주도록 축복해 주었는데, 무슨 불평이야? 그 축복을 나라가 반대하면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반대하면 민족이 망하고, 종족이 반대하면 종족이 망하고, 일족이 반대하면 일족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 선생을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마리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 정말이에요? 「하이.」

이제 여자들을 내세워 목을 조를 것이다

이 남자들도 여자들한테 지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면 일본을 통일하고, 아시아를 통일하고, 세계를 통일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모두 다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생각하는데, 모두 다 도망을 가 버린다구요.

그렇게 남자들은 도망을 갔다가 봄이 되어서 양기가 좋아지면 다시 금 담을 넘어와서 도둑놈처럼 아내를 납치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내를 납치하도록 안내하는 데 있어서 챔피언이 남편입니다. 그렇게 납치된 것이 4천 쌍 이상입니다. 그러한 일본은 야만국가로 낙인이 찍

힐 것입니다.

선생님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남자입니다. 지금 미국의 국방부, 국무부, 그리고 백악관에서도 선생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소련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정말이에요?

일본은 문 선생을 무서워하지 않지요? 동서남북의 어디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어요? 철판으로 막아 놓았어요, 열어 놓고 있어요? 아, 물어 보잖아? 남자들! 문 선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오픈(open)해 놓았어요, 완전히 닫아 놓았어요? 「닫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라지요? 「나쁜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서 살고 있어요? 넥타이를 졸라매고 결판을 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자들을 내세워 가지고 목을 조를 것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말이예요. 이번에도 일본에서 국회의원 84명을 당선시켰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지요? 그거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때에 활동은 안 했지만 말이예요. 나카소네 편이 국회의원 13명을 130명으로 만들어 준 것도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총리로 만든 것도 문 선생이었습니다. 그것이 정말인가, 거짓말인가를 물어 보라고요.

참는 것(忍)은 마음을 자르는 아픔을 참는다는 의미

요전에 선생님이 일본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있을 동안에도 나카소네를 만나 가지고 ‘입 다물고 가만히 앉아 있어!’ 해 놓고 두 시간 동안 훈시를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도망가지 않으면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그렇다고요. 나카소네, 후쿠타... 후쿠타 수상을 알지요? 그 다음에 나카소네의 후계자였던 아베 신타로가 다케시

타한테 졌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을 모르지요?

후쿠타 수상은 모든 국회의원들이 투표한 가운데 한 표의 차이로 수상이 되었습니다. 구보키 회장을 부수상으로 임명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구보키 회장이 도와주어서 수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날아가 버렸을 거라구요. 그래서 수상이 되고 난 다음에는 자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돌아선 거예요. 그렇게 도리를 모르는 일본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10년, 20년, 40년 안에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라구요.

<워싱턴 타임스>가 무서운 신문이지요? 그 <워싱턴 타임스>에서 일본에 대해서 기사를 나쁘게 쓴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느냐구요. 그런데 일본의 언론계에서는 서로가 앞다투어 문선명을 때려 죽여야 한다는 등 온갖 짓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는 쪽이 나빠요, 그렇게 치는 것을 맞으면서 참는 쪽이 나빠요? 시노부(忍ぶ;참다)라는 것이 어려운 거라구요. 그것(忍)은 마음(心)을 자른다(刀)는 것입니다. ‘마음을 자르는 아픔을 참는다.’는 것이 시노부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알겠어요?

너는 야쿠자(ヤクザ;깡패)의 세계에 들어가면 유명해질 수 있는 타입이라구. 왜 웃어?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한 타입이니까 조심하라는 거라구. 통일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생각하면 고마리마스(困まります;곤란합니다)된다구. 하쿠(百)의 절반도 안 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미끄러지는 거라구. 하쿠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충고를 한다구. 알겠어? 「하이.» 선생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탄과 싸우는 것은 좋지만 엉뚱한 짓을 하게 되면 일본의 장래가 어두워진다구. 알겠어? 「하이.» ‘하이.’ 했다구!

이렇게 시간을 허비해서 미안합니다. 모두 다 미래의 희망적인 야쿠자가 아니라 왕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내용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나쁜 쪽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심정세계를 넘어서 골육에 새겨 주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박수를 해야 된다고요. (박수)

박수를 이렇게 쳐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이에요. (웃음) 춤이 된다고요. 이것은 아들딸한테 가르쳐 주어도 좋을 것입니다. 박수! (박수) 천하에 춤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고 노래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일체가 환영한다! (박수)

모든 것을 들이마시고, 최후에 꼬리가 있으면 그 꼬리를 가지고 키스하면 전체를 키스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키스한다는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먹히는 모든 것은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키스하는 마음으로 일본도 꼬리까지 삼키더라도 불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소화하는 것입니다.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저나라 어디에나 통할 수 있는 선물의 말씀을 해줄 터

자, 이건 어떤 동네예요? 아침 동네예요, 저녁 동네예요? 「아침 동네입니다.」 아침 동네면 내 이름을 가지면 선명한 아침 동네가 아니고 반대의 반선명한 저녁 동네다 이거예요.

저녁이 되서는 아침밥을 먹어야 되겠어요, 저녁밥은 다 먹었으니까 자야 되겠어요? 출발이에요, 휴식이에요? 「휴식입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니까 아침에는 선명한 선생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글월 문(文)’ 자는 빨리 쓰면 ‘지아비 부(父)’ 자가 돼요. 힘을 주고 짹 하고 쓰면 ‘아비 부’ 자가 돼요. 흘려 쓰면 그렇게 되고, 가만히 쓰면 ‘문’ 자로 제사 지내는 제사 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봐도 좋고, 저렇게 봐도 좋아요. 바다를 보고 산을 봐도 좋고, 달을 보고 해를 봐도 좋고, 또 모든 만물을 갖다가 장치한 제사상으로 봐도 좋아요. 이리 봐도 좋고 저리 봐도 좋고, 꼭대기에서 봐도 좋고 밑에서 봐도 좋고, 다 좋으니까 하나님도 안 좋아할

수 없기 때문에 문 총재 따라다니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이다! 박수!
(박수)

자, 자가 선전을 이만큼 했으니까 진짜 내가 문 총재를 몰랐지만 오늘부터 문 총재를 알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자신하는 사람, 손 들어 봐요. 여기는 통역이 없어서 모르는 모양이구만. 여기는 다 들었는데. (웃음) 그러니까 통역은 미진한 거예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박수)

자, 이제는 싫더라도 보내야 할 시간이 됐어요. 수첩을 꺼내야지요. 여기에 있는 것을 가르쳐 줄까요, 말까요? 이게 뭐예요? 「봉투입니다.」 무슨 봉투? 입적식을 했으면 봉투에다가 뭘 넣어 놓고 가야지요? 「돈!」 (웃음) 얼마나 그것을 바랐으면 이 봉투에다 뭘 기록해 가지고 왔을까요? 여기 기록한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모르지요? 봉투 천 개 만 개, 이 집만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저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티켓을 주면 만사가 통해요. 알겠어요?

여기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문 닫는 데가 없어요. 그러한 선물의 말씀을 내가 전해 주는 것을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합니다.」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합니다!」 남자들은 단추를 풀고 젓가슴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겠어요? 남자들, 내놓겠어요? 그것도 못 내놓는 사람들한테 무슨 말들을 해주겠어요? 이 쌍것들!

남자들이 그것을 못 하는데 여자들이 하겠어요? 남자 가슴을 내놓고 젓을 내놓고 —옷은 안 벗게 할 거예요.— 밧줄로 꿰뚫어매고 ‘날아가라.’ 하고 날려 보내려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꿰뚫어매서 보내면 좋겠어요, 풀어서 보내면 좋겠어요? 말해 보라구요.

여기 아들딸들, 엄마 아빠가 꿰뚫어매는데 거기에 밧줄이 풀리지 않게끔 꼭 쥐고 따라가라고 할 때, 꼭 쥐고 따라갈 거예요, 풀어놓을 거예요? 「꼭 쥐고 따라갑니다.» 음 그래!

여기 누구야? 딸이야? 저쪽에는? 「아들은 군대에 가 있습니다.」 군대에 가 있어? 「예.」 한국 사람이야? 「예.」 일본 사람같이 생겼는데? 「아닙니다.」 자, 이거 알겠어요?

청평수련소의 흙이든 모래든 자갈이든 기념으로 가져가라

여기 봉투에 뭘 넣고 갈래요, 안 넣고 갈래요? 돈 가진 것이 없지요? 여기 청평의 모래알이든 자갈돌이든 아름다운 것을 이 봉투에다가 하나씩 넣어다가 자기의 옛날 조상을 방문한 기념으로 영치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예.」

봉투를 하나씩 나눠 줄까요? 봉투를 마련했어요? 봉투를 가지고 있구만. 나는 봉투 살 돈도 없대요. 가난한 아버라요.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예요. 그러니까, 내가 줄 것이 없으니까 여기의 물을 주는 거예요. 산의 좋은 물, 사람이 건드리지 않은 깨끗한 물이에요. 순결한 가정이예요. 깨끗한 흙하고 모래하고, 세 가지예요. 자갈돌 세 개 이상씩 집어넣어서 꼭 봉투 가지고 부처끼리 하늘의 선물로 천하의 무엇보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무슨 싸움이 나고 불상사가 나면 이것을 보고 ‘잘 못했습니다.’ 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 예물을 주고 싶어서 봉투를 가지고 나왔어요. 알겠어요? 「예.」

봉투가 없거들랑 서양 흙이든 일본 흙이든 한국 흙이든 마찬가지로 그 기념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당신의 아들인지 뭘지 모르지만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축복해서 통일식까지 하고 그 전후로 말씀한 것이 훈시라고 했는데, 그 훈시의 말대로 이렇게 사랑하고 보호하면 복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하고 기도해 보라구요. 그러면 ‘너 하는 대로 복 받지. 너 하는 대로 복 받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것입니다.」 하는

대로 복 받으니까 더 하면? 「더 복을 받습니다.» 안 하면? 빼앗겨 버려요. 그 말이 그거예요. 안 하면 잃어버리고 더하면 더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지 배정, 어제 어디로 갈 것인지 정하라고 했지요? 「예.» 정하고 갔지만 책임을 수행하게 하면... 빈집에는 도깨비가 안 들어오면 그 동네를 망치는 테러단이 들어와요. 마찬가지로요. 그러니 얼마만큼 책임을 하느냐 이거예요.

곽정환! 「예!» 몇 날이라고 그랬어? 몇 날 없으면 인사 조치 시켜? 입적한 가정들이 입적한 땅을, 고향을 지키지 못하게 될 때는 몇 날만 되면 인사 조치하라고 그랬지? 저 사람이 선생님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어? 「아버님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말씀이 왜 안 들리겠나? 나도 다 잊어버렸는데, 그거 얘기해 주라구. 「앞의 말씀 내용을 못 알아듣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얘기를 했다구요. 입적한 사람이 자기의 배당 지구에 대한 책임을 얼마만큼 비우게 되면 즉각 물어 보지 말고 인사 조치하라는 거예요. 며칠이야? 「3개월입니다.» 4개월이에요, 4개월! 3개월은 국가 메시아이고, 4개월은 배치된 가정이에요. 4개월을 비우는 날에는 문패를 떼어 버리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옛날과 달라요.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국가 메시아도 그래요. 알겠어요? 「예.»

내가 이제 전권을 아들한테 맡겼지요? 「예.» 여러분이 1대예요, 2대예요? 선생님께서 보게 되면 1대예요, 2대예요? 2대예요. 3대에게 책임을 졌으니 2대는 책임을 더해야 할 것 아니에요? 물어 볼 것도 없지요. 마호메트 여편네는 왜 지금 나타났나? 아까 찾아도 없던데. 어제 어디 갔다고 그러던데 또 언제 나타났어?

봉투를 하나씩 사서 돌아가기 전에 여기의 모래알이든 뭐든... 굳은 땅이 있다구요. 손대 보지 않은 땅과 모래와 자갈돌을 넣어서 가지고 가라구요. 예물이예요. 예물을 줄 텐데, 내가 전부 넣어서 주면 얼마나

걸려요? 일생 걸리겠다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고 봉투 하나씩 사 가지고 넣어서 돌아가라구요. 알겠지요? 「예.」

불쌍한 부모에게 나라를 찾아 드리자면 절대복종절대사랑해야

이번에 갈 때 선생님이 예물 주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습니다.」 (박수) 시집간 간나들은 다 주어서 줄 것이 없으면 어머니가 가진 보물 단지, 상자, 옷까지도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그게 여자라구요. 그래서 부모들이 좋아하는 것이 여자예요, 싫어하는 것이 여자예요? 「좋아하는 것이 여자입니다.」

이제 새로이 다른 나라에 시집보내는 거예요. 지상나라에서 천국나라로 시집보내는데 혼수를 누가 해줘야 되겠어요? 누가 해줘야 돼요? 아버지가 해줘야 되겠어요? 아버지가 울고 살고 어머니가 울고 살았어요. 「부모님이 해줘야 됩니다.」 부모님이 누구예요? 부모가 어디에 있어요? 땅을 잡아 가지고 나라를 가져야 부모님이 있어요. 나라 부모가 없어요. 나라 부모가 있어요? 「없습니다.」 없잖아요? 천지부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불쌍한 부모에게 나라를 찾아서 바쳐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는 천하의 것이 전부 우리 것이 돼요. 나라만 찾아 바치는 날에는 하늘땅이나 무엇이나 전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있겠기 때문에 나라를 바치기 위해 이미 묶어 가지고 딱... 머리만 들어가게 되면, 부모님만 들어가면 그걸 딱 붙들고 잡아당기면, 새끼를 풀 때 두 울로 꼬던 것이 세 울 네 울로 점점 점 굵어져 가지고 용 같은 것도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그러니 절대순응하기 위해서는 딱 끼워야 되는 거예요. 절대복종! 절대사랑! 자기 생각이 있으면 다 망쳐 버려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

지? 「예.」 *서양 식구들, 선생님이 말씀한 것을 알겠어요? 「예.」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자, 몇 시 됐어요? 열두 시 전에 하려고 했는데... 야야야, 좀 쉬어라, 이놈의 세계!

순결한 혈통을 사수해야

참부모님의 입적 가정에 대한, 뭐예요? 교시가 좋아요, 훈시가 좋아요? 「훈시가 좋습니다.」 훈시여야 돼요. 교시는 가르치는 학교, 교실에서 그 시간에만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은 훈시예요, 훈시. 영원히 지켜야 할 말이에요. 제목이 ‘참부모님의 입적 가정에 대한 훈시’예요. 지시사항, 훈시 내용이에요.

첫째가 뭐가 될 것 같아요? 타락 이후 한이 뭐냐? 혈통을 더럽혔어요. 첫째는 순결한 핏줄을 영원히 천대 만대에 어떻게 남길 것이냐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예.」 다시는 여자의 삼각지대, 남자의 삼각지대에 타락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림자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곳이 사랑의 샘터예요. 본궁이에요. 생명의 샘터, 본궁이에요. 혈통의 본궁이요, 양심의 본궁이에요. 나라의, 세계의 본궁이에요. 하늘땅을, 하나님을 해방시킬 수 있는 본궁! 그것을 더럽혔어요. 부끄러운 걸 알아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예.」

전부 지옥 밑창에 거꾸로 박혀 있는 것을 선생님이 별의별 놀음을 해서 끌어낸 거예요. 그걸 끌어내기 위해 얼마나 흥진 군이 수고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첫째가 뭐라고요? 「순결한 혈통을 영원히!」 순결한 혈통을 사수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아들딸 교육을 철저히 해야 돼요. 굶어죽는 것이 낫지, 그런 꼴을 봐서는 안 돼요. 요사스러운 세계에 다리를 걸고 눈을 걸고, 오관이 안팎으로 다 걸려 있어요.

그것을 겨우 천신만고 해서 끊어 놓아 가지고 해방된 가정이라는 핏말을 박아 놓았는데, 이 주위에는 천층 만층의 사탄세계가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틈이라도 있으면 사탄의 사랑이 들어오고, 사탄세계의 공기가 들어오고, 사탄세계의 빛이 들어와요. 사탄세계의 사랑이 파고 들어와요. 이런 한스러움을 아니 이것을 절대 방어해야 돼요. 방어할 방법은 위하는 사랑이에요. 자기를 생각하는 사랑은 반드시 침식당해요. 알겠어요? 「예.」 절대 위하는 사랑!

상대가 사랑의 주인을 만들어 준다

남자가 태어난 것이 남자 때문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여자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남자는 반 쪼가리예요. 여자도 반 쪼가리예요. 둘 다 합해서 오목 볼록이 하나되어 가지고 완전한 패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미완성품이요, 여자가 미완성품이에요. 남자가 있음은 여자 때문이요, 여자가 있음은 남자 때문이에요. 왜? 사랑은 자기 때문에 시작하지 않아요.

상대가 사랑의 주인을 만들어 줘요. 아내가 남자에게 무엇을 주느냐? 남자가 돼 가지고 여자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아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인이에요, 주인. 사랑을 주는 주인이에요. 또 여자도 마찬가지로요. 사랑을 갖게 된 것은, 여자로서 남자를 사랑할 수 있는 주인의 자리에 선 것은 남편 때문이에요. 사랑을 찾게 해준 주인이 남편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것을 마음대로 하면,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하면 도둑놈이지요. 도둑놈 간나예요. 그거 마을이든 어디든 추방 받게 돼 있어요.

오관이 태어난 것은 뭐냐? 눈이 눈을 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구요. 전체를, 상대를 보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코는 자기 코를 맡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구요. 환경 요건을, 자기 주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입이 말하는 것도 자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요. 자기 이익을 위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천지의 원칙에 위배가 돼요. 말하게 될 때는 위로의 말, 교훈의 말, 충고의 말, 권고의 말은 필요하지만, 자기 이익을 위한 사기의 말, 침식의 말, 압력의 말은 사탄 편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알지요, 원리를 알면? 알겠어요? 「예.」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보라구요. 하나님이 얼마나 비참하냐 이거예요. 해와가 누구냐 하면, 영적·육적으로 중황으로 연결됐다면 하나님의 부인이예요. 마음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부인이 누구냐 하면 해와가 돼야 되고, 몸뚱이 아버지의 부인도 해와예요. 그래서 해와도 마음이 있고, 몸이 있어요. 마음은 종적이요, 몸뚱이는 횡적이예요. 이중으로 돼 있다구요. 알겠어요?

천지 창조의 원칙이 이중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건 불가피한 거예요. 이 세상은 쌍쌍으로, 사랑을 그리워하는 존재는 전부 이중으로 돼 있어요. 광물세계도 그래요. 분자면 분자도 플러스 분자와 마이너스 분자로 쌍쌍이 돼 있어요. 식물도 수술과 암술로 돼 있고, 동물도 수놈과 암놈, 사람도 남자와 여자, 하늘땅도 천지로 쌍쌍이 돼 있어요.

오관도 전부 쌍쌍으로 돼 있지요? 전부가 그래요. 손도 쌍쌍으로 돼 있어요. 대응적인 쌍쌍을 이루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천지의 조화가 돼요. 남자가 여기에 왼발을 내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바른 손이 맞춰 주지요? 「예.」 엇갈려 가지고 이것이 하나예요. 안팎이, 상하가 맞아야 된다구요.

상대가 없게 되면 행동의 결실이 나타나지 않아요.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천리의 이치예요. 무턱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구요.

머리도 좋고 몸도 장사의 뼈대를 갖고 있다

선생님이 수학을 공부한 사람이라구요.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수리에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구요. 알겠어요? 「예.」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너무 좋아서 걱정이에요.

학생 때 일본에 갔는데 모자 만드는 공장을 세 곳씩 가도 없어서 할 수 없이 칼로 모자를 썰 가지고 붙이고만 다녔어요. 머리가 크대구요. 머리에 된장 밥이 많아요. (웃음) 보면 머리가 크지요? 머리가 크고 두통이 사방으로 뻗었어요. 몸도 둥글둥글하지 납작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몇 킬로그램 나갈 것 같아요? 「73킬로그램입니다.」 잘못 알았다! 너는 몇 킬로그램 나가? 「87킬로그램 나갑니다.」 그렇지, 자기보다 더 나간대구. 내가 120킬로그램까지 나갔어요. 감옥에 들어갈 때도 97킬로그램이 나갔어요. 뼈다귀가 굵어요. 장사의 틀이에요. 우리 아들들도 그래요. 어디 가든지 장사예요.

지금도 나이 80세가 됐지만 담을 혹 넘어간대구요. 썩 잡기만 하면 넘어가요. 철봉을 했기 때문에. 못 하는 운동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몸이 나긋나긋해요. 얼마나 나긋나긋한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닿아요. (박수) 유도, 권투, 레슬링 같은 것을 참 잘할 타입이에요. 유연하거든.

우리 형진이는 못 하는 운동이 없어요. 일주일 하게 되면 3년 한 사람을 이겨요. 그런 중자를 여자는 한번 받아 가지고 그런 훌륭한 아들 딸을 다 낳고 싶지요? 「예.」 선생님의 핏줄이 그래요. 선생님하고 사돈 한번 해보겠다고 정성들여 봐요. 「예.」 무엇이? 「소원입니다!」 소원만 가지고 안 돼. 소원 성취해야지. 「예. 성취하겠습니다.」 성취가 쉽지 않아. 천하의 꼭대기에 올라가야 돼.

내가 섭리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밥보다 더 맛있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것이 먹는 거예요. 굶어야 돼요. 잠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정욕! 미인들이 유혹하면 작두로 모가지를 잘라 버려야 돼요. 내 일대에 내가 프로포즈한 여자 외에는 여자한테 끌려가지 않아요. 해와가 남자를 끌어 가지고 타락했어

요. 그러니 남자가 여자 뒤통무니를 따라다니면 나라 팔아먹기 쉽다구요. 문 총재한테는 그것이 통하지 않아요.

일본 유학 시절의 일화

일본 나라에 있을 때 그 역사가 참 많았다구요. 그걸 얘기하면 일본 민족이 얼마나 수절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할 거라구요. 내가 여자들의 별의별 간교한 수에 걸려 가지고 넘어가지 않았어요.

미남 총각이 혼자 자고 있는데 여자가 발가벗고 들어와서 ‘나 죽겠다.’ 하는 거예요. ‘5분만 말 들어 주면 죽을 여자를 살려 줄 수 있는데, 그것도 못 하는 것이 무슨 남자야?’ 하는 거예요. 하는 말이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본, 해외국가에 들어가서 원수의 나라에서 독립을 위해 지하운동을 하는 챔피언인데 말이에요. 내가 시궁창으로 얼마나 다녔는지 몰라요. 그런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심각해요! 하나님은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도의 세계는 최후에 가서는 여자하고 사랑문제로 싸워야 돼요. 나중에는 뭐냐 하면 양부에 음부를 갖다 대는 거예요. 웃으면서 자기 몸에 힘을 주고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서 남자 생식기가 일어나면 안 돼요.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못 돼요.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는 하늘에 접붙일 수 있는 소질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이런 말을 내가 처음 하는 거예요. 도적놈의 새끼들이 많이 있어요. 제멋대로 사는 간나 자식들! 이 남자들! 여기 윤택근은 이런 놀음을 하라고 해도 안 할 거야. 술 잘 먹고 별의별 짓 다 할 거야. 이 남자가 술 잘 먹고 별의별... 노래 소리 한번 들어 보자. (박수) 한번 해보라구, 내 말이 맞는가. 노래 한번 불러 보라구. 「예.」 들어 보라구요. (윤택근)

태근 원장 노래 시작)

목이 다 쉬었구만. 됐다, 됐다! (웃음. 박수) 목이 안 쉬었으면 참들을 만하다구요. 씹씹하고 얼마나 잘 하는지 몰라요. 그런 남자는 발길로 차더라도 꿈쩍 안 해요. 이게 술 잘 먹고, 동네에서 깡패라는 간판 붙일 사람이예요. 이마를 보라구요. 울퉁불퉁해서 매끈한 데가 어디 있어요?

평화가 이뤄지지 않은 데는 국경선이 생겨

그래, 뭘 하러 다 모였어요? 얼마나 심각해요? 기독교인들이 통일교회를 믿었으면 일본 사람이 여기에 와 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녹음이 잠시 중단됨) 미국이 책임을 못한 거예요. 선생님이 머리를 잡을 것인데 머리를 빼앗겨 버렸어요. 종교권하고 국가권이 하나된 때가 2차대전 이후예요. 기독교문화권이 통일천하를 한 거예요. 연합국과 추축국이 싸우던 것이 하나된 거예요. 역사에 그때밖에 없어요.

그때에 초종교·초국가의 주인으로 나타난 것이 선생님이예요. 초종교가 뭐예요? 초종교는 종교의 본향인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의 이상을 이 땅 위에 옮겨야 돼요. 초국가의... 이 세상의 선진국가들, 일본의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天照大御神; 일본신화의 해의 여신)가 뭐예요?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는 한국 왕의 딸들 중에 하나예요. 딸 중에 맏딸도 아니예요. 일본에 세 가지의 신기(神器)라고 해서...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뭐예요? 무슨 거울? 그것도 다 모르나?

이번에 돌아가면, 일본 여자들은 어디로 가요? 「임지로 갑니다.」 임지가 어디예요? 「각자의 동(洞)으로 갑니다.」 글썄 한국에 가요, 일본에 가요? 「한국입니다.」 그거 왜 그래요? 「남북통일을 위해서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선생님이 이번에 유엔에서 강연한 것이 뭐냐 하면,

국경을 철폐해야 된다 이거예요, 국경!

국경을 누가 만들었느냐? 가인 아벨이 싸우기 때문에 국경이 생겼어요. 평화가 도망가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는 국경이 다 생겨났어요. 그 국경의 대왕마마가 사탄이에요.

입적가정 기념교본을 한국 말 그대로 완전히 외워라

어제 광정환이 읽어 줬지? 「예.」 해설을 다 했어, 하나하나씩? 이번 에 이것을 선생님아... 책을 가져와요. 나눠 줄 책을 가져오라구요. 한 권만 가져와요. 금박을 해서 좋게 만들었구만. 여러분 부처 열 쌍을 주고도 안 바꿀 수 있게 금박을 했구만.

이게 뭐냐 하면, '2000년 9월 26일, 입적가정 기념교본'이에요. (박수) 이것 하나만이에요, 교본! 이것은 각 나라 사람 말이 전부 다르더라도 한국어 교본으로 처음 나온 교본이니 영계나 육계나 만국의 사람은 이 교본대로 교육받아야 돼요. 말도 교본의 말을 써야 돼요. 이 교본을 완전히 따루어라(외워라) 이거예요. 이런 세 권을 따루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한국 말을 완전히 패스해요. 알겠어요? 「예.」

이게 몇 페이지인고 하면 340페이지예요. 20페이지만 더 있으면 360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360페이지라면 장 수로 몇 장이에요? 「180장입니다.」 180장이라면,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입니다.」 365일이면 년 달에 한 권씩... 머리 좋은 사람은 한 페이지 외우는 것은 문제없다구요. 글방에 가서 한 페이지 외우는 사람이 머리가 제일 나쁜 거라구요. '와와와' 해서 매일같이 외우면 1년이면 이것을 외우고도 남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한국 말의 뜻을 콘사이스를 찾아보면 완전히 한국 말을 배운다 이거예요.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통일시키는 방법. 알겠어요? 「예.」 공부 싫어하는 사람은 죽으라구요. 병어리가 돼 보라

구요. 봉사가 돼 보라구요. 코맹맹이, 귀머거리가 되고, 오관이 마비된 사람이 돼 보라구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눈 뜨고, 귀 열고, 오관을 오픈 하려고 그런다구요. 그러니까 외우지 말라고 해도 외우고도 남는다고 그 말이에요. 그거 거짓말이요, 사실이요? 「사실입니다!」 사실이라는 사람, 박수해라! (박수)

한국일본미국독일 사람이 한 집에서 살 수 있어야

그러면 한국에서만 살겠느냐, 일본은 버리고? 일본에서만 살겠느냐, 미국은 버리고? 미국에서만 살겠느냐, 독일은 버리고? 4개국에, 185개국의 같은 축복을 받은 형제지인연을 중심삼은 축복의 동지들이 세계에 널리 있는데, 자그마치 한국 말, 일본 말, 미국 말, 독일 말, 독일 말은 괜찮아요. 미국 말까지 하게 되면 세계 어디든지 통할 수 있는 거라구요. 이제는 한 집안에서 살게 됐어요, 한 집안!

이 네 나라는 3년 동안 한집에서 살아야 돼요. 독일 아들딸, 미국 아들딸, 일본 아들딸, 이들이 전부 역사시대의 원수들이예요. 원수가 이렇게 되어 교차생활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예.」 한 콘도미니엄 시스템에서 네 집이 한집 밥을 먹어야 돼요. 3년 이상 패스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되는 가정은 진짜 조국광복을 한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때는 전부 모국어 써야 돼요, 모국어. 부모님이 쓰는 말을 써야 돼요. 불가피적이예요.

우선 선배들을 한국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독일 사람이든 뭐든 각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 콘도미니엄에서 사는 거예요. 본국에 있는 집을 팔고 180명 이상 전도한 일족들을 데려다가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나라, 동서남북 갖출 수 있는 사방을 맞출 수 있어야 천상세계 방대한 천국, 지구의 몇천만 배 되는 방대한 천국을 내가 관리할 수 있고, 자유자재로 행보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거기에 맞

추기 위해서 불가피적으로 이런 시련 과정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예.」

그러면 위해서 살기 때문에 위하는 체하고도 살아야 돼요. 미국에 간다면 미국 대통령보다도 내가 더 미국을 위하는 사람이 된다면 법을 안 지키더라도, 대통령이 안 지키고 범죄 했다면 나도 대통령이 하는 일을 해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 남는 거예요. 알겠어요? 대통령 이상, 그 나라의 이름 있는 충신 이상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30년째인데, 2004년까지 34년이 돼요. 34년 동안에 예수님이 결혼 못 하고 나라를 찾아서 하늘 앞에 봉헌 못 한 것을 나는 세계의 지상천상천국을 봉헌해야 할 책임을 일대에 끝마쳐야 돼, 이 쌍것들아! 일대예요, 일대! 백 대가 아니예요. 수천만 대에 잃어버렸던 조국 광복을 위해서 일대에 청산하고 예수님이 서른네 살까지 결혼해서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쳤다면, 로마까지 흡수할 수 있는 이론적인 교재를 가지고 어느 나라 무엇이든지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사악하고 음란이 팽배한 로마는 순식간에 점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동양에 있는 불교, 유교, 조로아스터교를, 그 종교를 전부 흡수해서 종교 통일과 더불어 외적인 사탄세계를 천하통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걸 통합해 가지고 통일하는 거예요.

초국가적인 자리에서 하나님께 총생축헌납을 드려야

그러니까 나라를 넘고 유엔을 밟고 올라가서 초국가초세계적인 자리에 서 가지고 하나님을 시봉할 수 있는, 좌우로 제단을 갈라놓았던 것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총생축헌납물을 전부 바쳐야 돼요. 축복가정이 이 땅 위에서, 지상천상세계에서 살기 전에 그것을 하나

님의 소유로 만들어 놓아야 돼요. 세계가 해방된 기반 위에 지상천국을 출발할 때 전체의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던 그 소유권을 중심삼고 그분 앞에 축복을 받아 가지고 상속받아야 할 텐데, 거꾸로 됐어요. 탕감 복귀해서 돌려드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총생축헌납제를 하는 거예요.

‘제’라는 것은 소유물을 결정하기 위한 거예요. 잘라 가지고 바른쪽은 하나님 편이요, 왼쪽은 사탄 편이에요. 잘라 가지고 갖기 내기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만물을 갖고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갈라 세워야 돼요. 아들을 세운 기독교가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이 이 땅 위에서 가정을 가르고 종족 편성을 준비해 놓았는데 그것을 파탄시켜 놓았어요. 그러니 남북이 둘이 안 될 수 없고, 세계가 둘로 안 나뉘질 수 없어요.

이것을 다시 한 번 제물 없이 그대로 바쳐야 돼요. 개인적인 제물, 가정적인 제물, 종족적인 제물을 중심삼고 가정을 기반으로 종족을 넘고 민족국가세계를 넘어 가지고 천지 합덕, 축복의 시대까지 거쳐 가지고 아버지가 아들 자리에, 아들이 아버지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수평화되어야 돼요.

수평 된 그 위에 아들이 뉘아 나와야만 그 가운데 종적 기준이 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해서 흥진이가 따라왔지요. 수평적인 기준을 아들이 해놓은 그 중앙에 있어서 부모의 자리를 세워야 할 때가 된 거예요. 그것을 교차축복한 것이 어제였어요.

유엔의 국가들을 하나 만든 기반에 초국가적으로 나라를 세워야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를 모시는 시대, 아들을 모시는 시대인데, 이 사탄세계의 정비는 아버지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를 누가

세워야 되느냐? 아들시대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담이 2세에 해당하지요? 그러니까 전세계 축복가정들은 2세권 축복가정이기 때문에 조국광복은 필연적인 운명이에요.

해와가 잃어버린 것을 나라를 통해서, 영·마·불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영국은 어머니요, 아들은, 아벨은 미국이요, 천사장은 불란서인데, 영·마·불이 연합국이에요. 1개국 시대를 넘어가요. 연합국시대예요. 연합국시대를 넘어 가지고 세계주의시대로 가는 거예요. 세계 하나의 나라를 지향해 나온 것이 공산주의요, 오늘날 미국이에요.

오늘날 미국이 선진국 제일 대장으로서 ‘내 말 들어라!’ 하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갖지 않고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장자권을 가지면 그 말이 통하지만, 아버지를 몰라보고 어머니를 몰라보고 그러한 주장은 할 수 없어요. 똥!

그러니까 남북이 통일교회의 말을 안 듣게 안 돼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안 들으면 안 돼요. 하늘나라가 설 수 있는 이 땅 위에 하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미국보다 더 높은 자리, 소련보다 더 높은 자리, 중국보다 더 높은 자리, 선진국 열두 나라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찾으려니까, 그것이 뭐냐? 초종교! 민주세계는 초종교 위에 세울 수 있는 나라를 찾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거예요. 초국가, 유엔의 국가들을 전부 하나 만들어서 그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초종교권이 유엔의 상원이 되고 지금 있는 국가 대사관이 하원이 돼 가지고 하원과 상원이 하나되어야 돼요. 종적으로 통하지 못하고 횡적으로 통하지 못하고 인류가 통하지 못하게 다 막고 있으니 유엔 도상에 나라를 건국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의 희망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 거예요. 기독교사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건국, 하나님의 전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나라의 족속을 세워 나온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문 총재는 이런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초민족주의, 초종교주의예요! 초(超)예요!

미국의 기독교를 중심삼고 정계를 하나 만들어 유엔을 품어야

현재의 일본이고 미국이고 영국이고 어떠한 사상을 가진 모든 종교의 자식들이 전부 나 하나를 바라는 거예요. 바른발은 종교고 왼발은 국가로 이것이 싸워 나왔어요, 지금까지. 왼발이 바른발을 쳐 나왔어요. 몸뚱이가 마음을 쳐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이것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것이 뭐냐? 기독교를 중심삼고 정부 요원들, 50개 주와 국회의 상·하원을 교육해서 하나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거예요. 이 기반을 닦지 않고는 초민족적, 초국가적, 초종교적인 유엔 기구를 품에 품을 수 없어요. 그 조건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유엔에 상륙해서 ‘내 말 들어라, 쌍놈의 자식들아! 지구성이 너희들 똥개들이 파먹는 구더기 밥이 아니다.’ 한 거예요.

1개국의 이익을 위해서 밤낮 모여서 싸움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청중들이 모여서 누가 유명한 강의를 하더라도 박수를 못 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놈의 자식들! 자기 나라의 보기 싫은 그 상통들을 가지고 거지 떼거리 같은 입장에서 누더기 판이 된 썩어진 것, 공동묘지에 파묻기도 아까운, 죽어 자빠진 그러한 사체 같은 가정들을 녹여 가지고 뭐 세계를 주도하겠어? 세계가 믿지를 않아요. 뿔! 다 침 빨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했더니 숙연해지는 거예요. 내 말 들어라 이거예요. 이제 교육하는 거예요. 8일부터 와서 10일부터 교육하게 되어 있어요.

똑똑한 청년들, 대학가의 천재적인 학생들, 그 다음에는 뭐예요? 똑똑한 초종교적인 지도자! 그 다음에 똑똑한 초정치적인 지도자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360명을 데려다가 유엔의 이름으로 교육하게 되어 있어요. 185개국에서 말이에요.

그것이 끝나는 날에는 여러분이 설자리가 없어요. 여기에는 아무나 못 오게 한다는 거예요. 유엔의 깃발 아래 ‘우리가 하겠다.’ 하고 초종교적으로 붙어 붙어 가지고 한꺼번에 몰려들기 때문에, 입회를 하기 위해서 줄을 여기에서 서울까지 서도 모자랄 때가 온다는 거예요. 10년 이상 기다릴 때가 있을지 모르지요.

그런 놀음이 앞으로 역사 과정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한 대표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돼, 이 쌍것들아! 알겠나, 무슨 말인지? 싸구려가 아니에요, 싸구려!

여러분이 학교에 가게 되면 무니(Moonie; 통일교인)라고 천대받았지요? 배에 빠다귀가 있어야 돼요. 배 안에 빠다귀가 생겨야 돼요. 천하가 굴복하기 전에는 뼈가 잠을 못 자요. 서 있는 한 너희들을 자연굴복시키고 만다는 이런 신념이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하고 있는지 현재의 입장을 알아야 돼요. 주먹구구식으로 천하의 도리가 따라가지 않아요. 천하의 도수가 맞지를 않아요. 알싸, 모를싸? 「알싸!」

초국가초종교주의인 참부모 사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어

*일본의 야쓰(奴;너석), 일본 멤버! 야쓰예요, 멤버예요? 야쓰라고 하면 모두 다 싫어합니다. 일본 사람이예요, 야카라(輩;패거리)예요, 야쓰예요? 어느쪽이에요? 일본 사람이예요? 「하이.」 일본 사람은 도둑이라구요. 아시아를 침공하고, 태평양을 넘어서 미국까지 넘보았습니

다. 이야, 사탄의 배짱이 대단하다구요.

그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를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본이 감탄할 수 있는 무엇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너 미국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세계를 통합하고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문 선생의 사상입니다. 알겠어요? 「하이.」

참부모의 사상은 초국가·초종교·초사상주의입니다. 절대유일불변·영원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상 앞에서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탄의 권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전부 다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럴 만한 힘이 있는 남자라고 생각해요, 없는 남자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힘이 있고도 남아서 곤란하다구요.

모두 다 문 선생을 가마솥에 집어넣고 뚜껑을 덮어서 삶아 버리면 더 이상 끔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솥이 끓게 되면 뚜껑이 날아가게 된다구요. 그렇게 솥이 끓도록 안 삶아지고 죽고 있다가 끓게 되면 핑 자유해방권을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끓게 되면 자유해방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70도 이상은 사탄이 주관할 수 없습니다. 소생권과 장성권은 사탄이 주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완성권은 하늘의 주관권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독일이 일으키고, 대동아전쟁을 일본이 일으켜서 70퍼센트까지 승리한 것 같았지만, 그 이후로는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전부 다 잃어버리고, 본국까지 무너져 버렸습니다. 미국도 사상적으로 70퍼센트까지 소련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에서 문 선생이 해방시켜 준 거라구요. 그런 것이 전부 다 원칙적입니다. 그러한 공식에 따라서 선생님이 세계를 수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듣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하이.」

선생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듣고 있어요? 가슴으로 듣고 있어요? 몸에 속하는 가슴이 아니라 심정으로 들어야 됩니다. 참심정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심정의 스위치를 꺾 올리면 천지가 밝아져요, 어두워져요? 전구의 와트 수에 비례해서 모든 것이 틀림없이 환하게 천하를 수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만한 하나님의 아들딸로서 조국광복을 이뤄야

아저씨, 뭘 그렇게 열심히야? 아이가 있구만!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뭘 해? 열심히야, 심열이야? 몸의 열이예요, 열의 몸이예요? 어느쪽이예요? 몸의 열은 병이지만, 열의 몸은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박진감 있게 나아가면 만세의 승리자가 됩니다. 마음속에서 화산이 폭발할 것 같은 그러한 열심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의 반대인 심열은 병이래요. 알겠어요?

선생님의 이러한 경고를 틀림없이 준수하겠다고 저쪽부터 획 용솟음쳐서 손이 올라가고 몸이 날아갈 것 같은 결심을 하지 않으면 입적한 사람들로써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영원히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생각되면 영계에 가 보라구요. ‘저런 영터리 같은 말은 있을 수 없다.’ 하게 되면 고마루(困る;곤란하다)라구요.

고마루(5.0)가 좋아요, 햅쿠가 좋아요? 「햅쿠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본 사람들은 고마루라는 말을 쓰지 말라구요. 그 대신에 어려울 때는 햅쿠고마루라고 하라구요. 그러면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햅쿠의 희망이 있잖아요? 그것도 모자라면 센고햅쿠(1500) 마루(0)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곤란한 경우는 없을 거라구요. 햅쿠도 필요 없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천하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문제 없다고 할 수 있는 자신만만한 왕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딸이 될 수 없습니다.

모두 다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어서 조국광복을 이루어야 됩

니다. 그 조국광복이라는 것을 일본 말로 하면 왕정복고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조국이 새롭게 빛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정복고는 일본을 중심삼고 하는 말이지만, 조국광복의 조국이라고 하는 것은 섭리의 전체를 대표한 국가를 말하는 거라구요. 그것은 하나님과 참부모의 조국입니다.

초천주적인 통일권에 세워지는 나라의 이름을 조국이라고 합니다. 모두 다 그러한 조국을 건설하는 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조국의 건설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가족을 중심삼고 건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동참시켜서 그러한 결심으로 결속시킬 수 있는 대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하이.」

역사를 통해서 내려질 수 있는 불가피한 결론은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모든 것을 투입해서 해방권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일본의 천황까지, 일본 땅까지 투입해야 된다고요. 생각해 보라고요.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천황, 야오요로주노카미(八百万の神; 못신들).... 텃! 야오요로주노카미가 어디에 있어요? 절대유일불변영원하신 하나님을 중심삼고 조국을 건설해야 할 책임을 양어께에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것이 소망을 품은 남자와 여자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한 남자와 여자들을 천운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주목하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하면서 만세를 부르며 추켜든 깃발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애를 걸고 가지 않으면 인류의 소원인 완성권을 이룰 수 없다고요. 그러한 훌륭한 부부가 되어 보고 싶어요? 「하이.」

일본 부인들이 그대로 일본으로 돌아가면 일본은 빼창코가 돼

여러분이 선생님을 대신해서 어디에 가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내는 누구야?
「뒤에 있습니다。」 이 여자야? 「저쪽입니다。」 이 남자의 아내는 어디에
갔어? (웃음) 이쪽으로 오라구! 남자답지 못하니까 여자를 도망가게
만들어 놓고 혼자서 앉아 있다구. 너는 뭐야? 아내도 모르고 앉아 있
어, 이 녀석야? (웃음) 네 아이야? 「예, 그렇습니다。」 엄마는 어디에
갔어? 이거 이혼했어, 이혼? 「아닙니다。」 그러면 뭐야? 「사위시대가 입
적했습니다。」 그런 걸 물어 보는 것이 아니잖아? (웃음)

모두 다 와카리마시타(分かりました;알았습니다)? 「와카리마시타!」
와카레마시타(分かれました;헤어졌습니다)! 「와카리마시타!」 와카레-
마시타! 「와카리-마시타!」 부부가 와카레마시타라고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이 여자는 한국 여자야, 일본 여자야? 일본 여자야? 「하이。」 이 남
자가 네 남편이야? 저 여자는 똑똑한 여자라구. 문학에 소질이 있다구.
그런 소질이 있어? 말을 잘 하니까 남편한테 지고 싶지 않지? (웃음)
너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병이 생긴다구. 무엇이든지 마음속에
담아 두지 말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라구. 깊은 비밀을 지키는 데는
좀 곤란하다구. 그러니까 말을 모르는 남자를 만난 것이 잘된 거라구.
이 남자는 순수한 남자라구. 이것저것을 따지는 남자가 아니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라구! (웃음)

모두 다 선생님이 보면 일본으로 몇 명이나 돌아갈 것인가를 알 수
있다고요. 그렇게 돌아가더라도 집에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돌아
가서 몇 년 동안 쉬려고 생각한다면, 일본은 빼창코(ぺちゃんこ;눌려
납작해진 모양)가 될 것입니다. 침대든 무엇이든 전부 다 뒤집어집니
다. 부엌이든 식당이든 전부 다 빼창코가 되는 거지요. 방향도 모르고
동서사방으로 흩어져서 빼창코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에 선생님이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후지산
은 선생님이 소변이라도 봐 주기를 몇천년 동안 기다려 왔는데 말이에

요. 진짜로 참부모라면 그렇게 원하고 있겠지요? 그 산꼭대기에서 소변이라도 뿌려서 초목들이 자라게 되면 후지산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를 아무것도 못 가지고 있잖아요?

선생님의 학생시절에 친구들은 그 산에 등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한국의 백두산이나 금강산에도 올라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후지산에 먼저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국이 복귀된 다음에 올라가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일본 전체가 환영할 때가 되면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생님은 철저하다구요.

우리는 제사를 지내도 돼

문 선생은 석가나 성인들의 스승이라구요. 석가, 공자, 예수, 마호메트도 문 선생의 부하라고 했더니 호메이니는 문 선생을 사형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천하의 성인인 마호메트에 대해서 이단의 괴수인 문선명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사형을 시켜라!’ 했다고요. 호메이니가 그렇게 사형선고를 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 자신이 먼저 영계로 가 버렸습니다. 그 호메이니의 그림자도 없어져 버렸다고요.

지금 마호메트까지 결혼시켜 주었지요? 마호메트의 오쿠상(奥さん; 남의 아내에 대한 높임말)! 박수해요, 박수! (박수) 길에서 만나면 마호메트의 오쿠상이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더라도 실례가 아닙니다.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이경준이 갔나?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예수님의 신부는 어디에 사나? 「벨베디아에서 삽니다.» 벨베디아! 또 부처님 신부는? 「한국에 삽니다.» 한국에! 전부 한국 색시를 얻겠다는 거예요. 어제 소크라테스의 색시를 봤지요? 「예.» 마호메트 색시하고 누가 잘

생겼나 한번 보자구요. 그 옆에 있구만. 일어서 봐요. (웃음) 이제 만나면 인사하라고요. (박수)

보라고요. 마호메트나 공자와 생활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이... 색시가 해주기 전에 그 주위에서 통일교회 교회에서 생일 잔치도 해주고, 환갑 잔치도 해주고, 제삿날도 축하해 줘야 돼요. 제사 지내도 죄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지내면 벌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몰라서 그래요. 영계를 알게 되면 후손들이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자꾸 옮겨가는 거예요.

여기는 남편 이름이 뭐라고? 「공자입니다.» 저기는 남편 이름이 뭐라고? 「마호메트입니다.» (웃음) 왜 그렇게 웃어요? 심각해야 돼요. 이제부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방문할지 모르지요.

낙원 이하의 영계를 쓸어 버려야

자, 이 책을 봐요. 이 책에 선생님이 80회 생일 때 조국광복에 대해서 한 말과 나라를 찾기 위한 훈시의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두 가지 연설문이 안 들어갔다구요.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저녁 만찬회 때 한 ‘국경선 철폐와 참사랑의 실천’이 안 들어갔어요. ‘국경선 철폐와 참사랑의 실천’은 사랑문제에 대한 거예요. 8단계 사랑의 기준을 갖지 않고는 그 나라의 가족으로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낳을 수 있는 부모의 자격이 못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거예요. 알겠어요? 「예.»

부자지관계가 거꾸로 돼 있어요. 형제지관계도 거꾸로 되어 있고, 다 거꾸로 된 것을 바로잡아 가지고 아버지가 지금까지 했던 것을 영계에 내가 안 가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가서 다 해야 될 것인데 영계에 흥진 군이 가 있기 때문에...

상헌 씨도 그랬지요? 아버님이 이 땅에 와서 영계를 조정해야 된다

고 했는데, 비통한 사실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 면, 한 부분이라도 풀어 주기 위해서, 부모님이 와서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이 자리를 위해서 수고한다는 거예요. 거기의 대장이 흥진 군이니만큼 지상에서 하던 모든 전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청산해야 할 것이 뭐냐? 영계의 낙원 이하는 전부 쓸어 버려야 돼요. 지옥에서부터 조상들을 해원해 줘 가지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영계의 울타리가 있었으면 다른 울타리가 가정을 중심삼고 생겨나는 거예요.

부모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창조이상을 완성한 축복가정의 최고 기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가는 곳, 하늘나라에 가정적 낙원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흠아비들, 관계없는 천사장급들이 분열된 낙원에 사는데, 낙원은 천국 가는 대합실이에요. 수천년 기다렸지만 그 높은 자리에 서지 않으면 사랑을 못 해요. 결혼을 못 한 다구요. 중 이하에 있는 녀석들은 지옥에서 살던 똥 구덩이 사랑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 외라구요.

그러면 지금까지 낙원 이하의 영계는 누가 전부 소탕해 버려야 돼요. 쓸어 버려야 된다고요. 쓸어 버리는데, 다 죽여 버릴 수 없잖아요? 쓸어 버리려니 각 종교권을 중심삼고 33.3퍼센트를, 소생·장성으로 3분의 1을 축복한 조상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이름으로 해 가지고...

흥진 군과 예수님이 왕초예요. 영적인 아버지라면 그들을 아들의 입장에서 연결해 가지고 축복해 주는데, 33퍼센트예요. 소생·장성·완성급인데 완성급이 33퍼센트라구요. 33퍼센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사탄권 내의 장성권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전부 축복해 주는 거예요. 6월 13일 전까지 축복해 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9월 말까지 깨끗이 정비하라고 지시했다구요.

그 승리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 영계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요. 그 이하로 계속해서 내려오는 이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완성급권 내에서 새로 축복받으면 지상에 오는 거예요. 조상들이 구해 주는 거예요. 천사장 가정과 같은 것이 본래는 없는 거라구요. 가정의 낙원 이상의 자리에 서 가지고 천사세계로 이 땅 위에 새로이 축복받기 전의 가정에 와서 조상들이 가정 완성시키는 데 준비해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최대의 지상 정비, 천상 정비가 벌어진다

천사장이 아담 해와를 완성시키지 못한 것인데, 이제는 아담 해와의 가정 천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선조 된 축복받은 가정들이 돕는 거예요. 이것이 본래 없는 거예요. 아담의 몸뚱이와 천사장의 몸뚱이, 두 몸뚱이를 떼 가지고 태어난 가정이 천사장권 가정이었기 때문에, 조상이지만 아담 대신으로 도와 가지고 축복을 완성할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가정 완성,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가정을 돕기 위한 만반의 자유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녹음이 잠시 중단됨)

똑똑한 문 총재가 이론적으로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축복결혼을 다 해줘 가지고 입적 수속을 했는데,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가정 정착시대가 되었으니 그 정착한 가정들에 대해서는 사탄 줄개새끼들이 아무리 쳐들어가더라도 보따리 싸서 흔적이 없게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그 집안을 중심삼고 선조들이, 영계의 수만 수천의 조상들이 내려와서 그 일가 일족으로 핏줄이 확대된 곳을 찾아가서 확청운동(廓淸運動)이 벌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상 최대의 정비가 벌어지고 천상 최대의 정비가 벌어지는 거예요. 일치되어 그것이 수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가던 물과 들어오던 물이 수평이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엔 거룩한 물이 나가고 맨 나중에 더러운 물이 나가지만, 들어올 때는 맨 더러운 물이 먼저 들어

오고 맨 먼저 나간 물은 나중에 들어와서 수평이 되어 빙빙 도는 거예요. 그때에 있어서 같은 동위적인 입장에 있으니 동일한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가인 아벨이 아무리 못나도 형제예요. 그들이 살육하던 것이 아니라 서로 만나겠다고 주체 대상으로 존경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주체 대상으로 주체를 형님과 같이, 아버지처럼 모실 수 있는 절대신앙·절대 사랑·절대복종권 내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알고 깃발만 받으라고 할 때 깃발만 받으면 재까닥 이것을 돌려 잡아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일가 친척의 자녀들을 끌어내 미혼축복을 시켜야

여러분이 있는 정성을 다해서 별의별 축복을 다 해줬지요? 변소간에 서도 축복을 해줬지요? 「예.」 술집에 가서도 해줬고, (웃음) 여러분이 사랑하자마자 불을 끄지 않고도 가서 했어요? 그 윗방에는 시아버지가, 시댁 식구가 있으면 자다 말고 팬티만 입고 문 두들기고 가서 전도해서 축복해도 같은 가치를 갖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런데 기성가정을 많이 전도했어요, 처녀 총각을 많이 전도했어요? 이젠 기성가정을 내세워 가지고 그 기성가정에 있는 아들딸을 한 쌍씩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3대가 연결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1대라면 그들의 조상이예요. 그들을 축복해 놓고 원래는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딸을 여러분의 아들딸하고 결혼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원수들 아니예요? 가인 아벨이지요? 전도한 180개 가정과 여러분 일족이 가인 아벨 가정으로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일천하가 돼요.

이제 남은 것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돈의 팔촌 집에, 친척 가운데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면 강제로 내라고 하는 거예요. 강제

로 싸우면서라도 내라고 출동명령을 할 때가 왔어요. 문 총재가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엔의 이름으로 문 총재가 가르친 내용을 교육받을싸!’ 해서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상원 하원, 야당 여당에까지 통보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반대해요?

‘너희들이 출세하고 싶거든 세계에 줄을 달아 놓았으니 문 총재 말씀을 배워라. 먼저 배우게 되면 세계의 왕들과 세계의 부자들, 세계 최고의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왕초가 되는데, 싫어?’ 하는 거예요. 종교권은 출세의 문이 다 막혔어요. 정교분립이라는 원수의 벽으로 막아 놓았어요. 이걸 다 열어놓아야 돼요. 알겠어요? 「예.」

이제 시집 안 간 처녀들은 참 좋을 때가 왔어요. 아들딸들을 빨리 강제로라도 쌍을 만들어 줘야 돼요. 사돈의 팔촌, 종씨, 문중에 있는 처녀 총각들을 그냥 둘 거예요, 타고 앉아 가지고 모가지를 매서라도 갖다 쌍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게 복 받는 거예요. 그것이 싫다면 망해요. 애급에서 출동하게 될 때는 명령을 듣고 야간 도망해서 별의별 놀음을 하면서 살았지만, 거기에 있었으면 칼날에, 창 끝에, 말발굽에 밟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때가 와요. 알싸, 모를싸? 「알싸!」

선생님이 협박도 잘 하지요? (웃음) 왜 그렇게 새빨간 협박을 그렇게 잘 해요? 그게 협박 같아요, 사실 같아요? 「사실입니다.」 사실로 아는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이예요. 안 사실로 아는 사람은 벌받을 사람이예요.

여기에 여편네를 따라서 할 수 없이 처음 온 남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 남자는 향문 밑에 생식기를 깔고 앉아야 돼요. 알겠어요? 믿지 못하겠다면 향문으로 깔고 앉아 가지고 ‘아야, 아야, 아야!’ 해서 뼈러면 ‘나 듣겠습니다.’ 하고 뼈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 받아요. 왜 흥흥흥 하노? 세상에 목사 중에, 종교의 주인 중에 그런 교육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옆 사람을 딱 때리심) 이거 또 때리기는 왜 때리노? (웃음) 이것도 탕감이에요. 얼마나 잘못했으면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베풀어 줄 텐데, 문 총재가 그랬기 때문에 ‘그거 내 대신 시원하다!’ 하는 거예요. 이웃 동네에서 죽자살자 사생결단으로 머리를 싸움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라도 ‘이 여편네가 나쁘게 생겼구만!’ 한마디하면 얼마나 좋아요? 마찬가지로.

봉투에 예물을 준비해서 더러움 타지 않게 잘 모셔라

자, 그렇게 알고, 내가 나쁜 일은 하지 않을 것이 틀림없지요? 내가 나쁜 일을 하면 교주가 돼 먹겠어요? 이리 봐도 좋고 저리 봐도 좋고, 이왕지사 좋은 것은 다 좋으니까 나쁜 것을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옆 사람을 딱 때리심) 좋아해야 쓸 데가 있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갈 것이예요, 말 것이예요? 「가겠습니다.」 가서 할 것이예요, 말 것이예요?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망할 것이예요, 흥할 것이예요? 「흥하겠습니다.」 흥해야지! 한번 해봐요. 흥해야지! 「흥해야지!」 흥해야지! 「흥해야지!」 흥해야지! 「흥해야지!」 흥해야지!

더 큰 나라가 더 흥할 때가 왔어요. 일본 나라, 한국 나라, 서양 나라가 흥해야지! 「흥해야지!」 흥해야지! 「흥해야지!」 유럽 멤버들, 따라서 해요. 「흥해야지!」 흥해야지! 「흥해야지!」 망해야지! 「흥해야지!」 (웃음) 잘 알아들어야 돼요. 덮어놓고 대답하면 딱 걸려요. 정신차려가지고 답변하지 않으면, 하라는 대로 하다가는 망한다구요. 망해야지! 「흥해야지!」 흥해야지! 「흥해야지!」 ‘흥해야지!’ 하면 다 통한다는 거예요. 그만 했으면 됐다구요.

자, 봉투에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가요. 여러분이 시집갈 때 약혼반지를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천년 만년 이 가보는 선생님이 준 예

물로서 일가의 박물관에 조상 자리로 모셔야 돼요. 그것이 자기 1대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그 혈통에서 조상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구요. 알겠지요? 「예.」 내가 이것을 넣어서 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담아 가겠어요? 내가 준 대신 정성껏 담아 가지고 가라구요. 알겠어요? 「예.」

그것을 담아 가지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고 가져가야 되겠어요, 날자마자 더러움 타지 않게 달려가서 자기 머무를 곳을 준비하는 곳에 잘 모셔 놓고 자고 먹어야 되겠어요? 정성어린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가지고 하라구요. 만약에 지금 시간이 늦었는데 가서 자리도 못 잡고 떨고 다니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다시 와서 가져가도 돼요. 알겠어요? 「예.」 알 사람은 알아들으라구요.

나라와 세계, 하늘땅을 찾기 위한 말씀의 교본이니 달달 외워라

자, 이 책을 뭘 하라고 그랬어요? 이 책을 부모님이 80세 생일 기념으로 남겨 주는 거예요. 모든 천지가 축하할 수 있는 그대에 오신 손님들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조국광복, 나라 찾기 운동을 할 때 한 말씀이에요. 나라 찾을 수 있는 선언을 함과 동시에 유엔과 세계, 하늘땅을 찾을 수 있는 내용의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달달 외워야 선생님의 주류사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적으로 기억해라 이거예요. 알겠어요? 「예.」

일본 말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 말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한국 말을 배워요. 이 다음에 이걸 못 읽는 사람은 아무리 입적했더라도 천국에서 스톱하는 거예요. 빨리 배워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되었으면 아들딸한테 공부시켜야 돼요. 그래야 한국 사람들과 결혼할 수 있어요. 한국 식구들과 말이에요. 타락한 세계는 그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같이 피가 섞어질 때는 원수가 없어져요. 알

겠어요, 무슨 말인지?

누구든지 여기에 나온 말을 물어 보게 되면 통일교인은 한국 말로 답변할 수 있는 손자를 키워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충고한다구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나는 틀림없이 부모님이 오늘 이렇게 혼시한 말씀을 실행하겠다!’ 하는 사람은 쌍수를 들어 봐요. 일본 사람이 하겠다고 하니까 여기 있는 간나 자식들은 물어 볼 것도 없지. 일본 사람한테 질 거예요, 이길 거예요? 「이기겠습니다.」 질 거야, 이길 거야? 「이기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을 다 알아요, 몰라요? 입을 줄 알지요? 혼독회 할 줄 알지요? 「예.」 이제 일본 사람들이 혼독회 해서 여러분보다 먼저 더 가치를 알고 여러분 이상 실천하게 되면 여러분 자리를 빼앗긴다구요. 누님은 누님 노릇, 형님은 형님 노릇, 삼촌은 삼촌 노릇,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나쁘지 않은 한국 사람들은 달달달 외워야 돼요. 전부 아는 것을 하루에 한 장쯤 외우는 것은 문제없잖아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박수해 봐요. (박수)

그래서 이렇게 좋은 책을 만들라고 했어요. 뭐라고 썼어요? 읽어 봐요, 큰소리로! 몰라요? 내가 읽어 줄게요. 2000년 9월 26일 입적가정 기념교본 문선명 한학자! (박수)

선생님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에게 주는 교재 선물로서 영원한 전통의 꽃대를 세워 준 걸 알고 다 외우라구요. 그래서 340페이지의 교본으로 받은 책 가운데서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시험을 칠 거예요. 아들이 많으면 많은 것을 중심삼고 그것을 안 했다가는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소학교·중고등학교·대학교에 들어가는 데 문제가 될 거라구요. 그럴 때가 온다구요.

어차피 그런 걸 알고 났으면 미리부터 준비해 놓아야 돼요. 그러면 천국 들어갈 때 유치원 천국, 중고등학교 천국, 청년 천국, 거기에 마

음대로 개문이 벌어져요. 알싸, 모를싸? 「알싸!」

자, 이거 받고 싶은 사람, 손 들라구요. 「저요!」 「저요!」 「저요! 아버지님, 오늘이 생일입니다。」 줄게요. 이것 말고, 이것 같은 책을 줄 거예요. 생일이면 네 엄마 아빠가 기념해야지 내가 상관 있나? (웃음) 이걸 기념해야지. 여러분에게 나눠 주는 것보다 기념해야 된다고요. 자, 써요.

참부모님의 입적 가정에 대한 훈시, 지시사항

1. 순결 혈통 사수

첫째는 아까 뭐라구요? 「순결한 핏줄을 영원히!」 순결한 혈통, 그 아래는 뭐라고 해도 좋아요. 순결 혈통을 사수해라 이거예요. ‘순결 혈통 사수’도 좋고, ‘절대 수호’도 좋아요. 순결 혈통은 설명 안 해도 다 알아요. 무슨 수식어를 갖다 붙여도 돼요.

2. 일심정착(一心定着)

일심, 하나님도 하나의 마음이에요. 마음과 몸뚱이가 하나의 마음이에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중심삼고 남자의 마음도 여자의 마음도 하나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몸 마음이 싸웠지만 하나의 마음이 돼 가지고 가정도 하나의 마음이 돼야 돼요. 알겠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하나의 마음, 아들딸도 하나의 마음, 손자도 하나의 마음, 그렇게 돼 가지고 정착해야 되는 거예요. 일심정착! 알지요? 일심, 심! ‘마음 심(心)’ 자예요. 정착! 잇신테이차쿠(いっしんていちゃく)!

이스트 가든의 식당에 가면 ‘일심정착’이라는 휘호가 붙어 있어요.

거기에서 밥 먹는 데는 도적놈 마음을 가지고 먹어서는 안 돼요. 몸 마음이 하나되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먹어야 돼요. 하나님도 아들딸의 마음이 하나된 가정에 정착하려고 그런다고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우주가 하나의 마음에 정착해야 돼요. 여편네, 남편, 아들딸이 하나의 마음이에요.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정오정착(正午定着)이라고 했다고요. 일심, 중앙에 딱 정착하면 그림자가 없어요. 그 말이에요. 알겠지요? 「예.」 이것은 여러분 가정이 이제부터 필시 지켜야 할 훈시예요.

3. 자녀에 대한 참사랑 실천 교육

부모가 가르쳐 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참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교육해야 된다고요.

이게 전부 가정에 대한 얘기에요. 부부가 순결을 지켜야 되고, 일심이 정착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자녀에 대한 참사랑의 실천을 교육해야 돼요. 거짓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르쳐 줘야 따라가지요. 아버지는 술 먹고 들어와서 어미를 들이 패면서 아버지 말을 들으라고 하면 듣겠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하면서 ‘내 말 들어라!’ 하면 듣겠어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참사랑 실천 교육이에요. 교육이 아니고 실천 교육이에요. 실천하고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이것을 갖다가 표어로 해서 글씨 잘 쓰는 사람한테 써 달라고 해서 걸어 놓아야 돼요. 자기가 잘 쓰면 잘 써서 말이에요. 내가 하나 써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성들인 것이 없기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이 정성들여서 써야 돼요. 크게 하려면 동네 집보다 크게 쓰든지 그건 마음대로 하라고요.

4. 국경철폐와 교차결혼

이제부터 하는 것을 잘 들어라 그 말이에요. (웃음) 간절히 바라고 있어야 기록되지, 물어 보면 돼요? 국경철폐와 교차결혼(交叉結婚)! 교차결혼이 뭐예요? 교차결혼이에요.

자기 부모 조상보다 원수를 더 사랑해야 잘못된 것이 바로잡아져

거짓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상대결혼이 교차결혼이 됐다구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만 바로잡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통일이 안 돼요. 떼어 가지고 다시 갖다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경선이 없어져요. 보다 위하고 원수를 누구보다도, 자기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조상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건 하나님 마음을 안 가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한지 알아요? 섭리사의 1대, 2대, 3대에서 하나님이 부인을 찾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것을 사랑해야 돼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원수 앞에 품긴 것을 축복 안 해줘서는, 사랑하지 않고는 하늘나라가 돌아올 길이 없어요. 세상에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해와의 복중에 아기가 임신될 때 하나님과 아담이 한 몸이 되어 핏줄이 섞어진다고 쓸어 봐 봤겠어요? 안아 쥐 봤겠어요? 하나님이 ‘야, 너 수고했다.’ 하고 아기를 남편이 좋아할 수 있는데 그 내적인 아버지 자리에 서서 더듬고 사랑해 줘 봤겠느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딸이 될 텐데, 아담과 하나님이 내적인 아버지와 외적인 아버지로 한 몸이 돼 가지고 한 핏줄을 어머니에게 임신시켰으니 그 뱀 아기를 남편이 쓰다듬어 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더 사랑하고, 더 쓰다듬고, 뛰고 차는 것을 더 좋아하고 싶었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보겠다는 생각이나 했겠어요? 마찬가지로요. 그런 주인 노릇을 못 해봤어요. 수많은 아들딸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모르게 임신했겠어요? 얼마나 기가 차요? 자기들이 아기 났다고 남편이 좋아하고 어찌고 그랬는데, 불효 막심한 녀석들! 하나님이 우리 아들딸을 같이 사랑하지 못한 타락의 혈족인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인사도 할 줄 모르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것이 할 짓이에요? 벼락을 치게 된다면 한꺼번에 폭탄이 떨어질 정도로 치고, 불어서 없애 버리고 싶은 생각이 먼저 앞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들딸에 대해서 아버지가 안아 주고 어머니가 젖 먹이기 전에 자기 피살을 나눠 줬다고 해서 밤을 지켜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시중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데 도와줘 봤겠어요? 도와줘 봤겠어요? 핏줄과 심정과 인연이 통했겠나 생각해 보라구요.

타락하자마자 쫓아 버린 거예요. 아담 해와가 낳은 아들딸은 타락한 이후에 사탄이 결혼시켜 가지고 낳은 거예요. 쫓겨나서 도망가 가지고 사탄의 밑에서 결혼해서 낳은 아들딸을 하나님이 좋다고 하겠어요? 타락하는 것을 간섭 못 한 하나님이 그걸... 뿔! 침 뱉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불쌍한 핏줄을 이어받은 원한 맺힌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옥 가더라도 거꾸로 꽃혀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이에요! 염려할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8단계 사랑의 주인 자리를 메시아가 찾아 드려야

8단계 사랑의 주인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원한, 그 누가 여기에 와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델, 그 본연의 자리를 찾아 줄 것이냐 이거예요. 그게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것이요, 재림주를 보내기 위한 것인데, 그런 전체의 책임 완성을 표준하고 참부모가 나왔기 때문에 혈통

적 관계를 풀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무엇인지 몰라 가지고 핏줄이 잘못된 것을 어떻게 바로잡아요?

그런 사실을 생각할 때, 숙명적인 과제의 한을 풀어 드릴 수 있고 천지의 대주재 되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될 수 있는 것인데, 원수를 아버지로 모셔 가지고 그 세계에 춤추고 그들이 농락하는 환경에서 잘 살아야겠다고 몸부림치면서, 한의 한의 고개를 품고 해방의 한 날을 보지 못하고 조국광복을 하지 못한 패망국의 족속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분하고 원통해요.

같이 있으나 무엇이 있으면, 총같이 있으면 이 원수의 모든 전체를 깨끗이 정비하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는 한을 품고, 있는 정성을 다해 쓰러질 때까지도 그 정비와 그 노력을 계속하면서 죽음을 잊어버리고 넘었다고 하다가 쓰러져 가야 돼요. 자기를 생각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알아들을 만해요? 「예.」

하나님이 마음으로 기억하고 저 딸을 앞으로 본연의 기준에서 매우 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을 소망하면서 18세가 될 때까지 기르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집가기 전날에 수많은 사람을 놓쳐 버렸다는 거예요. 그 흠아비 같은 신세, 장가 못 간 노틀 할아버지 신세가 얼마나 불쌍한가 생각해 보라고요.

입을 벌려 가지고 뭘 요구하는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통곡이 앞서는 거예요. 뺨이 튀어 나와 가지고 소리치는데, 자기도 모르게 몸부림치며 굴러 나가야 할 입장에서 서 있는 죄인의 창고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알아야 돼요. 뭐 이려고 저려고 핑계할 도리가 없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당백으로 한 길을 걸어왔어요.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든 내 가는 바닷길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 갈 길을 가는 거예요. 끝이 없고 끝이 없는 망망대해를 직행해서 가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누가? 하나님이 나침반이 되고 하나님이 기반을 닦아 줬어요. 천번 만번 죽을 수 있는 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일본 간나 자식들이 일본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자랑하는데 무슨 선진국이야? 자랑도 하지 말라구요, 내 앞에서. 거기에서 감옥살이한 사람이예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소련도 그래요. 미국에 가서 공산주의한테 핍박받은 거예요.

4대 적국 앞에, 총칼 앞에 사선을 넘기 위하여 죽음의 고개를 극복했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수난 길을 막아 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대신 희생한 자리에 섰기 때문에 살아 남은 거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만세 천세를 살더라도 갇을 도리가 없어 황송한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료했으면 가면 되지 뭘 찾아와 가지고 바쁘게 이래요? 어제 저녁에도 가서 자고 오고, 그제도 가서 자고 온 거예요. 오늘까지 가서 자고 오는 거예요. 내일은 새 사람이 오기 때문에 인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3일 기간을 중심삼고 갈라졌다가 다시 만나는 그런 조건을 세워 나온 거예요. 새로운 아침을 맞아 내가 깨우쳐 주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고마운지고예요. 누가 그렇게 생각해 줘요? 잡년들, 잡꾼들! 실수의 보따리를 지금도 갖고 있는 거예요. 전부 불살라 버려야 돼요. 그래도 부모님을 믿고 내일을 바라는 희망의 자리를 잘라 버리고 끊어 버릴 수 없는 것이 천성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 앞에 불효자식이 되지 말고, 불충한 자식이 되지 말고, 반성인, 반성자의 도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본을 보여 줘야 되겠기 때문에 이 놀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싸, 모를싸? 「알싸!」

원수끼리 교차결혼하지 않고는 평화세계가 안 나와

그 다음에는 몇 번이에요? 「5번입니다.」 5번은 뭐예요? 4번은 국경

선 철폐와 교차결혼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결혼하는 데는 뭐냐? 영계의 영인들을 지금까지 결혼해 준 것은 3대 원수라든가, 자기 조상이 아는 역사적인 원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3시대 나라의 원수 되는 사람하고 결혼해 줬어요. 그래서 유관순이 일본 사람하고 결혼한 것을 알아요? 알아요? 「모릅니다.」 유관순이 일본 경관들한테 여섯 토막이 나서 죽음을 당했는데, 왜 그런 일본 사람하고 결혼해 줬어요? 이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원수 부모가 그 아들딸이 결혼하면 ‘우리 부모는 원수를 서로서로 미워하고, 부처끼리도, 어머니 아버지도 미워하고, 다 원수시켰다. 많은 국경을 품고 원수시켰지만 너희들은 국경철폐다. 종횡으로 어디든지, 그 그림자라도 원수를 복수한다는 마음이 있으면 천국이 안 된다. 평화의 밑창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차결혼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3대를 교차결혼시켜야 돼요.

핏줄을 교체시켜 가지고, 접붙인 돌감람나무에 참감람나무 접이 붙어 거기에 열매 맺힌 것도 3년 이후에 따 가지고 그 이후에 씨를 심어야 참감람나무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한 기준을 중심삼고 바로 시정해서 본향 땅을 찾아가려는 이 과제 앞에 얼마나 엄숙한 거예요? 알싸, 모를싸? 「알싸!」

더 심각한 얘기를 안 해도 되겠지요? 어떤 원수냐? 자기 나라의 3시대의 황족들을 사탄이 잡아다가 왕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종적인 3대와 횡적인 3대를 중심삼고, 삼 삼은 구($3 \times 3 = 9$)를 중심삼고 미래의 열두 여성들을 그 남편들이 보는 데서 몸을 더럽히고 칼로 배를 잘라 다 죽여 버리는 거예요. 그런 원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입도 벌리지 못하고 눈물만 흘린 거예요.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 하고, 보고 혼자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사정을 누가 알겠어요? 폐망한 나라의 황족의 사정을 누가 알아요? 그걸 아는 간나들이 자기 혈족의 핏줄을 더럽힐 수 있어요? 나중에는 남자들은 다 죽

여 버리는 거예요. 35세 36세 이상, 40세 넘는 사람들은 다 죽여 버리고 젊은 아기들하고 여편네들을 종새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 세계의 전통적인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혈통의 인연에 사탄을 중심삼고 원한의 역사가 영클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걸 풀어야 할 문 총재의 마음은 통곡을 할 정도예요. 한마디만 하면 통곡해요. 천하가 깨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부모님 앞에 효녀가 될 자신 있어요? 효자가 될 자신 있어요? 나는 없다고 봐요. 이 성인, 성자의 도리를 해야 돼요. 내가 없다고 보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바라지 않아요. 내가 아직까지 갈 길이 남아 있다고 해서 생명을 걸고 죽을 자리를 찾아서 고개를 넘고 넘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유엔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다

부모를 잃어버리고, 왕권을 잃어버리고, 천하를 잃어버린 그 왕자의 모습이 뭐가 편안해요? 죽어서 묻히더라도 옆으로 묻히지 않으면 땅으로 거꾸로 묻혀야 돼요. 소원이 뭐예요? 아까운 게 뭐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있으면 한푼이라도 모아 가지고, 점심을 안 먹고 저녁밥을 아껴 가면서 땅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 이상 노력한 거예요. 일본 여러분의 피살을 팔아서 했더라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조국광복, 유엔의 나라를 내가 만들고 있어요. 내가 재창조해서, 더럽히지 않은 땅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성전을 짓고 천하를 해방하고 그 자리에 가서 경배 드리고 영계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원초성지·근원성지·승리성지예요. 그런 말을 들었어요? 남북한이 안 듣게 되면 잘라 버려 가지고 나라의 땅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수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모 앞에 효자가 되어야 할 텐데, 뭐 이려고저려고 할 게 어

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일본 사람이야, 어디 사람이야?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야, 하늘 사람이야? 「하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라고요. 아버지 아들은 마찬가지로요. 옛날에 사고가 생겨서, 전쟁이 생겨서 도망가고 피난 가서 양자로 입양됐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 핏줄이 같다는 거예요. 형제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얼굴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더라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밤을 새워 가면서라도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국경철폐와 뭐라고요? 「교차결혼!」 교차결혼이 뭐예요? 내년부터 축복할 때는 일본 사람끼리 결혼 못 해요. 원수의 나라하고, 미국 사람, 그 다음엔 중국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청일전쟁을 했지요? 소련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2차대전 이후에 일본 여자나 일본 남자들이 손해배상을 안 물어 줬어요. 패전국으로서 땅을 팔고 여자를 팔아야 돼요. 나라가 사방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방지했어요. 장개석한테 일본을 도우라고 한 거예요. 그것을 알아요? 죽어서 이런 나라 참 좋아할 거라고요.

일본을 분할시키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내가 지켜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안 했으면 4개국에 분할되어 4개 섬의 여자와 남자들이 이국 땅에 가는데 남자들은 종 새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망친 것을 재건시키는데 피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거예요. 여편네들은 흘러가는 은하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외국에 가서 달을 바라보면서 고향을 생각하며 눈물짓고 그 아들딸들이 한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인데, 문 총재가 방지했어요.

그것을 안 했으니 지금까지 2차대전 이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재차 평화기금을 모아야 할 때가 오는 거예요. 내가 유엔을 통해서 할 거라고요.

전승국가나 패전국가나 마찬가지로요. 형제끼리 싸우는 것은 타락의

보응이예요. 마찬가지로 가치로 보기 때문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참부모가 교육할 수 있게 나라의 터전을 닦고 새로운 심정문화를 창건하는 비용으로 각출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자라거든 2차 전쟁, 3차 전쟁과 같은 전쟁을 해서 죽는 것을 보면서라도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고 그 무덤까지 꽃이 나라고 축도를 하고 가야만, 형제가 생기고 나라가 조국 강토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봐야 하나님 앞에 전부 바쳐 드려야 할 참부모님의 소명적 사명이 끝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심각해요, 어때요?

죽을 자리에 있는 일본을 부활시켜 주려고 해

일본이 요즘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줄 알아요? 40년 동안 망하라고 별의별 짓을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일본 여자들을 데려다가 미국에 시집을 보내고 미국 국회에까지 심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라를 세울 때 선두에 일본 황족과 일본 수상들을 데려다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할 수 있는 미국 놈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장자를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예요. 알겠어요? 「예.」

잘났다는 일본 사람, 대학 교수가 왔더라도 나한테 입을 열어 가지고 바른 얘기 못 할 수 있는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선생님을 얼마만큼 생각했어요? 통일교회를 얼마만큼 생각했어요? 한국을 얼마만큼 생각했어요? 비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빚진 걸 갚아야 돼요. 갚으라고 해서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남한테 빚진 것을 갚는 것을 부활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죽을 사지에 있는 것을 부활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부활하는 것은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사랑하겠다는 그 사상 앞에 사탄은 보따리 싸 가지고 도망가야 돼요. 죽에

못 끼는 부끄러움이 있는데 어떻게 얼굴을 세워요? 자연굴복할 수 있는 환경이 되나 안 되나 보라 이거예요.

일본 황실의 귀중한 딸들이 한국 농촌에 들어와서 어부의 아내가 되고 농부의 아내가 되겠다고 자원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면 일본이 해방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생각들을 안 하잖아요? 나라의 황실이 못 하니 일본 백성들이, 잘났다는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황실권의 뿌리를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심각한 얘기에요. 알겠어요? 「예.」 통일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 여자 아니면 일본 여자를...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을 결혼시켜 준 거예요.

내가 이번에도 이스트 가든에서 참 놀란 것이 뭐냐? 미국 미인하고 일본 추남을 맺어 주는데, 추남도 키가 이렇게 작달만해요. 색시보다 작아요. 몸으로 보나, 모양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모두 기우는데 내가 그렇게 축복해 주면서 ‘네 남편이 미국 남자가 아니지만 미국의 어떤 미남 이상 사랑하고 잘 살아서 훌륭한 아기를 낳아라. 아기를 낳거든 흰둥이를 낳든 검은둥이를 낳든 생각지 말고 단 하나밖에 없는 인종 결실체라고 생각하고 사랑해라!’ 할 때 그러겠다고 한 거예요. 내가 그 아줌마를 —지금도 아줌마예요.— 볼 때마다 미안해요. 그래, 때가 되면 누구보다도 축복을 해줄지 몰라요.

오늘은 식탁에서 누군가? 「임성송입니다.」 그래. 아들딸이 일곱인 그런 사람인데, 왔나? 오늘 내가 식탁에서 상을 주고 왔어요. 선생님의 포켓에 있는 돈을 다 털어 주고, 여기서 이번에 축복받는 패들이 예물이라고 가져왔다는데 풀어 보지도 않고 전부 준 거예요. 보니까 6백만 원이더구만. 거기에 110만 원을 더해 가지고 710만 원을 몽땅 털어 주고 왔다고요. 포켓에 나중에 보니까 2백 달러가 있어서 그것까지 빼 주고 왔어요. (주머니를 뒤지시며) 포켓이 없네. (웃음)

그러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안 돼요. 안 하면 꿈자리가 사

나위요. 여러분이 아무리 피땀을 흘려도 내가 공짜 밥을 먹고 살지 않아요. 빚을 절대 안 저요. 일본 여자들이 전세계에 널려 있는데, 통일교회 일본 여자들이 유명한 곳에서 다 주인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알아요? 일본 대사관이 이제 축배를 들고 잔치하겠다면 나를 모실 수 있는 나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 선생님이 잘 살고 있어요, 못 살고 있어요? 「잘 살고 계십니다.」 잘 살고 있어요, 못 살고 있어요? 「잘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못 살았습니다.」 못 사는 것이 과거가 아니고 현재예요. 「잘 살겠습니다.」 (웃음) 말하는 것을 보니까 소학교 졸업장도 못 타겠구만.

그 다음엔 몇 번이에요? 「5번입니다.」 5번은 뭐냐? 뭘 것 같아요? 국경절폐와 교차결혼 다음인데, 다음이 뭘 것 같아요? 조국광복과, 그 다음엔 뭐일 것 같아요? 천국 뭐일 것 같아요? 「천국건설!」 「천국창건!」 천국창건! 건설은 있는 것을 갖다 붙이면 되지만, 창건은 만들어서 해야 돼요. 뭐라구요? 조국광복과 천국? 「창건!」 조국을 찾지 못하면 천국이 창건 안 돼요. 필사적인 소명적 책임이에요.

5. 조국광복과 천국창건

그래서 조국광복을 위해서... 그걸 찾아야만 입적이 돼요. 나랏님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수속해 놓은 것을 도장을 쳐서 국고에 저장해 놓아야 나라에 비로소 입적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안 돼요. 그게 큰 고개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할 때의 고개와 마찬가지로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장자권을 희생시켜야 돼요. 장자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는 대신 누가 희생해야 돼요. 가정적 양자의 피를 흘려야 할 것이 통일교회예요.

사탄세계가 첫 번째이고, 둘째 번 결혼이지요? 「예.」 이들이 피를 흘려야 돼요. 피를 흘리는 데는 순결된 피를 흘려야 돼요. 어머니가 더럽히지 않는 어머니로 용서받은 거예요. 더럽히지 않은 아들딸 가진

아벨이 하나되어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 가지고 더럽힌 어머니들을, 더럽힌 아버지들을, 더럽힌 아들딸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희생해야 돼요. 있는 정성을 다해야 돼요. 소원이 있거든 그것밖에 없어요. 남긴 모든 것이, 지금 고향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문제 아니에요. 출정한 병사예요. 알겠어요? 「예.」 출정한 병사라고요.

하늘나라가 처음으로 바라고 바라던, 고대하던 가정적 출정 명령이 나왔어요. 조국을 가정에서부터 뒤집어 박았으니 가정에서 다시 찾아야 할 하나님적 운명, 타락한 세계의 복귀 한의 운명, 부모님이 이 땅 위에 와서 잃어버렸던 실패의 인연을 다 해소시켜서 넘어가야 할 최후의 진격 명령이 천국창건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조국이 없어서는 안 돼요. 조국 위에 천국을 만들어야지요? 「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운명을 건 필생의 사명이예요.

자기 일족이 망하든가, 자기 아내가 죽든가, 자기가 죽는 것이 문제 아니에요. 오로지 이 마음이 앞서 가지고,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는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했는데 이것을 두고 말한 거예요.

이웃이 누구예요? 공산당이에요. 가인이예요, 가인!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지 않고는 조국광복이 안 돼요. 지상천상천국, 하나님을 해방할 수 있는 나라가 생겨나지 않아요. 나라를 연결시켜 가지고 민족을 극복하고 전통과 문화를 극복해서 천국을 창건해야 돼요.

천국창건의 사명은 나라를 가진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일본 나라가 천국창건을 할 수 있는 소명적 책임을 절대 질 수 없어요. 그 나라가 하늘 편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예.」 똑똑히 알지요? 「예.」 똑똑히 알고 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조국광복과? 「천국창건!」 조국광복은 뭐냐? 전세계 사람들이 남북통일운동을 해야 돼요. 그것이 끝나거들랑 자동적으로 유엔을 통해 가지고 천국창건시대가 와요. 그것을 뒤에서

준비 다 해놓고 있어요. 이제 교육이 끝나게 되면, 여러분과 같이 교육 하면 가인 나라와 아벨 나라가 하나되는 거예요. 유엔의 이름으로 교육할 거예요.

북한과 남한이 문 총재로 말미암아 하나되는 거예요. 하나님주의와 두의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부모로 말미암아 하나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국가초종교권, 절대유일불변영원한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 삼고, 수평 평화의 이상적인 참사랑만 가지고 하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나라가 있는 한 천국창건은 문제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자, 조국광복과 천국? 「창건!」 언제든지, 밥을 먹으나 자나, 변소에 가서 큰 것 작은 것 뽀어 내보낼 때도 힘을 주면서 조국 땅에 오줌을 싸고 똥을 찐다고 생각해야 돼요. 먹고 소화하고 힘이 남거든 천국창건에... (녹음이 잠시 중단됨)

어머니 나라로서 자기 피살을 세계의 젊은이들 먹이겠다고 해야

이 간나, 어디로 갈 거야? 이놈의 자식, 어디로 갈 거야? 창건해야 할 천국을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참부모에게 맡기는 거예요. 참부모에게 맡겨 가지고 수고시킨 것을 천만년 노력해도 값을 도리가 없는데, 또 불효 막심한 역적의 기수가 되어 가지고 죽을 수 없다 이거예요. 한의 구렁텅이를 매우고 높은 산중의 벼랑을 헐어서 평지, 태평세계, 자유의 세계를 만들고 죽겠다고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런 분이 아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서 동고동락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지요? 「예.」

내가 아버지로서 흥진 군에게 일을 맡긴 것이 참 가슴이 아파요. 대모님, 충모님한테도 말이에요. 50년 전에 하기도 남았을 텐데 이렇게 남긴 사실을 생각할 때 그들이 불쌍해요. 어머니 사진, 아버지 사진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어요. 아버지를 모셔 가지고 천하에 그 이름을 높이고, 어디든지 그 사진이 존경받을 수 있는 환경을 못 만들었어요. 아들이 책임 다 못 해 가지고 사진을 찾을 수 없는 사실, 분하고 원통해요. 여러분은 그래요. 참부모의 사진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입장이 행복한 것을 알아야 돼요.

북한에 다리를 놔 가지고 찾게 했는데 못 찾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조국을 잃어버리고 부모를 찾지 못한 것이 한이에요! 본연의 땅, 본연의 부모, 본연의 혈족을 잃어버렸던 그 한을 알아야 돼요. 똑똑히 알아야 되겠어요.

일본 여자들! 어머니 나라예요, 어머니 나라! 그 피살을 뽑아 가지고 세계의 젊은이한테 먹여 줘야 돼요. 뼈를 가루 내서라도 젊은이들의 터전에, 농토에 뿌려 가지고 비료를 만들어 주겠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잘먹고 잘살겠다고 총생축헌납기금도... 선생님한테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예요.

요전에 연설문 가운데 유엔의 이름으로 전부 갖다 결속시킬 것을 선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일본 나라에 들어가서 광고를 붙이고 총생축, 모든 나라의 집과 소유를 하나님 나라의 건국에 바치라고 해야 돼요. 당당하게 이제 유엔의 이름을 가지고 교육을 성사해서 문 총재 대신 얘기해 줘요. 안 할 때는 힘이 가중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여자가 타락했어요. 황무지가 되어 돌썩밭밖에 안 남고, 동경도(東京都)가 전부 무너질 수 있는 것을 자기가, 일본 사람이 노력해서...? 문 총재가 해외국가로 선정해 준 것을 요즘에야 알아요. 여러분은 알지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사람 손 들어 봐라! 알면 실천하라구요. 여러분의 피를 빨아먹지 않아요. 천배 만배, 세계가 여러분의 품에 품기는 거예요. 씨예요, 씨!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충고할 만큼 다 했어요. 하늘땅을 걸고 그 조

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있는 충성을 다 하라구요. 굶어 죽고 못 살게 되면 내가 땅 산 데, 남미에 오라구요. 땅이 없나, 밭이 없나, 과일이 없나, 곡식이 없나, 쌀이 없나? 소가 없나, 양이 없나, 돼지가 없나? 없는 게 없어요. 지금 사농은 땅만 해도 제주도의 열두 배예요. 서울의 20배예요.

남북통일의 가능성이 없으면 남한만으로도 할 준비가 돼 있어

*지금부터 선생님이 120만 헥타르를 구입하면 한국일본미국 독일 등 4개국 사람들이 협력해서 전부 다 6백만 헥타르 구입해야 됩니다. 그것을 유엔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기지로서 헌납할 것입니다. 선생님은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 편 가정, 국민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반도가 통일될 가능성이 없으면 북쪽은 잘라 버릴 것입니다. 남쪽만으로도 유엔의 국가로서 세계로 진출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문제없습니다. 몇 년 이후에 두고 보라구요. 선생님이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침묵을 지켜 오던 하나님의 입을 열어서 가르치게 한 사람이 문 선생입니다. 천국의 비밀장부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세계에 말이예요. 그것을 누가 훔쳐갈 수 있겠어요? 거기에 있는 테마들을 짜 맞추어서 천국의 기지를 건설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생님이 이루어 놓은 실적은 엄청난 것입니다.

일본은 그것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비자를 내주어서 문을 열어 주면 6개월 이내에 수습될 것입니다. 그만한 힘이 있다가구요. 유엔도 선생님이 손대기 시작해서 만 2년 만에 문 선생을 부정할 수 없는 기반을 닦았습니다. 멍청한 선생님이 아니라구요.

너는 어느 대학을 졸업했어? 「중퇴했습니다。」 왜 중퇴했어? 「헌신했습니다。」 몇 살부터 헌신했어? 지금은 몇 살이야? 「췌 돌입니다。」 지금이라도 유 티 에스(UTS; 통일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지?

말씀을 계속할까요, 이것으로 끝낼까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무엇이나? 여섯 번째지요? 다섯 번째가 조국광복과 천국 뭐예요? 「건설입니다。」 창건입니다. 조국광복과 천국창건, 알겠지요? 그 다음에는 혼독경...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6. 혼독경 원리 암기 완성

이 책을 암기하라 그 말이에요. 암기! 「혼독경입니까?」 경(經)이에요, 경! 이게 책이에요. 성경, 불경과 마찬가지로. 알겠어요? 「예。」

여러분 가정에 이것을 선물로 주는데 이제부터는 이것을 전부 따루(외우)라구요. 한국 말로 다 따루어서 여기 있는 말을 밥 먹을 때도 쓰고, 제사를 지내러 가든가 학교에 가서도 이걸 쓰고, 모를 것이 없게 되면 한국 말을 자동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매일 한 시간, 한 시간은 못 하더라도 저녁에 들어와서 할 것이 없으면 이걸 암기하라고요.

무슨 뭐? 화투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 「고스톱입니다。」 고스톱 할 시간은 있지만 혼독회 할 시간은 없다고 하면 벼락 맞아요. 밥 먹는 것보다 맛이 있어야 돼요. 죽었던 자기 아들딸이 살아나, 이 쌍것들아! 엄마 아빠가 밥보다 맛있게 먹게 되면 아들딸도 맛있게 먹어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가르쳐 줘야 돼요. 천년 사연이 녹아나기 때문에 부부도 막혔던 담이 다, 또 부자지관계에 막혔던 담이 다 와르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싫어하면 망해야지요. 알겠어요?

그래서 혼독경 원리 암기 완성해라 이거예요. 「혼독,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경, 경서라구. 「그 다음에는...」 원리 암기, 암송해라 이거

예요. 암기해서 암송하지요? 암기하기 전에 암송할 수 없잖아요? 암기하면 암송, 혼자서도 왈왈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읽어야 할 이것이 선생님의 80세 생애를 중심삼고 한 말이에요. 조국광복을 중심삼은 80세의 기념연설과 더불어 유엔에서 말씀한 이것은 우리 가정들에게 줄 수 있는 최후의 예물이예요. 그래서 ‘훈독경 원리 암기 완성’이에요.

또 하자고? 이게 너무 많다! 여기에 있는 것, 참부모님의 80세 생애에 대한 것은 안 해도 괜찮아요. 새천년 조국광복에 대한 모든 말, 여기에 다 들어갔다구요. 알겠어요? 조국광복하는데 새천년 선생님의 생일기념 전국대회를 다시 한 거예요. 이것만 알게 된다면 새천년 가운데 선생님의 필십 생애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알겠지요? 그건 빼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맨 나중으로 뭐냐? 7번이 뭐냐?

7. 가정맹세 실현화

가정맹세! 「가정맹세!」 실현화! 「실현화!」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구요. 가정맹세를 다 알지요? 첫째가 뭐예요? 조국창건! 둘째는 뭐예요? 효자충신·성인·성자의 도리를 세우자! 셋째 번은 뭐예요? 하늘나라의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족권을 완성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왕궁 법이 없어요. 왕궁의 전통을 세워 나가야 돼요.

그게 셋째 번이고, 넷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이상인 천주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찾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섯 번째는 참부모님의 대신가정으로서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이제 다 이루었으니까 하나님 대신해서 복을 빌어 줘야 돼요. 복을 빌어 주는 것은 뭐냐? 축복해 줘 가지고 아들딸이 하늘의 법도를 지켜 나가는 데 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시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그게 뭐냐 하면 순결 혈통이에요. 7번이에요. 본연의 혈통이라는 것이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순결 혈통이에요. 순결 혈통을 지켜 가지고... 그 순결 혈통은 위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자기를 위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태어났으니 그래야 돼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태어났고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태어났어요. 형님도 동생을 위해서 태어났고 동생도 형님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나라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태어났고, 가정도 나라를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위해서 태어났다는 그런 위하는 심정이 없어 가지고는 통일천하를 이룰 수 없어요.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원칙에 따라 많이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되기 위해 노력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어저께 말한 것, 그림자 없는 정오정착과 사랑의 제2 창조주 주인이 되라 하는 것은 이번 대회 말씀의 골자(骨子)예요. 그것을 어제 했구요. 그렇기 때문에 정오정착이라는 말! 정오정착과 하나님 대신 제2 창조주의 사랑을 남기고 가자 이거예요.

맨 마지막으로 7번이에요, 8번이에요? 「8번입니다.」

8. 천주적 정오정착과 제2 창조주의 참사랑 책임 완성

맨 나중은 뭐냐 하면 그림자 없는 정오정착, 천주적 정오정착과 하나님의 제2 사랑의 창조적 주인이 되자! 상속받았으니까 이래 놓아야 천상천국에 사랑을 이루어서 바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천국나라 상속이 틀림없다! 아멘! 「아멘!」

「8번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모르겠으면 옆에 물어 봐라. 나도

하도 머리를 쓰니까 머리가 왔다갔다한다.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안 들리면 죽어 물어 보라구. 「몰라요, 이 양반은!」 모르면 내가 이제 한 1년 있다가 알게 될 때 가서 생일이 되거든 와서 가르쳐 줄게. 「정오정착과, 정오가 뭐예요?」 정오를 몰라, 정오? 대낮을 정오라고 해, 정오!

천주적 정오정착과 제2 창조주의 참사랑 책임 완성하자 이거예요. 사랑을 못 했지요? 하나님이 만들어 준 모든 걸 헐고, 공해 문제, 환경을 파괴해 버려 가지고 제멋대로 한 거예요. 동물도 많이 죽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딸에게 최고의 선물로 준 것, 우리 가정 살림살이로 하려고 했던 것을 전부 죽여 버렸으니, 하나님의 제2 창조주가 되어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것을 하나님 대신 사랑을 해 가면서 살다가 천국으로 가자 그 말이에요.

사랑을 못 했지요? 「예.」 동네에 오는 까치, 요즘 한국에서는 까치가 손해를 입힌다고 까치를 잡아죽인다지? 걱정하지 말고 나라에서 까치가 1년 먹을 곡식을 준비해서 잘 길러 보라구요. 한남동에서는 비둘기 모이, 새 모이를 준비해서 언제든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를 지나가는 새들도 배가 불러 지나갈 때는 까치도 깹깹 하고, 비둘기도 구구구 하고, 참새는 짹짹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인사해요, 인사! 이야! 주인이 있게 되면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고맙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매일같이 먹을 것을 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까치를 보고 싶으면 한남동에 오라구요. 아침에 일찍 오게 되면 까치를 볼 수 있어요. 비둘기도 배고플 때에는 콩밭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있어요. 먹을 것을 주니까 전부 관심을 갖는 거예요. 동물들도 그렇게 길들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사람도 그렇게 길들이는 것 아니에요? 아기에게 젖 먹여 주면 다 ‘엄마, 엄마!’ 하지요? 엄마밖에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자, 알았어요? 「예.」 그러면 이제는 마음대로 가는데, 이것을 표준으로 해서 가보와 같이 여기라구요.

첫째는 뭐라고요? 「순결한 혈통…」 순결 혈통, 일심정착, 참사랑 실천 교육이에요.

교차결혼 시대가 올 것을 알고 해준 한일교차결혼

그 다음에 국경철폐와 교차결혼, 그거 중요한 거예요. 이제 사돈 맺기 위해서는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통일교회가 참 재미있어요. 서로가 싫어하는 사람끼리 틀림없이 사돈 됐어요. 그런가 안 그런가 찾아보라구, 이 쌍것들아! 거짓말인가! 저 집하고는 절대 죽어도 안 하겠다면 절대 사돈이 돼요. 알아보라구요, 그런가, 안 그런가.

유종영! 「예!」 네 사돈이 누구 누구던가? 홍성표! 「홍성표!」 또 그 다음에? 「김병우!」 누구? 「김병우입니다.」 박정해가 네 색시를 제일 좋아했지? 유종영을 제일 좋아했지? 「제일 싫어했습니다.」 박정해! 제일 좋아했어, 제일 싫어했어? 꿈같은 사실이에요.

그런 때가 오기 때문에, 일본 사람하고 내가 교차결혼시킨다고 할 때, 1988년에 2천여 쌍을 해주는데 구보키든 누구든 믿지를 않았어요. 이놈의 자식들!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안 되기는 뭘 안 돼! 해 버린 거예요.

해 버렸는데 그때 나리타의 비행기표라는 표, 한국 가는 비행기표를 옆에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빼앗아서라도 오라고 한 거예요. ‘당신, 어디 가?’ 해서 ‘한국 간다.’ 하면 ‘나 줘야 되겠어. 당신 아들이 이 시간에 결혼식을 해서 가려고 하는데, 비행기표가 없다면 주겠어, 안 주겠어?’ 해서 빼앗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빼앗아 온 거예요. (웃음) 여자든 남자든 전부 빼앗아 가지고 온 거예요.

이러니까 큰일났거든. 손님들이 다 기뻐 가지고 준 거예요. 그 말을 들어 보니까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안 줄 수 없어서 줬으니 일본 대사

관이 큰일났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손님들이 다 그렇게 했으니, 일본이 결혼하는 데 있어서 안 보내 주면 야만민족이 되는 거예요.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대사관 일족을 동원해서 한국 대사관과 일본 대사관이 눈감고 뽕뽕뽕 비자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것이 역사의 기록이에요. 그것을 알아요?

교차결혼한 사람 손 들어 봐요. 그런 사람들이 일본 나라의 한국 책임자로 가고 한국에 일본 책임자로 왔어요. 다 교차해서 일본 나라나 한국 나라나 마찬가지로요.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서 불평할 수 없는 수평시대를 맞이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하셨습니다.」

또 일본 여자들에게 물어 보기를 ‘한국 남자들이 와서 일본 교회를 책임지는 것하고 일본 남자들이 있어 가지고 일본 교회를 책임지는 것하고 어떤 게 좋아?’ 한 거예요. 일본 사람은 한 구멍밖에 모르지만 한국 사람은 사방으로 눈치를 살피면서 살아 남은 민족이기 때문에 눈치가 밝아 가지고 좋고 나쁜 것을 알아 가지고 방문해서 자기들이 염려하는 울타리를 다 무너뜨려서 ‘고맙습니다.’ 하는 것이 총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혼토(本當;정말)? 「혼토데스(本當です;정말입니다).」 혼토는 틀림없이 맞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말씀대로라는 것입니다.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그것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때 일본에서 한 말이 뭐냐? 케이 제이 패밀리(KJ Family;한일 축복가정), 제이 제이 패밀리(JJ Family;일일 축복가정)인데, ‘케이 제이 패밀리 이건 흑이다.’ 한 거예요. 복귀는 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류가 여기서 가지를 쳐 나가야 된다구요.

이제 남북통일을 위한 협조를 얻기 위해 교차결혼한 사람과 하나되어 교포를 자기 형님 집과 같이, 누나 집과 같이 모시는 날에는 일본

아낙의 배에 쌍태를 뱀 것을 해산할 수 있어요. 일본 배에 가인 아벨의 쌍태를 뱀 거예요. 리브가 배때기에 베레스와 세라의 쌍태가 뒤집어져 바뀌어 가지고 나온 것처럼 민단과 조총련이 원수가 되어 있는데, 조총련이 민단을 따라 들어오는 날에는 통일이 되는 거예요. 통일할 수 있는 놀음을 일본이 하지 않으면 망해요. 원리관이에요.

내가 오아마다 상한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교포들을 자기 안방에 모시고 일본 천황보다 더 높이 모시면 산다고 했는데, 거짓말을 해서 다 망해 버렸어요.

이것은 또 뭐야? 「물입니다.」 (물을 드심) 알겠어요? 마지막이 뭐예요?

그 다음에 가정맹세 실현! 완료! 아멘! 「아멘!」 박수하기 전에 우-와-, 한번 해봐요. 「우-와-!」 박수! (박수)

노래 잘 하는 사람, 얼굴을 들어라. 노래나 하나 듣고 가자. 배에 힘이 빠졌어요. 이게 원래는 박물관에 가야 할 건데, 일본 사람을 주면 좋겠지요? 내가 이제 조금 쉬어야 되겠으니 노래나 하나 들어 보지. 너 노래해라. 소리가, 목소리가 좀 왕왕 하니까, 해봐. *그 마이크는 안 돼? 이것을 빌려 줘?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한 일본 식구가 노래함) (이후 화동회)

강현실! 성 어거스틴하고 재미있게 사는 생활비결 보고대회입니다. (웃음)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아니야! 생활비밀 보고대회를 하라구. 얘기 좀 해줘. 노골적 얘기를 좀 하라구. (강현실 회장의 보고)

《참하나님의 조국광복》 책값을 가정과 일족 앞에 불려서 치러라

이렇게 영계의 사실이 복잡하지만, 그것이 이제는 정리되어 가지고 지식과 상식이 있는 사람은 현상세계, 오늘의 현실세계에 맞게끔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 놀라워요. 중간영계의 혼란스럽고 복

잡한 것은 모르더라도 그 세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복인 줄 알아야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예.」

나도 많은 얘기를 하니깐 목이 쉬려고 한다. 자, 이제는 다 끝났는데, 이것을 예물로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2000년 9월 26일 입적가정 기념교본 문선명 한학자, 참부모님이라고는 안 썼구만. 뜻은 다 알지요? 「예.」 그래서 《참하나님의 조국광복》 참부모님 말씀집, 그 다음에 뭐예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통일교회는 없어졌네.

통일교회가 그렇게 멋져요. 수십년 수천년 전통의 역사를 한꺼번에 뒤집어 박고 가정연합이 그 이상, 역사에 없는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시대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고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은 만민이 각자 생애에서 환영해야 할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종교의 문제보다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정들을 하늘땅에 전개해서 완성의 표준을 향해서 전진 전진을 다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그런 결과로서 무슨 입국이나 하면, 가정적 입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향을 찾고 조국광복을 할 수 있어서 천천만 역사를 넘어서 하늘나라의 방대한 그 세계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활동권 내에서 남기고 그 일을 보조 맞춰 가지고 하늘땅에 하늘나라의 뜻을 이루어 낼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 그것이 역사적으로 바라던...

「아버님, 마이크를 좀 높여 주십시오.」 마이크가 안 들리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손이 아파, 손이! 귀중한 말을 할 때는 목이 쉬고 그랬는데, 가만가만 해야지 크게 왕왕왕 하면 동네 사람들이 귀로 엿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알라구요. 너 잔소리 그렇게 하지 말라구. 부모님에 대해서 앉아 있는 녀석이 ‘아버님, 마이크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렇게 명령할 수 있나? 하나님도 명령 못 하는데. 알겠나? 「예.」

이제는 폐할 때가 왔어요. 이 책을 안 받고 싶은 사람은 안 받아도

좋아요. 그 대신 값을 치르려면 한 3억5천만 달러가 될 거예요. 그것도 싸지요. 그러니까 무료로 드릴 테니까 그 대신 그 값을 여러분의 가정과 일족 앞에 틀림없이 한 10배쯤 불러 가지고 치러 주면 여러분 동네와 여러분 친척들이 부자 아닌 부자가 갑자기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물을 안 주려야 안 줄 수 없게끔 되어서, 필시 주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 되어 있기에 준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고맙고 고맙고 고맙게 감사히 받아 주기를 간절히...

‘간절히’ 알아요? (박수) 가만 있어요. 지승도 할머니가 ‘간절히’ 하는데, 얼마나 간절한지, 간-, 아침에 했으면 점심때가 되어도 ‘간-’, 계속해서 열한 시, 열두 시 되어 점심때 저녁때까지 ‘간-’, 저녁때가 되어 밥 먹을 때 ‘절-’, 그 다음엔 열두 시가 되고 새벽이 되면 ‘절-히’, 하나님도 즐지 않게끔 ‘기도하나이다.’ 이랬다구요. (웃으심) 알겠어요? 한번 ‘간절히’ 해보자! ‘간- (숨이 넘어갈 때까지) 절- (숨이 넘어갈 때까지) 히 기도합니다.’ 그래요. (박수)

승도 할머니가 유명한 게 ‘간절히’예요. ‘뼈다귀가 다 줄어들어서 말라붙어 가지고 죽었다.’ 할 때 ‘절-’ 하고, ‘아이구, 이제는 갖다 공동묘지에 묻어야 되겠다.’ 할 때는 ‘히- 감사합니다.’ 한 세상 끝나고 다음 천국 갈 때 ‘기도합니다.’ 그랬다구요. 알겠어요? 「예.」 그렇게 간절히 한번 기도해 봐요. 그래도 이 책을 못 받고 갔다구요. 영계에 가서 이 책 받는 것을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또 옥세현 할머니도 그렇고, 할머니들이 그래요. 대모님도 이 책을 받았어요? 훈모님은? 훈모가 어디에 있어? 안 주면 못 받았지, 별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귀한 것으로 알라구요.

무한한 영양소를 가진 시비로운 돌 맥반석

예물을 하나 주는 게 좋아요, 둘 주는 게 좋아요? 「하나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우리 통일교회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인삼차가 있고, 그 다음엔 맥반석이에요. 알겠어요? 무슨 석? 「맥반석!」 맥반석이 참 신비로운 돌이에요. 그건 우리 통일교회만이 가졌어요. 그 돌산을 우리만이 갖고 있어요. 세계에 그런 돌산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좋지 않아요. 통일교회에 진짜 말씀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돌도 진짜 돌이 맥반석이라구요.

이 맥반석은 가물어도 물을 뿜으면서 숨უნ다는 거예요. 흙보다 좋지요. 쪼록쪼록 말라 가지고 먼지가 펄펄 날 텐데, 그 가운데에서도 축축하게 물 뿌린 환경이 되고 땅이 된다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기분 좋지요? 「예.」 참 좋은 거라구요.

그리고 고기를 기르는 그게 뭐예요? 수조(水槽)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물을 넣으면 보통 사흘에 한 번씩, 잘 해야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갈아주는데, 이 돌을 깔아 놓고 물을 가는 데는 한 달 만에 갈아줘도 고기가 안 죽어요. 알았어요? 이걸 만약 가루로 해서 농토에 뿌리면 수확을 배 이상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무한한 영양소를 지닌 돌이에요. 그 돌을 통일교회만 갖고 있다고 해 가지고 맥반석 장사하는 사람들이 도둑질해야 되겠다 해서 별의별 험박 공갈하면서 그 돌을 나눠 달라는 이런 혼란 와중에 있는데, 그래서 공장을 만들었어요.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어요. 이 가루를 옷에 뿌리면 균이 못 붙는다는 거예요. 관심 있어요? 여자들이 화장하는데 이 돌을 곱게 갈아서 화장품을 만들게 되면 화장하는 얼굴에 꽃이 핀다는 거예요. 늙은 할머니의 얼굴이 젊은 아가씨의 얼굴이 된다는 거예요. 관심 있어요? 「예.」

배고플 때 이것을 먹으면 배 안에 있는 모든 나쁜 것이 청소된다면 좋겠지요? 그건 아직까지 실험 안 해봤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실험을 해보라구요. 실험해서 성공한 사람에게는 특허권을 줄 테니까, 부자 중에 부자 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여기에 잠자고 있으니 특허권을 통일

교회에서 옮겨 줄 테니까 빼앗아 가기를 바랍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도 널리동동으로 세계의 부자 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구요.

맥반석 제품으로 정착하라

그래, 관심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거 하나 값이 얼마 될 것 같아요?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남의 말을 잘 듣고, 귀가 넓어 가지고 듣기만 하면 믿는 사람인데, 여기에 김형태! 「예.」 일어서. 저 사람은 절반은 거짓말 잘 한다구요. (웃음) 그 말은 선전을 잘 한다 그 말이에요. 진짜 내용이 백이었는데, 50을 가지고 백까지 선전하면 거짓말 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 저 사람은 선생님을 속이는 것이 제일 재미있을 거라구요. 무엇이든지 말만 하면 다 믿어 줘요.

이것 진짜야, 가짜야? 「진짜입니다!」 이 녀석아!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믿어? 그래도 믿으라고? 「참사랑...」 참사랑인지 거짓 사랑인지 냄새가 나나, 무엇이 나나? 모르지. 그러나 하나님은 선전하려고 그래요. 가만 보니까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내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구요. 그 맥반석 비누 화장품을 잊어버렸느냐고 하더라구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 보기 싫은 사람들에게 나눠 주라는 거예요. 장사 밀천이 되고 생활 밀천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공장에서 만든 가격보다도 싸게 나눠 줘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선생님은 가난뱅이가 되고 여러분은 부자가 되는데, 그런 불효 가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선생님도 조금 이익을 내고 여러분은 덜 이익 내도 괜찮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물건을 얼마든지 주문하더라도 물건이 많지 않

아요. 맥반석이 얼마든지 있지를 않아요. 진짜 맥반석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선물 중에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선물로 알려주세요. 맥반석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건강에 제일이라는 돌이라고요.

그러한 제품을 오늘 기념으로 나눠 주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이제 정착해야 돼요. 정착 해봐요, 정착! 「정착!」 정착! 「정착!」 못사는 통일교회 교인들이 잘사는 게 정착이요, 더 못사는 게 정착이요? 「잘사는 것이 정착입니다.」 잘사는 거예요. 잘살려면 앉아서 잠자야 되겠어요, 잠자면서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잠자면서 노력해야 됩니다.」 잠자면서 노력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잘사는 거예요. 안 좋은 물건이든 좋은 물건이든, 흠을 쥐고 팔더라도 잠자면서 노력하는 사람은 승리하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눈뜨고 노력하고 알고 노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자 중에 부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멘 해라! ‘아멘’ 해야지요. 「아멘!」 선생님이 한 값으로 줬으면 나는 백 값으로 팔겠다, 백 배의 복이 우리 집에 방문하느니라! 틀림없는 아멘이에요.

원기 없는 남자는 인삼 엑기스를 먹어라

통일교회 패들 중에 거지 패들이 많아요. 이 패들을 못살게 하는 게 좋겠어요, 잘살게 하는 게 좋겠어요? 「잘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놈의 간나 자식들, 선생님의 말을 안 들어 가지고... 신문사를 만들 때 신문을 팔면 정착해서 앞으로 국회의원 될 수 있는 판매국장이 된다고, 지방의 장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고 ‘해라, 해라!’ 했는데, 도망 다닌 거예요. 요즘에 세계일보를 보니까 사회 사람들이 출세를 했어요. 앉아서 먹고 살고 있는데, 이 도적놈의 새끼들은 말 안 듣고 도망가서 일본 사람들을 전부 쫓아 버렸다구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신문 5백 부만 갖고 지국을 만들었으면 먹고 살아요. 먹고만 살지 않아요. 동네의 유지가 된다구요. 그거 5백 집을 못 해요? 못 하겠어요, 하겠어요? 「하겠습니다.» 통일 정신을 가지고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는 녀석은 죽어야 돼요.

일본 말로 말하면 *바카는 뭐라구요? 「시나나카나오라나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구요? 죽어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난해요, 부자예요? 어느 쪽이야, 이 녀석들? 욕을 안 하면 대답을 안 하는 일본 녀석들! 가난뱅이야, 부자야? 「부자입니다.» 부자가 되어서 뭘 해요? 일본에 가 보면, 모두 다 조그만 하코(箱;상자) 방에서 살고 있어요? 하루에 밥을 여섯 번 먹는 사람은 없지요? 선생님은 젊었을 때 다섯 번을 보통으로 먹었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먹는 젊은이들도 없잖아요? 그래서 원기가 없어서 일본 남자들에게는 아기 씨가 없다는 소문이 세계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남자와 결혼하면 절반 정도 죽은 아이가 태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전에 축복가정들 가운데 아들딸을 못 낳은 여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봤더니, 한국 여자들은 29명이었는데 일본 여자들은 440명이더라구요. 왜 그렇게 되었어요? 남자가 약하다는 거예요. 보통 정자가 한번에 3억5천 개가 나오는 것이 의학적인 표준인데, 일본 남자들은 1억5천만에서 7천만 개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딸을 못 낳게 되는 거라구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싫더라도 한국의 인삼 엑기스를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들더라도 인삼 엑기스를 사 먹어야 되겠어요, 안 사 먹어야 되겠어요? 사토! 「사 먹어야 됩니다.» 뭐라구? 너는 인삼 엑기스를 한 상자도 안 샀잖아? 지금부터 사 먹어야 된다구!

네 아내가 몇 살이야, 지금? 마흔 넷이 아니고 쉰 넷이야? 마흔 다섯이라구? 정말이야? 너는 몇 살이야? 아들딸을 하나 더 낳을 수 있는

나이지? 지금 아들딸이 몇이야? 셋이라구? 아들은 몇이야? 「하나입니다.」 딸이 둘이야? 「하이.」 미국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낳을 수 있었지, 일본에 있었다면 그만큼도 못 낳았을 거라구. 알겠어?

정성을 다해 애국심에 불타는 신념을 갖고 나가면 하늘이 도와줘

일본 통일교회의 멤버들은 가난해요, 부자예요? 「가난합니다.」 여러분이 원해서 그렇게 되었어요, 선생님이 고생시켜서 그렇게 되었어요? 솔직은 정의와 통합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보라구요. 언제나 유 회장이 ‘켄킹(獻金), 켄킹, 켄킹…!’ 하는데, 감방에 갇히는 것도 켄킹(嚴禁)이라고 한다구요. 그렇게 유 회장이 강요해서 가난해졌어요, 자연히 그렇게 되었어요? 어느쪽이에요? 둘 가운데 어느쪽이에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대답하라구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아니고? 「하이.」

선생님이 헌금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헌금에 대한 말씀은 하지만, 어느 한 사람을 지적해서 헌금하라고는 하지 않았다구요. 통일교회 멤버라면 모두 다 헌금하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만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구요. 여러분의 선배들은 여러분 이상의 전통적인 역사를 남겼다고요. 여러분과 비교해서 얘기하면, 여러분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전통적인 내용을 확대시켜 나가지 못하고 축소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지금부터 그렇게 가난한 통일교회 멤버들이 정착해 가지고 4년 이후에는 나라가 놀랄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은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지요? 이런 말은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기분 좋다고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론이 틀려요, 맞아요? 그 이론이 맞다면 박수를 치라구요, 박수! (박수) 일본 멤버들의 박수 소리가 크기 때문에

미래의 희망이 없지도 않다! 또 박수를 쳐야 되잖아요? (박수) 이 박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 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알겠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감사의 말을 남길 줄 아는 사람이 최후에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후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는 사람은 천운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주위에서 아무리 떠들더라도 그렇게 떠드는 이상 정성을 다해서 애국심에 불타는 신념을 가질 수 있게 되면 반드시 하늘이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늘의 도움은 아무리 도둑질해서 은행에 많은 돈을 저축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선생님은 빈손으로 이만큼 이루었습니다. 선생님이 삼팔선을 넘을 때 ‘남북통일은 내 손으로 이루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소서!’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박수) 그것이 남북의 삼팔선이 아니라구요. 천지의 삼팔선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하나로 만들어서 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게 원했던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때가 목전에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삼켜서 소화시키지 못할 것이 없다는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 멤버들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1년만 가 있으면 전부 다 탕감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요, 믿고 싶어요? 그것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달리면 마라톤의 챔피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천하가 인정할 수 있는 결론은 통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국경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이.」

무엇이든 진정으로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늘이 이뤄 줘

지금은 저녁때가 아니라 아사메시마에(朝飯前;조반 전, 매우 쉬움)

지요? 히루메시마에(晝飯前;점심 전)예요, 아사메시마에예요? 아침밥은 먹었지요? 점심 전, 한낮이니까 잊어버리지 않겠지요? 그렇게 분명하게 알고 실천해 가지고 정착완료가 일본 땅 어디든지 틀림이 아리마셴(ありません;없습니다), 아리마스(あります;있습니다)? 셴(せん)! 「셴! 셴(千)이 좋아요, 만(万)이 좋아요? 「만이 좋습니다.» 천만의 승리자는 천만의 고생 끝에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못 하겠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무엇이든지 못 하겠다고 하는 데 경계선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 하는 것이 없습니다. 선생님은 그러한 주의입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그 이상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선생님이 유엔을 요리해야 된다고 하니깐, 모두 다 ‘그것은 어렵도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푼도 도와주지 않더라도 선생님은 당당하게 전진해 나간다고요. 그렇다고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사기를 치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틀림없이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요전에 누군가가 ‘선생님의 은행이 있으면 돈을 얼마든지 맡기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던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선생님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안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안 받아들이십니다.» 알겠어요? 「하이.»

카다피라든가 북한의 지도자들도 선생님의 친구라고요. 쿠바도 그렇다고요. 지금은 말이에요. ‘문 선생, 쿠바에 한번 오시겠다고 환영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리비아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지요?

북한의 김일성이 문 선생한테 반해 가지고 ‘영국의 은행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 맡겨져 있는데, 문 선생의 은행이 있으면 그것을 전부 다 문 선생의 은행에 맡기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은 ‘그런 돈은 필요 없다. 그 대신에 네 피와 땀과 눈물로 노력해서 번 돈이라

면 한푼이라도 사탄적인 돈 억만금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겠다.’ 했습니다.

어머니의 돈이 아들딸이 주는 돈보다 수십 배의 가치가 있어

선생님이 4개월 동안에 120만 헥타르의 땅을 샀습니다. 돈은 어디서 났어요? 돈은 하나님의 은행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사는 것은 어떻게 샀느냐? 모든 나라가 곤란해진다구요.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선진국들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련, 중국, 미국 등 전부 다 문 선생한테 잡아먹힐까봐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러한 국가들이 방과제를 만들어서 문 선생을 못 들어오게 했지만, 그들의 아들딸을 전부 다 불러 가지고 교육했습니다.

문 선생이 그들을 교육해 가지고 미국을 중심삼고 중국과 소련을 3형제로 묶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중국과 소련이 ‘미국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하고, 중국에 가면 소련과 미국이 ‘중국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하고, 소련에 가면 미국과 중국이 ‘미국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만세!’ 합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천재들이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청소년들의 범죄를 예방하고 가정의 파탄을 막기 위한 세계 평화 교육을 위해서 매진하겠다고 합니다. 박수! (박수)

그런 것을 미국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가운데는 일본 사람들보다 부자들이 많이 있다구요. 그 부자들 가운데 문 선생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돈을 받아야 되겠어요, 해외국가가 책임을 다해서 도와주겠다는 돈을 받아야 되겠어요? 어느쪽이에요? 어머니가 주겠다는 돈과 아들딸이 주겠다는 돈이 있다면, 그 아버지는 어느쪽의 돈을 받아서 써야 되겠어요? 어머니가 주겠다는 돈을 받아서 쓴다구요.

만약에 아들딸이 주겠다는 돈을 받아서 쓰겠다고 하면, 그 어머니한테 물

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 아이의 돈을 받아도 좋소?’ 할 때 그 어머니의 지갑 속에 돈이 있으면서도 그 돈을 받아도 좋다고 하는 어머니가 참어머니예요, 거짓 어머니예요? 「거짓 어머니입니다.」 ‘아, 그것은 아직 받아서 쓰면 안 돼요. 내 지갑 속에 있는 돈을 꺼내 써요! 내 지갑 속에 돈이 없으면, 그때 저 아이의 돈을 받아서 써도 좋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인 어머니 나라가 주겠다는 돈에 흠이 묻어 있고 그 돈이 다 구겨진 것이라도 그 돈을 아들딸이 주겠다는 돈보다 수십 배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뜻을 위하고 아버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역사적인 전통을 뒤집어 박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마리도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평화의 세계를 위한 기반이 닦아지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하이.」

나중에는 그 어머니가 돈이 없어서 금이빨까지 뽑아 주면서 아들딸의 돈은 받아서 쓰지 말라고 한다면, 그 어머니는 죽더라도 영원히 아들딸의 가슴속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머니와 같은 민족은 영원히 세계의 역사에 남을 수 있는 민족이 되고 역사를 움직이는 민족이 될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릇된 생각이예요, 옳은 생각이예요? 「옳은 생각입니다.」 정말이에요? 「하이.」

그러면 어머니의 입장에 있는 일본 멤버들을 더 고생시키지 않으면 안 될 아버지의 입장이 된다는 것인데, 그것을 부정해요, 공인해요? 「공인합니다.」 그것을 공인한다면 박수를 한번 크게 쳐 봐요! (박수) 아, 됐다구요! 아, 힘도 없는 가난뱅이들이 점심도 안 먹고 신경질적으로 쓰러지면 곤란하다구요. (웃음) 그렇지만 그 말씀의 내용과 그 내용을 실천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는 분명하게 알았지요? 「하이.」

네 남편이야? 「하이.」 둘이서 싸우면, 네가 안 지지? 그러면 어떻게 해? 네가 이기지, 언제든지? 네 입이 빨라서 저쪽에서는 꿈쩍도 못 할 거라구. 그렇게 입 싸움을 하면, 언제든지 네가 이기지? 그렇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되어서 배가 아프지? 그런 성질이 있어, 없어?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야? 정말이야? 「하이.」 너도 인정해? 「인정합니다.」 너는
 한국 사람이구나, 이놈아! (웃음)

성약시대의 약속은 축복

총생축헌납제예요, 헌납물이에요? 총생축헌납제라고 하면 소유권을 결정하는 조건물이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물을 쪼개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렇게 피를 흘려서 죽은 것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시대가 지났습니다. 지금은 성약시대로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대인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 하면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되지 못했던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묶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탄이 모든 것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다 빼창코(べちゃんこ; 눌러 납작해진 모양)가 되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집시의 무리가 되어 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눈물겨운 2천년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카타콤에 가 보라구요. 그 당시의 지하도시가 얼마나 비참했던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카타콤을 알아요? 일본 사람들은 관광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알고 있지요? 그러한 지옥 밑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 나왔다는 사실이 위대한 것입니다.

일본 멤버들인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야오요로주(八百万; 수가 아주 많음)의 신, 조상신을 모시면 돈을 번다고 생각하지요? 지상 천국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러한 일본도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본래는 절대 유일신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면 절대로 붙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선생을 만났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거라구요. 알겠어요?

지상의 신들은 전부 다 문 선생의 고봉(子分; 부하)입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는 물어 보라구요. 예수도 고봉, 석가도 고봉, 공자도 자동적으로 고봉이 되었으니까 잡다한 야오요로주노카미(八百万の神; 못신들)는 고봉 중의 고봉이라구요. 패잔병의 야카라(糞; 똥거리)들밖에 없습니다. (웃음) 아, 정말이라구요.

이제는 이런 말을 하면, 모두 다 ‘우와, 우리 세계에 빛과 같은 왕자가 강림하셔서 모두 다 축복해 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참부모의 명령에 따라서 전진해 보라구요! 그러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배짱을 갖고 나가면 일본에 기적이 일어난다

선생님의 얼굴은 철면피입니다. (웃음) 철면피를 알아요? 도다이(東大)의 졸업생뿐만 아니라 훌륭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쪽 앉아 있는데, 선생님은 철면피의 얼굴로 못 할 소리가 없이 다 하는 것입니다. 도다이(燈臺)는 밤에나 필요한 것이지 이와 같은 낮에는 필요 없대구요. (웃음)

선생님은 대낮의 왕자라구요. 일본의 지식과 미국의 지식뿐만 아니라 천하의 모든 사상을 부정하는 챔피언으로서 숭배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런가 안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한다면 천하가 어제와는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본래는 있을 성싶지 않았던 것이 있을 성싶게 된 그런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라구요. 알겠어요? 「하이.」

지금부터 일본에 기적이 일어난다구요. (박수) 누구든지 아버님 이상으로 큰 배짱을 가지고 더 훌륭한 지도자가 되겠다고 결심할 수 있게 된다면 아버님보다 뭐예요? 더 훌륭한 기적의 세계가 찾아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가 된대구요. 그것이 가능한 말이에요, 불가능한 말이에요? 「가능한 말입니다.」

정말이에요?

(판서하시며) 이것이 쪽 가 가지고 이렇게 넘어져 버리면 뭘 해요, 이게? 상대가 없어요, 상대가.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이 가(可)에 이렇게 해서 ‘나라 국(國)’의 가운데 입(口)이면 ‘돌 회(回)’ 자가 되지요? 무엇이든지 조금만 시작하면 습관이 되어서 빙빙빙 돌아서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절대로 망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영원히 발전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해서 깃발을 들고 전진할 수 있는 승리가 될 것이다! 「아멘!」 (박수)

자, 대답해 봐요! 된다! 「된다!」 된다! 「된다!」 선생님은 안 된다고 한다! 「된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안 된다고 하는 선생님이 잘못이다. 된다!’ 해야 된다구요. 한번 더 해봐요! 안 된다고 한다! 「된다!」 된다!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요? 언제든지 속기만 했던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슬퍼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돌아갈 몸이라면 속 시원하게 해 놓고 돌아가야 됩니다. 알겠어요? 「하이.»

그렇게 정착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선생님의 책임이 얼마나 크지 않지 않지 않을 것이냐? 아, 선생님이 잊어버렸습니다. ‘않지 않지 않을 것이냐?’ 했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알겠지요? 「하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될 선생님임에 틀림이 없지 않지 않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중한 명령을 지금부터 내리지 않으면 정착할 길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몽둥이로 때려 몰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축복 때 숫자가 모자라지 않게 필리핀 여성들을 전도하라

요전에 올림픽대회의 야구경기에서 한국팀이 일본팀을 7대6으로 이겼지요? 선생님은 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да구요. ‘일본과 한국이 앞으

로 어떤 면에 희망이 있을 것이냐?’ 해 가지고 말이에요. 어떤 방면이든지 희망이 있으면, 세계적인 시장으로 끌고 가서 적당한 가격만을 알아보고 와 가지고 여러분에게 맡겨 주면 여러분이 일본에 가서 팔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가 된다구요.

선생님이 그렇게 시켜도 오쓰카 같은 대가리들이 못 하면 선생님이 앞장을 설 거라구요. 꺾 선생, 박 선생, 그리고 황선조 같은 선생님의 고봉들한테도 ‘안 되면 데리고 와, 선생님이 요리할 테니까!’ 한다구요. 선생님이 그렇게 잘 하지요? 아무도 못 하는 것은 선생님이 선두에 서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두에 서 가지고 개척해서 승리의 깃발을 세워 나온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인식되어 있지 않다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 「하이.» 이 예쁜 여자, 고맙다구요! (웃음) 꽃이 핀다구요. 향기 높은 희망이 풍겨 나옵니다.

생각해 보라구요! 선생님이 노망이 들어 가지고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60년, 70년 전에 배운 일본 말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일본 박물관의 최고 상석에 모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구요. 알겠어요?

한국의 늙은 선생님이 옛날에 배운 일본 말을 젊은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업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그러한 사실을 죽도록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알겠어요? 「하이.» (박수)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생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조건이라도 세우고 죽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일본열도가 태평양의 밑바닥으로 흘러가 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6천 미터 위에 서 있는데 옆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전부 다 태평양으로 내려앉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것은 틀림이 없지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보다 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열도가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태평양의 방파제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시아의 대륙이 침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방파체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선생님이 보호해 주고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은 통일교회가 망해야 된다고 하는 소리 같은 것은 절대로 할 수 있다! 절대로 뭐라고요?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정말이에요? 「하이.」 말로만으로써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책임자들이 책임을 다 못 했기 때문에 필리핀을 누이 동생으로 세워 주었습니다. 다음 번에 축복해 줄 때는 일본의 여자들을 총동원하더라도 한국 남자들의 수에 비교하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축복가정마다 필리핀 여자들을 한 사람씩 전도해서 한국 남자와 축복시킬 준비를 하라고요. 이것은 선생님의 지시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것이 무슨 결혼이라구요? 「교차결혼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두 다 붉은 골수가 새하얗게 되도록 날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면 기억을 못 하는 거라고요. 일본 멤버들, 알겠어요? 「하이.」 일본 사람들이 한국, 중국, 소련, 미국까지 침범은 잘 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는 무엇이든지 반대하는 챔피언입니다. 과거 일본의 위신을 탕감복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승리의 깃발을 들 수 있는 왕녀로 만드는 것이 참아버지의 명분

선생님이 그 이상의 것을 이루지 않으면, 일본은 하나님 편 해외국

가로서 이 땅 위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흘러가 버리게 될 거라구요. 이것은 이론적입니다. 그러니까 싫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한 번, 열 번, 서른 번 이상이라도 투입해 가지고 감동시켜서 그 이상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세바나루 `나니고토모(なせばなる `なにごと;하면 된다, 무엇이든지)…? 「나사네바나라누(なさねば成らぬ;안 하면 안 된다).」 나니고토모나라누와히토노(なにごと成らぬは人の;무엇이든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람의) 뭐라구요? 「나사누나리케리(なさぬなりけり;하지 않기 때문이로다)!」 나사누나리케리! 어쭙잖은 한 하이쿠(俳句)의 시인도 그런 소리를 했는데, 하늘의 딸들이 그렇게 못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하이.」

아무리 무자비하게 차 버리더라도 최고의 승리적인 깃발을 들 수 있는 왕녀들로 만드는 것이 참아버지로서의 명분을 세울 수 있는 책임입니다. 뭐 점심시간이 지나서 배가 고프더라도, 이럴 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와카레마시타!’ 해요? ‘와카리마시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라구요! 「와카리마시타!」

아이구, 저 아주머니 같기도 하고 아가씨 같기도 한 얼굴이 새빨강게 되도록 ‘와카리마시타!’ 하는 모습에 반했습니다. (웃음과 박수) 지금 몇 살이야? 「마흔 아홉입니다.」 마흔 아홉이야? (웃음) 너무 젊잖아! 네 얼굴을 보니까, 선생님의 누이동생 같구만! 그렇게 젊으니까, 선생님이 일본에 가서 프로포즈를 한번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웃음) 너무 나이가 젊다구! 그거 나쁜 것이 아니라구요. 아무리 프로포즈를 하더라도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요?

저 할머니도 시집을 갈 때는 미인이라는 소리를 들었겠지요? 그런데 머리가 하얗게 세어서 미인의 얼굴이 저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의 앞이 산이 깎인 것처럼 보이는 거라구요. 아래 부분이 넓어져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검게 되면 이쪽이 좁아지기 때문에 계

란과 같은 미인형의 얼굴이 계속 유지될 수 있으니까 전도를 하더라도 주위의 남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꿈무늬를 따라온다구요. 그러면 전도하기 쉽습니다. 알겠어요? 「하이.」

통일교회의 여자들은 매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밤낮으로... (어린 아이가 엄마를 부르는 소리) 왜 그래? (웃음) 엄마를 찾는구만! 자, 알겠어요? 「하이.」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십시오)

맥반석 제품 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어

이것이 뭐냐 하면 화장품이에요. 이것은 맥반석 비누예요. ‘아이구, 문 선생은 장사까지 하려고 한다.’ 하겠지만, 아니에요! 생활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 「선생님, 바지에 침이 묻어 있습니다.」 침? (웃음) 내 침이 묻어 있으면 괜찮다구. (웃음) 할아버지의 침을 손녀의 볼에 발라 주면 일평생 못 잊는다구요. 시집을 가더라도 말이예요. 우와, 어...! (웃음과 박수)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십시오) (박수)

이것을 내가 써 보니까 참 좋아요. 내가 써 봤다구요. 내가 써 보지 않으면 절대 얘기를 안 해요. 인삼차니 무엇이니 전부 써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주님이 거짓말하면 통일교회는 뺨 날아가지요? 알겠어요? 「예.」

형태! 「예!」 선전비 줘야 돼. 이 박스, 이것은 일본에 팔기 위해서 특별히 주문 받아 가지고 만 상자를 만든 거예요. 일본에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스톱시킨 거예요. 일본 여자들이 여기 다 있는데, 왜 일본에 가져가겠어요? 장사 훈련한 사람들인데.

이것을 내가 이제 외국 나가서 없더라도... 김형태! 일본에 파는 값이 얼마야? 「5천 엔입니다.」 *소매가격이 말이예요. 이것의 원가는 천 7백 엔입니다. 그렇게 주문했기 때문에 3백 엔을 비용으로 생각하고

2천 엔으로 그것을 보내면 5천 엔을 받고 팔면 좋다는 거지요. 매달 이렇게 하면 엄청나다구요.

2천5백 엔으로 백 집이면 얼마예요? 「25만 엔입니다.」 2백 집이면 얼마가 돼요? 「50만 엔입니다.」 일본에서는 보통 사람들의 월급이 50만 엔에서 60만 엔이 평균이잖아요? 여자들은 그 이하지요? 그러니까 2백 집이면 나누어서 하면 좋을 거라구요. 그 다음에는 한국에서 맥반석의 가루를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나누어 주려고 생각한다고요. 알겠어요?

전세계에서 몰려오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 비누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점을 내게 되면 무사하게 정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입적하고 돌아갈 때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정착의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선물로 나누어 주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은 선생님이 없다고요. 지갑을 보라구요. 없다고요. (웃음)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이어서 한 간부의 구체적인 제품 설명)

선전에 속지 말라구요. (웃음) *써 보고 좋거든 선전하라구요. 선전을 너무 했다가는 선생님이 장사치의 오야붕(親分;두목)이라는 소문이 난다고요. 알겠어요? 물건이 좋다는 소문이 나야지 돈 벌게 만들어서 소문나면 망해요, 망해! 알겠어? 「예.」 앞으로 이것이 일본에서 조직적으로 가능하면 인삼차도 그렇고, 신문배달은 문제없을 것입니다. 알겠어요? (*부터 한국어로 말씀하심)

일본의 세카이닛보(세계일보)가 큰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난뱅이의 세계일보가 아사히나 요미우리도 문제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돈을 못 번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훈련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련만 받게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유 피 아이(UPI)의 신문사도 여기에 포함된다구요.

가정방문 판매조직을 갖춰 판매하면 핸드레이징 안 해도 돼

그리고 남극에서 생산되는 크릴새우의 가루도 식품으로 유명하다고요, 지금. 이것은 무진장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전체가 이것을 전부 다 판매하려고 생각하더라도 판매할 수 없는 양입니다. 세계가 전부 다 주목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맛이라는 것이 대단하다고요. 한번 훑아서 맛을 보면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유명한 회사들이 전부 다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빨리 만들지 않으면 큰 일나는 거예요. 그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러한 가정방문 판매조직을 갖추게 되면 크릴새우의 분말도 식량으로서 세계의 어디든지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핸드레이징을 하지 않더라도 춤추고 놀면서 살 수 있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서 통일교회를 선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고생했지만, 앞으로 그러한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맞추면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싶어한다는 것을 선생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준비한 것입니다. 알겠어요? 「하이.」

모두 목숨을 걸고 하라고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겠습니다.」 한 개씩 줄 테니까, 열두 개씩을 주문하라고요. 모두 다 주소를 써 놓으면 그 주소대로 회사에서 보내 줄 것입니다. 그것은 제작비의 절반 가격이라고요. 한 상자에 1만 엔입니다.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얼마야? 8백 원이야, 8천 원이야? 「천 원입니다.」 아니, 전부 다 말이야! 한 박스에 얼마야? 「여기서 천2백 엔에...」 그러니까 열 박스를 하게 된다면 만2천 엔이야!

*본래는 열 박스를 보내면 2만 엔 정도인데 만2천 엔에 주는 거예요

요.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주는 것이니까, 그것을 박스당 5천 엔에 팔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봉사적으로 제공해 줄 테니까 주소를 쓰고 만 2천 엔은 안 내면 안 됩니다. 그것까지 선생님이 전부 다 지불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 아들딸들이 멍텅구리가 됩니다. 기생충이 된 다구요. 그러한 사람은 교회, 선생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일본열도까지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하이.」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벌게 되는 돈은 선생님이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들딸들을 위해서 일본에도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 필요하지요? 지금까지는 미국에 그러한 준비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일본 쪽이지요? 그런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모자란다구요. 브리지포트 대학 같은 것을 잘 만들었지요? 미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알겠어요? 「하이.」

그러니까 모두 다 받아 가라구요. 이 앞에 있는 책도 기념으로 가지고 가도 괜찮아요. 선생님이 이것을 나누어 주라고 명령했으면 선생님의 할 일은 다 했으니까 물러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는 사요우니(さよう;그렇게)... 사요우니(左右;좌우로) 줄을 서서 도쿄나 한국의 어딘가로 떠나라! 남편은 섬나라, 오쿠상은 대륙의 땅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둘이서 손을 잡고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겠어요? 「하이.」

부인과 자녀가 하나돼 남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여러분의 아들딸과 삼위일체가 되어서 아버님을 중심삼고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천사장인 아빠가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하는 오쿠상과 아들딸을 믿는 데 있어서 선생님과 하나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남편과 아들딸이 하

나되어서 사위기대를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편으로 돌아왔다는 조건이 세워지는 거라구요. 그것이 원리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인과 아벨입니다. 자기 자신의 아들딸을 한국에서 전도한 아들딸과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맺어 주어 가지고 그 어머니와 하나된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 말미암아 아담가정에서 아담과 해와, 그리고 아들딸이 갈라졌던 것을 하나될 수 있도록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을 하나님 편에 참부모를 통해서 헌납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완전납입이 결착됩니다. 이게 원리관이라구요.

여자들은 남편을 잘라 버리면 안 된다는 거라구요. 그렇게 되면 큰 일입니다. 그러면 입적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 돌아가면 남편은 천사장처럼 아내와 아들딸을 위해서 활동자금을 전부 다 보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참부모의 가정과 더불어 여러분의 가정이 형제권으로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모든 재산과 아들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수습해서 헌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소유권이 본래의 하나님한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환경을 넘어서 종족과 민족을 넘어가면 국가가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국가가 정착되면 그 이하의 것들은 전부 다 단번에 수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어요? 「하이.」

모든 것을 원리대로 맞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마음대로 왔다갔다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본으로 돌아가면 3단계, 책임자와 지부 그리고 본부를 통해서 선생님의 명령에 따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옛날처럼 전화를 해 가지고 ‘아, 아이들 돌보기가 힘드니까 빨리 와! 임지는 신경을 쓰지 말고 빨리 오라구!’ 할 수 없습

니다.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아빠의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하이.」

엄마의 명령에 따르고 아들딸과 하나된 사람이 아니면 참부모의 가정을 따라서 하나님 편에 헌납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편에 헌납되는 데 있어서는 참부모가 받아 가지고 헌납하는 것이지, 자기 혼자서 헌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원리관이라구요, 원리. 원리에서 가르쳐 준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늘 편에 영원히 합격할 수 없다는 것은 이론적입니다. 알겠어요? 「하이.」 하이? 「하이!」 저쪽에 알겠어요? 「하이.」 들려요? 「하이.」

모두 다 분명하게 대답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면 모두 다 싫어할 테니까 선생님도 물러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미마생데시타(すみませんでした; すみません<미안합니다>의 과거)! 스미마생(すみません; 살지 않습니다)이라고 하면 죽어 버린다는 말이라구요. 집에 살지 않는다면 뭐예요? 죽었다는 말 아니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지난날보다 더 굳건한 결심을 하고 돌아가면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니까 그러한 결심으로 돌아가 주기를 바랍니다. 하이? 「하이!」 무(無) 하이, 비(非) 하이, 부(不) 하이? 「하이!」 유(有) 하이! 「하이!」 그럴 경우에는 그냥 ‘하이’ 하는 것보다 ‘유 하이!’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유 하이!」 (웃음)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십시오)

너는 한국 여자야? 얼굴이 넘적하구만! 「딸이에요, 아버님!」 아, 떡판같이 왜 생겼나 했더니 거기에 앉았구만! (웃음) 자, 그렇게 알고...

남편은 부인의 생활비를 대줘야

*일본으로 돌아가는 남자들은 한국에 남아 있게 되는 아내가 굶어죽지 않도록, 돈이 없어서 낙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일본에서 남자들은 피골이 상접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아내들이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남편으로서의 시메이(使命)이라구요.

‘시(シ)’는 죽을 사(死)가 아니라 무엇을 시킨다는 사(使)입니다. 알겠어요? 「하이.」 키스를 하고 싶다고 했지? 「하이.」 뭐야, 이 녀석! 지금이라도 빨리 하라구! 박수를 하라구, 박수! (박수)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십시오) (박수)

자, 자기가 나머지는 모두 처리하라구. 「예, 알겠습니다. (김형태 회장)」 내일 아침엔 내가 안 와도 되나, 와야 되나? 「아버님 뜻대로 하십시오. 오늘 저녁에 오는 팀이 모레 아침까지 옵니다. (곽정환)」 모레 아침까지 와? 「예.」

오늘 저녁 몇 시까지 오나? 「일곱 시입니다.」 일곱 시면 내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네. 점심도 안 줬지? (웃음) 일본 간나 자식들이 미워서 점심을 안 먹이고 보내고 싶어. 이게 제일 문제거리 여자 남자들 이야. (웃음) 그래, 이 쌍것들아! 그래 놓아야 내가 속이 후련해진다구요. 한 번 더 할까? 그래, 이 쌍간나 자식들아!

자, 만세 해봐요. 「만세!」 만세 해봐요. 「만세!」 죽어도 만세! 「만세!」 살아도 만세! 「만세!」 죽어도 만세! 「만세!」 살아도 만세! 「만세!」 죽어도 살아도 감사 만세! 「만세!」 통일 만세! 「만세!」 (박수) (경배) 「감사합니다!」 (박수) *

4차 아담권시대와 우리의 갈 길

(《영계의 실상과 지상생활》 제3장 2. '삼대상 목적과 부부 완성'부터 혼독)

《지상생활과 영계》는 영계를 파악한 결과를 보고한 내용

『.....사위기대란 하나님을 중심삼고 주체와 대상이 서로 하나되어 그 기반 위에서 자식을 번식하는 터전을 말한다. 하나님의 창조목적의 근본 토대 위에서 주체와 대상의 뜻에 맞춰서 자녀로 지음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테두리 안에서 잘 성장하여 본래 원하셨던 바의 뜻대로 창조이상을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주관주가 사탄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사탄 주관권으로 화한 세계가 하나님 주관권의 세계로 완전히 복귀될 때 하나님이 본래 원하셨던 이상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복귀섭리를 통하여 천국건설의 뜻을 지상에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을 찾아오셨다. 따라서 지상 인간들은 자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품속에 바로 오게 될 때 하나님을 중심삼은 영원한 천상천국의 세

2000년 9월 27일(水), 한남국제연수원.

* 이 말씀은 아침 혼독회 때 하신 것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저것을 상헌 씨가 원리를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계 자체를 파악해서 되어진 결과를 보고한 내용이에요. 그것이 원리 말씀과 내용이 같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지요. 자, 읽으라구.

『……지상에 계시는 참부모님은 지상만의 참부모가 아니라 천상천하의 참부모이시므로 영계의 영원한 안식의 주인, 천국이상의 주인공이 되신다. 따라서 영계에 있는 모든 계층별 수많은 영인들은 참부모님이 영계에 오셔서 이루시게 될 이상세계 건설을 기다리며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간다.』

참부모가 영계에 가서 할 일을 이제 흥진 군에게 맡겨서 하는 것입니다. 그저께인가? 「예.」 24일부터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완성한 사위기대는 위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모신 자리에 정착해

『……하나님 앞에 본연의 참사랑으로 인도되어 나아가려면 참부모님으로부터 축복받은 부부가 사랑을 통해 축복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번식하여 사위기대를 이루어야 한다. 참사랑이란 하나님을 중심하고 부부가 하나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될 때의 모습을 말한다.』

이번 수련회의 전체 표제가 뭐예요? 「사위기대 입적 축복식」입니다. 사위기대, 뭐라구요? 「입적 축복식입니다.」 역사적 삼시대! 「전환 일체권 축복식입니다.」 삼시대를 넣어야지, 삼시대. 「삼시대 대전환 사위기대 일체권…」 삼시대 대전환 사위기대 입적 통일 축복식이에요. 삼시대 대전환 사위기대 입적 축복, 사위기대 전환 입적 일체권 시대라는 것입니다. 전환하는 시대예요.

입적이 벌어져야 일체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계 육계 일체권, 입적 일체권 시대예요. 사위기대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

은, 창조이상 완성은 사위기대 완성이예요. 사위기대 완성은 위하는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을 모시는 그 자리에서 정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안전해요.

정착하면 그림자가 없어요. 빛뿐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빛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위기대가 하나되면 하나로 보인다고 그러지요? 핵이 하나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보이지만, 그것이 상대적 권을 대해 나오는 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대상목적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원리에 나오는 사위기대니 삼대상목적이니 하는 것을 추상적인 명사로 알고 있었는데, 영계에 가서 그 실상을 보면서 사실 내용을 다시 선생님한테 보고한 것입니다. 선생님이 가르친 원리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그렇게 안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혼동회 하는 것은 모임에 참석하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예요. 여러분의 심령 기준이 문제예요. 빛은 투시하는 거예요. 물도 그렇고, 공기도 그래요. 사랑은 투시하는 데 있어서 첫째예요, 첫째. 틈이 있으면 사랑은 어디든지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성도 이걸 확대시킨 것으로, 하나를 중심삼고 보이지 않지만 부서를 보면 별나라와 마찬가지로요. 공간은 하나님으로 보면 몇천 리, 몇만 리...

그리고 사랑의 속도는 제일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하는 사랑을 가지고는 안 통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내용이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지요? 원리 말씀으로 가르쳐 준 것하고 같아요.

그래, 존재하는 것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걸 부정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영계에 가 보면 부정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의 그 공식 조건, 환경과 같은 데에 박자를 맞추게 돼 있어요. 거기에 안 맞추면 멀리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가라, 말아라 하지 않

아요. 자동적으로 가서 맞춰지는 것입니다.

동물세계나 식물세계나 사랑할 줄 모르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모르는 존재가 없지요? 생식기가 날갯죽지에 있는 것이 있고, 별의별 놈이 다 있지만, 미물의 동물들도 서로서로 사랑하고 하나되어 가지고 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자기 종자가 존속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축복받았다고 다 된 것이 아니다

『……만일 부부가 하나되지 못하고 자녀가 하나되지 못할 때는 완전한 참사랑의 빛을 발하지 못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참사랑은 무한히 주고받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연상한다. 하지만 참사랑은 하나님을 중심하고 완전 일체의 사위기대가 이루어진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축복을 받지 못하여 중생하지 못한 자는 참사랑의 대열에 동참할 수 없다. 또한 천국에 올 수 있는 티켓도 없다. 모두가 축복의 대열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축복받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구요. 축복받았다는 것은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은 거예요, 문. 문만 열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축복의 내용의 완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받아 가지고 다 됐어요? 임자네들, 축복받을 때 다 됐어요? 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문을 열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요.

그래, 통일교회에 들어올 때보다 정성이나 신앙의 기준이 얼마나 희미해졌느냐 이거예요. 희미해지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요. 그건 가운데 있다가 거친(밖으로 드러난 쪽)으로 나가서 나중에는 희미해져 가지고 태양 빛을 생각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아침저녁으로 부정하게 되

면 완전히 태양 빛과 사시계절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시계절의 운행하는 법도 세계, 하늘나라의 법도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축복받았다고 해서 하늘나라 본궁에서 줄을 걸어 가지고 원치로 감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축복받은 사람들이 가는 낙원이 생겨난 거예요, 축복받은 사람들의 중간영계가 있고. 이번에 대혁명을 하는 것은 ‘낙원철폐’예요. 낙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대합실이에요. 가서 기다리는 곳입니다.

축복을 받았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받은 낙원 세계, 축복받은 중간영계, 축복받은 지옥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을 철폐하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패들이 자기가 가야 길을 안 가고 있어요. 자기 멋대로, 가정도 자기 멋대로, 사는 것도 자기 멋대로, 나라도 자기 멋대로 하다가는 못 간다구요. 알겠어요? 「예.」 36가정 축복받았다고 간판 붙은 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갈 길을 못 간다면 더 거꾸로 되는 거예요. 더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자기 행동에 달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 내가 축복받았는데 왜 천국 못 가느냐?’ 해서 그 천국에 가 보면 자기가 맞지 않아요. 높은 영계에 가겠다고 해서 높은 영계에 가 보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빛깔이 달라요. 맞지 않고 어울리지 못하니까 그 이상의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래, 진짜 천국 갈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없다구요. 축복받아도 들어갈 수 없다구요. 그래서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창조할 때 하나님도 그런 자리에서 창조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랑한 것이 없어요. 자기를 중삼삼고 믿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오정착이 되어 그림자가 없어야 하나님의 자녀 자리에 가

그러니 하나님을 대해서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해야 돼요. 자기를 중심삼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삼고 그림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없는 가운데 믿는 기준, 위하는 그 기준이 하늘나라의 본체 기준과 맞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 존재가 가서 줄을 걸고, 갈고리를 걸고 잡아당겨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걸었다고 잡아당겨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물이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줄을 잡아 가지고 전부 다 자기가 자라요. 클 수 있게 잡아당겨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라야 돼요. 자기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탕감복귀하는 선생님도 그래요. 하나님이 선생님이 가는 길을 줄을 걸어서 감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마음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조금만 빛이 어두워도 빛의 표준이 어디인지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상대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오에, 대낮에 얘기한 것이 뭐예요? ‘정오정착(正午定着)’이에요. 그림자가 없어져야 돼요.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는 하늘나라의 본궁의 자리, 하나님의 정면에 있을 수 있는 아들딸의 자리에 못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과제예요. 가정을 품고, 가정을 데리고 영원히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알면 밥 먹기가 미안하고, 쉬기가 미안하고, 놀기가 미안한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짧은 인생 행로에 막대한 세계를 타고 넘어가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올림픽 마라톤 코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장애물 코스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기가 모든 경기는 장애물 코스를 없는 것같이 거친 자만이 상을 받지요? 그렇지요?

마라톤을 하더라도 그 거리를 없는 것처럼 출발해서 평준화시켜서

뛰면 되는데, 그렇게 뛰는 사람은 없지요? 힘이 소모됐지만, 내려갔지만 내려갔던 것 자체가 자기 힘으로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뛰어 가지고 거기에서 죽으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뛰고 더 뛸 수 있어야, 더 올라갈 수 있어야 내려갔다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운동을 영원히 계속해야 돼요. 뭘 가지고 계속하느냐? 사랑, 위하는 사랑을 가지고. 그래야 내가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기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 가지고 뜻길을 간다고 별의별 짓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나라에 가면 그 뒤에서 살던 보파리가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척 보면 대번에 아는 거예요. 또 얼마만큼 신앙생활 했는지, 몇 년 동안 얼마만큼 수고한 과정에 그것이 취소되어 자꾸 올라가서 부정되는 기간에 얼마나 수고했는가 하는 것을 대번에 알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 가지고 그와 더불어 모시고 위하면 환경이 나를 돕고 나를 위로 끌어 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윗사람들을 모시고, 윗사람들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있는 사람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도 그렇잖아요? ‘뭘 사다리를 올라가고 그러냐?’ 해보라는 거지요. 사다리가 있으면 사다리로 가야 되고, 다리가 있으면 건너가야 되고, 줄이 있으면 줄을 타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산정을 정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이치는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된 모양대로 찾아가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3대 문제

그래, 언제나 여기 책임자들은 주의해야 돼요. 자기가 편리하면 국가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런 국가 재산 약취

가 벌어져요. 공금을 유용하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혈통문제고, 그 다음에는 공금문제예요. 그 다음에는 인사조치문제예요. 자기가 책임지고 있다고, 저 녀석 보기 싫다고 해서 마음대로 했다가는 그 후손이 자기 조상보다도 높고, 나보다 높을 때는 그 조상들이 ‘이놈의 자식!’ 하고 가는 길을 막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돼요. 언제든지 원리 원칙을 중심삼고 보더라도 고맙다고 생각하게 해야 돼요. 자기 후손들을 올바르게 지도해 주기를, 천년 만년 그래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데는 올바른 길이 없어요. 위하려고, 위해 주려고 하는 데서... 그러면서 아는 것을 다 넘겨 주고, 모르는 것은 같이 개발해야 됩니다. 책임자에게 책임이 많으니만큼 한 치라도 선두에 서서 개발해야 돼요. 개발한 그것이 내 것이 아니예요. 자기 일족과 자기 민족, 자기 나라를 위해, 애국하는 것으로 넘겨 줘야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 앞에 바로 가르쳐 줘야 돼요. 심각한 길이에요. 짧은 인생길인데 못 맞췄다가는 큰일납니다. 틈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화살을 쏘면 여기에서 타깃과의 그 길을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그냥 따라가야지, 조금만 벌어지면 난데없는 데로 빗나가는 것입니다. 빗나가 가지고는 아무리 거기에 가려야 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갈 길을 찾아야 돼요. 돌아오더라도 제멋대로 꼬부라지고 끝이 무더졌는데 될 수 있어요? 영원히 걸리는 거예요, 누가 다시 만들어서 바꿔 주기 전에는.

바꾸는 데는 화살촉이 있고 화살대가 있으니 촉을 바꿔 주고 대를 바꿔 줘야 되는데, 촉을 누가 바꿔 주고 대를 누가 바꿔 줘요? 영원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 부모의 자리에 메시아가 오면 그 부모가 대신 그 일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다 열어 놓고 다 만들어 주는데, 싸 가지고 맞출 표적도 있고, 가는 길도 알고, 훈련도 시

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맞춘 것은 자기 자신의 공로라는 거예요.

절대신앙·사랑·복종의 논리가 아니면 이 길을 갈 수 없어

그래, 올림픽 대회에서 챔피언이 되면, 세계의 모든 선수들이 규격, 그 모델에 일치될 수 있는 거예요. 상하전후좌우, 원형으로 어디를 보더라도 틈이 없게 적중할 수 있는 내용의 기준을 갖추어 가지고 행동해야만 가는 것이지, 자기 의식이 있어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쓴 사람이 의식할 수 있어요? 화살이 의식할 수 있어요? 본래의 기준에 맞게, 방향에 맞게 출발해 가지고 목적지까지 가야만 목표를 격파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치가 마찬가지예요.

숨쉬는 것도 그렇고, 눈도 내 마음대로 깜박깜박해 봐요. 코도 내 마음대로 숨쉬어도 한꺼번에 움직이게 돼 있지 않아요. 전부 다 그래요. 입술도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손도 하나 가지고는 박수를 칠 수 없어요. 협력해야 돼요. 바른손은 왼손이 있고, 왼손은 바른손이 있으니 서로가 위해 줘야 돼요. 힘을 쓰더라도 서로가 더 쓰겠다고 해야 큰 것을 오래 들 수 있고, 무거운 것을 쉽게 옮겨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치가 그래요. 상대적 기반이 전진적 확산과 상승을 하지 않고는 전부 다 하락,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떨어지기 시작하면 끝장이에요.

그래, 여러분도 한번 잘못하면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몇십배 노력해야 돼요. 아무리 효도를 했더라도 부모에게 한번 반항하면 그것이 다 깨져 나가지요? 이렇게 올 때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올라오더라도 옛날의 심정을 갖출 도리가 없어요. 반대했던 것은 언제든지 틈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물질이 들어와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이라는 논리를 세우지 않고는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그 세계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신앙하면 이렇게는 못 올라가더라도 이렇게라도 올라가는 거예요. 절대 사랑하지 못하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운의 때가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면 시대적 운세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참부모를 중심삼고 하나님의 뜻 성사, 우주적인 환경을 개척하는 그 시대적 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올라가면 그 시대적 권에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론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망상이 아니예요. 이론적으로 돼 있다구요.

사랑의 위대함을 가르쳐 주는 것은 상대

자, 그거 읽으라구. 여기가 청파동이에요? 청파동이 아니고 한남동인데, 한남동에 선생님이 오면 다 오지요? 선생님이 있으나 마나 여러분의 갈 길에 온갖 정성을 다해야 돼요.

누가 본다고, 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탕감 길은 누가 본다고 하는 것도 아니요, 누가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나 자신을 구해야 되고, 영원히 나 자신을 밝히면서 내가 한 것을 전후좌우상하, 구형적으로 봐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증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놓은 것, 결과가 된 것은 하나님이 하늘나라 창고의 구석에 놓더라도 저나라에 가면 내 것으로서 소유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뛰라는 거예요. 뛰는 것도 쉬지 말고 뛰어요. 쉬지 말고 노력해야 됩니다. 쉬면 틈이 생기는 거예요. 밥벌이니 무슨 어떤 것도 다 부정해야 돼요. 그런 것은 다 부정해야 돼요. 뭐 먹고 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중에 없어요. 그걸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저나라 하나님 앞에 가면 먹고 사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같이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체가 돼 있잖아요? 저나라에 가 가지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창조적인 능력을 어디에서든지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다 되는 것입니다. 환상적인 모든 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못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알겠어요? 「예.」

사랑이 위대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상대예요. 자기 아내고, 자기 아들딸이고, 자기 부모예요. 부모들은 당연하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왜 저럴꼬?’ 할 만큼 있으면 다 주고도 더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구요. 형제들도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형제는 중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상을 중심삼고 세계 전체가 알게끔 해서 전세계가 그걸 알고 인정하면 중심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중심 존재를 다 알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중심 자리에 서게 되는데, 이걸 동서남북으로 아무리 부정하려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이미 긍정이라는 것입니다. 벌써 긍정했다는 거예요. 상현 씨도 말한 것처럼 ‘상현아!’ 하고 부르면 몸 마음이 녹아 내리는 사랑의 분위기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기가 의식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돼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남석의 플러스 마이너스, 에스(S)극 엔(N)극이 당기는 그 힘을 못 보지만, 이 물건이 가는 것을 볼 때 힘이 작용한다는 걸 알아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힘이 빠른 작용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전체에서 이미 하나님이 작용하는 동기가 돼 있기 때문에 구조적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가운데서 벌써 사랑을 중심삼고 부르는 그 음성은 전체를 포괄하고도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위하는 사랑, 하나될 수 있는 사랑의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못 돼도 그 방향, 중심만 딱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전기도 그렇잖아요? 전기선이 100볼트면 플러스 마이너스 100볼트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예요. 원래 발전소의 전기는 36만 볼트예요. 그것이 송전을 통해서 3천 볼트로 내려가고, 트랜스를 통해서 100볼트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36만 볼트를 넣으면 다 타 버립니다. 줄까지 타 버려요. 그러니까 타면서 나는 그 빛이 얼마나 밝았겠느냐 이거예요.

상헌 씨도 하나님의 사랑의 광채가 나면 나를 덮어 가지고 실체까지 잊어버리는 환경의 상태로 들어가지만, 그 가운데에서 알 수 없는 빛의 줄기가 나를 찾아와 가지고 신비로운 경지로 몰아넣는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100볼트가 돼 있는데 36만 볼트가 와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그 목적이 강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경지에 서 있는데, 100볼트에 있는 기준의 감정을 가지고 그 근본 것을 측정해서 알 수 없어요. 무한한 힘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거예요.

참사랑의 하나님과 하나되면 우주의 핵이 돼

그래서 이런 것을 현상적으로 결과를 표현할 길이 없어요. 빛으로 나타나는데 오색가지 빛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지요? 빛이 나타나는데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유리알 체와 마찬가지로예요. 알겠어요? 프리즘과 같이 조건만 갖추면 다 다른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천만 가지 빛으로 다 비쳐지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천 사람 앞에 나타나도 빛이 전부 다 같지 않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 프리즘에 따라 달라요. 각도가 다르고 생긴 모양이 납작하든가 해서 굴절의 차이를 가지면 거기에 나타난 대상적 빛

은 천태만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영계가 그래요. 신령한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야단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 깨져 나가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논리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상하 전후좌우에 마음의 상충이 없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대변에 문제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하는 것은 도적놈이에요. 이놈을 때려잡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영계의 어디에 가서 깨져 나갈지 몰라요. 영통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구요. 가리를 못 잡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런 체험이 필요하지만, 자기 자체를 중심삼고 완성하기 위해서 프리즘과 같이 다른 각도를 중심삼고 하나님이 맞춰 주는데, 그것이 전체가 아니에요. 자기 자체를 보면 자기가 제일 좋은 빛으로 보이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도 지금 사랑도 있고, 생명도 있고, 혈통도 있지만, 그걸 다 못 느끼고 내가 제일 좋은 줄 알아요. 그것이 제일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찾아가야 할 입장이에요. 이동해서 높은 데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 우리 몸도 1제곱미터에 1기압이 작용해 균형이 돼 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것입니다. 딱 가운데가 돼 있어요. 자기 기준에서 못 느끼지, 우주 기준에서 못 느껴지는 것이 아니에요. 힘의 차이가 있으면 대변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왔다갔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사랑의 하나님과 하나되면 우주의 핵이 되는 것입니다. 우주가 아무리 크더라도 핵의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전부 다 균형이 돼 있기 때문에 못 느낀다구요. 하나님도 그렇기 때문에 느끼기 위해서는 부체가 있어야 돼요. 핵과 꺼풀 된 것이 있어야 돼요. 과일도 그렇지요? 씨를 중심삼고는 전부 다 껍데기가 있지요? 그것이 전부 다 연합해 가지고 씨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통해 사랑이상의 핵심이 돼 있는 것입니다. 복숭아라면 복숭아씨도 먹는 몸뚱이와 돌이 하나돼 가지고 씨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씨가 결실하게 되면 껍데기는 전부 다 썩어지는 것입니다. 비료가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생을 마치고 죽는 것은 자연으로 환원되는 것입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려주고 가야지요. 돌려주려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 현상이예요. 현상세계, 자연계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이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빌려 쓰던 땅을 얼마만큼 좋은 땅으로 만들고 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알겠어요? 주변을 좋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이... (녹음이 잠시 중단됨)

마음은 최고의 재판장

그래, 매일같이 자기가 뭘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지요? 말하면 자기가 옳은지 그른지 모르고 얘기하나요? 못 속여요. 못 속인다구요. 알면서 사는 사람이 고집했다가는 큰일나요. 영원한 쇠사슬에 자꾸 감겨요. 그거 벗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벗겨 줘요? 천년 만년 가야지요.

자기들도 다 알지요? 둘이 말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지 속이기 위해서 말하는지 마음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 손 들어 봐요. 틀림없이 알지요? 「예.」 그러면 됐어요. 마음이 나에 대한 최고의 심판자, 재판장이예요. 다른 데에 물을 필요 없어요. 어머니 앞에 물어 볼 필요 없어요.

어머니보다도 훌륭한 재판장이 내 마음이에요. 스승보다도, 나라의 재판장, 하나님보다도 훌륭한 재판장이 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알겠

어요? 다 보배를 줬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거꾸로 덮어놓았어요. 몸뚱이가 마음을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사탄, 공산당 유물론이 유심론을 전부 뒤집어 박은 거예요.

그래, 앞으로 노동조합은 다 없어져야 됩니다. 영계에 노동조합이 있겠어요? 공산세계에도 노동조합이 없잖아요? 소련에 노동조합이 있어요? 북한에 노동조합이 있어요? 그거 하면 모가지가 재까닥 재까닥이에요. 민주세계를 파괴시키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에요. 민주세계를 가정적으로 파탄시키고 말이에요.

공산당은 전부 다 종교 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전부 다 사탄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독재의 주체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까지도 세상에! 그것이 성립될 수 있는 거예요? 저나라에 가면 근본적으로 나라까지 한꺼번에 그 밝은 빛 가운데서 일시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일시에 뺄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사랑의 원수가 있을 수 없고, 참의 원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빛 앞에 어두움이 대치해서 벽을 남겨 놓고 설 수 있어요? 그림자는 그림자를 따라가야지요. 빛이 끝까지 비추게 되면 그림자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림자 있는 생활을 하지 말라

여러분은 그림자 있는 생활을 하지 말라구요. 그래서 '정오정착(正午定着)'이라는 것을 이번에 선포했어요. 그거 훌륭한 말이에요, 정오정착. 이걸 그림자가 없어요. 몸 마음이 하나되고, 가정의 사위기대가 딱 하나되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버지의 그림자가 동쪽 서쪽으로 돼 있고, 어머니가 잘못하면 그림자가 다른 곳에 생기고, 네 식구면 네 식구가 정착하지 못하면 빛이 혼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요? 자식한테 가겠어요, 남편한테 가겠어요, 아들한테 가겠어요?

그림자가 있는 데는 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오정착이에요. 개인시대가정시대영원시대... 저나라에 가서도 말이에요, 그림자가 있으면 안 돼요. 그림자가 없는 데서 개인부터 천주까지 8단계의 수직선을 왕래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림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림자가 생기겠느냐 이거예요. 순결 그 자체지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순결된 피를 원해요. 누구나 다 그림자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가리려고 하지요? 그렇지요? 그게 원수입니다. 국경선이에요, 국경. 국경철폐는 정오정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앞에 비사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이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선생님 앞에서 약속을 못 하면 반드시 자유롭지 않지요? 돌아서려고 하지요? 옆으로 서려고 하지요? 그건 국경선이 생긴 거예요. 선생님은 그런 것을 대변에 알아요. 그 면을 중심삼고 사탄하고 싸워 나온 무엇이 있기 때문에 벌써 척 보면 알아요. 그거 안다고 생각을 안 하지요.

그러니 심각해요, 심각해.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죽은 것, 일가, 일족, 나라가 전부 다 깨져 나가는 그 자리는 천지가 깨져 나가는 자리예요. 하나님, 선생님의 그 입장이 얼마나 비통하겠는가 생각해 보라구요.

하나님이 왜 슬프냐?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와 아들딸, 부자지관계, 부부관계에 있어서 전부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일가, 일족이 아니에요. 일국, 천주가 깨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사랑이상 전부를 파탄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나라를 가졌다가 나라를 잃어버리면 그것도 죽고 못 살고 별의별 놀음이 벌어지는데 나라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사랑의 이상을 지옥, 파괴적

인 어두움으로 가뒀 버리는 것이니 하나님의 오관에 느끼는 감정이 얼마나... 기절하고도 남아요.

황선조는 생각하겠지? 선생님이 한마디하면 눈물을 찔찔 짜고 말이야... 무엇이 섭섭해서 울어? 그런 것을 모르지? 하늘땅을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뭐 6천년이 뭐예요? 몇천만 년이에요.

보라구요. 동물들도 고래 같은 것이나 상어 같은 것도 2억5천만년의 역사를 가졌어요. 2억5천만년으로 잡아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 주인인데, 그 모든 것을 다 지어 놓고 주인을 2억5천만년씩이나 기다렸겠어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런 고통의 역사를 넘어 나오면서 슬픔을 제거할 수 없었어요. 제거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위하는 사랑의 세계에서는 무불능통이지만, 위하는 사랑이 아니예요. 반대적인 입장이니 자기가 부정하는 자리예요. 부정하는 자리에서 행동해 가지고 긍정이 나오지 않아요. 위해서 사는 것이 우주의 근본임에도 불구하고 위하는 것의 반대 입장에서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자리에서 긍정적인 존재를 세워 나온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느낄 수 없어요. 긍정적인 상대가 있어야지요. 지금까지 부정적인 상대 가운데 고통의 왕의 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핏줄이 하나된 아들딸이라면 종적·횡적 책임을 질 수 있어야

그래, 이런 것을 알고 상대적 입장에서 책임지고 눈물지어 가지고 위로하니...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들이 불효하게 된다면 동네의 아주머니, 동네의 젊은 사람이라도 대신 알고 위로해 주고 눈물짓게 되면 친구가 되지요? 마찬가지로요. 평면적인 측근을 대신하면 수직적인 친

구가 되는 거예요. 아들딸이라는 것은 수직적인 책임도 질 수 있고, 평면적인 책임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양면의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핏줄이 하나된 아들딸이예요.

하나님은 종적인 슬픔, 횡적인 슬픔을 느끼는데 자기를 중심삼고 ‘아이고, 하나님 복 주소!’ 하고 얼마나 복 받기를 기도했어요? 수많은 종교인들이 ‘복을 주소, 복을 주소’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왜 못 이루어 줘요? 입장이 반대니까. 햇빛이 나타나면 그림자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림자 입장에서 햇빛을 바라니 햇빛이 나타나면 그 자체가 부정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도 가르쳐 줄 수 없고 저 멀리서 바라보는 거예요.

민약 도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옆에 앉으면, 시대적 권내의 도인들이 전부 다 여명의 빛, 햇빛이 다 떠오를 수 있는 입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은 저 골짜기 너머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여서, 이쪽은 햇빛이 비치는데 햇빛이 저녁때에나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쪽에 오려면 밤을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밤을 거쳐 가지고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아침이 오게 되면 뒤에 서야 돼요. 어디까지나 위하지 않으면 살길이 없어요.

또 정상적인 도의 길을 가려면 위해서 투입해야 앞에도 내가 있지, 위하라고 하면 없는 것입니다. 없는 세계를 자기 것으로서 쥐고 나가려니 그것도 고통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사탄세계에 천지운세는 아담해와의 16세까지의 사랑의 씨를 심어 주어야 돼요. 거기에 자꾸 보탬으로 말미암아 시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탄이 점점점 후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핏줄이 하나돼 가지고 사랑이상, 사위기대 이상을 가정적인 환경, 모든 자연과 평준화될 수 있는 기준이 되면 사탄은 아예 후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시대 사위기대 입적 통일축복식’은 하늘땅을 평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안 될 수 없어요.

지금은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계가 사탄 이에요. 나라를 만들게 되면 나라의 중심이 안 돼요. 이것이 평면 기준에서 세계로 넘어갈 수 있더라도 중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중심은, 나라만 세우는 날에는 평면 기준의 이것이 쪽 천주까지 왔으면 대번에 통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반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한 일을 이렇게 고개를 넘을 수 있는 때가 왔기 때문에 흥진 군에게... (녹음이 잠시 중단됨)

조국광복을 위한 준비

지금 유엔의 땅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주권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을 중심삼고 축복받은 가정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도 가정들이 단위지요? 지금은 나라가 없어요. 그래, 남북의 통일을 8대까지 바라 왔어요, 8단계까지.

그래 가지고 세계적으로 환경 여건을 다 만들어서 고향에 돌아올 때... 참부모가 싸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싸우게 되면 따로 내 땅을 만들어서 유엔의 기지를 만들기 위한 것이 이번의 선포라구요. 알겠어요? 부모님이 그 일을 했으니 대한민국이 120만 헥타르의 땅을 자기네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사라는 것입니다.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래요. 그래 가지고 600만 헥타르의 땅이 되면 한국일본미국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조국광복을 해야 됩니다. 조국은 반드시 주권이 있고, 백성이 있고, 땅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땅은 북한 땅, 남한 땅 이거로는 안 된다구요. 한국 땅에 뭐 자라요? 산이 75퍼센트나 된다고 그러잖아요? 75퍼센트도 넘지요? 이런 땅을 놓고 싸우고 피 흘리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120만 헥타르를 중심삼고... 120만 헥타르면 제주도의 8배예요. 대한민국의 4천만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해야 돼요. 국경지대의 땅을 나라가 안 내놓게 되면 내가 유엔을 물고 늘어져서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완충지대는 3억 평밖에 안 됩니다. 3억 평이면 얼마예요? 120만 헥타르가 36억 평이니까, 몇 배예요? 12배, 12배예요. 그렇지요?

그런 때가 왔어요. 그러니까 영계 육계를 싸잡아 가지고 영계가 왔다 갔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갔다가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가다가 떨어지고, 가다가 떨어지고 이게 자꾸 높아졌지요.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이제는 끝날이 돼 가지고 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다 알아요. 해가 어디에 떠 올라온다는 걸 다 안다구요. 그걸 넘어서게 된다면 나라를 갖고 넘어가야 됩니다. 알겠어요? 나라가 없으면 못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사탄의 경계선에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터 놓으면 전부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을 이긴 날에는 나라는 본래 인간이 가야 할 나라예요. 그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 조국광복이 얼마나 엄청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천년 만년 죽지 않고 경계선을 지키고 싶은 하나님을 천년 만년 추방해 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 나라를 찾는 날에는 천년 만년 주인의 자리에서 법을 통해서 교육하고 체도를 통해서 교육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부처가 생기려면 법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중심삼은 체제를 만들어야 부처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체제가 없고 부처가 아직까지 없어요. 지금까지 법을 만들 수 없었어요. 사탄이 법을 알고 있으니까. 그 이상의 법을 행동하고 나서야 찾는 것입니다.

나라만 생기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 듣고 한 것이 아니에요. 실천하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 다리를 안 건너고 부정하는 사람은 다 걸리는 것입니다. 걸리게 된다면 전부 다 자기 멋대로 선생님이 거기에서….

이제 참부모가 구원섭리를 안 해요. 알겠어요? 4차 아담시대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줘서 완성한 가정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걸리 가지고 전부 다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그 가정들이야 법에 따라 사는 환경에 있어서 천태만상의 기준을 중심삼고 거기에 중앙과 방계 상대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법만 생겼어요.

이제 나라만 생겨 보라는 것입니다. 공산세계 이상으로 법을 지켜야 됩니다.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의 사진을 모시고 새빨간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최고로 모시지 않으면 모가지가 재깍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송병준! 「예.」 그 이상 해야 된다는 거야, 이 녀석아! 「예.」 「예」가 뭐야? 세월을 다 흘려 버리고.

책임을 일단 맡겼으면 선생님이 간섭을 안 해요.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에게 간섭 안 해요. ‘너, 이것 해라.’ 이러지 않아요. 내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이….

지금 낙원, 지옥까지 철폐한다는 말, 그것은 하나님이 생각도 못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서는 안 돼요. 생각하는 자체가 고통이에요. 알면서도 모르는 자리에 서야 되니 그 이상의 십자가가 없어요. 알겠어요?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기가 찬 일이에요?

선생님이 그렇지요. 20대에 이 뜻을 알고 천하가 다 무릎 앞에 굴복할 것이 사실인데,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한 거예요. 총생축헌납이라는 것은 선생님의 축복과 더불어 벌써 20대에, 성진이 어머니하고 결혼할

때, 그때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어떻게 믿어요? 누가 믿어 줘요? 기반이 없어요.

기독교 기반을 몇천만년 수고해 가지고 만든 것인데, 이 가인 아벨이 다 깨져 나갔는데 그걸 어떻게 말해요? 독재자보다 더 흉악한 녀석이라고 그러지요. 안 그래요? 천하를 전부 다 자기에게 바치라고 할 수 있어요? 상대권을 중심삼고 바쳐 올 수 있게끔 환경이 돼야 바치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타락한 세계를 마음대로 해서 하늘나라를 만든다는 말이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쌍하다는 말도 거짓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지 않고는 발표 못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유엔에 가서 발표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삼팔선, 남북통일을 위해서 누구보다 머리를 쓰고 그래 나왔어요. 대한민국에 대해 김일성이 행동한 모든 것을 중심삼고 언제든지 와서 방어선이 돼 준 것입니다. 그걸 안기부도 알아요. 지금은 안기부가 무슨 원이에요? 「국정원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참 신기하다고 그래요. 어려울 적마다 문총재가 나타나서 처리해 주고 갔다고 말이에요.

남북통일도 자기들끼리 안 돼요. 내가 ‘국경철폐’를 발표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완충지대. 어떤 천주교 목사는 국경지대에 세계적인 박물관을 만들고 평화공원을 만들자고... 이놈의 자식들! 사탄들이 그래요. 자기들이 유엔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아무리 천신만고 끝에 하더라도 일시에 유엔이 결재하면 하루 저녁에 다 없어져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유엔을 통해서 그 일을 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땅이 있어 가지고...

따라가기보다 앞서겠다고 해야 자리잡을 수 있어

지금도 교육하는 것에 대해 ‘뭐 자르던 40일수련을 받으라고 하더니 이것은 또 뭐야? 21일은 또 뭐야?’ 하면서 별의별 수작들을 다 하고

있어요. 입적할 때는 세계적 가정이에요. 세계적 가정을 한꺼번에 다 가져요? 40일에서 21일, 21일에서 3일의 고개를 넘어야 돼요. 그런 것을 알아요?

내가 축복을 해주는 이 기간에는 그것을 잊지 않고 매일 왔다 갔다 했어요. 열 시 40분에 여기 도착한 거예요. 거기에서 자면 얼마나 편 안해요? 피곤하지만 여기에 나왔어요. 여기 들어올 때는 비틀비틀했어요. 자고 일어나서는 또 이려고, 매일같이 계속해서 그러고 있어요. 이제는 가려면 가고, 안 가려면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괜찮아요. 지금 36가정 가운데서 중심 가정들이 이번에 들어오지요? 「예.」 같까요, 말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3일 고개를 넘어야 돼요, 3일 고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던 것이 3일 동안 다 돼서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3일을 지내고 부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일을 맞는 아침에 평준화된 것입니다.

그래, 전부 다 3수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화의 법이라는 것은 3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4점을 지내고 팔각형이 돼 가지고 구형이 되고 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놀음놀이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문제를 선생님이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자립해야 됩니다. 자립해 가지고 정착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예.」

서울 가는 고속도로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시장을 다 만들어 놓았어요.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기반이 돼 있어요. 따라가겠다는 사람들은 주인이 못 돼요. 그것을 따라가기보다는 앞서겠다고 해야 자리잡는 것입니다. 사탄세계의 그 누구보다도 앞서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3배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3시대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지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여자들을 지금까지 훈련을, 모진 훈련을 시켰어요. 열 아들이 있으면 자기 부모까지 열두 식구를 남편이 없더라도 신세 안

지고 홀로 끌고 가야 됩니다. 일본 나라가 탕감복귀해서 세계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교육문제, 교육문제에서 바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남미가 엉망진창이더구만.

원수 나라 사람끼리 교차결혼하면 평화의 세계가 돼

이제부터는 뭐냐 하면, 제4차 아담권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청소년, 청년 시대가 됩니다, 16세에서부터 34세까지. 예수님이 결혼 못하고 죽은 그 연령이 문제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미국에 간 것이 2004년이 되면 34년이예요. 예수님의 34세를 중심삼고 세계적 가정의 모든 것을 탕감하는 놀음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통일을 중심삼고 2004년까지 안 되면 잘라 버리는 것입니다. 한국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선생님이 유엔 기지를 중심삼고, 유엔의 상·하원을 중심삼고 세계적인 완충지대를 흡수해 가지고 원수와 원수끼리 전부 다 교차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어제 교차결혼이라는 말을 지시했지요? 「예.」 교차결혼을 해야 돼요. 교차결혼이예요. 가인 아벨이지요? 핏줄이 달라졌어요. 근본 핏줄을 잇기 위해서는 국경을 철폐해 놓고 원수들이 이마 맞대 가지고, 총칼을 빼들던 사람들이 사돈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화의 기지는 이론적 극복을 통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평화의 논리적 기준을 찾을 수 없어요.

결혼을 잘못해 가지고 그 둘 사이에 국경이 생겼지요? 자기 멋대로 해 가지고 말이에요. 자기들은 싫어하지만 법으로 강제로라도 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의 극이 뭐예요? 정착점이 뭐예요? 원수가 되어 서로 죽이려고 하던, 서로가 피스톨(pistol; 권총)을 겨눠 가지고 누가

먼저 쏘느냐에 따라 살아 남느냐 하던 그 사람들이 알고 보니 형제라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알고 보니 형제라는 거예요. 죽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이려고 하던 것 이상으로 품어야 돼요. 품고 사랑의 조건을 역사에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수 된 사람들이 결혼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유언을 통해서 ‘이렇게 해라, 너희들은 절대 싸워서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절대 싸워서 안 된다는 것은 뭘 하라는 얘기에요? 결혼하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시 혼시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앞장서면 나도 네 뒤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네가 천국 가면 나도 천국 가고, 네가 통일천하에 가거든 나도 통일천하에 따라간다.’ 그래 가지고 해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똑똑히 알라구요.

‘그래, 국경철폐를 해 가지고 어떻게 평화의 세계가 와?’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극복의 내용이 뭐예요? 알겠어요? 교차결혼해야 돼요. ‘교차결혼을 왜 또 유언을 해야 돼? 왜?’ 그래야 자기도 통일천하의 세계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도 해방을 해줘야 됩니다, 사탄까지도.

아담 해와는 구원섭리를 통해 해방해 주고 사탄은 죽여 버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천리의 법도와 같이 그것을 섬기고 모시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딸이 돼 가지고 하늘나라의 복을 받고, 상속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그 일을 하고 나서는 다 끝났기 때문에, 쓰러져 자고 일어나 도망가서 피곤해서 한 10년 후에도 나타나지 않고 숨어 살더라도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통일천하의 왕자 왕녀로서. 그거 이론적이에요. 이론이 맞아요, 안 맞아요?

결혼을 잘못해 가지고 가인 아벨이 원수 되어 국경이 생긴 인간이예요. 그러니 전부 다 뒤집어 박아야지요. 그래서 성인과 살인마를 같이 축복해 줘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옥과 천국을 개문했으니 지상·천상·천국, 지상의 지옥과 천상의 지옥, 죄의 보따리, 선조의 모든 죄, 모든 담을 다 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해원도 다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누가 반대할 도리가 없어요.

일족의 처녀 총각들을 강제로라도 축복받게 하라

국경을 철폐해 놓으면 어찌나? 원수들이 밤에 국경을 언제나 철갑이나 무슨 파이프로 막아 놓겠어요? 원수들이 있으면 칼을 들고 국경을 넘어 가지고 모가지를 잘라 버리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결혼한다고 해야 그것이 무풍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실제 행동할 때 사탄은 지구성에 붙어야 돼요. 거기까지 가려니 쉴 새가 있어요?

김 씨면 김 씨 여러분 동네에 자기 사촌이든가, 핏줄 중에 축복 안 받은 처녀 총각을 그냥 놓아둬서는 안 돼요. 잡아다가, 일족을 잡아다가 강제로 전부 다 후려갈겨 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게 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할 때 그 조상들이 택해 주는 상대가 아니예요. ‘네가 여기 열두 사람 가운데서 빼든가, 네 사람 가운데서 빼든가 찾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좋으면 조상을 원망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상대는 자기가 고르는 거예요. 열두 사람은 열두 지파를 대표한 사람이예요. 그 다음에 네 사람은 사위기대를 대표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를 중심삼고 사위기대 아니예요?

그래서 상대를 중심삼고 결혼하게 되면 사랑하다가 낙담하겠어요, 어떻겠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결혼해서 여자를 볼 때 생식기가 일어 서겠어요, 안 일어 서겠어요? 어때요? 안 일어설 것 같아요, 일어설 것

같아요? 「일어섭니다.」 왜, 어떻게? 나 혼자가 아니에요. 사돈의 팔촌, 천하가 공인했다는 것입니다. 일족이 기다리고 있는데, 7대 조상으로 부터 별려 놓은 일족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순응치 않으면, 그것이 안 일어나면 그것을 뽑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할 사람 있어요? 가정적 메시아를 중심삼고 종족의 7대가 규합하는 거예요. 그것을 대표해 가지고 180가정, 180가정이에요. 나라를 대표한 7대조가 세계 대표로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종족적 메시아... 그럴 수 있는 씨족이 둘만 나오면 종족적 메시아를 완성하기 때문에, 가인 아벨 핏줄이 달라진 평면적 횡적 기준을 전부 다 탕감해 세워 가지고 부모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셉 가정하고 사가랴 가정이 못 했어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풀 도리가 없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길이 둘일 것 같으면 사탄이 남아질 수 있는 길이 있겠어? 이 길밖에 없어요. 알싸, 모를싸? 「알겠습니다.」 이놈의 자식들!

혈통 문제, 공금 유용, 인사 조치의 3대 원칙에 걸리지 말라

지금까지 마음대로 살았지요? 이제는 마음대로 못 살아요. 선생님이 안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도와주면 되겠어요? 4차 아담권이라고 죽었던 조상들이 와서 몇천 대 된 후손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여기를 떠나게 되면 못 도와주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와 가지고 도와주는 것은 뭐냐? 절대 돈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효자의 도리를 하라는 거예요. 국가 재산을 약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혈통의 높낮이를 바꿔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난

것, 작년에 난 가지는 금년의 가지보다 형님이예요. 그걸 높여야 돼요. 질서를 문란시켜서는 안 돼요.

새로 나온 가지가 수십년 된 모든 가지를... 지금 세상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질서를 거꾸로 뒤 집어엮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사 조치예요. 사람 대우를 잘못하면... 이게 3대 법칙이예요.

혈통을 어떻게 더럽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불화하면 평화의 가정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나라의 충신, 가정에서의 효자, 어머니 아버지의 재산, 소유권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재산을, 소유권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금 활용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은 뭐라고요? 인사 조치! 아랫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해서 안 돼요. 선조로 보게 되면, 현재의 황선조보다도 선조가 훌륭한 사람이 여기에 들어와야 돼요. 이것이 고개가 돼 가지고 여기에 차있다구요. 여기 내려와 있어요. 자기가 높다고 해서 높은 것이 아니라구요. 이것이 사인 커브로 올라가야 할 텐데, 이것을 잘라 버리면 피해를 입히니만큼 선조들이 그 길을 따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인사 조치를 잘못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임자네들 인사 조치를 선생님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될 수 있는 대로 추천하려고 하지. 셋 이상 모여 가지고, 하나님을 중심삼고 셋 이상 그 앞에 두면 내가 벗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참소를 못 한다구요. '선생님은 누구 사정 봐 가지고 인사조치 한다.' 그러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

'앞으로 선생님 후계자를 세울 때 뭐 장자가 해야 된다.' 이라고 있

어요. 이런 미친 간나 자식들! 장자가 돼야 된다는 결정을 누가 해요? 장자가 타락해 가지고 거꾸로 병신이 됐는데도 해요? 애꾸가 된 왕을 세워야 되겠어요?

로마 교황청의 교황도 최후의 결정은 뭐냐? 생식기가 정상이나 하는 것을 검증하고야 교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알아요? 신학교 나왔는데, 그런 말 들어 봤어? 「예.」 벗겨 가지고 생식기가 정상이면 교황이 못 돼요. 눈 병신, 코 찡찡, 다리 병신한테 왕권을 전수해 주어야 되겠어요? 답변해 보라구요. 해줘야 되겠어요, 안 해줘야 되겠어요? 해주겠다면 반대해야 되겠어요, 환영해야 되겠어요? 「반대해야 됩니다.」 반대해야지요.

거기에 생식기가 병신이라면 어때요? 임자네는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의 교황도 그런데 하늘나라의 전통적인 주권을 이양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모든 면, 외면으로부터 내면을 봐 가지고, 사회에 남기는 환경도 국민 이상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면을 중심삼고, 그런 기준에서 평가해야 된다고요. 수평이 이렇게 됐는데 골짜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다 몰아쳐 가지고 쓸어 버리는 거예요. 그 따위 아들딸은 앞으로 3대도 안 가서 다 파 버리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대가리들이 썩어 가지고 이 간나 자식들... 미국의 그런 간나, 도적놈의 간나들이 생겨났어요. 뭐가 어떻고 어떻고... ‘우리가 택하는 사람이 선생님의 후계자다!’ 그러고 있어요. 똥개새끼들! 세상에 법이 있으면 그자...

무슨 모? 역모예요, 역모. 역모 중에 그런 역모가 없어요. 7족이 멸망을 당할 수 있는 패들이예요. 하늘나라의 법도를 통해서 7족이, 일족이, 일국이 멸망을 당할 수 있는 놀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고 있어요. 선생님이 허재비가 아니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갈 길이 흰해요. 보라구요. 탕감복귀 노정이에요.

참어머님을 참아버님 옆에 나란히 세워 하나님 모실 준비를 해야

지금 이번에 어머니들을 배치하는 것을 벌써 1960년에 얘기했어요, 1960년. 여자들을 3차 동원해야 된다는 말을 했어요. 처녀 총각들, 결혼하자마자, 그 다음에는 전체를 동원한다고 했습니다. 해외가 전체를 망쳤어요. 3시대의 조상을 죽여 버렸어요. 그걸 탕감하기 위해서는 최후에, 나라와 세계를 구할 때는 여자가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어머니도 지금 몇 년째예요? 1988년부터 지금까지 선생님이 중요한 연설을 아내에게... 세상에 자기 여편네를 시켜서 여편네에게 네임밸류를 달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가지고는 작년에는 표창까지 다 했지요? 그것 한번 읽어 보라구. 그것 읽어 봐.

『표창패- 세계평화여성연합 총재 한학자』

귀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귀섭리역사의 결실로 맺어진 본연의 하나님의 자녀이며, 인류의 참된 어머니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하늘만이 기억하시는 가운데 탕감복귀의 고난의 노정을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으로 승리하여 영원한 전통을 세우셨습니다.

1960년 성혼하신 후 하늘 앞에 참된 자녀의 사명, 남편 앞에 참된 부인의 사명, 그리고 자녀 앞에 참된 부모의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귀섭리와 참부모님의 복귀 성업이 영계와 육계에서 승리적으로 마무리되는 1999년 참가정 세계화 전진대회를 통해 세계 80곳에서 참부모께서 전수하는 생애의 교본을 만민에게 전수하셨습니다. 본인은 창조 본연의 아담이요, 인류의 참된 아버지로서, 귀하의 노고와 업적을 치하하고 하늘 앞에 감사드리며, 영계와 육계와 후손들에게 그 치적을 기리고자 본 패를 드립니다.

1999년 6월 14일, 음력 5월 1일 제37회 참만물의 날, 세계평화통

일가정연합, 세계평화초종교초국가연합 창시자 문선명』(박수)

그래 가지고 뒤에 따라다니던 어머니를 옆에 세워 가지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인사를 드릴 때가 와요. 나라를 정비해야 될 때가 오면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고개를 못 넘어요. 결판을 지을 수 없어요.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그렇지요?

삼시대 대전환 사위기대 입적 통일축복식이 가능했던 이유

그래, 아버지가 지상세계에서 이룬 것을 흥진 군이 상속받는 것입니다. 저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중심삼고는 부자지관계이지만 형제관계도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예요. 옛날 조상도 하나님 아버지이고, 후손도 마찬가지로요.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 형제 지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형제지간이고, 지상에서는, 종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 대신 부자지관계가 연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세계로 뻗어 가잖아요? 중앙으로 볼 때 가정이상을 중심삼고 전부 연결돼야 된다고요. 저 위로 연결돼서 뻗어 나가 낮아져 가지고 세계 끝까지 삼각대가 돼요.

이 세계의 좌익과 우익을 전부 다 수습해 가지고 세계시대로부터, 국가시대로부터 전부 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가정시대, 아담 해와 가정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의 자리에 가서 이것을 전부 다 부모... 이것이 가정맹세 2번이에요. 참부모를 중심삼고 대표적 가정, 중심적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중심적 가정이에요. 중심이라구요. 개인적 중심, 가정적 중심. 천주적 중심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가 딱 되는 거예요.

여기도 횡적인 면에서 부자지관계가 있어야 돼요. 종(縱)이 있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나라라든가 부자지 관계, 부자 사위기대가 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와서 이 기준에 올라야 돼요. 이것을 맞추어 가지고 여기 오기 위해서는 이걸 잘라 버리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 가지고 이 각도에 해당하는 탕감은 언제나 있어요. 또 여기서부터 잘라 버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탕감이 없으면 못 올라가는 것입니다. 평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못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세계에서부터 내려가는 거예요. 세계로 퍼뜨려 놓았지요? 그렇게 되면 국가시대로부터... 더 작다구요. 가정에 가까울수록 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계대를 잇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아들딸을 중심삼고 여기 부모님이 선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래, 입적시대에 대등한 가치를 주려니 천상세계와 지상세계가 가인과 아벨로 갈라졌던 것을 통일시켜 놓은 동시에 지상에서 부자지관계도 통일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제의 삼시대 사위기대의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식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가정에서 종족민족국가, 이렇게 돼야 할 것을 선생님이 가정-종족민족국가에서 정상까지 다 갔으니 세계를 중심삼고 엮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계대가 없어요. 아담의 계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입적한 가운데 영계와 육계가 통일된 자리에서 종교권 문화 배경의 어떠한 권을 중심삼고, 그 기준을 중심삼고 최후에는 선생님이 추첨을 해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면 최후의 결정은 하나님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을 수 있게끔 정착해야지, 선생님 마음대로 결정하면 돼요? 최고의 사랑, 최후의 사랑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3대에서부터 천상 지상의 통일권이 출발해

혈통적 인연을 맺었다는 것은 뭐예요? 아담 해와의 성상 형상에 들

어가서 결혼 첫날에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예요. 영계를 중심삼고 종적인 기준에서부터 돌아가야 되는데, 상대적 입장에 있는, 상대되는 아담 해와는 동서남북으로 돌 수 있지만, 종적 기준은 돌 수 없습니다.

그러한 뼈와 같은 사랑을 하나님이 아담 해와의 몸 가운데 들어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가 합덕하고, 동서가 합덕하고, 상하가 합덕하고, 전후가 합덕하는 통일적인 자리가 벌어지고, 거기에서 아들딸만 낳게 되면 하나님의 가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3대권을 못 가졌어요. 하나님이 아담 해와가 하나돼 가지고 해와의 복중에 임신된 아기를 품고 사랑을 못 해봤다는 것입니다. 해와의 복중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딸, 아담 해와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지요? 핏줄에 있어서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중으로 돼 있어요, 이중으로. 왜 이중으로 돼 있느냐? 두 세계 아버지의 상대가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세계의 상대 되는 사랑의 출발점이에요. 결착점이 어디냐? 그것은 생식기예요. 한 남자 여자의 오목 볼록이 합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랑의 폭발이 벌어져요. 생명의 폭발, 혈통의 폭발이 일어나요. 알겠어요?

비로소 사랑의 3대 폭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의 폭발입니다.」 생명의 폭발이에요. 새로운 씨가 된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폭발, 그 다음에는 뭐예요? 혈통의 폭발이 벌어져요. 제3 시대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의 근본, 그 다음에는 아담의 씨의 근본, 그 다음에는 아담의 아들이 하나님과 아담이 합한 씨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는 하나님의 사랑, 할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3대에서부터 지상 천상의 통일권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이론적이라구요. 그것을

때 놓고 해먹겠다면 도둑놈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자는 할아버지도 사랑하고, 아버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할아버지예요. 선생님도 그래요. 아들딸을 낳을 때는 바빠 가지고 집에 가게 되면 아기들이 자는 데 가서 얼굴에 키스나 해주고 나왔지만, 할아버지가 돼 보니까 손자가 어디서 돌아올 적부터 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지내 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자는 두 사랑을 받는 거예요.

무서운 4차 아담권시대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영계를 상속받는 것이요, 지상의 왕인 아담의 사랑, 지상 왕권의 사랑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두 사랑을 받기 때문에 천지의 통일된 주인의 자리가 3대에서부터 벌어지는 것입니다, 3대, 4대에서부터. 4차 아담시대가 이 4대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소생·장성을 거쳐 4차권과 딱 맞다는 것입니다. 횡적으로도 4차와 맞아요.

그래, 4차 아담권시대가 그러한 아담의 손자, 4대가 벌어진 집으로 말미암아 한 집안에서 4대가 사는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그 다음에는 뭐예요? 증조할아버지. 4대가 한 집에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론적이예요. 세상을 모르고 살았지요. 하기는 모르는 것이 편했는지 모르지요. 이제는 몰라서 안 돼요. 부모님 대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4차 아담권이 말만이 아니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나라의 법을 절대 지켜야 됩니다. 나라의 법을 지키고, 또 뭐예요? 왕권이 교체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옥새인지 무엇인지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예.」 옥새를 누가 전수 받느냐? 여러분은 옥새를 위임받은 패들이예요.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해요, 심각하지 않아요? 「심각합니다.」

그러한 중대한 문제를 두고 축복가정 여자들을 내세우는데, 여자들에게 지지 않게끔... 이번에 국가 메시아들에게 무슨 책임을 줬어요? 뭐예요? 연합 뭐라고요? 「연합회장입니다.」 연합회장이예요? 연합회장인데 여자들한테 저서는 안 됩니다. 안 하면 여자가 낚아채 가지고 밤에 자고 있는 연합회장 목덜미를... 이번에 배치된 사람들은 특권을 가져요. (녹음이 잠시 중단됨)

어머님을 여왕으로 모셔야 되고, 할머니로 모셔야 되고, 어머니로 모셔야 되고, 형수로 모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자기 딸이 왕과 같으면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렇게 모시지 않고는 천사장권이 거꾸로 벗어질 수 없습니다. 천사장 세계, 남자세계의 왕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필요한 것이 나라예요. 뒤집어 박을 때 나라에서 뒤집어 박았으면 나라에서 바로잡아야지요? 거기에서 뒤집어 박아야지, 다른 데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절대 필요합니다. 알겠어요? 「예.」

아무도 안 하는 것을 우리는 해야

임자들은 서울에 있는 패들이예요? 「예. 서울 북부권 목회자들입니다.」 황선조! 황선조는 ‘누를 황(黃)’ 자가 되지 말라구. ‘누를 황(黃)’ 자는 노랭이를 말하잖아? 까딱하면 건달패가 되기 쉬워. 전라도 패 끼리끼리. 얼렁뚱땅 해먹거든, 노랭이 패들이. 지나친 복을 받겠다고 하기가 쉬워. 꼭대기하고 대판 싸움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하든가 하라구. 알겠어? 「예.」 전라도 사람을 좋아해서는 안 되는 거야.

전라도 사람은 누렁이가 됐으니 주인이 아니예요. 전라도 별판의 곡식을 따 갈 수 있는 주인은 전라도 사람이 아니예요. 상대세계, 경상도라는 것입니다. 경상도 별판에 익은 곡식을 따 가는 것은 전라도라는

것입니다. 원수예요, 원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원수지요? 당리를 위한 원수지요? 자기들끼리 해먹겠다고?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서울 패, 경기도 패, 충청도 패, 이북 패를 하나 만들라고 송병준을 세웠는데, 저 녀석 정신이 돌았어요. 전라도 당이 있고 경상도 당이 있는데, 왜 남북통일당은 없어요? 그 이상의 당을 왜 안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전라도당 당원이 될 거예요, 경상도당 당원이 될 거예요? 정신 나간 녀석은 서울당, 그 다음에는 이북당, 그 다음에는 충청도당, 전라도하고 경상도를 빼놓고 연합당을 만들 수 있는 놀음을 왜 안 해요? 알겠어요? 안 하니까 40일 이내에 다 끝내 버려야 돼요, 우리는. 내 말 알겠어요?

4년 이내, 40일 이내에 아무것도 없이 간판을 붙이고 40일 이내에 다 해결 지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놀음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40년이라고 했어요, 40일이라고 했어요? 「40일입니다.」 40일이라는 거예요. 40일을 중심삼고 육계에서 영계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40일 만에 부활했어요. 상헌 씨도 그런 얘기를 하지요? 중간에 왔다가 40일 동안에 보따리 싸가지고 이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차리라구, 이놈의 자식들아! 대가리통, 골통에 된장 목사발을 갖다 넣어서야 되겠어? 알았으면 아는 대로 해야지. 자기 여편네가 뭐고, 아들딸이 뭐고, 일가 일족이 무슨 문제야, 지금? 이놈의 자식들, 전부 다 앞으로 문제가 벌어져.

군대의 장성이라도, 국방장관이라도 법에 걸리면 전부 다 재심해 가지고 심판받는 것을 몰라요? 법을 세워 놓고는 엄격히 해야 돼요. 공산당세계, 세계에서 제일 흉악한 법이 있더라도 그 법 기준도 우리는 무난히 넘어가야 됩니다. 안 넘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년을 대신해서 일년에 탕감해야 된다고요. 40년을 대신해서는 40개월, 40주로 탕감하는 것입니다. 탕감하고야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냥은 못

넘어가요.

천리에 걸리면 무자비하게 처리하는 시대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데, 자기 자신이 형장에 들어가서 교수대를 자기가 쓰고 대에 올라가서 스위치를 눌러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놀음까지도 할지 몰라요. 제일 무서운 고개를 넘어가야만, 사탄이 그 앞에 엎드려 가지고 용서해 달라고 빌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가야만 모든 것이 청산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선생님을 우습게 알지 말라구요. 그런 법을 세워야 할 책임을 지고 있어요.

선생님 눈을 보라구요. 코를 보라구요. 누구 말을 듣게 안 돼 있어요. 무자비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면 무슨 짐승을 잡더라도 칼로 헤쳐 가지고 파이프를 심장에 꽂아 피를 빨아먹어요. 그런 훈련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까지도... 여러분의 아들딸은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 훈련을 한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예,」 그래 가지고 한 쌍을 다 하고 나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냥이 끝나는 거예요.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무자비한 거예요. 피 흘려 가지고 살지요? 악어들은 잡혀 가지고... 요즘에 그래요. 시라이언(sealion;강치) 같은 것을 잡아 피를 흘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잡아 가지고 무자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대신해서 죄악을 처단하는 조건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놀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탕감이에요, 탕감.

뭐 이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지만, 해줘야 되겠다구요. 선생님 말씀이니 이것도 기록으로 남을 거라구요. 녹음하지? 「예,」 다 가르쳐 주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하늘나라 사람의 눈을 빼고 별의별 짓을 다 한 거예요. 그

이상 할 수 있다는 조건이라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리가 바로잡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걸려들지 말라는 거야, 이놈의 간나 자식들!

이번에 그 배후, 영계에서부터 어떻다는 것을 전부 다 정리해 봤어요. 여러분이 모르면 전부 다 배워야 돼요. 이걸 누구한테 얘기 안 하지만, 언젠가는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민족적이요 국가적입니다. 개인적 시대가 아니에요. 국가시대로 범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만약에 재판관을 하게 되면 공산당처럼 공개재판을 해야 됩니다. 시민재판이라고 그러냐요, 뭐라고 그러냐요? 「인민재판입니다.」 인민재판!

어제 하던 것은 끝났나? 「예.」 이런 얘길 하다가는 내가... 영계의 상헌 씨 대신 내가 설명하는구만.

이제는 청년이 앞에 서야 할 때

여러분은 선생님을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저런 것을 다 알꼬?’ 하고 말이에요. (웃음) 모르는 것이 없지요? 농촌에 가면 농촌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 됩니다. 또 어촌에 가면 어촌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태어난 사람 같이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계가 청맹과니의 눈에도 밝아 오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됐다고요. 그렇지요? 이제 유엔이 걸려드는 것입니다. 8일이면 유엔의 경제사회이사회 의장이 와요. 위비소노라는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난 다긴다하는 사람들, 야당 여당 당수들도 만날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지요. 그래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유엔의 이름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것을 유엔의 이름이 아니라 선생님의 이름을 가지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유엔 이름 대신. 알겠어

요? 돌아가자마자 공문 내 가지고 세계적으로 185개국의 야당 여당의 정상들을 불러다가 교육할 수 있는 놀음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세를 안 지더라도, 여러분이 여기서 못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조국광복의 길을 열겠다는 거예요.

그래, 한국이 빠져야 되겠어요, 일등을 해야 되겠어요? 「일등 해야 됩니다.」 내가 김봉태를 중심삼고 타프(TARP; 전국교사원리연구회) 하프(HARP; 전국중고등학교원리연구회)로부터 만들어 가지고... 그거 만든 지 4년 됐나? 그 기간에 모든 중고등학교, 학교로부터 학부형까지 일방통행의 방향을 정해 버렸어요, 4년 기간에.

카프(CARP; 전국대학원리연구회), 너 알겠나? 「예.」 너희 둘이 가인 아벨이야. 하나돼야 돼. 하나돼 가지고, 황선조가 앞에 서던 것에서 제일 뒤에 서는 거야. 「예.」 전부 다 의논해서 해야 돼. 12세 이상에서 24세까지예요. 그 다음에는 전부 결혼한 패들이예요. 그래서 48세, 2배예요. 요전에 48세까지로 정했지, 청년? 「예.」 그랬나, 안 그랬나? 「그랬습니다.」 왜 그랬느냐? 48세까지는 결혼해도 청년이에요.

그래, 48세까지 소학교로부터 대학교, 사회를 거쳐 자기 부처까지 관계돼 있는 사람은 다 포섭하라는 것입니다. 부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법으로 제재해 가지고 축복시킬 때가 왔어요. 그럴 때가 왔어요.

그럴 수 있는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제부터는 선생님이 결혼해 주지 않아야 돼요. 한 3년간, 4년간에 새로운 전통을 세워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하루에 안 돼요. 3년, 4년 전통을 세워야 돼요, 동서남북으로. 그래서 서둘러 가지고 이 놀음을 하는 것입니다.

4차 아담권시대에는 복귀의 책임을 자녀들이 해야

제4차 아담권 내에서는 복귀의 책임을 부모님이 할 것이 아니예요.

벗어나 가지고 아랫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자가 되고, 아버지가 아들이 되고, 형님이 동생이 되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으로 보면, 선생님이 타락한 세상에 있어서 탕감법을 중심삼고 제일 마지막 사람이예요. 안 그래요? 타락한 세계로 보게 되면 맨 막내라는 것입니다. 복귀세계로는 장자예요. 거꾸로예요. 장자권 복귀, 부모권 복귀, 왕권 복귀를 이룬 맨 첫째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8월 추석날에는... 얼마나 조상들이 자기들을 모셔 주기를 바라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한번 모셔 준 것입니다. 잔치를 해줬어요, 8월 15일(음력)에. 지옥에 간 모든 영들도 이제 방향을 갖추어 가지고 내 말을 듣고 전부 깨어나서 참부모님을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하라는 말을 듣고 참부모의 이름을 가지고 줄 타고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래, 평준화될 수 있는 것을 비로소... 뭐예요? 2000년 뭐예요? 「총해원 추석입니다.」 그래요.

조상에 대해서도 그래요. 이미 다 그렇잖아요? 조상들을 축복도 해주지만, 저나라에 가서 조상이 없어 가지고 혼자 죽어 간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요? 그런 사람의 종자를 전부 다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다 열어 줘야 돼요. 청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먹구구로 해 가지고 돼요?

그래서 여기 한국 꽤, 선조도 올라오고, 청평에서도 와야 돼요. 현재 한국을 중심삼고... 선생님도 한국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한국 사람들을 오라고 한 거예요. 갑자기 왔지, 사흘 이내에? 「예. 오전에 전화 받고 오후에 떠났습니다.」 (웃음) 사흘 이내예요.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로예요. 후다닥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놀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이 축복도 다 거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10월은 통일 교회에 해방의 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지키려고

그랬어요, 본래는. 개천절이 있고, 1차, 2차 축복이라는 새로운 면도 있어서 선생님이 한국에 있어야 되겠기에, 한국의 분위기가 흥진 군이 하더라도 상대적 기준에서 한국을 대해 줌으로 말미암아 세계와 연결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게 끝날 때까지 여기에 있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일만 되면, 26일이 되면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원리 원칙에 맞는 예법을 지켜야

유엔에서 손님, 그 양반이 지금 8일에 오는데, 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초청했어요. 곽정환이가 초청한 게 아니에요. 내 이름 가지고, 내 이름을 빌려 가지고 초청한 것이기 때문에 있으면 만나 줘야 된다고요. 내가 여기에 있으면 곽정환이는 책임자로 앞으로 가까워지는 데 급이 가는 거예요.

앞으로 유엔의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러 찾아올 텐데 누구는 만나 주고 누구는 안 만나 줄 수 없어요. 한국에 다 와 보겠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누구는 와서 만나 주고, 자기들은 안 만나 주면 불평한다구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안 만나 주면 자기들 둘이 가까이할 수 있어요. 자기들 둘이 합해 가지고 선생님에게 부탁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팎의 가인 아벨이 수습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본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에 와 있으면서 정식으로 내가 초청했으니 만나 줘야 됩니다. 둘이 일 잘하라고 말이에요.

그래, 사회에서 살아가는 예법이 있어요. 예법도 자기들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리 원칙에 맞을 수 있는 예법을 지켜 나가야 됩니다. 선과 후가 거꾸로 돼 버리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비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청한 사람이 있으면서 안 만나 주면 안 돼요. 유엔의 일도 맡겨야 되고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해야 돼. '선생님이 여기에 와 계시지만 만나고 싶으면 나한테 맡겼으니까 여기에 와서 여기 끝날 때까지 있다가 우리 둘이 가서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될 거라구.

대한민국의 과장도 나를 안 찾아왔어요. 일본에 가서 있으면서도 정부를 찾아가지 않아요. 자기들이 부르면 환영했기 때문에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되지만 찾아가지 않았습시다. 미국에 가서도 그래요. 누구 부처장을 만나 본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찾아오면 만나 주지만 말이에요. 내가 여기 김대통령도 가서 만나면 만날 수 있지만 안 만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위신도 있고, 하나님의 체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을 대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은 새끼들 같으니까, 길러야 되니까 대해 주지만 말이에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내면적인 권한을 가지고 한 번도 행사 못 한 하나님, 선생님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자식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린 하나님이니 여러분이 나라를 찾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선생님 아들과 마찬가지로입니다.

4대 성인이 선생님의 제자라고 하니까 야단들을 했어요. 가 보라는 거예요, 제자인가, 아닌가. 제자가 뭐야? 자식들인데. 제자들은 죽을 자리에서는 도망가는 것입니다. 자식은 죽을 자리에서도 도망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4차 아담권시대에는 국제결혼을 시켜야

한국 법이 무서운 것이, 부모가 역모에 걸리면 7족하고 어미 아버지 떼거리가 죽어 나가는 거예요. 핏줄이 그래요. 자르게 될 때는 혼자 못 잘라요. 남자를 자르게 될 때는 핏줄의 근본을 잘라야지요? 여편네로부터 아들들... 독재세계는 다 그렇게 정리해 나왔어요. 후계자가 생겨

서 파괴될까 봐. 그런 것을 다 알고 이제는... 뭐 다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에게 자기 사랑하는 아들딸, 7대 손을 가진 할머니가 있다면 7대국을 넘어서 8대국을 찾기 위해서 그 할머니를 시집 보내야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눠 줘야 돼요. 씨를 다 받고 그랬으면 나눠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생님도 3대까지는, 아들딸을 중심하고 3대 되는 아들딸까지는 국제결혼 못 해요. 그 이후에는 전부 마찬가지로입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결혼하는 선생님이나 여러분은 전부 다 4대권 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해야 돼요. 그것이 세계로 빨리 번식하고 확장하는 전략이에요. 알겠어요? 「예.」 그래, 새로이 그 나라에 가서 심는 것입니다, 씨를 받아다가.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전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안타까워 가지고 그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제는 자기들끼리 국제결혼, 교차결혼이에요, 원수들끼리. 흑인과 백인이 원수예요. 인종차별하는 모두를 엮으면 평화세계가 돼요. 이렇게 되면 법을 통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통일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래요. 동네의 제일 원수의 딸을 며느리 삼고, 원수의 아들을 사위 삼아 가지고 진짜 자기 아들딸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선생님의 원리 말씀에 그렇게 돼 있지요? 자기 아들딸보다도, 자기 일족보다도 가인을 사랑하지 않고는 돌아와서 아벨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사탄은 찬스예요. 40년간이 찬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아들딸을 있는 힘을 다해 가지고 파탄시키려고 했어요. 이제 효진 이도 40세가 넘게 됐어요. 만 40세가 되려면 내년까지 돼야 돼요. 알겠어요? 「예.」

3대 천법을 지켜라

내가 병신이나 병신이 아니냐를 생각해야 돼요. 순결의 핏줄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거예요. 그러려면 나라에 이익이 돼야 돼요. 국가 재산을 약취하고, 회사나 공공물을 벌레 먹는 패가 돼서는 안 돼요. 플러스해야 되는 거예요. 거름을 줘야 돼요.

선생님도 그래요. 미국에 가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돈 벌어 가지고 살겠다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아요. 돈을 투입해요, 빼까지.

그래, 이것이 3대 요소예요. 혈통, 핏줄을 더럽히는 것, 그 다음에는 뭐예요? 국가 재산, 세계 공공물을 더럽히는 것,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인간, 인맥을, 사람을 무시하는 것, 이것이 3대 천법이에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윗사람은 윗사람, 아랫사람은 아랫사람 도리에 맞게끔 자기 설자리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 앉고 설 수 있는 자리나 찾을 줄 아나?’ 그런 말 하잖아요? 윗사람들을 전부 다 섬길 줄 알고, 환경을 가려 갈 줄 알아야 돼요. ‘바를 정(正)’이라는 것은 허락되지 않아요.

세상 공산당의 독재 하에 있는 그것까지도 내가 전부 다 살려 줘야 됩니다. 김정일이 지금 곤란할 거라구요. 국경을 철폐하자는데 말이예요. 그것 가지고, 우라늄을 가지고 원자포를 만들었다고 해서 중국과 소련의 견제를 받잖아요?

그거, 절이 다 끝났어? 「예,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기도하자구. (황선조 회장 기도 후 마침) *

文鮮明先生말씀選集 <第333卷>

印刷 2003年 12月 20日
發行 2003年 12月 30日
編者 文鮮明先生말씀編纂委員會
發行者 黃 善 祚
發行所 (株) 成 和 出 版 社
住所 서울 용산구 청파동 1가 172 - 1
電話番號 715-3894 ~ 6, 701-0110(청파서점)
FAX番號 701-1991
登錄番號 제3-98호
登錄日 1961年 5月 20日
